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공병호 지음

**American missionaries**  
그들이 걸어간 길에서  
희망이 시작되었다

정동 시병원 | 고려대 의과대학 | 정동제일교회 | 세브란스 종합병원 | 대구 동산의료원 | 이화여대  
로고 | 보구여관 | 제중원 | 3·1 독립운동 | 그리스도신문 | 신약전서 |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 숭실대학교 | 순천기독진료소 | 연세대 아펜젤러관 | 평양 숭실대학 | 배화학당 | 구약전서 | 배제학  
당 | 조선크리스도인회보 | 거제포로수용소 예배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 이화학당 | 정동병원

## 공병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일본 나고야대학교 객원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와 자유경제원의 초대 원장을 지냈다. 현재 공병호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전방위적 지식과 높은 탐구 의식을 기반으로 자기계발, 기업가 연구, 기업홍망사, 사회평론, 서양고전, 성경, 탈무드 등 다양한 주제로 집필 영역을 확장하면서 열정적인 저작과 강연 활동을 해온 저자는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해왔다.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와 그 적들』로 3년 연속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재철 평전』, 『이용만 평전』 등으로 인물 평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최근작은 『무기가 되는 독서』, 『불안한 평화』, 『크리스천의 자기경영』, 『다시 쓰는 자기경영노트』 등이 있다.

공병호연구소 [www.gong.co.kr](http://www.gong.co.kr)

블로그 [blog.naver.com/gong0453](http://blog.naver.com/gong0453)

페이스북 [fb.com/gongpenpage](http://fb.com/gongpenpage)

이메일 [gong@gong.co.kr](mailto:gong@go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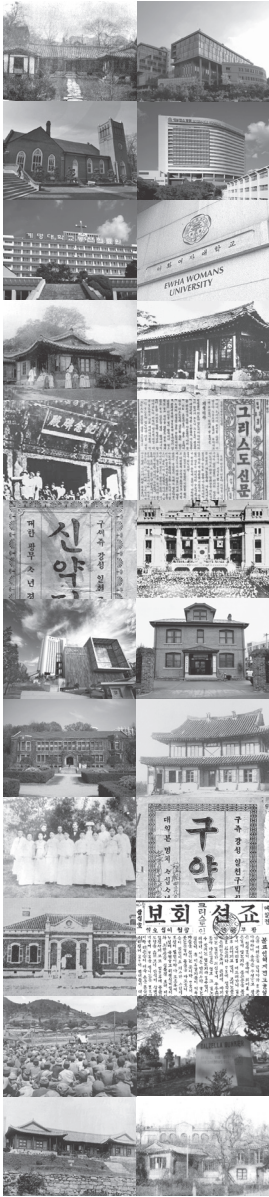
이름 없이  
빛도 없이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공병호 지음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일은  
지성(知性)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행운(幸運)이었고  
영성(靈性)으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恩惠)였다

## 기억하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과거는 현재를 보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월이 흐르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개인과 공동체는 망각과 불평과 부패라는 질환을 앓게 된다.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이따금 이 나라를 두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할 정도로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 말엽과 구한말의 암울함, 해방 정국의 혼란스러움과 가난함,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어이 세계



수출 대국 6위까지 올라섰다. 유엔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는 192개국이고 여기에다 바티칸, 팔레스타인, 타이완을 포함하면 195개국이나 된다. 이 가운데 이만한 성취를 이뤘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핵 위기는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장기 침체가 낳은 저성장과, 내부 혁신의 부족이 빚은 고비용 구조 때문에 역동적인 사회에서 무기력한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 성장률을 웃도는 지출이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은 탓에 사려 깊은 사람들을 걱정시킨다. 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율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민간이 짊어지는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빚 탕감은 ‘그냥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만연시키고 있다. 격차 확대를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체제도 변질시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수의 표로 움직이는 민주주의 체제는 실제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선택으로부터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결정되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민주주의(포폴리즘)의 위협에 취약하다.

필자는 1960년대에 남도의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흐릿한 영사기를 돌리듯 이따금 가난했던 소년기의 기억들을 되살리곤 한다. 작은 어장을 했던 아버지를 둔 덕택에 삶이 고단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촌의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성장해왔다. 직업상 1940년대부터 1970년대의 자료들을 즐겨볼 수밖에 없어서 직접 그 시절을 체험했던 사람들만큼 생생하게 그 시

절이 어떠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게 되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역사학계 내부에는 한국이 걸어온 길에 대해 의외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말이다. 연구자들의 이 같은 역사 인식은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전달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둡고 칙칙한 역사로 단정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어떤 역사학계의 연구자들은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스스로 잘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아닌 가정에 바탕을 둔,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기 전에 이미 자주적 근대화가 자생적으로 이뤄져가고 있었다는 이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 오지나 다름없었던 나라

필자의 역사관은 2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는 발전하면서 우여곡절을 경험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계속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역사로 이뤄진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역사로 구성된다. 또 하나는 모든 문명은 고립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명과 끊임없는 접촉과 상호 관계를 통해서 발전해간다. 어떤 문명이 단기적으로 가혹한 경험일지 모르지만 이질적인 문명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역사 발전은 교환의 역사이자, 교류의 역사이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역과 자유와 개방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사학자가 아니지만 이 시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책무감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험벗고 가난하던 시절에 태평양을 건너와 이 나라의 개화와 근대화, 문명화와 선진화에 기여했던 일군의 인물들을 다룰 예정이다.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과 흔적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보기 위함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방법과 교훈을 줄 것이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들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진행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본 다음 그들이 남긴 유산과 교훈을 탐구할 것이다.

미국 북장로교 파송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이 땅을 밟은 것은 1884년 일이다. 1884년부터 선교사 내한 100주년이 되는 1983년까지 이 땅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3,000여 명 정도다. 특히 구한말 1884년부터 해방까지 1,063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다. 참고로 대다수 선교사는 일제의 신사참배로 1940년이 되기 전에 이 땅을 떠났다. 같은 기간에 미국 선교사는 80%를 넘었고 나머지 20%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들이었다. 이 수치는 인도나 중국,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 수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작은

겨자씨에 불과했던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 7개 부분으로 구성

따라서 이 책은 주로 전기(1884~해방 이전) 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와 후기(해방 이후~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를 다룬다. 미국 선교사들의 우리나라 진출, 선교 활동, 유산과 교훈을 중심으로 파헤쳐볼 것이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선교사들이 내한하는 전후 한국의 정치·경제와 일반 국민의 상황을 소개한다. 2장은 선교사 파송국인 미국의 19세기 말의 정치·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당시의 미국 교계와 교단 상황을 정리한다. 3장은 한반도에 개신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전래되었는지, 어떻게 미국 선교사들을 파송했는지 다룬다. 4장은 선교사 파송을 적극 지원했던 주요 후원자들과 기여자들을 살펴볼 것이다. 프레더릭 마킨드, 다니엘 맥윌리엄스, 존 토머스 언더우드, 존 가우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허람 캠프 등은 업적이나 기여에 비해 그동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5장은 초기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대표 인물 20명과 초기의 순교자들을, 6장은 후기 미국 선교사 8명의 인생 역정과 활동 상황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이들 외에도 더 다루고 싶었던 선교사들은 지면 사정이 있어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의 일생을 기록으로 남길 만큼 가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훌륭한 선교사들도 많았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마지막 7장은 '유산과 교훈'이란 제목 아래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15가지로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다.

우리의 과거사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선교사들에게서 도움 받은 이야기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누군가의 희생이나 헌신 없는 오늘과 미래는 없다는 점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의무보다는 권리를, 책임보다는 혜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 가져야 하는 것을, 내일보다는 오늘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란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빛도 영광도 대가도 없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다. 오지나 다름없었던 이 땅에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까지 바쳤던 선교사들의 삶에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삶에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 부유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들이 전 세계에 더 큰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시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병호

머리말\_기억하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다 6

## 1장

### 19세기의 한반도

01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 20

02 쇄국과 개화의 충돌 34

03 가난과 혼란의 도가니 조선 58

## 2장

### 19세기 말의 미국과 개신교

01 19세기의 미국 78

02 19세기의 미국 개신교 89

03 미국 개신교의 선교 열기 100

## 3장

### 한반도 선교의 내력

01 기독교의 전래 124

02 개신교 전래와 미국 선교사 140

## 원자들

- 01 프레더릭 마쿰드(1799~1882) 154
- 02 다니엘 윌킨 맥윌리엄스(1837~1919) 158
- 03 존 토머스 언더우드(1857~1937) 167
- 04 존 프랭클린 가우처(1845~1922) 173
- 05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1838~1913) 180
- 06 히람 캠프(1811~1893) 186

## 5장

### 초기 미국 선교사들

- 01 호레이스 뉴턴 알렌(1858~1932) 194
- 02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1859~1916) 200
- 03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1858~1902) 207
- 04 메리 플레처 스크랜턴(1832~1909) 213
- 05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1856~1922) 219
- 06 애니 엘러스 번커(1860~1938) 227
- 07 존 윌리엄 헤론(1856~1890) 232
- 08 호머 베자릴 힐버트(1863~1949) 238
- 09 릴리어스 스티링 호턴(1851~1921) 244
- 10 새뮤얼 오스틴 모팻(1864~1939) 252
- 11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 261
- 12 윌리엄 마르티네 베어드(1862~1931) 268
- 13 새뮤얼 포어맨 무어(1860~1906) 273
- 14 그레이엄 리(1861~1916) 280

15 윌리  
엄 리엔  
더 스왈

른(1859-1954) 288

16 제임스 에드워드 애덤스(1867-1929) 294

17 조세핀 이튼 필 캠벨(1853-1920) 298

18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1880-1934) 302

19 휘트먼 티로슨 리드(1883-1954)

클라렌스 프레더릭 리드(1849-1915) 307

20 셔우드 홀(1893-1991) 313

21 초기 순교자들 318

22 못다 한 이야기들 328

## 6장

### 후기 미국 선교사들

01 아이작 포스터(1925-2010) 336

02 어니스트 와이스(1908-1984) 340

03 존 로손 시블리(1926-2012) 344

04 호레이스 호턴 언더우드(1890-1951) 349

05 로버트 윌러드 피어스(1914-1978) 353

06 에버렛 스완슨(1913-1965) 359

07 칼 웨슬리 주디(1918-2008)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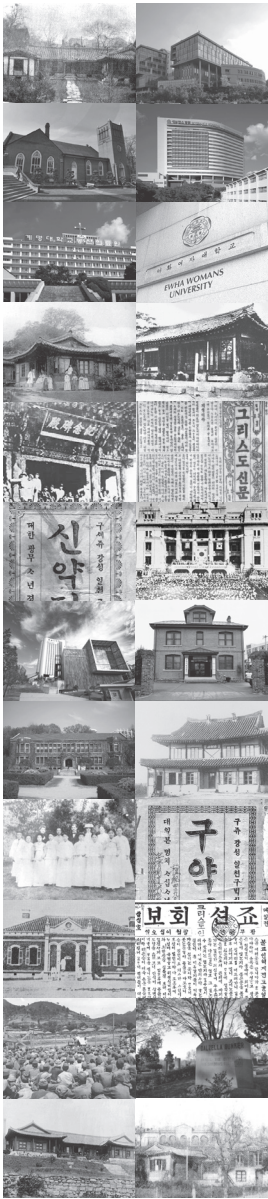
08 케네스 엘머 보이어(1930-) 370



훈

- 01 영적인 선물 378
  - 02 가난과 질곡으로부터 안식 381
  - 03 자각하는 개인 385
  - 04 신분제 계급의 해체 388
  - 05 민족의식의 고양 391
  - 06 건국의 초석과 정체성 394
  - 07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 육성 398
  - 08 미국과의 긴밀한 연결 고리 401
  - 09 근대 시민 국가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확산 404
  - 10 근대적 교육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 407
  - 11 서양 의료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 410
  - 12 소외된 자에 대한 박애 정신 413
  - 13 문명화의 탈피 416
  - 14 공산화에 대한 방파제 420
  - 15 선교 대국 424
- 
- 맺음말\_은혜의 강물이 흘렀다 427
- 
- 색인 430
  - 영어 요약본 441





# 1장 19세기의 한반도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옳고 그름을 두고 따질 수 있지만**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공동체라도 시대를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힘을 가진 세력에게**

**복속당하는 것을 피하기 힘들다.**

역사의 물줄기가 요동치는 시대가 있다. 미묘하게 변화가 흐르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격렬하게 몰아치는 시대가 있다.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린 선택이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후 수백 년간 자손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사적인 욕심, 틀을 깨기 힘든 견고한 세계관, 끝까지 버티는 완고하기 짝이 없는 고집이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고 나면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런 결정이 개인의 결정이라면 그 영향은 가족사에 그치고 말지만, 나라를 이끄는 집권 세력의 결정이라면 구성원들과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영향을 끼친다. 역사의 변곡점이었던 19세기 말, 이 땅의 지배 세력들이 내린 선택은 지금까지도 후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01

---

##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

### 제국주의, 강대국과 주변국이 만날 때

이익은 질기고 강하다.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무분별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제어하는 장치들이 제법 구비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익은 한 나라 외교 정책의 근간을 형성한다. 대다수 국가들은 제한되지 않는 구호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와 제한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국가 이익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냈던 역사학자 아서 쉴레진저(Arthur Meier Schlesinger, 1888~1965)는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외교 정책은 구호와 행동이 적절히 혼합된 외교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대에 들어서의 이

야기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을 의식해야 하는 현대에 들어서 비로소 강대국은 자신의 힘을 적절히 제어해야 됨을 느낀다. 이른바 국제 질서라는 것이 현대에 적합한 표현이다.

19세기에는 그럴 필요나 분위기는 없었다. 힘이 곧바로 정의인 시대였다. 타국의 땅을 따먹기 하듯 먹어 치우던 시절이었다. 자국에 이익이 되면 그냥 강대국의 의사를 무력으로 강행하면 그뿐이었다. 말이나 글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였다. 이 시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현대가 다소 예외일 뿐 인류사에서 관찰되는 것은 국가 관계에 관한 한 ‘힘은 정의’라는 원칙이 자연계의 법칙처럼 관철되어왔다.

힘을 가진 국가와 갖지 못한 국가 사이의 상호 관계를 기원전 5세기를 살았던 투키디데스처럼 극적으로 묘사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천병희 옮김, 도서출판숲, 2011) ‘멜로스 대화편’에는 강대국 아테네에 복속하지 않고 적국인 스파르타의 동맹국이 된 멜로스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국의 이익을 밀어붙이는 대화가 등장한다. 멜로스 의원들은 “보편적인 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아테네 사절단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다한다. 그러나 아테네 사절단은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힘이 곧 정의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요,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을 우리 제국에 편입시키고 싶소. 양쪽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항

복함으로써 무서운 재앙을 면하고, 우리는 여러분을 살육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이익이니깐요.

완강하게 정의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멜로스 의원들에게 아테네 사절단은 마치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2가지 선택밖에 없음을 다시 강조한다.

여러분은 대등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체면을 세운다든가 치욕을 면하는 따위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이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압도적인 강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되요.

항복하고 나서 아테네의 동맹국이 되어 자유를 누리라는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멜로스는 거절하고 만다.

아테네인들이여, 우리의 결론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700년간 살아온 이 도시의 자유를 이토록 짧은 순간에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저항하지만 아테네의 포위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생겨 멜로스인들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는데, 이후는 패자의 수순을 밟았다. 성인 남자들은 잡히는 대로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갔으며, 아테네는 자국민을 그곳에 파견해서 식민지로 삼는다.



이 대화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아테네인들의 정의관이자 세계관이다. 그것은 학자의 세계에 통하는 정의관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지금도 통하는 정의관일 수 있다. 요컨대 강한 자들은 자신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약한 자들은 그 허약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자연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다.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자.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특별한 시대는 아니었다. 다만 제국이라 불리는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는 것이 달랐을 뿐이다.

### 열강들의 경쟁적 영토 확장

제국주의는 침략, 협박, 전쟁, 복속으로 이뤄진다. 임페리움(Imperium)의 어원은 로마 공화정 시대에 '법에 의한 명령'이라는 일반 명사였지만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부터는 또 다른 의미가 생겼다. 기원전 146년 로마는 카르타고와 코린트라는 두 나라를 지상에서 말살시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후부터 임페리움은 '로마에 의한 타민족의 지배'라는 의미로 재단장된다. 근대 들어서 이 용어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프랑스 나폴레옹 3세(재위 1852~1870)의 전제적 2제정을 기초로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리면서부터다. 1870년 영국 신문 《데일리 뉴스》가 나폴레옹 3세의 전제 정치를 두고 임페리움이라 불렀다.

프랑스는 1831년 알제리를 점령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야심을 한껏 드러내는데 1962년 드골 대통령에 의해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았다. 프랑스는 1862년에는 캄보디아를 보호국으로 삼았고, 1885년에는 청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베트남과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지역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 공급 시장과 제품을 소화해줄 수 있는 제품 소비 시장이 필요했다. 제국주의 중주국이라 부를 수 있는 영국은 열을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산업혁명에 화살을 댄 것이다. 1820년, 동력 직기는 베틀을 이용하는 직공에 비해 무려 20배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동력으로 운전되는 물 정방기는 전통 방식의 물레보다 200배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철도 기관차 한 대는 수백 마리 말이 해낼 수 있는 일을 더 빨리, 더 저렴하게 해낼 수 있었다.

결국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한다. 유럽 인구는 1750년에 1억 4,000만 명이었지만 1850년에는 2배가 넘는 2억 6,6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영국에서 19세기는 폭발적인 증가의 시대였다. 인구만 하더라도 1811년의 1,050만 명은 100년이 지난 1911년에 4,180만 명으로 늘어난다. 19세기 동안 국민총생산만 하더라도 14배나 증가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눈에 떨 수밖에 없는 곳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광활한 아프리카 지역이다. 1850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내륙은 미지의 대륙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유럽

선교사와 탐험가들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실상을 유럽에 알린다. 엄연히 수백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부족의 생활 터전이 되어 왔던 땅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알게 된 후로 국익을 충족하고 영토 확장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없었다. 1870년부터 마치 주인 없는 땅이라도 되듯 유럽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쟁탈전에 뛰어들다. 1884년에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포함해서 다수의 쟁점 사안을 협의하려고 베를린회의가 열리는데,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한 유럽의 고관대작들은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아프리카 땅을 분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이집트, 수단, 남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1900년에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완성하는 데 성공한다. 1,200만 평방마일의 땅과 세계 인구 25%가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프랑스는 알제리, 인도차이나에 이어 튀니지를 차지했다. 산업혁명의 후발국인 독일은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등의 동아프리카와 카메룬 등의 남서아프리카 영토를 차지한다.

산업혁명의 후발국인 독일은 영국에 비해 늦은 1850년부터 본격적인 산업혁명기에 돌입하면서 1880~1896년에 중화학 공업 투자가 급성장한다. 특히 1850~1870년 사이에 독일은 급성장한 석탄 산업을 발판으로 삼아 철강 산업과 기계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는 데 성공한다. 독일은 1913년을 산업혁명의 완성기로 보내는데 19세기 말이 되면 야무진 게르만족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앵글로색슨족을 제친다. 이후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그치지 않고 중

국, 동남아시아, 발칸반도 등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만다.

훗날 독일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1914년의 1차 세계대전 징후는 19세기 말부터 싹텄다. 1897년 독일은 전투 함대를 조직하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영국에 도전장을 내민다. 1899년 12월 외무차관 폰 뷔로(Bernhard von Bulow, 1849~1929)는 두 번째 해군 법안을 제출하면서 독일의 야심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영국인들이 그레이트브리튼(위대한 영국)에 대해 말하고, 프랑스인이 뉴벨 프랑스(새로운 프랑스)에 대해 논하고, 러시아가 아시아를 합병한다면 우리도 위대한 독일에 대한 요구가 있다. 통상과 다른 곳에 있는 동족과 선교사들, 해안선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해군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가의 치명적인 이해관계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 다음 세기에 독일 민족은 망치 아니면 정이 될 것이다.

독일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은 영국에 큰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1899년 12월 11일, 독일의 해군 법안은 영국에게 일종의 선전 포고가 되었다. 이때부터 영국은 신생국 독일에 맞서는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골머리를 앓는데 마침내 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 발발로 비용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다.

세상사에서 머무는 것은 없으며 세상사의 진수(眞髓)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존재할 뿐이다.

## 제국주의 후발국 일본의 약진

삶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국제 질서에서 진공 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이나 나라라도 누군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헤게모니를 쫓는다.

지구촌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은둔의 나라'로 불리는 '코리아'까지 밀어닥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스로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가 그 무게 중심을 대신해서 잡는다. 국가 간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들 가운데서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는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당시의 지배 세력들이 내린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피할 수 있었고, 오늘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1854년 미국과 맺은 화친 조약 즉, 가나가와조약(미일화친조약)으로 국제 정치 질서에 편입한다. 행운도 일본 편이었다. 당시 제국주의의 선두 주자인 영국이 일본의 가치를 경시한 점, 1848년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캘리포니아를 획득해 태평양과 중국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인 점, 포경업 발달로 인해 캄차카반도와 일본 열도의 동쪽 바다로 진출할 수 있었던 점, 북태평양 등지에서 일본에 접촉할 수 있었던 점 등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눈길을 두도록 유도했다.

1853년 군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 제독이 주도한 일본 개국은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

만 무리 없이 추진되어 가나가와조약이란 통상 조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영국(1854), 러시아(1855), 네덜란드(1856)와의 화친 조약이 뒤따른다. 이후 바쿠후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을 옹립하려는 존왕양이파와 도쿠가와 가는 갈등을 겪는데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 쿠데타에 의해 700여 년 동안 일본을 지배해왔고, 이 가운데서도 250여 년에 걸친 도쿠가와 바쿠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서양 기술을 배우고 일본의 제도를 고쳐 서양 국가에 필적한 부국강병책을 사용한 위로부터 변혁이 메이지유신(1867~1914)이다. 중앙 집권 체제의 수립, 농업과 토지 제도의 정비, 징병제 실시, 상공업 부흥, 서양식 교육 제도 도입, 조세 제도 등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1990년대 초, 필자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메이지무라(明治村)’를 방문했다. 나고야 근교의 100만 평방미터 공간에는 주로 메이지 시대의 67개 건축물들이 다섯 마을에 펼쳐져 있다. 30대를 갓 넘었던 필자는 “어쩌면 짧은 기간 동안 유럽을 이처럼 철저하게 복제할 수 있었을까?”라는 감탄이 떠나지 않았다.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결만 뺀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핵심인 개인주의, 자립심, 책임감, 과학적 합리성, 물질관 등을 본받으려 노력했다.

1만 엔짜리 지폐의 주인공인 개화기의 계몽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같은 지식인들은 진정으로 강한 근대 국가가 되려면 사람들의 정신 즉, 이념과 가치에서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본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은 이렇다.

학교, 상공업, 육해군 등은 모두 문명의 외형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사고할 수도 없지만 영향이 강해서 그것 없이는 어떠한 외형이라도 전혀 쓸모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곧 문명된 정신이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부강한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 사회가 놓쳤던 정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정부가 근대 국가 건설을 향해 온 국민의 힘을 집결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서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850년대는 서양으로 유학 가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1860년대와 1870년대에는 서양 문헌의 번역을 통해 서양에 관한 지식 즉, 사회, 법, 제도, 철학, 의학, 항해술, 천문학 등에 관한 지식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제국주의가 물밀 듯 밀려오던 그 시대에 일본은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 메이지유신과 부국강병의 추진력

메이지유신은 세계사를 빛낸 위로부터의 개혁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의 지배 계급이던 사무라이들은 녹봉과 영지 등을 비롯한 특권이 폐지되었으며, 징병제 도입(1873)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사회학자 소노다 히데히로(園田英弘, 1947~2007)에 의하면, “1881년에는 이전 사무라이와 그 가족이 인구의 5.3%를 차지했는데, 이 집단이 공직의 40.9%를 차지했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하면 일본 근대 국가 건설의 1세대 지도자들은 대체로 전 시대 사무라이 출신들이었다. 이들이 가진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는 때로 민족정신으로 분출되기도 하고, 개인적 향상을 위한 자극이나 영광과 명예 추구 등의 모습으로 발휘되었다. 그들은 오히려 메이지 정부에 의한 특권 폐지를 적극 승화시켰다. 이들은 근면하게 일해서 경제적인 성공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런 정신이 사무라이를 넘어서 평민까지 확장됨으로써 메이지 시대를 지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무라이의 나라』(지식노마드, 2008)의 저자 이케가미 에이코(英子池上)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사무라이가 자기 ‘이에(집)’의 번영은 주군의 ‘오이에(주인집)’의 번영에 달려 있다고 이해한 것처럼, 메이지의 일본인은 자기의 번영은 나라의 성공에 직접 좌우된다. 어떠한 불평도 달 수 없는 사회적 목표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개인의 노력은 쉽게 정당화되었다.

서구 문명의 핵심인 개인의 가치와 서민적 자조 정신을 강조하는 메이지 지식인 1세대 중 상당수는 사무라이 문화 속에서 자란 전 시



대의 사무라이들이었다. 이들이 앞장서 소개한 서구 문명의 핵심 정신이나 가치는 메이지 시대를 특징지었던 뚜렷한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성공백화』라는 메이지 후기의 도덕 및 처세술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성공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국가를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 나라는 빈약해진다. 이는 동서고금의 당연한 이치다. 이런 고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지 일신(一身)과 일가(一家)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좌우할 뿐 아니라, 크게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에 이른다. 적어도 인간인 이상은 분발해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다. 성공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되어 성공하는 자에게 명예의 월계관을 수여할 것이다.

## 선진 나라를 따라잡는 일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정치적 안정과 정확한 국가 목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들이 구비되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 경제 번영을 이룬 나라의 역사를 보면 뛰어난 지도자, 올바른 방향 설정,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행운 등이 어우러지면서 한 민족의 용솨음치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기가 있다.

남한과 북한을 보더라도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

한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우세했다. 1969년을 기점으로 남  
한과 북한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격차를 발생시킨 결정  
적 요인은 리더의 선택이었다. 뛰어난 리더, 올바른 방향 설정, 효율적  
인 국가 엘리트 집단, 대외 개방, 수출 지향, 중화학 공업 육성, 민간  
기업가의 활용 등을 통한 자립 경제 달성은 도저히 북한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북한은 문제 해결책을 오로지 사상 무장을 강화하  
는 데 두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북한을 완전히 따돌리는  
데 성공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1820년  
으로 가정하면, 1850년에 시작된 독일의 산업혁명은 꺾이나 낮은 셈  
이다. 독일은 제후들이 지배하는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어서 정  
치적 안정도 단일 국가 체제에 비해 불리했다. 예를 들어 1861년에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독일의 1.9배나 되었다.

1871년 비스마르크(Otto von Fürst Bismarck, 1815~1898) 수상은 국내에  
고양된 민족의식을 활용하고 나폴레옹 3세가 일으킨 프랑스와의 전  
쟁에서 10만 명이 넘는 주력 부대와 함께 그를 포로로 잡는 데 성공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비스마르크 수상은 독일을 통  
일 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독일은 정치적 분열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관세 동맹과 통일  
운동 등으로 극복해가면서 정부 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활용했다. 통  
일 독일은 강력한 카르텔, 철도 건설과 광산 채굴 등 정부 계획 아래  
강력한 정부 주도, 금융 자본 육성을 시도한다. 1880년대에 독일은  
공업화와 무역 확대를 통해 급성장하며, 19세기 후반부터 영국과 대

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20세기 초에는 완전히 영국을 제치게 된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치를 세운 지 50여 년이 채 되지 않아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페리 제독이라는 외압에 의해서 개방을 했지만 1880년대가 되면 일본은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 경제력, 제도를 정비하는 데 성공한다. 40여 년이 흐른 20세기 초가 되면 일본은 서구 열강의 대열에 당당히 속하게 된다.

이처럼 한 국가의 지도층과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다음 확실히 국력을 집결시킬 수 있으면 강대국에 다가서는 데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세월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상태로 어영부영 흘러보내고 나면 선두 그룹에서도 빠르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경쟁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침내 일본은 중간 평가 기회를 잡게 된다. 개국한 지 16년째가 되던 해 부국강병책을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첫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다. 이를 두고 작가 시릴 아이돈(Cyril Aydon)은 『인류의 역사』(리더스북, 2010)에서 말한다.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영토와 민족들의 분배에 여념이 없는 동안 동아시아에서도 그곳의 패권을 둘러싼 힘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16년 만인 1884년, 그동안 이뤄낸 근대화에 대한 첫 시험을 받게 됐다. 시험은 중국과의 분쟁이라는 형태로 찾아왔고 그 분쟁의 원인은 조선이었다. 조선은 한동안 중국의 피후견국 위치에 있었다. 대외 지향적 일본이 그 조선에 눈독을 들인 것이다.

---

## 쇄국과 개화의 충돌

### 조선 왕조의 쇠락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병합되기 이전에 이미 자주적 근대화가 이뤄져 가고 있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내놓는 ‘내재적 발전론’에 누구든 귀가 솔깃해지지만 찬찬히 우리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송복 교수의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지식마당, 2007)은 만 5년 동안 전시 수상(영의정)을 맡아서 전쟁과 강화를 경험했던 류성룡을 다룬다. 그가 남긴 『징비록(徵蓍錄)』을 해부한 이 책에서 몇 가지 귀한 조연을 만날 수 있다.

하나는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었지만 이면에는 조선 분할 전쟁이란 사실이 놓여 있다. 일본은 조선 남쪽 4도를 내놓으라는 조선 할지(割地) 전쟁이었고, 명나라는 왜의 침략을 한강 이남에서 막아 북쪽 4도를 지킴으로써 요동(랴오둥) 방어의 울타리를 삼으려는 조선 울타리 방어 전쟁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은 나라인가”라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당시의 조선이란 나라는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엉망이었다.

조선은 나라인가, 나라라면 어떤 나라인가. 울곡의 상소문을 읽으면 조선은 나라가 아니다. 나라가 백성에게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심각한가. … “나라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말인가. 그로부터 10년 후, 임진왜란을 온몸으로 겪고 막은 류성룡도 울곡과 꼭 같은 말을 한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라고 한 말이나 “하늘이 도와서”라고 한 말은 다같이 ‘조선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강한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런 나라에 당시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쳐들어왔다. 통치 7년 전쟁, 하늘이 돕지 않고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

임진왜란은 만 6년 7개월(1592년 4월 14일~1598년 11월 18일) 동안 계속된 전쟁이었다. 그 전쟁이 끝나고 268년이 흐른 1866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이라 불리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3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조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는가? 조상들이 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할 수 있

어야 한다. 한때 강력한 지도력으로 개혁 정치를 표방했던 정조(재위 1776~1800) 같은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와는 판관의 지배 세력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

바깥세상이 제국주의로 치닫고 있을 때 이 나라 임금은 어린 순조(재위 1800~1834)와 헌종(재위 1834~1849),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철종(재위 1849~1863)이었다. 이 시대는 왕실과 연결된 외척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지배했다. 60여 년의 세도 정치는 조선 시대의 권력 투쟁의 전형인 편 가르기로부터 한 치의 예외도 없었다. 태종에 의한 왕자의 난, 세조의 사육신 처형 사건, 이후 끊이질 않았던 사화와 당쟁의 본질은 무엇이었던가? 끊임없이 적과 아군을 나누고 사약, 참형, 유배 등으로 적을 죽이거나 내모는 그런 정치였다.

인재가 남아날 수 없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 시대는 다른가? 그렇게 300년을 흘러보냈는데 19세기 중반에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내부에 남아 있었을까? 왕이나 관리들이 크게 변해서 과거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을까? 19세기 중반의 조선은 매관매직과 과거의 부정 시험이 만연했고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이 본전을 제대로 뽑기 위해 농민들을 수탈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수령과 향리들은 조세를 착복하는 일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가혹한 세금과 수탈을 견디다 못한 빈농들은 농촌을 떠나 유랑민이나 화적, 도시 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그 결과 농민들에 의한 민란이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조선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시공사, 2015)에서 “조선의 제도는 폐쇄적이고 착

취적인 성격이 뚜렷했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로 “사농공상의 신분제, 양반 관료들의 특권, 착취적 지방 행정, 착취적 조세 제도, 병역 제도와 환곡 등의 복지 제도도 착취적으로 운용되었다”고 개탄한다. 조선 말엽과 구한말의 우리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을 때 역사 해석에서 지나친 민족주의의 덫에 빠지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 통상에 앞서 성경이 먼저

조선 근해에 처음 네덜란드 상선이 나타난 시점은 1653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앞선 1614년 10월 14일 동인도회사 소속의 상선 한 척이 전남 흥양 앞바다에 온 적이 있다. 실학자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그 배의 규모가 극히 높고 커서 여러 층으로 지은 큰 집과 같았다. 우리 군사가 싸움을 걸어 이 배를 공격해 격파할 수 없어서 이 배가 스스로 떠나가도록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서양 선박의 출몰은 영정조 시대 이래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김용만·김준수는 『지도로 보는 한국사』(수막새, 2004)에서 18~19세기 이양선 출현 횟수를 조사해서 밝힌 바 있다. 영국 선박 12번, 프랑스 12번, 미국 5번, 러시아 3번을 포함하면 총 32번 출현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해안 방어를 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1693년(숙종 19년),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를 들여다보면 “바닷가 주민들을 먼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18세기 무렵부터 서양 선박이 자주 출몰하자 조선은 외국 선박이 나타

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 관리인 ‘문정관(問情官)’을 배치하고 이방인을 다루는 절차를 규정으로 정해두었다. 당시 조선 말기의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기록에는 “표류선이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섬 몇 곳은 온통 망해버린다”가 있다. 조사 명분으로 섬을 방문한 조사관들이 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은 물론이고 민폐를 끼쳤음을 예상하게 하는 기록이다.

1797년(정조 21년)에는 부산 동래에 태평양 탐사 항해 중 조선 해안을 측량하려는 목적으로 영국 군함 프로비던스호(The Providence)가 들어왔다. 9일 동안 부산항 주변을 탐사해 해도를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다. 프로비던스호 선상에 올라가 꼼꼼하게 관찰한 천주교도 현계흠(박오로, 1763~1801)은 “이 배 한 척이 우리나라 전함 100척을 당할 만하다”는 기록을 남겼다. 훗날 그는 이 정보를 황사영 백서 사건(1801)의 주인공인 천주교도 황사영(알렉산드르, 1775~1801)에게 제공했다.

1816년(순조 16년) 9월 4일, 영국 해군 리라호(The Lyra)의 함장 바실홀(Basil Hall, 1788~1844)과 머레이 맥스웰(Murray Maxwell, 1775~1831) 대령이 이끄는 알세스트호(Alceste)가 충남 서천군 마량진 갈곶에 상륙한다. 당시 조선 관리와 영국 군인들이 만난 경험에 대해 영국인들이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그(첩사 조대복)는 어떤 선물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친절에 무척 기뻐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우리가 그에게 성경을 주었더니 감사한 모양으로 받은 다음 꼭 우정적인 작별을 고했다.



1832년(순조 32년) 3월 22일, 영국 동인도회사의 로드 애머스트호(Lord Amherst)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 기착한다. 이 배에는 모두 67명이 타고 있었는데 중요 인물인 중국 광둥 주재 수석 화물 관리인인 린세이는 자신들이 배에 싣고 있는 모직 옷감, 옥양목, 시계, 망원경 등의 상품들과 조선의 은과 다른 산물들을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한다. 미국 페리 제독이 일본에 상륙했던 시점은 1853년이고 이듬해 통상 조약이 체결된 점을 염두에 두면, 이때 조선 조정이 대외 개방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 역사는 어디로 향했을까? 일본 개항보다 무려 22년 전에 조선이 맞았던 절호의 기회였다.

이 배에는 특별한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귀츨라프(곽실렵郭實獵, 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로 조선을 찾아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 그가 통역관, 의사, 선묵의 자격으로 로드 애머스트호를 찾은 것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 스코틀랜드장로교회 목사인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의 조선 선교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모리슨 목사는 성경을 한역한 인물이기도 하고 한역한 성경을 귀츨라프에게 주면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했다.

기록에는 1832년 6월 20일 충남 몽금포 해안에 영국 상선이, 6월 25일에는 충남 고대도 안항에 영국 상선이 뒤를 따라 조선과 통상을 요구해왔다. 1845년(헌종 11년)에는 영국 상선이 다도해 수역 측량과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으며, 1846년에는 프랑스 함정이 충청도 해안에 출현했다. 1840년에 들어서면서 '이양선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빈번하게 조선 해안에 외국 선박이 출현한다. 인도양을 거쳐서 동

진해 북상하는 영국과 프랑스 선박들을 비롯해 태평양을 건너 서진해 오는 미국, 북방으로부터 남진하는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은둔의 나라에 문을 경쟁적으로 두드린다.

## 조선의 선택, 쇄국 정책

백성이 날로 초췌해지고 온 팔도에서 소요가 일어나니 흰 수건을 둘러 쓰고 몽둥이를 든 자가 걸핏하면 1만이 넘고, 관가를 약탈하고 관원을 살해하며 여러 번고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864년(고종 2년) 1월 27일, 『승정원일기』 기록이다. 나라 안은 나날이 썩어가고 바깥은 이양선 출현과 개방 요구로 근심이 끊이질 않던 시절이었다. 흥미한 시대에 철종이 재위 14년 만에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차남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조선 26대 왕인 고종(재위 1863~1897)이다.

아들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왕권의 회복, 왕실의 권위 회복, 외척 척결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 조치를 단행한다. 서원 철폐, 관제 개혁, 탐관오리 숙청, 농민용 구휼책 실시 등과 같은 개혁 조치는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의 왕들이 할 수 없었던 조치였기에 백성들의 기대가 컸고 고종 때 들어서 민란도 잦아든다. 무엇보다 흥선대원군은 조직을 관리하는 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지방의 큰 부자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 벼슬을 주고 재정 후원금을 끌어

모을 정도로 수완이 뛰어났다. 이런 개혁 조치들이 비었던 국고를 채우고 왕권 강화를 통한 통치의 효율성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못사람의 원성을 사는 결정적인 패착을 뒀으로써 훗날 실각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왕실의 존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중건을 1865~1867년에 걸쳐 추진한다. 근정전, 경회루, 광화문 등을 중수하는 데 대규모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으므로 신하들은 한목소리로 무리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그렇다면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을까? 농민들에게 특별세를 거두고, 성문을 출입하는 자에게 통행세를 부과하고, 장정들에게는 신낭전(불알) 단 값을 부과하고, 전국의 부자 수십 명에게 최소 1만 냥 이상은 20만 평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거둔다. 당백전 같은 악화를 발행해 동일한 화폐를 5배 또는 100배까지 화폐 발행고를 늘리는 바람에 극심한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경복궁 중건만으로 조선이란 나라는 재정 파산 상태에 빠지고 만다.

한국인들에게 대원군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김없이 '쇄국 정책'이라 답할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결정적 시기에 조선이 근대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중심인물로 간주되어왔다. 왜 초기 10년의 섭정(1863~1873) 기간 동안 쇠국을 고집한 것일까? 그 시대를 살았던 지배 계급에게 중국은 세계이고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중국 조정을 천조(天朝)라 부르고 중국 군대를 천군(天軍)이라 불렀다. 그런 중국이 영국군에 의해 1차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배하고 애로호(Arrow) 사건으로 일어난 2차 아편전

쟁(1856~1860)으로 인해 베이징이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전해들은 조선의 지배 계급은 두려움에 떨었다.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은 쇄국 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날로 교세를 확장해가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천주교는 평등사상과 내세 사상, 유교적 신분 질서는 물론이고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천주교에 대한 개인 선입견도 좋지 않았다. 예를 들어 1866년 3월과 8월에 각각 영국 상선 로나호와 엠페러호(Emperor)를 타고 온 독일 상인 오페르트(Ernst Jacob Oppert, 1832~?)가 두 차례의 통상 요구를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오페르트는 충남 아산에 있는 홍선대원군 아버지 남연군의 능묘 도굴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아버지의 묘지를 도굴한 자는 멸해야 할 금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17~19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천주교 확산은 조선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문제였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의 함포 외교가 본격화되자 조선 지배 계급들은 천주교 확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쇄국에 대한 대원군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64년 무장한 러시아인들이 국경을 넘어 경흥부에 와서 통상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황한 대원군에게 천주교인 몇 사람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움직여서 한불영 3국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솔깃한 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굵뚱 천주교 신자들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실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청나라의 천주교 신도 박해 사건을 전해 듣게 되자 대원군은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에 나서게 된다. 당시 프랑스 신부들이 좀 더 민첩하게 움직였다면 한국의 근대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원군의 힘만으로 개항을 밀어붙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조선 지배층들은 여전히 청나라가 하늘이었으며, 천주교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인들의 월경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참고로 조선은 러시아와 두만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16.5km를 접하고 있었지만 당시 재정난에 허덕여서 국경을 방위할 병사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무장한 러시아인 몇몇이 국경을 넘어와 통상을 요구하니 조선 조정이 진전궁공하게 된다. 조선은 마치 서까래가 허물어져 내리는 망실한 가옥 같은 처량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 1866년, 역사의 물줄기를 돌린 사건들

조선 개항이란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후퇴시켜버린 중요한 두 사건은 1866년 10월의 병인양요와 1866년 음력 7월 12일(양력 8월 21일)의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 방화 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조선은 더욱더 굳게 나라의 문을 닫아걸게 되는데, 당시 조선의 지배 세력 내부에는 세계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결국 어떤 현상이라도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는 서구 열강 중심의 제국주의의 도도한 흐

름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두 사건으로 조선은 “우리가 프랑스와 미국을 무찔렀다”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더하고 척화비를 세워 조선의 쇄국 정책은 힘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조선 지배 계급이 기대하는 것과 판판으로 달리고 있었다. 영국은 1840년에 중국을, 미국은 1854년에 일본을 함포 외교로 문호를 열도록 만들었고, 프랑스는 1861년에 베트남의 개항을 얻어냈다. 이제 남은 곳은 조선이었다. 조선 개항을 당긴 사건은 천주교 박해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은 1866년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처형하고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처형하는 대사건인 병인박해를 일으키고 만다. 이렇게 시작된 천주교도 박해는 일파만파를 일으키게 된다. 살아남은 3인의 프랑스 신부가 중국의 프랑스공사에게 사건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주중 프랑스 함정사령관 피에르 로즈(Pierre-Gustave Roze, 1812~1883) 제독이 군함 7척과 병력 1,000명을 거느리고 조선 원정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강화도에서 프랑스군과 조선군이 맞붙는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서구 열강과 조선이 무력으로 충돌한 첫 사건이다. 프랑스군은 한강을 봉쇄하고 강화부를 점령했으며 강화행궁을 불태우고 보물과 서적도 가져갔다. 프랑스군은 정족산성(삼랑성)에서 패배를 맛보고 퇴군하게 된다. 프랑스군이 퇴군을 결정하게 된 데는 프랑스 해군성이 출병 전에 로즈 제독으로 하여금 승산 있는 일만 하고 정부와 해군성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군의 퇴각은 군사적 퇴각이기보다 정치적 퇴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조선이 승리했다는 자기중심적 해석을 더했다.

한편 1866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관민의 반발에 부딪혀 화염에 불타고 만다. 이 일은 1871년(고종 8년) 미국의 조선 침공인 신미양요라 불리는 사건을 일으킨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는 확신을 대원군에게 심어주었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천주교 박해는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게 된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의 강화는 점점 더 조선이 근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두 번의 승리에 도취한 대원군은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워 쇄국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 프랑스의 무력 침공

프랑스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한반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프랑스가 한반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면 더 일찍 조선을 개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 특히 프랑스는 천주교 선교 활동을 통해 일찍부터 조선과 인연을 맺고 있었다.

1780년대 중반, 조선에 처음 천주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서양의 신부를 모셔오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이 무렵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서양 선박이 조선에 와서 정부와 교섭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서양 선박을 불러들이자는 ‘양박청래(洋船請來)’ 운

동이 벌어진 것이다. 1801년 황사영은 조선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설명하고 군함을 보내 조선을 개항시켜달라는 편지를 베이징의 주교에게 보내려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선교사들뿐 아니라 천주교 신도들도 프랑스 군함에 거는 기대가 컸다.

유독 조선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가 많았다. 1839년(헌종 5년) 기해박해 당시 프랑스 선교사 3인(모방, 샤스탕, 앙베르)이 처형되었고, 살해 이유와 책임을 묻기 위해 1846년 프랑스 해군 제독 장 바티스트 세실(Jean-Baptiste Cécille, 1787~1873)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외연도에 와서 경고하기도 했다. 1840년에는 라피에르(Lapierre) 제독이 군함 2척과 560명의 군사를 싣고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산 고군도 해안에 나타나지만, 태풍으로 귀환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조선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1856년 인도차이나 기지사령관인 게랭(Guerin) 제독은 서울 침공을 위해 2개월간 경기만 일대의 수로를 정찰했다. 조선 침공에 관심을 가졌던 핵심 인물은 1851년 군사 쿠데타로 황제에 등극한 나폴레옹 3세였다. 그는 게랭에게 “조선의 물산, 자원, 사회 상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라. 장차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건과 기회에 관해 조사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게랭은 해군성장관에게 “현재 조선은 허약해 유럽 열강 중 어느 한 나라가 침공하면 곧 점령되고 말 것이다. 러시아의 조선 점령을 막는 길은 프랑스가 선제공격하는 것이며, 모든 식민지 건설은 군사적 점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고했다.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프랑스 신부들은 프랑스



군함의 조선 진주와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기대감이 컸다. 예를 들어 조선에 있던 다블뤼(안돈이 安敦伊, Marie Nicolas Antoine Daveluy, 1818~1866) 신부는 1840년 라피에르 제독이 귀환한 것을 두고 “나는 프랑스라는 이름이 부끄럽다”면서, “강화도를 점령하면 조선 왕은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조선 점령 의지를 꺾게 된 데는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해 왕위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3세는 집권 후반기에 외교 실책을 많이 범한다. 이 가운데 하나가 1861년 멕시코 보호 명분을 내걸고 위성국을 건설한 다음 멕시코를 점령하게 되는데, 1867년 퇴각할 때까지 군사력을 그곳에 투입했다. 결국 프랑스는 조선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군사력을 투입할 여력이나 관심이 없었기에 조선의 개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 쇄국의 이유

어느 시대인들 시대 변화를 직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쇄국을 고집할 당시의 정황과 이유를 살펴보자. 1860년 2차 아편전쟁의 발발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군에 의한 베이징 함락과 황궁 약탈 소식을 접한 조선 상황은 베르뇌(장경일 張敬一, Siméon François Berneux, 1814~1866) 프랑스 신부의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외세로부터의 침략이 가져올 불안감과 두려움이 조선 조정은 물론이고 서울을 뒤덮고 있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중국 사태에 관해 중국 황제에게 강요한 조약문이 지난 1월 중순에 조선에도 전해졌다. 이것은 왕국 전체에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금융 업무와 모든 상업 활동이 즉시 중단되었다. 부자나 넉넉한 집 안들은 산골로 도망쳤다. … 대신들은 부서를 감히 떠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와 보물들을 서둘러 떠나보냈다.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겸손하게 보호를 부탁했다. 위험한 날에 대비해 종교 서적이거나 천주교상, 십자가를 장만하려고 교섭을 벌였다. 어떤 관리들은 공공연히 이런 천주교의 표지들을 허리에 차고 다니기까지 했다. … 온 백성이 이성을 잃을 만큼 당황한 것 같았다.

나라가 백성을 보호할 수 없으면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 가슴 아픈 장면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라가 나라답지 않으니 어떻게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서에 류성룡과 율곡 이이가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한탄했던 말은 300여 년의 세월이 가도 마찬가지였다. 1866년 프랑스 군대가 침입한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서울 장안에 일어난 소요를 두고 유학자 황현(1855~1910)은 “한성에서 관리 생활을 하던 시골 사람들은 모두 도망했다”고 기록했다. 존경받던 무신 신헌은 “오늘날 국가의 계획은 병사도 없고 군량도 없다”고 탄식한다.

권력을 잡은 자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당위가 현실에서는 자주 빛나가게 된다. 사익에 눈이 가려져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국민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게 된다. 당시 대원군이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 조선의 지배 계급이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

다. 영국한국학회 회원인 제임스 호어(James Hoare) 런던대 교수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지도층의 책임을 지적한다.

당시 국제 정세를 조선의 의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도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변화의 흐름에 일부였다. 피할 수는 없었다. 조선은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전쟁을 키워 나갔다.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조선에 결국 파국적 결말이 찾아오게 됐다.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 사람이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결정적 시기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대원군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는 권력 유지라는 사익에 더 함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기에 국제 정세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문호 개방과 외국과의 교류 필요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고베대학 기무라 칸(木村幹) 교수는 “대원군이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서양의 화포를 수입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든다. 또한 미국 측 자료에는 “신미양요 때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서양 화포를 사용해 미국이 겁을 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원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세와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건고하게 하려고 외국의 함포 외교를 이용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주한 미국 대사 물망에 올랐다가 낙마한 빅터 차(Victor Cha)는 한미일 관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한국의 집권 세력들이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원군을 넘어 넓은 시각에서 보면 당시 쇄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 한중일 삼국의 지배 세력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의 격차에 따라 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기무라 칸 교수는 “중국의 아편전쟁 패배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가 일본과 조선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라고 지적한다. 쉽게 말하면 19세기를 살았던 지배 세력들이 아편전쟁의 중국 패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량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말이다.

당시 일본의 지배층은 일본이 개국으로 근대화를 서둘지 않으면, 중국이 아편전쟁을 당한 것처럼 외세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으로 해석했다. 반면 조선은 아편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든든한 방과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부분 개항에 일찍부터 나섰던 일본의 강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에도 바쿠후 시대부터 나가사키항의 문호를 연 덕분에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도 국제 정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광저우 등지에서 직접 교역을 하며 생생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다양한 정보의 원천이 있는 덕분에 일본 식자층들은 그만큼 국제 정세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은 나라의 문호를 꽁꽁 닫고 있어서 유일한 정보 원천은

중국이었다. 이런 정보마저 자신의 굳건한 세계관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세계정세를 오관할 수밖에 없었다. 기무라 칸 교수는 “결국 19세기 말 국제 정세에 대한 두 나라의 각기 다른 판단으로, 조선은 일본에 비해 문명개화가 30년 정도 늦어지게 되고, 이것이 훗날 경술국치(국권피탈)를 낳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 개국으로의 선회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조선은 ‘개화 문명’과 ‘위정척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세계 대 민족’ ‘개항 대 쇠국’ ‘개방 대 폐쇄’ ‘교역 대 자주’의 충돌이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반쪽은 앞의 것을 선택했고, 다른 반쪽은 뒤의 것을 선택했다. 두 진영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근현대사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나는데, 두 진영의 충돌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쇄국의 대명사인 대원군은 1873년(고종 10년)에 권좌에서 밀려난다. 명성황후와 그 일족인 민 씨 집안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들은 개방에 대한 시각이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 마침 그해 10월, 일본에서는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제기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다. 메이지 정부를 이끌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와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 등은 “사무라이들에게 외국 정복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내에서 박탈당한 그들의 특권에 대한 보상

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정한론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한론은 조선이 고대 일본 땅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서구 열강에 점령당할 땅이라면 일본이 점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강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국주의 후발국인 일본으로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당연히 조선 땅은 자신들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정한론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내려가지만 일본 사회는 조선 침략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철저하게 진행한다. 이즈음 조선의 역사와 풍습 등에 관한 『정한평론』(1875), 『조선사정』(1876), 『조선사』(1892), 『조선기문』(1895) 등이 줄지어 출간된다.

마침내 1875년 4월, 일본은 중무장한 운요호(운양호)와 제이테이묘호(제이정묘호), 춘일호 등 군함 3척을 조선에 파견했다. 이 가운데 2척은 부산에 입항해 함포 사격이란 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그해 9월 20일 일본은 운요호를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시켜 조선 측의 포격을 유도한 다음 맹폭격을 가한다. 일본군은 전사자 35명 외에도 포로 16명과 대포, 화승총, 군기 등을 노략해 나가사키항으로 돌아간다. 일본은 운요호에 대한 포격을 빌미삼아 개항을 강요하지만, 다양한 사료(史料)는 일본의 함포 외교가 정밀하게 기획된 것이라 말해준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는 운요호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1845~1929)의 최초 보고서(1875년 9월 29일 자)를 근거로 “운요호가 일본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초지진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일본이 제기한 국기 모독설은 불평등조약 체결을 위한 계기를 만들려는 조작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1876년 2월 27일 한국은 일본과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해 개항의

길로 들어선다. 결과적으로 1876년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권리만 인정할 뿐 조선의 권리나 일본의 의무는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으로 통한다. 특히 무관세, 치외 법권, 일본 화폐 유통권 등은 개항 초기 일본이 조선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당시 조선의 관리 중에는 통상 외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전무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안영배 《동아일보》 전문기자는 강화도조약과 무지함의 상호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조약 체결에 나선 조선 측 대표 신헌은 무관으로서 통상 외교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 일본 수행원이 조선에서의 통상과 관련해 일본의 화폐 제도를 설명하려 하자 “사대부는 덕치에 대해서나 생각하지 통상 같은 천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또 노동을 모른다는 증거로 길게 기른 손톱을 일본 측 대표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개항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1866년 병인양요 이후에 급격히 힘을 얻은 개항을 반대하는 목소리 즉, 위정척사론은 여전히 조선의 주류 의견이었으며 전국 규모의 상소로 나타난다.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무렵, 명망 높은 유학자 최익현(1833~1906)은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일본은 서양 오랑캐와 다름없으므로 나라를 멸망케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만일에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를 사용해 죽여달라고 호소한다. 이후에도 유학자를 중심으로 상소가

끊이질 않는데 그 운동이 워낙 격렬해 유학자 홍재학(1848~1881)은 능지처참을 당했다. 이 와중에 대원군의 복귀를 통해 다시 쇄국 정책을 펼치기 위한 쿠데타가 발생했다.

어느 시대든 세계관을 전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평생 동안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젖은 사람이 개항을 받아들이는 일은 천지개벽에 해당했을 것이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성리학의 교조주의적 성향이 변화에 얼마나 경직적인가다.

### 조미수호통상조약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통상 조약은 미국과 체결한 1882년(고종 19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조선은 외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1848~1905)이 쓴 『사의조선책략』(1880)이다. 1881년에 국내에 소개된 이 책은 대신들 사이에 널리 읽히는데, 이것이 서구 열강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눈을 돌리는 계기를 제공한다. 『사의조선책략』에서는 러시아의 남진 전략이 적극 추진되는 상황에서 조선이 취할 외교 전략으로 ‘친중국-결일본-연미국’을 제시한다.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과 같은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



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황준헌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는데 한국인의 대미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라는 점이다.

미국은 민주와 공화으로써 정치하므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는다. 나라를 세울 당시에 영국의 학정(虐政)으로 말미암아 발문해 일어났기 때문에 늘 아시아에 친근하고 유럽에 소원해왔다. … 그 나라의 강성함은 유럽의 여러 대국과 함께하지만 땅이 동서양 사이에 뻗쳐 있어 늘 약소한 자를 돕고 공의를 유지해 유럽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이를 끌어들여 우방으로 삼음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재앙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聯)미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도 전문 14개조로 구성된 불평등조약에 속하지만, 불평등 정도 면에서는 한국 측 입장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조치대학의 나가타 아키후미(長田彰文) 교수는 “이 조약은 불평등한 성격은 비교적 희박하며, 한국에서는 유럽 국가들과 체결하는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보다 불평등한 성격이 강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을 주선한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은 협상 담당자인 슈펠트 제독(Robert W. Shufeldt, 1821~1895)에게 ‘한국은 청제국의 부속국’이라는 내용을 조약에 넣도록 종용하지만 거부당하고 만

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1조의 ‘주선(周旋) 조항’으로, “제3국이 체결국의 일방을 억압적으로 다룰 경우 상대방은 사태의 통지를 받아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good offices)한다”는 부분이다. 미국은 미청조약(1858)에 넣었던 것처럼 관례적인 외교 수사로 이해했다. 반면 조선 측은 조선이 일본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미국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종이 훗날 일본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훗날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은 1905년 8월 4일, 미국 뉴욕주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대통령 여름 별장을 방문한다. 조미수호통상조약 1조에 있는 ‘거중 조정’ 조항에 따라 미국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 이승만은 면담 시 직접 이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10여 일 전인 1905년 7월 24일 “조선은 일본에,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둔다”는 가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맺어놓은 상태였다. 조미통상조약 체결에 이어 조선은 영국(1883), 독일(1883), 러시아(1884), 이탈리아(1884), 프랑스(1886)와 통상 조약을 체결한다. 이 국가 가운데 미국의 통상 조약 체결의 주목적은 선원 보호였고, 프랑스와 맺은 통상 조약은 선교의 자유에 주목적이 있었다.

천주교는 1886년 프랑스와의 통상 조약을 체결해 선교 포교의 자

유를 누리게 되었다. 조약이 체결될 때 프랑스는 선교의 자유를 조약에 명문화하기 위해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를 동원하기도 했지만 고종은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9조 2항에 “프랑스 인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와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教誨]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선교의 자유에 갈음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가르치고 깨우치게 한다’는 뜻의 ‘교민(教誨)’이란 단어를 삽입시킨 일이다.

1780년대 중반 가톨릭이 한국에 전해진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는데 한불 수교 이전에 ‘파리외방전교회’가 파견한 31명의 신부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의 이 같은 조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항목은 최혜국 조항으로 해석되어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와 같은 특권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즉 교육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선교의 자유가 명문화된 것은 1899년 교민조약(教民條約)을 통해서였다. 이 조약은 조선교구장 뮈텔(민덕효閔德孝, Gustave Charles Marie Mütel, 1854~1933) 주교와 내무지방국장 정준시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재확인한 조약이다. 따라서 1899년 이전까지 선교사들은 조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 03

---

# 가난과 혼란의 도가니 조선

### 지독한 가난이 지배했던 시절

미국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시작하는 1884년을 전후한 조선 상황은 어떠했을까? 넓게 보면 조선 말엽과 구한말(1897~1910)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를 살았던 한국인과 외국인의 관찰기와 사료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는 일은 우리의 옛 모습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일이고, 미국 선교사의 활동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역사적 현상이나 과거는 현세대의 바람이나 소망,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식(粉食)되거나 미화(美化)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민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으

므로 실증사학의 도움을 받으면 편견 없이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시대는 가난이 조선을 뒤덮고 있었다. 19세기 들어서 미곡 생산량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 두드러졌다. 원인은 토지의 생산성 저하에 있었다.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 고단했던 중요한 이유다.

서울대 이영훈 명예 교수는 “두락(마지기, 논 200평)당 벼 지대량은 1680년대부터 1750년대까지 15~20두 수준에 머물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880년대에는 6~7두로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이 수치는 18세기 전반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실증 자료를 제시한다. 또 하나의 실증 자료는 논외의 실질 가치가 19세기 들어서 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19세기 초에 두락당 벼 6석을 넘었지만 개항 직전에 4석까지 떨어졌다.”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자연히 토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 결과는 논외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오늘날처럼 울창한 삼림에 익숙한 사람들은 황폐한 산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담은 사진이나 우리의 옛 모습 속에서 나무가 사라진 황량한 산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북한의 식량난도 산림 황폐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도 산에 나무가 남아날 수 있었을까 싶다. 18세기 말, 부산 용당포에 도착했던 영국 군함 프로비던스호의 윌리엄 브로턴(William Robert Broughton, 1762~1821) 함장은 “나무와 물이 필요했지만, 이 나라에는 나무가 부족해 보였다”고 기록했다. 경제사학자 이우연은

「18~19세기 산림 황폐화와 농업 생산성」(《경제사학》, 2003)이라는 논문에서 18~19세기는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것 없이 오로지 남벌이 횡행함으로써 산림 이용에 관한 한 약탈 시대였다고 주장한다. 산림 남벌은 보(狝)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퇴적으로 인해 하상을 높이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홍수로 연결되어 토지를 유실시키고 만다. 18세기까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림 황폐가 확대되고 19세기 들어 빈도가 늘어난 홍수와 가뭄이 수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농업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 수확량이 줄면서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농업 실질 임금도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1853년 이후 약 50년 동안 농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다.

수확량이 줄어들면 식량 가격이 올라가므로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우연은 “조선 왕조는 산림과 하천, 저수지는 백성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라는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 이념 아래 산림의 사유화를 규제했다”고 한다. 주인 없는 산림이라면 공유지에서 흔히 일어나는 약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8세기 후반부터 헐벗기 시작한 조선의 산야는 19세기 말이 되면 민동산이 되고 만다.

### 텅 빈 나라의 공간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였지만 국가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 수익원은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을 통한 대외 교역이다.

19세기는 조선의 주력 수출 상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 조선은 1660년대 이후부터 중국산 견직물과 조선산 인삼을 일본에 수출해 은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한 은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남긴 흑자는 17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752년을 끝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은 수입은 사라지게 된다.

일본과의 교역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이영훈 교수는 “한일 상인이 만나는 사무역 시장은 1722~1726년에는 74%의 개시율을 보였지만, 1844~1849년에는 24%로 낮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일본이 중국산 견직물과 조선산 인삼의 국산화에 성공한 덕분이다. 일본으로부터 은 수입이 줄어들자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대외 무역에 흑자를 남기는 일은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팔만 한 상품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시대에도 상업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었다. 비싼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일 무역이 쇠퇴하자 곧바로 국내 장시(場市), 주로 오일장인 정기 시장의 위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료를 들여다보면 19세기에 걸쳐 장시의 감소 현상이 내륙보다 연안에서 뚜렷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은 전정(토지 세금), 군정(성인 남자의 군역 대신 옷감으로 내는 세금), 환곡(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이란 삼정으로 세금 수입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서도 1830년대까지 농촌 생활의 안정을 떠받친 것은 환곡 제도였다. 환곡은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18세기 말만 하더라도 1,000만 섬에 달했지

만 1862년에는 800만 섬으로 줄어들고 만다. 실제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은 46% 정도로 추정된다. 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까? 농업 생산성이 감소해 환곡을 갚지 못한 농민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환곡을 빼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환곡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많았다. 환곡을 빌리지 않겠다는 농민들에게 환곡을 떠안기고 높은 이자를 붙여서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1862년(임술년) 한 해 동안만 70여 곳에서 ‘임술 농민 봉기’라는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 배경에는 악정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을 차지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영준 교수는 『조선 후기 왕실 재정과 서울 상업』(소명출판, 2016)에서 구한말 조선 왕실의 재정 상태를 실증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선보였다.

조선 말기 왕실 정부 재정의 20~30%를 차지하는 재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채무 불이행 상태인 거대한 빚쟁이였다.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조선 왕실은 현 정부 재정 규모인 300조 원의 최소 20%인 6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 갑오경장이 발생했을 때 시전(사설 점포) 상인들은 일본에 호소해서 왕실에 납품한 채권 원금의 30%를 애환금(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돈)으로 보전받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가치가 없는 푼돈에 불과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건국대 신복룡 석좌 교수는 “망국의 원인은 재정 적자가 아니라 주자성리학의 문민 우위 원칙과 해상 방어에



대한 무지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 및 사회 현상의 이면에는 경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해상 방위조차 나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왕실의 제사 및 접대 등 씀씀이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견뎌낼 재간이 없다. 조선 말엽과 구한말의 왕실 재정과 나라 재정은 거의 파산 상태로 달려가고 있었다. 한마디로 조선이란 나라는 내부로부터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 한국인의 고질병, 분열적인 정치

국민들의 삶은 정치적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의해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어느 시대든 그렇다. 후자는 오늘날의 경제적 풍요는 누가 권력을 쥐었더라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옳바르지 않다. 정변과 시위, 포퓰리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중장기를 염두에 둔 경제 활동은 이뤄질 수 없다. 경제는 뜨내기살림과 다르다. 예측할 수 있어야 생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

대원군 세력과 민비 세력의 대결은 19세기 중후반에 뚜렷한 정치 지형도를 그렸다. 지도자라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전제는 공익 즉, 국익의 극대화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서로 다른 견해다. 제국주의가 조선을 노리고 있을 때 조선의 지배 계급들은 공익에 따라 행동했는가? 대의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외세를 동원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편을 가르고, 그 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권력과 사욕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은 그치지 않았다.

1873년 11월, 권좌에서 쫓기듯 물러난 대원군은 탐탁지 않은 민비를 제거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을 기울였다. 그해 12월, 민비의 침전에 폭약을 설치해 경복궁 대화재를 일으킨 배후 세력이 그가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를까라는 의구심을 낳았다. 이런 공격에 대해 고종은 즉시 1874년 초 각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해 지방에 있는 대원군 세력을 숙청하는 일을 단행했다. 심지어 대원군의 복귀를 청하는 유생들을 참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원군의 권력욕은 식을 줄 몰랐다. 1874년 11월, 민비의 양오빠인 민승호 집에 폭약을 터뜨려 민승호의 모친과 아들이 폭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대원군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했다. 이 사건으로 대원군과 민비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다.

민비가 처신하는 방식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 재정을 마치 싹짓돈처럼 꺼내 낭비했다. 황현은 “고종과 민비는 원자(만아들)가 태어나자 궁중에서는 원자가 잘되길 빈다는 핑계로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탕진하는 비용이 하루에 천금이나 되어 내수사(재정 관리) 부서가 소장한 것으로는 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비용이 늘어나자 호조나 선혜청에 소장한 공금까지 빌려다 사용함으로써 대원군이 물러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어렵게 비축한 돈을 탕진하고 말았다.

유길준(1856~1914)이 미국인 은사 모스(E. S. Morse, 1838~1925)에게 보낸 편지에서 “1894년 가을, 민비는 개화파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꾸밈다가 대원군의 첩보망에 발각되는데, 역으로 대원군은 일본공사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1852~1912)와 협의 끝에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민비를 죽이기로 했다”고 기록했다. 일본 측 기록에도 여러 차례의 설득 작업을 한 끝에 대원군이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846~1926) 일본공사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민비 살해에 협조했다고 한다. 4개 조건을 직접 전달한 자는 대원군과 친분이 깊었던 오카모토 류노스케다. 대원군이 받아들인 첫 조건은 “대원군은 왕을 보익해 궁중을 감독하되 정무에는 관여하지 말 것”이다. 결국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지연은 『기쿠치 겐조, 한국사를 유린하다』(서해문집, 2015)에서 “대원군이 황후 살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며느리 살해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다만 고종은 대원군이 죽었을 때 칠일장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상가를 찾지 않았다. 결국 1895년 10월, 명성황후는 일본인 자객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그들의 다툼은 권력 투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국민이나 나라는 안중에 없었다. 아예 그들에게 ‘나라’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조선 정치의 특색은 극도의 뿌리 깊은 배타주의와 편 가르기, 정치적 이기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중도와 화합의 길은 찾기 어려웠고 누군가는 죽어야 해결을 보는 방식이었다. 오늘이라고 해서 대체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 부패한 정치의 짙은 유산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며 부패한 관리들이 마치 강도처럼 백성들을 약탈하고 착취한다. 현재의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1866년 흑산도에 도착해 개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원군 아버지의 묘소를 도굴한 독일 무역상 에른스트 오페르트가 남긴 기록이다. 편견이 있을 수 있어 참작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페르트는 조선 정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다.

모든 관직이 가장 높은 값을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관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상대로 강도와 수탈, 착취를 저지른다.

왕실 재정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매관매직이 위부터 아래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강준만 교수의 『한국 근대사 산책 1』(인물과사상사, 2007)에 의하면 1864년에서 1873년까지 이조판서에 임용된 사람은 48명으로 재임 기간은 평균 76일이고, 공조판서는 82명이 임용돼 재임 기간은 52일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지배 계급의 생각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판서가 되는 것은 가문에 영광된 일이고, 이를 위해 맨손으로 관직을 받지 않았다. 재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한쪽은 가문의 영광을 얻어서 좋고 또 한쪽은 돈벌이가 되어서 좋았다.

행정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 경영을 어렵게 하는 일은 그들에게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조판서나 공조판서뿐 아니라 한성판윤의 재임 기간도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80일에 불과했다. 갑오년 한 해 동안은 무려 21명의 판윤이 자리를 바꾸었다.

중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접촉하는 지방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관직을 얻기 위해 고리 대금을 빌리고, 관직을 얻자마자 고리 대금 업자가 달려 보내는 회계관을 재임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예를 들어 수령으로 부임하면 재임 기간이 아주 짧아서 매관비용, 여비, 상납용 뇌물 등을 급히 모아야 한다. 결국 백성들의 고향을 짜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왔다 가는 지방관은 그래도 좀 사정이 낫다. 불박 이형 지방 하급 관리인 아전은 봉급 자체가 없었다. 아전 자리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매관비용에다 자리 유지비, 생활비,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마련해야 한다. 요령껏 챙겨야 하지만 요령이란 것이 끝이 없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오늘도 ‘권력의 사익화’를 엿볼 수 있지만, 그나마 극심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서 다행이다. 1874년 프랑스의 샤를 달레(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는 『한국 천주교사』(한국교회사연구소, 1979)에서 가림주구형 관리 모습을 묘사했다.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이 위로는 국왕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조선에서는 관직이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암행어사까지 권력을 이용해 돈을 모은다. 세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호구 조사 대장도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지방의 병기고에는 쓸 만한 피복, 탄약, 병기가 없다. 모든 군청 관리가 팔아먹었다.

## 무당과 판수, 굿이 지배했던 나라

조선 시대 민간 신앙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계절제, 가신 신앙, 동신 신앙, 무속 신앙, 독경 신앙, 자연물 신앙, 사귀 신앙, 풍수신앙, 점복, 민간 의료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무당을 주축으로 전승되는 무속 신앙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19세기에 이 땅을 밟았던 외국인들은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굿하는 소리를 조선다운 소리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 왕실이 굿이나 주술을 내놓고 옹호했던 것은 아니다. 유학자들은 무속을 음사(陰祀, 음란하고 방탕한 짓)로 간주해왔다.

조선 초기에는 활인서라는 빈민을 구제하고 치료하는 관청이 있었다. 역병이 걸린 환자들을 돌 수 없어서 활인서는 주로 도성 밖에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적극적인 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격리기관에 가까웠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막을 가설하고 환자를 간호하거나 음식물을 배급하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매장까지 담당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무당을 동원한 주술 치료를 했기에 무당들은 세종 때부터 활인서 인근에 모여 살았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역병이 돌면 무당의 기도에도 의존했지만, 서서히 무당을 서울에서 쫓아내다가 영조 대에 이르면 한강 밖으로 축출되었다.

그러나 강을 건너 곳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선교사 헐버트(황보輔甫, 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는 1903년 4월에 「한국 무당과 판수」라는 글을 잡지 《코리안 리뷰》에 기재했다. 헐버트는 무당과 판수를 민간 신앙의 대표 두 유형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무당은 여자가 맡으며 영적 매개자로 정령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정령과 친숙하기에 교류할 수 있다. 반면 판수는 정령과 적대 관계에 있으며 정령(귀신)을 살살 달래거나 몰리치거나 내쫓는 일을 맡는다. 헐버트는 무당이 중국에서 유래되었지만 무당이라는 말은 토착어라는 것을 강조했다. 무당이 하는 곳에는 병 곳, 오구 곳,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위한 곳 등 다양했다. 곳은 주로 환자 집이나 신당에서 행해졌다. 언더우드는 『동아시아의 종교(The Religions of Eastern Asia)』(1910)에서 “한국에서 무당과 판수는 명실상부한 샤머니즘의 대표들이며 사람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조선에는 무속뿐 아니라 사후 세계, 하늘 신(하나님, 오방장군, 신장), 땅 신(터주, 산신, 서낭당, 천신), 물 신, 집안 신, 나무 정령, 또 다른 정령들이 있었다. 인천교회 선교사 조지 헤버 존스(조원시趙元時, George Heber Jones, 1867~1919)는 정령의 수를 8,000만 정도로 보았는데, “사람보다 신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귀신 숭배나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교사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각종 흉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어디 의지할 때가 없었던 조선 사람들의 생활에서 곳과 주술 등과 같은 미신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고서

는 살아가지가 쉽지 않은 존재다. 이런 점에서 조선 사람들의 삶에서 무속은 토대가 뿌리 깊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유행하는 미신 행위다. 북한 형법 267조는 미신 행위죄라 해서 미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신 행위를 한 사람은 비판 무대에 서기도 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배급 및 의료 체계와 행정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굿하는 행위를 ‘방토’라고 부르는데 특히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1990년대부터 부적, 점, 손금, 관상 등이 유행한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란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굿을 통해 치유하는 미신 행위가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열악한 시대가 조선 시대였다.

19세기 조선을 방문한 관찰자들은 한목소리로 조선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미신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는 과학이나 순수 종교의 도움이 없어서 악마나 귀신들에 대한 끝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조선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피스는 『은자의 나라 한국』(집문당, 1999)에서 말한다.

자연과 신령 숭배 풍속을 이용해 악질적인 지배자들은 민중을 선동하고 있다. 1882년 7월 ... 오랜 가뭄으로 흉년이 들자 수구파 지도자들은 서양인들이 입국해 산령이 노함으로써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민중을 선동했다. ... 일본인들이 서울에서 쫓겨나자 여러 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의 소신은 더욱 굳어졌다.



한편 영국인 탐험가이자 화가인 새비지 랜도어(Arnold Henry Savage Landor, 1865~1924)가 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집문당, 2010)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인은 혼령, 악령 등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왕마저 궁궐에 악령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애써 지어놓은 궁궐을 폐허로 방치한다.” 한편 대한제국 궁내부 고문관 샌즈(William Franklin Sands, 1874~1946)는 『조선비망록』(집문당, 1999)에서 조선의 미신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임을 지적한다.

미신은 조선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심지어 고위 인사까지도 무당과 점쟁이에 의해 철저히 오용당해 과도한 지불을 서슴지 않는다. 여성은 조선의 광범위한 미신에 집착하는데, 남자들은 이러한 여성의 습속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1,000여 년 동안이나 생각하고 있다.

조선 말기에는 민비와 고종이 무속에 빠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였다. 민비는 무당을 진령군으로 봉하고 크게 의존했다. 관우 사당을 동소문 근처에 세워주고 사당이 완공되자 신하들과 세자까지 함께 가서 참배했다. 진령군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금강산 정기를 한양으로 뿌려야 한다며 온갖 굿판을 벌여서 국고를 낭비했다. 민비는 미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유인이란 무당은 점 한 번 잘 쳐서 비단 100필과 1만 냥을 받았다고 한다. 민비는 풍수에도 집착이 심했는데 친정아버지 산소를 4번이나 옮긴 것으로 유명하다. 구한말의

대표 유학자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조선은 귀신의 나라”라고 일갈했다. 고종도 민비를 따라 궁궐에서 무당이 내뱉는 한 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식자층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한마디로 조선은 악령, 악귀, 귀신, 혼령이 차고 넘치는 사회였다.

### 불결하고 불편한 사회

19세기의 조선은 불결하고 불편한 사회였다. 1887년 조선에 콜레라가 창궐해 수천 명이 죽었다. 이 사건은 초기 선교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다. 선교사들이 전염병이 도는 와중에 자신과 가족, 환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까닭일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콜레라나 장티푸스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런 전염병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821년(순조 21년) 8월 13일 평안도에 급히 올린 보고가 조정으로 날아들었다.

평양부 성 안팎에서 지난 그믐 동안에 문득 괴질이 돌아 사람들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근육이 비틀리면서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열흘 안에 1,000명이 죽었으나 치료할 약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유행이 그칠 기미가 없고 인근 마을로 번졌습니다. 전염 속도가 불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략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괴질은 중국 동북 지방에서 들어온 것이라 합니다.

당시 세균이나 전염병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 조선은 19세기 후반까지 콜레라로 잃은 인구수가 많았다. 1858년만 하더라도 50여 만 명, 1886년과 1895년에도 수만 명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다. 개인위생에 대한 무지함과 오물이 넘쳐흐르는 생활환경이 전염병을 주기적으로 불러 일으킨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러시아 대장성의 한 보고서는 조선 말엽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변소 안의 불결물이 모두 길 위로 유출해 큰 도시에서는 이것이 복개되지 않은 구거(도랑)로 흘러 들어가 아주 적당한 장티푸스의 발생원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바가 아니며, 이러한 유기물이 음료를 매개로 인체를 범하는 것 같다.

신동원 교수는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역사비평사, 2004)에서 콜레라 같은 역병이 창궐한 이유에 장례 풍습을 더한다.

조선 특유의 장례 풍속도 한 이유가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수의 문상객이 장사를 지낼 때부터 무덤에 묻을 때까지 같이 지내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조선의 미풍양속이다. 전염병원의 진원지인 시체 곁에 다수의 사람이 머물러 있었고, 게다가 음식까지 집단으로 나눠 먹었다니!

아무튼 생활 위생과 개인위생은 ‘아주 불결함’이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선교사인 알렌과 언더우드도 조선의 주택이 지독히도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다. 또한 언더우드의 아내이자 의료 선교사였던 릴리어스 호턴은 불결함에 대해 더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한다.

생활하수인 구정물이 사람 다니는 길 양편의 좁은 도랑으로 흘러가는데 이 불결한 도랑에는 해충으로 가득했다. 이 도랑이 종종 쓰레기로 막혀서 길로 흘러넘치기도 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물이 오염되고, 썩은 야채들이 길가와 집의 창문 아래 수북이 버려져 있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선교사들의 불결함에 대한 토로는 비단 관찰자로서의 기록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이 전염병의 재물이 되었다. 지금도 나이가 든 세대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문장이 이따금 스쳐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이란 단어가 가진 마력에 사로잡혀 너나없이 그 시절을 미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 가난, 부패, 불결, 전염병, 정치 혼란 등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질곡 같은 세월로 만들었다. 깨어 있는 사람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로 같은 세월의 연속에 크게 좌절하고 낙담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내한하던 시절의 조선이란 나라는 천장은 비가 새고 담벼락은 장대비에 허물어져 내려 주저앉기 직전의 토담집 같은 신세였다.



## 2장

# 19세기 말의 미국과 개신교

**19세기 말, 미국은 확고한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한다. 폭발적인 도시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는 미국에는  
개신교 신자 수의 증가와 함께 부흥  
운동이 가을 들녘의 불꽃처럼 번진다.  
이런 움직임이 조선을 향한  
해외 선교로 연결된다.**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농촌 사회였다. 도시 인구는 총 인구 가운데 10%에 미치지 못하고 노동자의 80%는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구두, 안장, 직물, 시계, 금속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규모는 영세했으며 대부분 가족 단위의 농가에서 농한기에 부업으로 단순한 공산품을 제조했다. 이런 사회에서 대규모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업화는 1820년대부터 시작된다.

대규모 면직 및 모직 공장들이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동북부 지역에 건설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잘사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폭발하듯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가 있는데 19세기의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 물질 성장은 많은 것을 바꾸어놓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영적(종교) 분야의 눈부신 성장이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19세기 초반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0%에 지나지 않았다.

1784년 감리교 교인 수는 1만 5,000명에 불과했지만 1850년이 되면 100만 명이 넘는다. 19세기 초 10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회중 교회의 교인 수는 19세기 중엽이 되면 8배로 늘어난다. 급팽창하는 미국의 물질·영적 성장은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선교 열풍으로 연결되는데, 2장에서는 물질 성장과 영적 성장의 시대가 조선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01

---

## 19세기의 미국

### 미국의 공업화

한 국가의 근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공업화와 도시화 면에서 19세기 초의 미국은 영국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이 영국을 추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1872년이 되면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은 영국을 추월한다. 무역 면에서 미국이 영국을 추월하는 시점은 1915년이다.

19세기 미국이 걸출한 성과를 낸 분야는 단연코 제조업의 약진이다. 미국의 면직물 산업은 영국보다 17년 늦었으며, 선철 생산 또한 영국보다 27년이나 늦었다. 미국의 성장 속도는 대표 산업 분야에서



영국을 따라잡는 시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면직물 생산은 1910년이면 영국을 추월하고, 선철 생산은 1890년이면 영국을 따돌린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이 제조업 생산에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하는 첫해는 1885년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상대적 위상은 영국과 비교를 통해 더욱 또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영국 정치인이자 제국주의 주창자였던 조지프 체임벌린(Joseph Chamberlane, 1863~1937)은 “한 국가의 위대함은 그 나라의 과거를 비교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측정된다”고 지적인 바가 있다.

19세기 중후반의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것만큼 미국의 상대적 위치와 성장 속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양국을 이렇게 평가한다.

미국은 연평균 5%를 성장했지만, 영국은 1.6% 성장했을 뿐이다. 1885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영국을 추월했으며, 제조업 생산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886년에는 제철 분야에서, 1890년에는 에너지 소비량에서 영국을 제쳤다.

미국의 제조업은 1810년까지만 하더라도 가내 수공업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1850년대에 접어들면 동북부 지방의 전형적인 면직 공장은 평균 15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50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도 제법 많았다. 이처럼 대규모의 표준화된 공장은 북부의 상징이자 북부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다. 중공업 분

야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1860년을 기준으로 선철 생산량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했다. 1860년대 미국은 한국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떠올리면 된다. 하루가 다르게 공장이 세워지던 시대였다. 1840년과 1860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 매출액은 4억 8,000만 달러에서 20억 달러까지 급성장한다. 20여 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초고속 성장한 시대였다.

또한 1860년대부터 1880년대에 걸쳐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사업이 재편되었다. 1860년 미국의 상위 산업들은 면직업, 목재업, 제화업, 제분업, 남성 의류업, 기계업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1880년이 되면 기계업과 철강업이 상위 1위와 2위를 차지한다.

### 미국의 도시화와 이민자 증가

공업화는 대규모 근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향한 인구 이동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1860년이 되면 동북부 인구의 35.7%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비율은 1830년만 하더라도 14.2%에 지나지 않았다. 1800년 동북부 지역의 도시화율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9.3%임을 염두에 두면 19세기 중후반까지 미국이 얼마나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1860년까지 남부의 도시화율은 9.6%에 지나지 않아서 미국 북부와 남부는 같은 나라이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의 성장(1820~1860)

	1820년	1840년	1860년
동북부	21만 8,000명	49만 3,000명	97만 5,000명
중북부	2만 5,000명	12만 2,000명	20만 0,000명
남부	10만 6,000명	17만 7,000명	18만 2,000명
기타	.	.	57만 6,000명

출처: 양동휴,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33쪽 재인용  
Tucker(1845), <U. S. 인구센서스>(1864)

19세기 중반까지 미국 사회가 겪었던 변화를 위의 표에서 엿볼 수 있다. 제조업과 상업이 주도하는 동북부에서 1820년까지 약 22만 명의 제조업 근로자 수가 1860년이 되면 약 4.5배가 증가한 97만 명이 된다. 미국의 개인 선각자들 가운데는 일찍부터 도시화가 미국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1812년 ‘미·영전쟁’의 전국적인 영웅이자 훗날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 장군은 1824년 4월 26일, 노스캐롤라이나의 콜먼(L. H. Coleman)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제조업 부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국민 60만 명을 농업으로부터 떠나게 한 다음 제조업에서 일하게 한다면 당신은 농민들에게 유럽 전체가 제공하는 것보다 크고 좋은 시장을 제공해주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조업 근로자 수의 증가는 농촌 인구 뿐 아니라 이민이 기여한 바가 컸다는 점이다. 1820~1850년 사이에 37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 땅을 밟는데,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뉴욕 부근에 터를 잡는다. 1860~1899년 사이에는 1,007만 명이 미국 땅을 밟는다.

19세기가 미국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의미의 소란스러움이 차고 넘쳐났는가는 미국 인구가 약 30년 만에 1,287만 명(1830)에서 3,144만 명(1860)으로 2.44배 늘어났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9세기 미국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하면 지속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자연히 임금 수준은 영국에 비해 30~50%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임금이 높은 것도 이민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1860년 미국 남부를 100으로 가정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북부 140, 오스트레일리아 144, 영국 126, 프랑스 82, 독일 67, 이탈리아 49, 일본 14 수준이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1위는 오스트레일리아이고, 2위는 미국 북부, 3위는 영국, 4위는 미국 남부가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1860년 미국 북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1달러이고 남부는 103달러였다.

## 1860년대, 기술 혁신이 일어나다

위기는 도전과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가 마인드를 가

진 사람들은 위기에 주눅 드는 법이 없다.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찾는다. 미국은 기업가의 나라다. 한마디로 상업화에 능한 나라라는 뜻이다. 19세기 미국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과 고임금의 시대였다. 게다가 1861~1865년 사이에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약 60만 명의 사상자와 50만 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미국은 넓은 땅에 비해 노동력이 귀해서 임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농업 분야도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이 제조업으로 무한정 이동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정부는 1864년 '자영 농지법'을 제정해 정부가 소유하던 서부 토지를 경매가보다 훨씬 싼 1에이커(약 4,047㎡)당 최저 1.25달러에 매각했다. 농가들이 방대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되는 동시에 수확기 같은 농기계가 도입되자, 토지 단위당 생산성은 크게 올라갔다. 1에이커의 밭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생산성이 올라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농장 수는 260만 개(1850)에서 450만 개(1870)로 늘어났다.

제조업 경영자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조업으로 유인하려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제조업의 생산성을 크게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여기서 미국 기술 혁신과 기계 공업의 발전이 뒤따르게 된다. 1962년 존 하박국(John Habakuk) 교수가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기술 및 노동 절약 발명의 모색」이란 유명한 논문에서 주장한 아이디어는 명료하다.

토지의 풍부함과 노동의 희소성이 결합되어서 고임금이 생겨났고, 다시 이로 인해 남북전쟁 이전부터 미국에서 노동 절약을 위한 혁신들

을 적극 찾게 되었다.

하박국이 주장하는 노동 절약을 위한 혁신은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면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면의 비중이 더 크다. 이제껏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 이론에 바탕을 두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혁신이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높은 상태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고, 노동 절약적 동력을 개발하며, 대규모 공장 생산법을 개발하는 데 특별한 동기를 부여했다. 1814년 보스턴 상인 프란시스 캐벗 로웰(Francis Cabot Lowell, 1775~1817)은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물' 방직기가 아닌 '프레임 방직기' 공장을 만들었다. 영국이 당시의 첨단 기술인 방직기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로웰이 방직기 제조 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한다.

1845년에는 제화업에 가죽 감는 기계가 도입되었고, 1852년에는 신발을 꿰맬 수 있는 '싱어 재봉틀'이 도입되었다. 1848년 재봉틀을 활용해 의류업을 기계화한 사람은 엘리어스 하우(Elias J. Howe, 1819~1867)다. 노동 절약형 혁신은 폭넓게 확산되었다. 1861년에는 제화업에 재봉틀이 도입되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 1862년에는 신발 밑창을 꿰매는 기계가 도입된다.

1867년 크리스토퍼 쇼레스(Christopher Latham Sholes, 1819~1890)가 발명한 타자기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 황금의 시대

19세기 중후반의 미국은 엄청난 부(富)를 축적하는 시대였다.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제이 피 모건,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제임스 듀크, 헨리 하인즈, 조지프 캠벨, 윌리엄 프록터, 제임스 갬블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이기도 하고, 벼락부자가 된 악덕 자본가를 비난하는 표현인 ‘악덕 강도(Robber Barron)’란 용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던 바로 그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은 대륙횡단철도의 완공이다. 1869년 5월 10일,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횡단철도가 드디어 기적을 올렸다. 변변한 장비 없이 오로지 인력에만 의존해야 했던 철도 건설은 대단한 역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미국의 철도 건설은 1880년대에 전성기를 자랑한다. 철도 건설 붐은 미국인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고 만다. 철도는 상품의 운송비를 상상할 수 없을 수준까지 떨어뜨리게 된다. 예를 들어 철도는 아이다호산 감자가 동부에서 팔리는 가격을 10분 1로 푹 떨어뜨리게 한다. 많은 사람이 국립공원이나 기회를 찾아 서부로 몰려가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철도 건설이다.

거대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이 미국 전역에 연결되자 근대적 대기업과 현대 산업계의 특징이 되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출현한다.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유통 사업들이 출현하게 된 것도 19세기 중후반 무렵이다. 메이시는 1858년 뉴욕에 잡화 소매상을 설립한 이후에 1860년대를 거치면서 거래 상품을 늘리고 매장을 확장한 다

음 오늘날과 같은 백화점이란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다. 백화점이 수익을 내려면 도시 규모가 중요한데 1870년의 뉴욕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었다. 뉴욕에는 134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철도가 발전하면서 미국의 대도시들이 성장하고 백화점은 빠른 속도로 점포를 확장하게 된다.

이때 백화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유통 사업 모델이 통신 판매업이다. 이 사업 분야에서 선두 주자는 단연코 시어즈다. 1890년 이후 시어즈는, 24개의 판매 부서를 확장해 다루지 않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확장에 확장을 거듭한다.

마차로 운반하던 시절에 비해 큰 변화가 일어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부패하기 쉬운 식품 관련 사업이다. 육류의 경우, 단거리는 냉동차를 이용하고 장거리는 가축을 산채로 싣고 현지에서 도축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철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부에서 구입한 소를 동부까지 가져와 도축하고 있었다. 운반하는 소 가운데 3분의 2는 운반 과정에서 상태가 나빠져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소 운송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이 기회를 잡은 기업가는 식육 도매업자 구스타브스 스위프트(Gustavus Franklin Swift, 1839~1903)다. 그는 냉장차를 제조해 서부의 식육을 동부로 수송하는 방법을 채택해 큰 기회를 잡게 되는데, 일감을 잃게 될 위험을 감지한 철도 회사와 도매업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동부철도간선연합은 운반을 거부하고, 도매업자들은 이익 단체를 결성해서 대항했다. 그러나 값싸고 신선한 식육을 공급할 수



있는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결국 1880년대가 되면 청과물, 맥주 회사 등과 같이 신선도를 요구하는 모든 산업이 냉장차를 이용한 운송 방법을 택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성공을 거둘 때마다 부자들이 탄생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탄생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자 1800년대 후반에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다. 그 시대 부자들의 호화로운 삶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지금도 전해져온다.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에는 당시에 이름을 날렸던 부자들의 여름 별장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관광객들을 맞는다. “정말 잘살았구나!”라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별장을 치장해놓았다.

엄청난 부가 만들어지던 그 시대에 대해 래리 슈에이카트(Larry Schweikart)와 린 피어슨 도티(Lynne Pierson Doti) 교수는 『세계 명문 기업들의 흥망성쇠(Great Company 500)』(타임비즈, 2010)에서 말한다.

몇몇 기업가의 독점 시도, 끊임없는 정부 지원 추구,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은 모두 1800년대 후반 ‘사업가는 야누스의 얼굴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 일조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가난뱅이로 시작해 부자가 된다는, 성공과 발전을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직접 실현하고자 했던 인물들이었다. 보다 위대한 정신적·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이름으로 물질적 부를 거부할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또 부를 획득한 인물들, 특히 상속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얻은 성공한 인물들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무튼 1865~1892년 사이에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4,000명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가 그 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19세기 중 후반의 미국은 부가 엄청나게 축적되는 시대였으며, 도시화가 눈부시게 진행되는 시기였으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이뤄지는 시대였다.

# 19세기의 미국 개신교

### 미국인과 기독교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뿌리는 아주 깊고 오래되었다.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의 1센트짜리 동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서로를 믿는다(In God We Trust)’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다수의 미국인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중이 낮으며 신 같은 절대 존재가 있다고 믿는 비중이 90%를 넘어설 정도다. 2015년 크리스천의 비중은 75%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1990년의 85%에서 하락한 수치다.

이 책의 주제는 미국 선교사들이므로 특히 19세기 중후반의 미

국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새뮤얼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 1927~2008)은 “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의 비중은 1776년에는 전체 인구의 17%에 지나지 않았지만 1860년이 되면 37%로 늘어났다”고 말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이 독립을 추구하던 1740년대부터 50여 년 동안 교회 성장이 침체를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1740년대 이후부터 1812년까지 침체가 심했다. 당시 미국의 신앙 상태를 진단한 한 성공회 역사가는 “독립전쟁(1776) 종결부터 1812년 사이의 기간은 영적인 생명이 중단된 시기다. 이는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생명력이 저조한 시기였다”고 말한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1800년에는 기독교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독립혁명에 쏠려 있었고 주점, 안식일 모독, 어린이 학대, 폭동, 방종, 방탕 등이 미국의 보편 현상이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이해하면 미국의 기독교인 비중이 10%(1800)에서 37%(1860)까지 급성장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미국 기독교 역사가인 케네스 라토렛(Kenneth Scott Latourette, 1884~1968)은 “19세기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팽창한 시대였다”고 진단한다. 라토렛은 19세기를 개신교의 지역적 팽창과 사상적 면에서의 팽창이 동시에 이뤄진 시기로 정의한다. 이런 면에서 미국 개신교에게 19세기는 팽창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1800~1830년까지 미국의 회중교, 침례교, 감리교, 장로회 신자는 110만 명이 증가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인구는 750만 명이 늘어났다. 특히 1826~1830년 사이에 개신교 교인 수는 약 20만 명이 늘어

났다. 참고로 1830년의 미국 인구는 1,280만 명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여보자. 2차 대각성 운동의 일환으로 1801년 켄터키의 케인리지 캠프에서 열린 부흥회는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수천 명이 참석했다. 켄터키의 장로교 신자는 4,700명에서 1만 3,500명으로 늘어났다. 1801~1806년 사이에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서 침례교 신자는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다. 내한 선교사들이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급증하는 시대에 성장했고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선교 활동에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19세기부터 기독교인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사건으로는, 18세기 초에 시작되어 30년 동안 지속된 1차 대각성 운동(신앙 부흥 운동, 1720~1750)과 2차 대각성 운동(1787~1825)을 든다. 2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 미국 기독교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동부의 대학가에서 일어난 각성 운동 사례를 보자. 1795년 예일대 학장에 취임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의 손자 티모시 드와이트(Timothy Dwight, 1752~1817)가 시작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었던 예일대학에 신앙 부흥 운동의 불을 지피게 되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1802년까지 225명의 예일대학 학생 가운데 75명이 회심해 기독교인이 된다. 이 각성 운동은 주변의 다트머스대학, 윌리엄스대학, 암허스트대학 등으로 확산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기독교인 회심의 대열에 들어선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성과 합리만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지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성인이 된 사람이 누군가의 권유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부흥에 참석해 감화 또는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성이나 합리의 눈으로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사람을 두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여기서는 선택(택정)받지 않은 자라면 기독교인이 되기 힘들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교단에 따라 이성이나 지성의 힘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다.

한편 19세기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크게 늘어난 점은 지적으로 부분 설명을 할 수 있다. 인간은 빵(물질)만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질이란 것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부나, 아무리 많은 학식이나, 아무리 큰 권력을 쥐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이나 불안감 등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19세기 미국인들은 물질이 급팽창하고 급속한 변화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면서 나름의 심적 안정이나 균형 감각을 확보하기 원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 형태의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19세기 미국 기독교의 급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의 설명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젊은이들이 대거 등장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성인들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교단마다 여성들이 해외 선교부를 결성해 선교사들을 국외로 파송하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 결과 장로교와 감리교의 해외 선교부가 조선 선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 19세기 미국 개신교와 보수 신학

성경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 따라 신학의 내용과 신학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교단과 교파가 나뉜다. 내한한 미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반듯한’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기에 한국 개신교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유산을 남겼다. 한마디로 초기 내한 미국 선교사들은 정통주의 신학 혹은 보수주의 신학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이는 19세기 미국의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 따라서 19세기 미국 기독교 상황을 점검해봐야 한다.

19세기 미국 기독교의 특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한국 개신교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시 미국은 정통주의 혹은 보수주의 신학이 다소 우세한 시대였다. 칼뱅주의에 바탕을 둔 장로교와 알미니안주의에 바탕을 둔 감리교가 혼재했다. 여기서 정통주의는 16세기부터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시켜서 교회와 교리를 만든 것을 말한다. 정통주의 신학은 칼뱅주의(칼뱅의 신학 사상으로 개신교 주류 신학)를 말하며, 알미니안주의(16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알미니우스의 사상)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정통주의로부터 ‘그리스도 안의 새 삶’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험적 종교로 방향 전환을 외친 사람이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다. 신앙에서 인간 이성과 실천에 무게 중심을 두는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와 결별하고 감리교로 독립했다.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기울었던 대표 인물이다. 칼뱅주의는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신의 예정적 섭리에 의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구원에 공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요한 웨슬리 외에도 동생인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와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의 활동도 활발했다. 특히 화이트필드 목사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신앙 부흥)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그 또한 알미니안주의를 자신의 신학적 근거로 사용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이성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특히 대각성 운동 이후에 크게 성장한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에 가깝다. 18세기 이후 미국 감리교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였다. 감리교는 교세가 성장하면서 19세기 중엽에는 200여 개에 달하는 신학교를 통해 인재를 배출해냈다.

다음으로 성경을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하려는 ‘유니테리언(자유주의자)’들은 미국 기독교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19세기 미국 기독교사에 중요한 사건은 미국 내에서 생겨난 유니테리언교회다. 이 교회는 삼위일체론(①한 분 하나심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신다 One God in three persons, ②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갖고 계신다)을 부정하고 단일신론(단성론,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



시고 사람이 아니다)을 주장함으로써 주류 기독교와는 교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유니테리언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칼뱅주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칼뱅주의는 ‘저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반해, 유니테리언들은 ‘저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신학, 종교, 역사』(이세의나무, 2018)에서 김경식 박사는 유니테리언들의 입장을 정리한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 부여한 것이라면, 인간은 악해지려는 경향도 있지만 선해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칼뱅주의자들의 예정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825년에 미국유니테리언연합회를 결성해 별도의 교단으로 출발한다. 보스턴 지역의 교회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을 장악해 자신의 교리를 따르는 목사를 양성하게 된다. 하지만 교세를 크게 키우는 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간 이성에 권위를 크게 부여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의 종파에 머물게 됨으로써 19세기에 미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는 초기 선교 과정에서 한국에 자유주의 신학이 발을 붙이기 힘들게 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계몽주의, 경험주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기독교

교 신학을 말한다. 또한 인간의 이성, 감정, 도덕 능력, 창조력 등을 강조해 성경, 정통 신학, 교리, 기독교 전통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역사적 산물 혹은 인간 이성의 산물로 격하시킨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정통주의 신학은 오랫동안 굳건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상징적인 사건은 정통주의 신학의 중심지였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9년을 전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곳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한한 장로교 계통의 미국 선교사들은 주로 프린스턴 신학교, 매코믹신학교와 파크대학, 리치먼드유니언신학교 출신들이다. 이 가운데서 프린스턴신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았다. 프린스턴신학교는 미국의 보수적 칼뱅주의 신학의 보루를 자처하던 곳이었는데 진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에 밀려 존 그레이섬 메이컨(John Gresham Machen, 1881~1937)을 비롯한 전통 칼뱅주의 신학자들이 프린스턴을 떠나는 해가 1929년이다. 내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큰 흐름을 차지하기 이전에 교육받았던 것은 두고두고 한국 개신교에 선물이 되었다.

반듯한 신학이 한국에 전해진 것의 의미에 대해 감리교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한국 기독교와 역사』, 1997)에서 이렇게 말한다.

초기 선교사들은 16세기 칼뱅주의 근본 원리와 17세기 청교도 신앙

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보수적 신학을 호호했던 인물들이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일기 시작한 ‘계몽주의’와 ‘근대주의’ 신학 흐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미국에서 정통주의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목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복음주의(개혁주의 혹은 정통주의 혹은 칼뱅주의) 신학을 뿌리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 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끼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개신교의 일부에서는 ‘근본주의 원칙 5가지(성서무오설 즉, 예수의 신성, 동정녀 탄생, 예수의 대속,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를 정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1846년에 복음주의연맹이 결성되고, 1895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5가지 교리 원칙이 발표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부터 영국과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주창하는 기독교 신학을 기독교 근본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늘날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신학은 주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 미국의 기독교와 구제, 자선

성경은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여러 차례 말한다. 따라서 다른 종교들에 비해 기독교는 구제, 구휼, 구빈을 특별

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 사회는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가난한 이  
민자들이 몰려드는 사회였지만 국가가 나서서 복지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이유는 미국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 때문이다. 미국은 전  
통적으로 빈민층을 돕는 것을 개인의 자선이나 지방 정부의 일로 간  
주해왔다.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국가가 주도하  
는 대규모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미국은 1929년의 대공  
황이나 1960년대의 '위대한 사회' 건설 등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인들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19세기만 하더라도 급속한 산업화가 전개되고 있고 광활한 농  
지가 있는 상태에서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로 받아  
들였다.

미국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익숙하다. 지금도  
18세 이상의 미국인 중 50% 정도가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고 미국  
가정 가운데 75%가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19세기에도 미국의  
자선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미국인뿐 아니라 어려움  
을 당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도 개방적이다. 초기 선교  
사들의 자선이나 구제 활동은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일이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  
다는 사회복음 신학이 등장해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가 있다. 그 시기  
는 20세기 초부터다. 감리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음(Social Gospel)을 적  
극 수용했다. 1908년 미국의 북감리교는 다른 교파보다 일찍 '사회  
신경(Social Creed)'을 채택해 복음의 사회화를 추구한다. 사회복음은

개인의 구원 못지않게 사회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학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은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의 영혼 구원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땅을 혹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선교사들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교단에 관계없이 조선인들의 가난과 질병을 구하려고 팔을 걷고 나섰다. 이는 기독교의 전통인 구제와 미국인의 전통인 자선이 어우러져 나온 활동이었으며 여기에도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란 면도 고려되었다. 20세기 초에 본격화된 사회복음주의는 초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만 1950년대에 내한한 선교사들은 사회복음의 영향력이 컸다. 시기적으로 볼 때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친 것은 사회복음의 영향보다 성경의 구제 활동과 미국의 자선 문화, 박애주의 정신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이유가 어떠하든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구제와 자선 활동이 고단한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 03

---

# 미국 개신교의 선교 열기

### 선교사들이 전하려 했던 것

전도(傳道) 혹은 선교(宣敎)는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알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을 말한다. 같은 언어권이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전도이고, 다른 언어나 문화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선교다. 왜 기독교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것일까? 기독교 신자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의무, 즉 지상 사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상 사명(The Great Commission)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지상 사명에 관해 5번이나 기록해놓았는

데 이 가운데 2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외국까지 가서라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고 말한다. 19세기에 오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땅을 방문했던 미국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에 따라 자신들이 먼저 받았던 복음(福音)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전하러 했던 복음(Gospel)은 무엇이었을까? 복음은 ①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남(성육신) ②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대속) ③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부활) ④부활한 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 하늘에 오르시고(승천) ⑤이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보고, 믿고, 순종으로서 ⑥영원한 생명을 얻고(영생) ⑦이를 전하는 것(전도)을 말한다.

복음은 영어로 ‘복된 소식(Good News)’,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복음(The Gospel of God)’은 헬라어로 ‘유앙 겔리온 떼오’라고 불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복음은 하나님(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로마서 1:2). 성부 하나님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로마서 13~4).

선교사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을까? 어떻게 이해했기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나 물질적 풍요를 내려놓고 오지인 조선 땅에 와서 불편함을 겪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넓은 의미의 사도(使徒)로 이해했다. 사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한다.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거나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등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선교사들은 오지로 가는 불편함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갔을까? 선교사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 해외 선교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조건은 3가지로 ①모태에서 택정을 받고 ②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고 ③준비케 하신 사람들이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지로 가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왜 해외로 선교사들이 나갔을까? 어느 나라든 국내를 위한 전도



와 해외를 위한 선교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전도가 먼저 이뤄지는 일이 성경 말씀에 합당하다. 성경도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복음화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열두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나 자기 민족 복음화를 이룬 다음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복음화로 나아간다. 19세기 미국도 선교사들을 다른 나라에 파송하기 이전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기독교 교리를 널리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부터 진행했다.

### 신앙 부흥회와 국내 전도

우리 모두는 성장과 발전, 부유함과 편안함을 바라지만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부유해지면서 어느 사회든 신앙에 대한 순수함이나 갈급함을 잃게 된다. 물질이 삶에 선물하는 것들이 많지만 빼앗아가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땅을 밟은 이주 1세대의 청교도 신앙은 순수하고 강렬했지만, 2세대·3세대로 가면서 청교도 신앙은 빛을 잃게 된다. 결국 신앙적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부흥 운동이 전개된다. 부흥 운동은 전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흥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다. 부흥회의 의미는 성령의 힘으로 개신교 신자들의 믿음을 부흥시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열리는 특별 기도 집회다. 성경에는 초대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오순절

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중생(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례를 소개해놓았다.

미국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것은 1차 대각성 운동(1720~1750)이다. 중부 뉴저지주의 부흥, 북동부 뉴잉글랜드의 부흥, 남부의 부흥 등으로 확산되면서 신앙적 침체를 벗어나고 회심해 기독교인이 되는 수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1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30만 명이 살던 뉴잉글랜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부흥 운동이 한창이던 1730년대 말, 불과 2년 사이에 교인 수가 2만 5,000명에서 5만 명까지 늘어났다.

한편 2차 대각성 운동(1787~1825)이 이어진다. 1740년대부터 이후 50년 동안 미국의 교회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민 1세대가 굳게 가져왔던 정통 칼뱅주의가 공격을 받으면서 신학도 점점 변질되는 조짐이 보인다. 성경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이신론(deism)이 미국에서 확산되는 시기가 18세기 초다. 이 시기는 서부를 향한 확장을 계속하기도 했다. 켄터키가 1792년에 주로 인정받고, 이어서 테네시(1796), 오하이오(1803), 루이지애나(1812), 인디애나(1816), 앨라배마(1817), 일리노이(1818), 미시시피(1819)가 주로 인정받는다.

척박한 새로운 정착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일은 미국 기독교계에 큰 도전 과제였다. 개척민들은 보스톤이나 뉴욕 같은 동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젊고 행동이 자유로웠으며 대체로 모험심과 정신력이 강했다.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에게는 정통 칼뱅주의와 다른 성경 해석이 필요했다. 문명

화된 동부가 엄숙함과 경건함에 비중을 두었다면 개척지인 서부와 중부는 과격함과 뜨거움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변경 지역의 전도를 상징하는 것은 캠프 집회였다. 당시를 묘사한 기록은 장로교에 비해 감리교의 성장이 필연적이었음을 말해준다.

가는 곳마다 감리교인들이 넘쳐났다. 켄터키의 부흥사들은 대체로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들이었다. … 과거의 경험에 비취볼 때 쉽게 예상할 수 있었듯, 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개신교회들의 1차 반응은 이미 시도해보았고 입증된 방편인 부흥회식 설교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었다.

동부 버지니아의 작은 두 장로교 대학에서 1787년에 일어난 각성 운동은 한쪽은 서부의 개척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다른 한쪽은 동부의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2차 각성 운동의 큰 특징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에 신뢰를 두는 감리교와 침례교가 급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감리교는 1776년 독립전쟁 이전까지는 교파를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2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는 동안 급성장하는데 1820년에는 침례교를 제치고 1840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된다. 감리교 다음으로 크게 성장한 교파는 침례교다. 침례교는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회중교회, 감독교회, 장로교회를 능가함으로써 미국의 두 번째 개신교단으로 성장한다. 예를 들어 1812년에 20만 명이었던 침례교인은 1850년이 되면 100만 명을 넘어섰다.

## 2차 대각성 운동은 해외 선교의 출발점

2차 대각성 운동(1787~1825)은 미국을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의로운 제국(Righteous Empire)’으로 만드는 데 힘을 더했다. 이 운동은 기독교가 개인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힘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명한 신학자 새뮤얼 홉킨스(Samuel Hopkins)는 ‘사심 없는 자선’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누군가의 회심이 참된 것이라면 이 같은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 만들어진 단체들은 지역 단위의 선교 단체들이었으며, 이 단체들은 교회 설립을 적극 지원했다. 당시 만들어진 조직들로 미국성서공회(1816), 미국교육협회(1816), 미국주일학교연맹(1824), 미국문서선교회(1825), 미국금주협회(1826), 미국노예반대협회(1933) 등이 뒤를 따른다. 당시에 만들어진 교단 차원의 대표 선교 조직은 장로교의 장로교연합국내선교회(1826)와 회중교회의 미국국내선교회(1826)가 있다. 다른 교단들도 비슷한 전국 조직을 출범시킨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장애인처럼 소외된 자를 위한 특별 구호 기관들을 적극 설립했다. 182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1인당 음주량이 지금보다 4배나 높을 정도로 음주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성령 세례의 은혜를 체험한 기독교인들이 금주를 권장하면서 음주율은 1830~1840년 사이에 절반, 즉 양으로 측정하면 음주자당 약 11리터(3갤런) 정도 감소했다.

선교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선교의 최우선 대상은 희생된 인디언들이었는데, 국내 선교에 힘쓰는 이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

표 인물이 새뮤얼 밀즈(Samuel Mills, 1783~1818)다. 1806년 8월 초 밀즈와 동료 대학생 4명이 폭우가 쏟아지던 날 건초 더미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기도 중에 밀즈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We can do that if we will)’는 영감을 얻는다. 그 후 여름내 그 숲속에서 해외 선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미국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 행한 첫 기도 모임이다.

1806년, 뉴잉글랜드 윌리엄스칼리지에서 시작된 ‘건초 더미 기도회’를 이끌었던 학생들은 1808년 9월 7일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해외 선교를 위한 ‘형제단 헌약’에 서명한다. 그 후 ‘형제단(The Society of Brethren)’에 동참할 학생들을 늘려간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주변 신학교,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하버드대학으로 재입학해 동참할 학생을 확보하고 1810년 6월 28일 브래드포드에서 열리던 교단 총회를 찾아가 자신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교회선교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1810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 단체인 ‘미국교회선교위원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다. 이 중 3명과 또 다른 2명이 1812년에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된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선교 형제단을 통해 많은 대학생이 아시아 선교에 나섰다.

젊은이들의 불을 지핀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은 교단을 중심으로 해외 선교 단체 결성으로 이어진다. 미국교회선교위원회(1810)에 이어 회중교총회(1810), 침례교선교연합회(1814), 감리교선교회(1819), 개신교 감독교회(1820), 화란개혁교회(1832), 장로회(1837) 등이 세계 선교를 위한 조직을 갖추었다. 1850년까지 모든 교단이 해외 선교 활동을 위

해 연간 65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입했다.

독립전쟁 이후 10여 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개신교의 팽창은 19세기 내내 개신교 부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케네스 라토렛은 『기독교의 역사』(대한기독교서회, 1986)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기독교나 다른 어떤 종교도 19세기 이전에는 같은 기간 동안 그렇게 넓은 지역에 들어가 등지를 틀 수 없었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독교나 다른 어떤 종교의 확산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바친 적이 없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에 그렇게 근접했던 적이 없었다. 또한 그 이전에는 인류에게 그토록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다.

이 모든 현상을 두고 라토렛은 기독교 역사가의 입장에서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당시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기독교가 급팽창한 역사는 일찍이 없었다.

###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와 한국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자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개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해야 초등학교 5년

이 전부였던 그는 부흥 집회와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아시아 선교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배출했다.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가 고향인 무디는 17세에 고향을 떠나 보스턴에서 구두 세일즈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으며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걸출한 설교 능력과 복음 찬송 작사 및 작곡 능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교에 획을 그은 인물이다. 15년 동안 시카고에서의 주일학교, YMCA를 통한 청소년 사역, 영연방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부흥 집회를 마치고 고향으로 금의환향한 시점이 38세 때였다. 그즈음 생가 바로 아래 큰 집과 땅을 구입해 노스필드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 1879년 무디의 집과 부지 곁에 세워진 여학교가 노스필드세미너리이며, 지금도 아름다운 캠퍼스는 건재하다. 그의 집과 묘소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무디의 묘비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한일서 2:17)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한편 무디가 주최한 부흥회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뉴 헤이븐의 세계 회사 사장 히람 캠프(Hiram Camp, 1824~1908)가 현금한 2만 5,000달러로 노스필드 앞 코네티컷강 언덕 위에 1881년에 설립한 학교가 남학생을 위한 마운트허먼이다. 지금도 마운트허먼의 언덕 위에 우뚝 선 기묘교회(Sage Church) 앞마당에 서면 발아래로 학교 전경과 산들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두 학교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치를 내걸었으며 지금은 뉴잉글랜드 및 미국 8대 명문 사립 기숙학교로 성장했다. 참고로 2006년부터 노스필드 캠퍼스는 폐쇄되고, 마운트허먼 캠퍼스에 남녀 공학 기숙학교인 ‘노스필드마운트허

면(NMH)고교'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학교인 노스필드세미너리는 현재 내셔널크리스천재단에서 무디센터와 가톨릭 계열의 토머스아퀴나스칼리지로 운영하고 있다. NMH가 배출한 인재 가운데 200여 명이 1930년대까지 선교사로 나갔으며 이 중 20여 명이 한국에 헌신했다. 또한 그가 1889년 시카고에 설립한 무디성경학교는 5,500여 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

한편 부흥사 무디가 영국에서 부흥 집회(1872~1875)를 할 때 지도자급 학생 7명이 선교사로 지원했는데 이들은 모두 1885년 2월에 중국으로 파송된다. 이들을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케임브리지 크리켓 주장이자 무디성경학교를 가능하게 한 찰스 토머스 스테드(Charles Thomas Studd, 1860~1931)가 무디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아이비리그 대학을 순회하면서 세계 선교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이때 그의 호소에 감동받은 사람들 가운데 훗날 세계선교·학생자원운동(SVM FM,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결성으로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코넬대 학생 존 모트(목덕穆德, John Raleigh Mott, 1865~1955)가 있었다. 존 모트는 1907년 한국을 방문해 대규모 부흥회를 가지기도 했다. 1910년 YMCA국제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을 때는 미국 유학을 마친 이승만(훗날 한국 초대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YMCA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1886년 1회 노스필드사경회(The Northfield Conference)에서 부흥사 피어슨 박사(피어선皮漁鮮, Arthur Tappan Pierson, 1837~1911)는 설교 중에 즉흥적으로 '세계선교헌장(Northfield Appeal to Disciples Everywhere)'



제정을 제안한다. 이 헌장은 “4억 명의 일반 기독교인 중 10만 명 (0.025%)의 헌신된 기독교인 한 명이 조직적 노력을 통해 100명의 비 기독교인에게 15년 동안(1885~1900) 복음을 전하면 1900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야심찬 세계 복음화 비전과 계획을 담고 있다. 이것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학생 단체인 SVM의 표어인 ‘우리 세대에 세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교에 불을 지피게 된다.

## SVM 출범

SVM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입니다.

SVM 출신으로 대표적인 내한 선교사인 새뮤얼 오스틴 모펫(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의 셋째 아들이자 한국 장로교 성장과 역사에 크게 공헌한 마삼락 교수의 말이다. 예를 들어 1905~1909년 사이에 한국을 찾은 135명의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무려 81명, 즉 60%가 SVM 출신이다. 1909년만 하더라도 파송된 미국 선교사 30명 가운데 70%인 21명이 SVM 출신이었다.[Dae Young Ryu, “Understanding Earl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1994~1990)”, 2001, p.7]

시간을 더 확장하면 1923년까지 SVM 출신 가운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는 무려 404명이나 된다.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 전파와 확산은 SVM의 성장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SVM의 초

기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역시 무디 부흥사다. 그는 영국 선교에서 큰 성과를 얻고 나서 같은 방법을 미국에 적용한다. 프린스턴대학, 예일대학, 다트머스대학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확신을 얻는다. 그가 케임브리지에서 7명의 해외 선교 헌신자를 찾아낸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때 힘을 더한 사람이 '케임브리지 세븐'의 일원이자 잘 알려진 크리켓 선수 찰스 스테르다. 무디의 초청으로 미국 대학 순회에 나선 찰스 스테르드는 기독교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에 나서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 1회 노스필드 대학생 사경회

1886년 봄, 무디는 조지아주 부흥회에서 사역의 핵심 단체였던 각 대학 YMCA 간사들에게 YMCA 보스턴 지역 대학 간사인 루더 위샤드(Luther Wishard)와 찰스 오버(Charles Ober)로 하여금 무디가 이끄는 '노스필드 여름 대학생 사경회'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내도록 한다. 여기서 루더 위샤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린스턴대학을 다니면서 학교 클럽을 운영해본 경험이 무디의 여름 대학생 사경회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무디의 제안을 받자 루더 위샤드는 초청장을 수정하자고 제안한다. YMCA뿐 아니라 각 대학의 대표급 학생들도 함께 초청하자는 안이었고, 이를 무디가 받아들였다. 참고로 사경회(查經會, Bible study)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특별 집회를 말한다.

이 집회는 마운트허먼고교에서 1886년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 미국과 캐나다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모

였다. 무디의 초청으로 집회에 참석한 유명한 부흥사 피어슨 박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으로 가라(All should go, and go to all)”고 외치며 젊은 기독 학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이 사경회에서 프린스턴대학 대표인 로버트 와일드(Robert Wilde)는 부흥사 무디에게 “10명의 학생들에게 선교라는 테마에 대해 짧은 연설을 허용하자”고 제안한다(로버트 와일드는 인도 파송 선교사인 로열 와일드의 아들로 인도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함께 ‘미셔널리 리뷰 오더 더 월드’를 설립하고 SVM 서약의 기초가 되는 프린스턴 서약을 제작한 인물이다). 이것이 주효해 집회 마지막 날 100명의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는 결심을 한다. 이처럼 헌신자가 많이 나오게 된 데는 로버트 와일드가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이들은 흔히 ‘마운트허먼 100’으로 불리는데 이 가운데 24명이 NMH 출신이다.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1886~1887년 동안 프린스턴대학 대표인 로버트 와일드와 존 포만(John N. Forman)은 162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2,016명(여학생 500명 포함)의 해외 선교 지원자를 확보한다. 이때 한국 선교의 중요 인물들도 지원자로 자원한다. 새뮤얼 모펫, 윌리엄 베어드(배위량裴偉良, William Martyn Baird, 1862~1931), 그래함 리 등이 매코믹신학생으로 조선 선교의 물꼬를 텃다. 조선 선교 초기에 큰 공헌을 한 캐나다 선교사 4인방인 하디, 예비슨, 게일, 펜윅(Malcolm C. Fenwick, 1863~1935)은 이때 지원한 사람들이다.

## 2회 노스필드 대학생 사경회

1887년 2회 노스필드 대학생 사경회는 ‘교회에게 호소함’이란 주제로 개최되는데 이때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유럽 대학생들이 대표로 참가한다. 이 사경회에서는 1회 사경회에서 결성된 ‘마운트허먼 100’의 학생들 이름으로 선교기관에게 세계 선교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편지를 보낸다. 편지 제목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 해외 선교 사역지의 증가와 지역 교회의 해외 선교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이었다. 이때도 오하이오주 장로교대학인 우스터대학의 대표 윌리엄 스왈른(소안론蘇安倫, William Leander Swallen, 1859~1954), 캐나다 퀸스대학교 의과대학 대표인 윌리엄 홀(하락賀樂, William James Hall, 1860~1894) 등 조선의 선교사로 파견될 SVM 학생 대표들이 참여했다.

### 3회 노스필드 대학생 사경회

1888년 50명의 지도자급 학생 대표들이 노스필드에 모여 SVM이라는 해외 선교 단체를 출범시킨다. 미국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생 선교 운동인 SVM은 존 모트를 회장으로, 로버트 와일드를 순회 총무로 선출하고 ‘우리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출범한 장소는 NMH의 리사태이션홀이다. 이 기념비적 장소는 1975년 화재 사고로 전소한 후 2008년에 건립된 로드아트센터가 있는 곳이다. 바로 SVM이 출범한 장소이자 한국 복음화의 전초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한 곳이기도 하다. NMH고교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무디기념교회 앞뜰에는 SVM 50주년(1936)을 맞아 이곳을 방문한 선구자들인 존 모트, 로버트 와일드, 로버트 스피어(Robert Elliott Speer, 1867~1947)가 세운 기념비가 있다.

이 운동은 19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와 2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학생 선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SVM FM은 지역 교회와 연대해서 각종 해외 선교 기관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노력했다. 초기 10년 동안 400개 대학, 100개 신학대학, 200개 의과대학, 300개 정규 선교 연구기관에 학생 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을 썼다. 건초 더미 아래에서 시작한 5명의 기도 모임이 19세기 미국 해외 선교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추진했던 선교 활동에서 한량없는 복음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1890년 미국 선교사 수는 35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SVM 활동에 힘입어 1915년이 되면 4,000명으로 늘어난다. 1900년 뉴욕에서 열린 SVM 주최 사경회에는 20만 명이 참석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1888년에 시작한 SVM은 1892년에는 영국,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으로 확산되면서 1920년에 전성기를 기록한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쇠퇴한다.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이 주창한 사회복음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국제 평화, 사회 정의, 인종 차별 등으로 분산된 탓이다. 또한 대공황 이후의 재정 압박 등과 같은 이유도 SVM 쇠락에 부분적인 기여를 했다. 결국 1969년 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뚜렷한 현상은 SVM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에 대한 선교사들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SVM이 한국 복음화에 기여한 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NMH, 노스필드사경회, 한국

1898년, 첫 유학생인 독립투사이자 대한제국 외교관 박희병(1871~1907)이 NMH고교에 입학한다. 이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1875~1965),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1881~1950), 의친왕 이강(1877~1955) 같은 지도자들이 '노스필드사경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인으로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승만은 1906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여름 방학 동안 노스필드에서 열린 SVM 주최 '만국기독교학도공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3,000여 명의 외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하고 독립가를 부른 다음 대한제국 만세와 아메리카 만세 삼창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승만이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대표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1899년 유학길에 오른 의친왕은 1901년 6월, 노스필드에서 열리는 기독교학생대회에 수행원 및 김규식과 함께 참석했다.

1897년 관비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김윤정(1869~1949)은 훗날 워싱턴 주재 주미대리공사로 근무했는데, 유학을 갈 때 아들 김용주(미국명 프랭크, 1890~1940)를 데리고 간다. 그는 NMH고교에 입학(1897)해서 졸업(1899)하고 워싱턴 갈로데대학을 졸업하는데,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관비 장학금과 부족한 돈은 고향으로 벌어서 NMH에서 공부했다.

한성외국어학교 영어부 출신인 아들 김용주는 NMH에 입학(1901)한 후 펜실베이니아대학 영문과를 거쳐서 1925년부터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 편집인 겸 주필, AP통신 특파원을 지냈다. 로터리클

럽을 창립하는 데도 참여했으며 유창한 영어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가 집필한 『이승만: 신화에 가린 인물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건국대학교출판부, 2002)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만날 수 있다. 1910년 대한제국 주미대리공사였던 김윤정은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종의 친서를 소지하고 미국 대통령 접견을 시도하는 이승만을 막았던 인물이다.

김윤정은 본국으로 소환되어 지방 장관에 임명되는데, NMH를 다니던 아들 프랭크(김용주)를 남겨두고 돌아갔다.

김윤정의 친일 행적(일제 시절 충북지사 및 충추원 참의)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896년 인천감옥 경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초를 겪던 김구 선생을 동정하고 도왔다. 또한 자신이 다녔던 갈로데대학의 설립 취지에 따라 농아 교육으로 수화를 가르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 아서 러치(Archer L. Lerch, 재임 1945년 12월 18일~1947년 9월 11일) 미군정장관 부인은 김윤정의 인품에 탄복해 한국의 지도급 인사임을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손수 초상화까지 그렸다. 김용주가 입학한 지 2년 후인 1903년에는 훗날 외무부장관이 되는 임병직이 입학한다. 김용주와 함께 NMH를 다닌 학생은 추수감사절 파티에 파트너가 된 서메리(Mary Surh)와 189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1902년 10월에 입학한 구한말 관리 김상언(1907년 양력 6월 15일 내각서기랑 임명, 품계는 9품)도 있었다.

## 초기 대표 미국 선교사들과 NMH 출신 자녀들

1대	2대	특징	한국 선교 기간
윌리엄 M. 베어드		송실대 창립자	1891~1931
애니 L. 애덤스 베어드		교육 선교사(아내)	1891~1916
	윌리엄 베어드 2세	한국 선교사	1923~1940
	리처드 H. 베어드	한국 선교사	1923~1960
	존 A. 베어드		
제임스 E. 애덤스		대구 선교의 아버지	1895~1923
	에드워드 애덤스	계명대 초대 이사장	1921~1963
	벤저민 애덤스	한국 선교사	1923~1959
	조지 애덤스	한국 선교사	1932~1959
프레더릭 S. 밀러		청주 선교의 아버지	1892~1937
	리제트 밀러	한국 선교사	1920~1926
	윌리엄 N. 밀러		
	안나 E. 밀러		
윌리엄 L. 스왈른		한국 보수 신학의 대부	1865~1954
	윌버 스왈른 2세		
	올리베트 R. 스왈른	교육 선교사	1815~1959
	거트루드 스왈른		
새뮤얼 A. 모펫		평양 선교의 아버지	1890~1934
앨리스 F. 모펫		의료 선교사(아내)	1897~1912
	새뮤얼 H. 모펫	내한 선교사	1955~1981
H. 거하드 아펜젤러		배재학당 설립자	1885~1902
	메리 E. 아펜젤러	교육 선교사	1917~1920

출처: 김은혜, 「축복의 통로를 찾아서, back to Northfield」, 《기독일보》(2007. 10. 5) 참조 후 재작성



조선 말엽과 구한말의 외교관인 민흥기(미국공사 수행원), 김상언(내각 서기랑), 이진구(미국공사 수행원), 김영진(개화파 김옥균의 양아들, 일제 중추원 참의) 등 워싱턴 주재 조선공사 직원들 혹은 그 자녀들도 NMH에서 공부했다. 그들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과 워싱턴 유력자들의 추천과 도움으로 이곳에서 공부했다. 국권피탈(1910)을 전후해서 한국에 있는 SVM 출신 선교사들이 조선의 유망한 기독교 청년들을 NMH로 보내 공부하도록 주선했다. 1914년, NMH 졸업생인 조선YMCA 선교사 프랭크 브로크만(파락만巴樂萬, Frank Brockman, 1878~1929)과 당시 하와이에서 망명 정부를 수립해 항일 투쟁을 하고 있던 이승만 박사는 유능한 기독교 청년이던 임병직(1893~1976, 외무부장관), 이춘호(1893~1950, 한국인 최초 서울대 총장), 윤영선(1896~1988, 윤치호 아들) 등을 NMH에 추천해 장학금을 주선하거나 학비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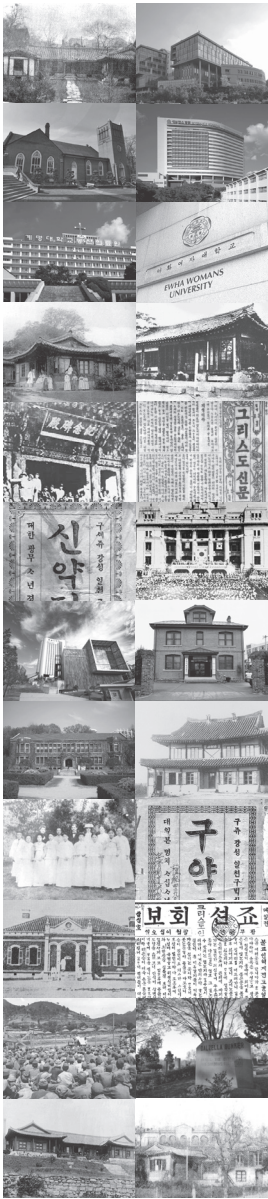
특히 임병직은 이승만 대통령의 추천으로 NMH와 미국 오하이오 디킨스대학을 졸업한다. 재학 중에 《한국 학생 평론》을 창간하고 편집장이 되어 일제의 한국 강점을 폭로하고 세계에 독립 지원을 호소했다. 1918~1919년까지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필요한 독립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한국 학생 평론》에 일제의 양민 학살 및 잔혹한 고문 만행 등을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국제 사회에 고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승만을 도와 독립운동에 공헌했으며 정부 수립 후에는 외무부장관과 UN대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임병직은 퇴임 후에도 나라가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임종 직전까지 수행하다 세상을 떠났다. 냉전이 대결 구도로 치닫던

1976년, 83세의 노구를 이끌고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반공연맹총회(WACL)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한 번은 터키 상원의원이자 백만장자인 닥터 카심을 비행기 트랩까지 배웅하면서 끼고 있던 반지를 카심 의원 손에 끼워주면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까지 한다. 평생을 나라가 일어서는 일에 도움 되는 일을 하다 간 인물이다. 1976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수여되었다.

초기 내한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장남인 원한경(元漢慶) 연희전문학교 학장은 제자들을 NMH에 보내 대학 유학 직전 영어를 공부하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이렇듯 해방 전후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부흥사 무디가 세운 NMH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대표 선교사들인 마포삼열, 소안론, 홀, 로제타 홀, 하디, 에비슨, 밀러, 애덤스, 아펜젤러, 로스, 샤록(Alfred M. Sharrocks, ?~1919), 노블 등이 조선 땅에서 낳은 자녀들은 대부분 NMH에서 공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를 이어 한국의 복음화에 헌신했다.

여기서 우리는 NMH가 SVM를 통해 한국 파송 선교사를 증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NMH가 한국 복음화의 산실로서 기여했음을 뜻한다. 또한 그들이 추천한 한국의 인재들이 NMH에서 교육받고 대한민국의 초기 역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처럼 무디가 NMH를 설립해 한국의 복음화뿐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다.



# 3장 한반도 선교의 내력

**한국은 경제적·군사적·정치적 면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미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개신교와의 만남은  
하나의 종교와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다. 행운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일이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접해온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수천 년 동안 다신교를 믿어왔다. 다신교는 정령 숭배 사상과 관련이 깊다. 영험이 깃든 바위, 나무, 동물, 산, 강, 들, 조상 속에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기독교 전래에 대한 토착 사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 한국에 기독교는 우선 구교라 불리는 가톨릭이 18세기 후반에 '서학(西學)'이란 이름으로 전해진 다음 개신교가 1880년대에 전해졌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최소 90여 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사이에 가톨릭을 믿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역사에 비하면 한국 개신교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3장에서는 개신교의 전래를 중심으로 선교의 내력과 개신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 01

---

## 기독교의 전래

### 1779년, 가톨릭의 전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는 기독교(그리스도교, 예수교)는 AD 1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예수의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AD5~63) 같은 인물들에 힘입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까지 널리 퍼지게 된다. 1~4세기에 존재했던 5개의 주요 교구들, 즉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로마 교구는 민족·교리·문화·언어 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세월이 갈수록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간다. 초기에 가장 번성했던 예루살렘 교구는 기독교 역사

에서 첫 교회였지만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으며, 안디옥 교구는 시리아정교회(Syrian Orthodox Church)로 발전하지만 교세는 미미하다.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그리스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로,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이집트콥틱정교회(Coptic Orthodox Church)로 발전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교구는 로마 교구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다.

조선에서 로마 가톨릭교회[天主敎會]에 대한 관심은 1770년을 전후해 기호 지방의 남인 시파에 속하는 이벽, 권일신, 권철신, 정약전, 정약용, 이승훈 등의 유학자들이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다. 부패한 왕정에 대한 출구를 찾던 남인 학자들이 조선 사회가 갖고 있는 내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인 것이 서학이다. 천주교가 학문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서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1779년 이들은 서울에서 100리(39km) 정도 떨어진 외딴 절인 천진암에서 유교 서적과 함께 천주교 서적들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앙 실천 운동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1779년을 한국 가톨릭교회의 시작점으로 잡기도 한다.

1783년(정조 7년) 정약전의 매부인 이승훈이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에 갈 때 이벽이 이승훈에게 천주교의 가르침을 배워오도록 요청한다. 이승훈은 베이징에서 신부로부터 필담으로 교리를 배운 다음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한국인으로서 최초 세례자가 나온 셈이다. 신부가 준 수십 종의 교리 서적, 십자가상, 성화, 묵주, 기하학 서적 등을 갖고 돌아왔으며, 이 책을 이벽에게 전달한다. 1784년 9월,

이승훈은 이벽에게는 세례자 요한, 권일신에게는 프란체스코 사베리오라는 세례명을 준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조선 천주교의 시작점을 1784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벽의 전도에 힘입어 신자가 여럿 생긴다. 1785년 봄부터 명동 김범우(?~1786)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김범우는 조선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가톨릭이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신부를 서울로 파송한 것은 1794년 12월의 일로 당시 신자수는 4,000명 정도였다. 5년 후에는 1만 명으로 증가한다. 주문모 신부는 자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도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수해 1801년 음력 4월 19일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 천주교는 시작(1779~1784)부터 프랑스와의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 1866년(고종 23년)까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90여 년 동안 숭한 순교자를 낳는다.

참고로 가톨릭은 성경 해석이나 교리 면에서 개신교와 차이가 꽤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451년 칼케톤공의회에서 정돈된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삼위일체론(①한 분 하나님이고 삼위로 존재하신다 ②예수님은 100%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다)과 양성론(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고 본성이 인간이다)은 공유한다. 하지만 칼케톤에서 공인된 성모마리아에 대한 신학(무원죄 잉태설, 마리아 승천설)은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개신교는 ‘마리아를 통해 기도한다’는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가톨릭의 주요 교리들인 마리아 경배나 고해성사, 성인 숭배, 연옥설, 화체설 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신교는 이 교리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 개신교의 탄생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가 세월과 함께 늙어가듯 종교도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나 정신이 변하기 싶다. 특히 사람이 모인 곳에서 대형화는 권력화를 가져오고, 권력화는 부패와 타락을 낳게 된다.

중세의 가톨릭교회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면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초대 교회의 순수함과는 판판의 인간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1513년 율리우스 2세에 이어 레오 10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후부터 가톨릭교회는 더욱 부패하게 된다. 레오 10세의 사치스런 생활로 로마 가톨릭의 재정이 고갈되자 은행에게 돈을 빌려 쓴 교황은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31개 추기경직을 새로 만들어 600억 원가량의 면죄부를 판매한다.

면죄부는 살인, 축첩, 신성모독, 도둑질, 위증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의 영적 고통을 덜어주고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교황이 발급한 일종의 라이선스다. 당시 면죄부를 팔러 다니던 판매책의 주문에는 “봉헌함에 금화가 딸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구원된 영혼은 천국으로 곧장 올라간다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개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가톨릭교회 내에서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가톨릭교회 내에서의 개혁 불가였다. 앞의 대표 주자는 에라스무스고, 뒤의 대표 주자는 마르틴 루터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인간은 자유로운 능력이나 의지를 갖고 있기에 스스로 구원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얻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인간은 죽은 후에 소수의 성자들은 낙원으로 가고 대부분 신도들은 중간 장소인 연옥으로 간다고 말한다. 연옥에 있는 성도가 탈출해 낙원으로 가는 방법은 살아 있는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의 기도나 헌금이나 촛불 공헌 등을 열심히 하는 일이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구원은 자유의지를 갖고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과 맥이 닿아 있다.

반면 마르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라는 말씀에 따라 믿음만으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터는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믿음만 있으면 미사에 참석해 성체를 먹고 마시지 않아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톨릭은 권위와 전통을 중시하지만 개신교는 성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니콜라 보알로-데프레오(Nicolas Boileau-Despréaux, 1636~1711)의 『풍자』 7권에는 “모든 프로테스탄트는 저마다 손에 성서를 들고 있는 교황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루터의 종교개혁 기치는 츠빙글리(1484~1531), 칼뱅(1509~1564)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결국 개신교(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한다.

여기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점이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에 대해 긍정함으로써 인간 긍정론에 손을 들어주지만, 루터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란 면에서 인간 부정론에 손을 들어준다. 세월이 가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 즉, 칼뱅의 '인간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에 깊이 동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지식의 축적이 나 반복적인 선행, 경건한 종교 생활 등과 같은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관련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차이가 뚜렷하다. 전자는 행위 구원의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지만, 정통주의 개신교는 다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 **1866년 한국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머스 목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로버트 제레미안 토머스(Robert Jeremian Thomas, 1839~1866) 목사다. 영국 웨일스의 하노버교회가 그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 부친이 목사로 있던 곳이다. 2014년 1월, 바울선교회의 유재연 목사가 이곳에 부임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토머스 목사는 런던대학 뉴칼리지를 졸업하고 캐롤라인 고트프리와 결혼한 다음 런던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온 선교사다. 24세가 되던 1863년 7월 21일에 중국으로 떠나 그해 12월 초 상하이에 도착하지만 중국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료 선교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유산을 하고 홀로 죽음을 맞게 된다. 또한 중국 선교 책임자 윌리엄 무어헤드(William Moorehead)와 갈등이 생기면서 선교사를 그만두게 된다. 무어헤드는 앵글로-차

이니즈라는 사립학교 교장을 맡기려 했지만, 토머스 목사는 “교육이라는 명분에 갇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런던선교회를 떠난다.

언어 재능이 뛰어났던 토머스 선교사에게 미리 준비되기라도 한 듯 주어진 새 일자리는 산둥성 세관의 통역관이었다. 그곳에서 조선으로부터 온 동지사(동지를 전후해 공물을 바치려고 조선에서 온 사신)에게 천주교도 처형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즈음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소속 알렉산더 윌리엄슨(위렴신韋廉臣, Alexander Williamson, 1829~1890)의 도움을 받아 조선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 토머스 목사와 함께 떠난 2명의 조선 젊은이는 김좌평과 최선일이었다. 1865년 9월 4일, 토머스 목사는 다량의 한문 성경을 싣고 두 젊은이와 조선 땅으로 향했다. 9월 14일, 황해도 연안의 창린도 자자리 군포에 도착해 성경을 전한다. 토머스 목사는 백령도 부근의 섬을 2개월 반 동안 돌면서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임을 가르친다. 또한 그곳에서 조선말을 배웠다. 토머스가 돌아간 후 관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거두어들인 책이 99권이나 되었다. 그해 토머스 목사는 조선 사신들과 상인들이 청나라로 오가는 길목에 있는 만주 고려문(청나라가 조선과의 분쟁과 교류를 막기 위해 설치한 6개 문 가운데 통행을 허용한 유일한 문)에서 조선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

1866년 8월, 토머스 목사는 제너럴서면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승했다. 제너럴서면호에 통역 겸 전도자로 승선했다가 9월 2일, 이 배에 탔던 선원들과 함께 평양 군민들에게 타살되었다. 토머스를 처형한 박춘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서양인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다음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했다. 결국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가지고 왔다.

박춘관은 받은 성경을 버리지 않고 조카 이영태에게 주었다. 이영태가 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울러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전도인이 되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공책을 맡는다.

토머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나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길에 이런 편지를 남겼다.

저는 평양에 1892년 10월에 왔습니다.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다니다가 토머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너럴서면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예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팔러 다니는 책자가 그 서양인이 배에서 던진 책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1876년 한인촌의 초기 전도자, 존 로스 목사**

중국 동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만주는 오래전부터 한국인과 깊은 인

연을 맺어왔다. 고구려와 발해의 활동 무대이기도 있지만,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이르면 전란을 피해 이곳에서 생활 터전을 꾸린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 대다수 한국인은 조선의 최대 영토를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인식하지만, 사학자 이덕일은 “이런 국경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조선 숙종 38년(1712) 백두산정계비를 통해 압록강 북쪽 강역을 포기하면서부터다”라고 말한다.

청나라 지배 시절이던 1840년대부터 서북 지역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두만강을 건너 농토를 개척하면서 한인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875년 청나라는 압록강 일대를 개방해 한국인들의 거주를 묵인했으며, 1883년에는 조선과 무역 조약을 체결해 통상국을 설치한다. 1895년에는 두만강 이북의 길이 700리(275km), 넓이 40~50리(16~20km) 구간을 한국인 이주민의 개간 구역으로 승인했다. 이곳에 개신교를 선교하기 시작해서 결실을 맺는 데 이바지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라약한羅約翰, John Ross, 1841~1915)와 존 맥킨타이어(마근테馬勤泰, John Macintyre, 1837~1905)다.

1872년 2월 27일, 존 로스는 중국으로 파송받고 M. A. 스투어트와 결혼한 다음 8월 23일 지푸에 도착한다. 지푸항에 도착한 다음 중국 개척 선교사 윌리엄슨 목사의 안내로 잉커우로 이주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게 된다. 유독 선교사 아내들의 희생이 컸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잉커우는 고려문에서 가까운 곳으로 만주 지역의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로스 목사가 한국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장로교회 회장인 알렉산더 윌리엄슨 박사의 기여가 컸다.

1867년 가을, 윌리엄슨은 조선과 중국 국경에 인접한 봉황성(오골성)을 방문했는데, 연중 보고서에 “몇몇 조선 상인이 거기서 성경 몇 권을 구입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로스 박사는 “윌리엄슨 박사의 선교 목표가 만주에 있는 교회 성장에 있었지만 조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잊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로스 박사는 1877년부터 만주 선교에 뛰어들면서 조선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1873년 가을, 그는 조선인에게 전도하려고 처남이자 동료인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1차 고려문 선교길’에 오른다. 우장을 출발해 평텐을 거쳐 고려문을 처음 방문했으며, 방문길에 한인촌을 발견했다. 이곳 한인촌에는 초산, 강계, 구성, 의주 등에서 이주한 농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로스 목사는 압록강을 건너려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돕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방문길에 만난 한국인에게 몇 권의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돌아왔는데, 몇 해 뒤 한 한국인이 평텐까지 로스 목사를 찾아와 성서 번역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로스 목사는 한국의 산천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국 선교를 굳게 결심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고려문 방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고려문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관문으로 압록강 근처에 있으며, 의주에서 약 48km로 이 문을 통해서만 중국에 드나들 수 있다. 이곳에는 세관이 있으며,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고려촌(高麗村)이 형성되어 있었다.

1876년 4월 말부터 5월 초, 맥킨타이어 목사와 함께 '2차 고려문 선교길'에 나선다. 압록강 합류 지점까지 접근했는데 모래밭과 비옥한 농장에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농사짓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여기서 로스 목사는 한 권으로 된 성경과 전도지를 출판할 계획을 세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선어를 가르쳐줄 선생과 신약성서를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선교 여행에는 누가 비용을 지원했을까? 김정현 교수(전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한국의 첫 선교사: 羅約翰』(계명대출판부, 1982)이라는 귀한 연구 결과를 남겼다. “이(2차 선교길) 비용은 영국 리즈에 있는 로버트 아딩턴(Robert Arthington, 1823~1900)이 냈다. 그는 유명한 자선 사업가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름도 빛도 남지 않는 선교에 돈을 낸 사람들 덕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때 로스 목사는 모든 물건을 잃고 낙담하던 의주 출신 청년이면서 한약 장수였던 이응찬을 만난다. 이응찬은 그의 한국어 선생이 된다. 이응찬은 1876년 한국 개신교 신자로서 첫 세례를 받는다. 가톨릭의 첫 세례자가 1783년에 났음을 염두에 두면 약 94년의 차이가 있다. 이어서 백홍준, 이성하, 최성균, 김진기 등이 세례를 받는다. 로스 목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교기지인 평텐에서 한글 성서 번역 작업에 착수하고 '최초의 한인 교회(현 선양 동관교회)'를 세웠다. 맥킨타이어 목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1879년 이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목사를 방청객으로 둔 채 주체적인 신앙 집회를 열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로스 목사는 이응찬을 만난 감동을 「한국에서 크리스천



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선교 평론(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1890)에 기고한 바 있다.

중인 계급에 속하는 사람 하나가 고려문으로 가기 위해 배에 물건을 싣고 거센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만 갑자기 강한 서남풍을 만나 배는 전복되고, 물건은 물속으로 잠겨버렸다. … 물건 입자는 알거지가 되었다.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한국어 선생을 구하는 나의 서기를 만나게 되었고, 곧 나의 선생이 될 것을 약속했다. … 인구가 불과 1,5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며칠이면 해독할 수 있는 훌륭한 문자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성서와 전도문 보급이 가장 쉬운 나라이므로 한글 성서 번역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는 표음 문자인 데다가 매우 단순하고 아름다워서 누구나 쉽게 또는 빨리 배울 수 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성서 번역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퍼져 나가면서 구경꾼과 방문객들이 몰려들게 된다. 이때부터 선교사 집에서 매월 일주일씩 성경 공부반이 형성되었으며, 1880년에는 30여 명이 성경 공부반에 참여해 교육받았다. 훗날 이들은 모두 국내 문서 전도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로스 목사는 1881년 7월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지원으로 선양에 ‘문광서원’을 설립하고, 그해 10월 한국 최초의 기독교 문서인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을 출간했다. 1882년에는 첫 한글 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를 발간했다.

이를 시작으로 『사도행전』(1883), 『마가복음』(1884), 『마태복음』(1884), 『에베소서』(1885)에 이어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 『예수성교전서』(1887)도 발행했다. 1882년 11월에는 75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1884년에는 한국인이 100여 명이나 세례를 받았고, 세례 대기자도 600여 명 일 정도로 활기차게 교회를 개척했다.

참고로 로스 목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스튜어트를 잃고 이 사벨라와 재혼하는데, 한글 성서 번역 작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만 8명의 자녀 가운데 4명을 잃었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는 1883년 이른 봄, “성경책이 던져진 압록강 물은 한국인들의 생수이며, 불에 탄 성경 책은 한국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리라”라는 말을 남겼다.

### 스코틀랜드장로회의 존 맥킨타이어 목사

존 로스 목사에 가려진 인물이 존 맥킨타이어 목사다. 그의 업적은 로스 목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길 만큼 가치가 있다.

만주와 조선 선교라는 큰 그림 아래 로스 목사가 그에게 동역을 권했다. 1837년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맥킨타이어는 로스 목사보다 중국에 먼저 파송되었다. 그가 중국 땅을 밟은 것은 1871년이고 로스 목사는 1872년에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로스 목사의 아내가 첫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로스 목사의 여동생인 캐롤라인이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다. 미혼이던 맥킨타이어 목사는 캐

롤라인과 1876년 초에 결혼한다. 맥킨타이어 목사는 1차(1873)와 2차(1876) 고려문 전도 길에 로스 목사와 동행했으며, 한 사람이 6주간 잉커우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6주간 순회 전도에 나가는 식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그가 건진 영혼이 서상륜(1848~1926)이란 인물이다. 의주 출신인 서상륜은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가 만주로 건너간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소식이 끊어져 가족들이 근심에 빠진 것을 보고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잉커우에서 천만다행으로 친구들을 만났지만, 친구들은 나라가 엄격히 금하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었다. 얼른 몸을 피하려고 서둘지만 그날로 심한 열병에 걸려 몸져눕고 만다. 병세가 날로 악화되자 친구들은 맥킨타이어 목사의 주선으로 영국 선교사 병원에 입원시킨다. 맥킨타이어 목사의 지극 정성이 날밤으로 계속되고, 병상에서 맥킨타이어 목사의 권면이 계속되었다. “병이 나으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약속과 함께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교 신자가 된다.

서상륜은 기독교에 몸을 바치기로 하고, 네 친구와 두 목사와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공헌을 한다. 맥킨타이어 목사의 일생을 조명한 칼럼에서 길원필 목사(사랑의교회)는 “존 로스가 옮긴 『한국어 성경』은 2명의 선교사와 6명의 한국인 초신자들의 공동 번역이지만, 성경 반포의 공헌을 말한다면 서상륜이 번역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인의 힘으로 세워진 한국 내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황해도 장연군 소재)는 서상륜이 1885년에 설립했다. 동생 서경조(1852~1938, 한국장로

교회 최초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명이 운영을 맡아서 했다.

1879~1884년은 한국 개신교 성장사에서 뜻깊은 시기다. 세례를 받은 개신교도 4인은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를 도와 성서를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서상륜은 목활자를 파는 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덕분에 성경을 출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인쇄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의 재정 후원으로 할 수 있었다. 1891년에 상하이에서 인쇄기를 구입해 평텐에 설치하고, 한국인 번역자들이 만든 목활자를 일본에 보내 4만 자의 연활자로 바꾼 다음 우장을 거쳐 다시 평텐으로 이송되었다. 중국인 인쇄공과 식자공 김청송의 정성 어린 노력으로 최초의 한글 성경이 출판되는 순간이었다. 1879년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연례 보고서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누가복음은 1878년 로스 목사와 이응찬, 김진기, 백홍준 등의 공역으로 번역되었다. 이 해에 로스 목사는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고, 맥킨타이어 목사가 그 업무를 맡아 한국인 번역자들과 같이 구구절절 재수정했다. 맥킨타이어 목사는 한글 성서 번역 작업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글 성서 번역은 성경반에서 진행했는데, 한국인 번역자들이 나와 함께 한문 성경을 읽고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다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해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했다.” … 1897년 영국에서 돌아온 로스 목사는 맥킨타이어 목사가 수정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재검토해 최종 원고를 작성했다.

맥킨타이어는 성경 번역 작업 외에도 『한국 언어론』(1879)과 『한국

의 역사, 상태, 관습』(1880)이라는 책을 런던에서 출간했다.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의 동역에 대해 ‘1890년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연례 보고서’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중국 제국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회의 하나는 만주에 있는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선교회다. 이 사역은 존 로스 목사가 시작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일한 결과 이제 이 전도 사역은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주뿐 아니라 한국 전도 사역의 시작도 정말 로스 목사가 한 일이다. …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의 다른 선교사인 맥킨타이어 목사는 로스의 사역을 잘 도왔다.

# 개신교 전래와 미국 선교사

### 개화기의 세례자, 이수정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문물을 수입하는 길은 중국과 연결된 육로를 통하는 것이었다. 존 로스 목사나 존 맥킨타이어 목사의 활동도 만주를 통한 문물의 전통적인 전파 경로를 따라 이뤄진다. 개화의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물을 수입하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한다.

1882년 9월, 수신사로 일본에 가는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인물이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이다. 그가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홍문관 관리로 있을 때 일어난 임오군란(1882)의 위기에

처한 중진 민 씨를 구출한 공적 덕분이다. 그는 앞서 수신사 유람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안중수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농학자 쓰다 센(津田仙) 박사를 소개받는데, 그가 이수정에게 신약성경을 선물했다. 나이 40세, 유교가 지배하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성과 합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선물받은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이수정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다. 꿈속에서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꿰어지고 온 보따리를 이수정에게 벗어주었다. “이게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책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무슨 책입니까?”라고 되묻자,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이 책은 당신 나라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궁금해서 “무슨 책인데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묻자, “성경책이다”라는 대답이 귀를 사로잡았다.

꿈에서 깨어난 이수정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다.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신사 체류 기간인 3개월이 만료되자 이수정은 체류 연장 요청을 하고 일본에 더 머물게 된다. 일본 교계 지도자인 야스가와 토오루(安川亭) 목사와 조지 녹스(George W. Knox) 선교사의 입회 아래 신앙 지도를 받고 결국 1883년 4월 29일에 시바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당시로서는 조선 관리가 내놓고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가 세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인 1883년 5월 8일, 일주일 동안 도쿄에서 ‘3회 일본 기독교 신도 대친목 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조선을 대표해 기도했다. 당시 이수정의 기도가 남긴 감동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무교회주의자 우지무라 간쥬(內村鑑三)는 훗날 그 자리에서 받았던 감동을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저서에 기록해두었다.

참석자 중에 조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은둔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의 의복을 착용하는 기쁨이 당당한 명문가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 우리들의 머리 위에 무엇인가 기적적이요 놀랄 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이 느끼면서 다 같이 감동되고 은혜를 받았다.

이수정은 그 집회에서 요한복음 14~15장을 중심으로 유교의 감응이론을 빌려 신인감응(神人感應)의 이치를 설명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 신앙 고백은 현존하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이며, 그날의 집회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일본의 기독교 잡지인 《육합잡지(六合雜誌)》(1883년 5월호)에 실릴 정도였다.

이수정의 기여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조선 민족에게 성경을 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에 옮긴 일이다.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가톨릭이 조선 백성들에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도 열심이었다. 그의 성경 번역 작업은 ‘현토(懸吐) 성경’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한문 성경에 토를 다는 ‘한한(漢韓) 성경’을 말한다. 1883년 5월에 시작한 현토 성경은 그해 6월 말이 되자 신약 전체를 완성할 수 있었다. 현토 성경은 도쿄 유학생들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어 지식층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수정은 1883년 6월 말부터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 작업은 1884년 4월에 완역되었는데 1885년 2월 미국성공회가 요코하마에서 1,000부를 간행한다.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전서 마가복음 언해』는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출간되었다. 일본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손에는 당연히 이 책이 쥐어져 있었다. 또한 두 선교사는 한국 입국을 앞두고 도쿄에 머무는 동안 이수정에게서 한글을 배웠다. 또한 이수정은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맥리화 麥利和, Robert Samuel Maclay, 1824~1907)의 요청으로 『감리교 요리 문답』도 번역해 1,000부를 출판한 다음 국내에 널리 유포하기도 했다.

이수정은 전도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이수정과 친분이 있던 개화파 김옥균의 소개로 온 유학생들 사이에도 세례받는 사람이 생겼다. 1833년 말에는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7~8명 정도 믿는 자가 생겨나고 이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교리문답반과 주일학교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은 후에 성경연구회로 발전하다가 주일마다 설교자를 초청해 정기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도쿄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다.

## 이수정의 특별한 기여

이수정은 일본 교계 지도자는 물론이고 서양 선교사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도쿄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한 존 로스 목사와 함께한 것도 있다. 그의 학력이나 집안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크지 않지만, 개화를 통해 나라를 근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던 인물이었다. 이수정은 일본에 체류하던 선교사 조지 녹스와 헨리 루미스(Henry Loomis, 1839~1920) 등과도 교분이 있었다.

당시 일본 교계에서는 한국의 복음화에 일본 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수정은 반일 감정 때문에 서구 문명을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개신교는 발전된 산업 국가들의 종교와 일치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제일 선교사의 도움을 얻어 미국의 선교 잡지 《세계 선교 평론》(1883년 7~8월호)에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을 실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해 《세계 선교 평론》 11~12월호에 조선 선교를 위해 미국 선교사들의 내한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인 「한국, 은둔의 나라(Corea, The Hermit Nation)」(409~420쪽)를 다시 기고했다. 이 기고문은 그리피스(Griffiths)의 책에서 뽑은 한국의 고대·중세 역사, 정치·사회 환경, 최근 역사 등을 소개한 다음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이수정과 대화의 소개하는 편지 형식을 빌려서 실었다. 그 편지에는 “이수정의 가장 큰 바람은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세계 선교 평론》 11~12월호는 1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기고문이어서 전 세계 선교사는 물론이고 미국 교계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수정의 글은 5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첫째,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구의 어두운 구석에서 이교도의 삶을 살고 있는 조선 민족의 참담한 현실과 이로 인한 복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둘째, 자신이 개종한 후에 조선 복음화를 준비하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중이다. 셋째, 몇몇 한국인 신자와 함께 미국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넷째, 가톨릭의 조선 선교와 그 수난을 언급하고 나서 지금이 조선에 복음을 소개하는 데 가장 황금의 기회다. 다섯째,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을 찾아내 박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고를 하던 끝에 급기야 이수정은 미국의 선교 사역 종사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기도 한다. 《세계 선교 평론》(1884년 3월호)에는 경고성 내용이 실린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다른 나라가 그들의 선교사를 급히 파송하리라 생각하며, 또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수정이 기고한 글은 미국 교회가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북감리교회 해외 선교부 실행 위원이던 맥윌리엄스가 이 글을 읽고 선교 헌금 5,000달러를 내놓으면서 조선 선교사 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수정이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은 미국에 해외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일이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개화를 시도해야 하고 이 일환으로 미국 선교사 파견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수정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개화파라 표명하지 않았지만, 김옥균(1851~1894)이나 박영효(1861~1939) 같은 개화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는 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교분이 있었던 선교사 헨리 루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후부터) 항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한다.

1886년 5월, 당국의 거듭된 귀환 명령에 따라 한국 땅을 밟자마자 이수정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개신교 역사상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처형된 최초의 순교다. 이수정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하듯 《세계 선교 평론》(1883년 11~12월호)에 실린 기고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내가 만일 한국 땅에 있다면, 나는 언제라도 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 1883년 10월, ISMA

이수정의 글이 《세계 선교 평론》에 실린 시점은 1883년 7월과 12월, 1884년 3월이다. 한국 개신교 성장사에서 1884년은 매우 의미가 깊다. 한국 개신교는 1884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그해 6월 말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맥클레이가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한국을 들렀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수정에게 부탁해 『감리교 요리 문답』을 번역케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감리교의 조선 선교 결정에 이수정이 영향을 끼쳤음을 뜻한다. 한편 그해 9월에는 감리교보다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최초의 상주 선교사로 입국하는데, 이는 이수정의 기여한 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1883년과 1884년이 되면 미국 내에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다는 점이다. 1880년에 만들어진 전국신학교연맹(ISMA, The American Inter-Seminary Missionary Alliance, 1880~1898)이 아시아 선교 열풍에 불을 댕긴다. 이후 1886년에 결성되는 SVM은 해외 선교에 큰 힘을 실어준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조선 선교가 추진된다. 이수정을 만나서 2개월간 한글을 공부하고 그가 번역한 『신약 전서 마가복음 언해』를 가지고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으로 입국한다. 앞으로 두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 땅을 밟는 전후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다.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원두우元杜尤, 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는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한다. 14세가 되

던 해,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고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했다. 그가 한국으로 선교지를 바꾸게 된 데는 1882년 말과 1883년 초에 이르는 어느 겨울날, 뉴브런즈윅신학교 학생 가운데 선교사를 지원한 학생들 모임에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다.

회원이던 앨버트 올트만스(Albert Altmans)가 한국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내용은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은둔의 나라 한국의 문화가 개방되었다는 사실과 1,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 선교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그곳에 헌신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올트만스의 호소가 씨앗이 되었다. 이후 1년 동안 언더우드는 선교지를 두고 고민하는데, 이때 그 모임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1883년 10월 25~28일, 코네티컷주 주도인 하트포드에서 1879년에 결성된 ISMA 4차 연례회의가 열린다. 이 단체는 중국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던 프린스턴 신학생 로버트 마티어(Robert M. Mateer, 1853~1921)와 루더 위샤드가 1880년 출범한 단체다.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에서 첫 모임을 열고, 32개 신학교에서 모인 250명 학생들로 출범한다. 국내 전도 및 해외 선교에 전념하기 위한 학생들의 첫 전국 모임인데, 이 단체가 결성된 의의는 매우 크다. 이 단체로 말미암아 전도 및 선교 활동이 학생 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4차 연례 ISMA 집회에는 모두 345명이 참석했고 30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모라비안 미션' 등이 개최되었다.

언더우드는 뉴브런즈윅신학교 대표로, 아펜젤러는 드루신학교 대

표로 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많은 참석자가 특히 침례교 목사이자 작가인 고든(Adoniram Judson Gordon, 1836~1895)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고든은 무디, 피어슨 박사와 함께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그의 어록에서 즐겨 인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기도한 후에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회에서 두 사람은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게 된다. 그 모임에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프린스턴대학을 다니던 로버트 와일드가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선교사의 아들인 와일드는 1886년 개최된 1회 노스필드사경회에서 100명의 대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결심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른바 ‘마운트허먼 100’의 핵심 인물이다.

로버트 와일드는 1883년 ISMA에서 큰 감동을 받고 프린스턴대학으로 돌아온 다음 ‘프린스턴 해외 미션너리 소사이어티’를 결성한다. 이 소사이어티의 구성원들은 ‘우리는 미전도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규약에 서명해야 했다. 이처럼 당시의 미국은 신학생부터 선교사, 교단 전체에까지 아시아 선교 열풍이 불고 있었고, 이런 열풍 속에서 조선은 최고의 혜택을 입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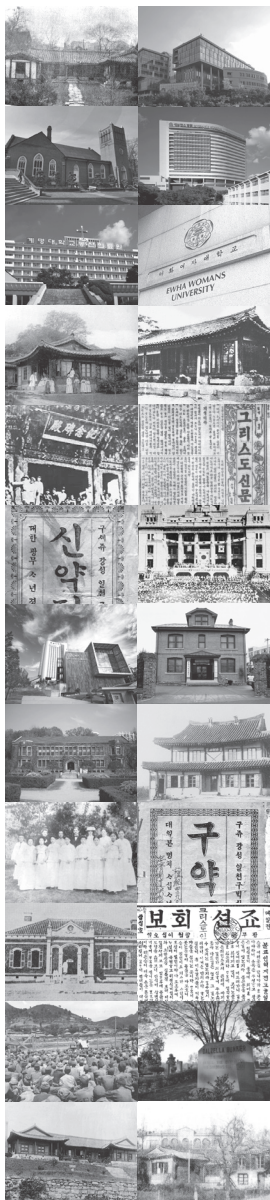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진실된 크리스천들

은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 선교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수정,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을 비롯해 조선 선교의 조역자들은 모두 시점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선교사들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1954년 순천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순천기독교결핵요양원을 건립(1965)해 봉사하던 휴 린턴(Hugh Linton, 1926~1984)의 아내 로이스 린턴(Lois Linton)은 1996년 호암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이 훌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따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절그릇일 뿐입니다.





# 4장 선교사 후원자들

**선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타인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선교는  
영적인 지원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선교사들을 기억해야지만 동시에  
물질로서 선교를 지원한  
후원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교는 돈을 필요로 한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따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액의 헌금을 내서 선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임에 틀림없고, 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예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내놓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무척 뜻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단독으로 부임하는 선교사들은 1년에 700~900달러 정도의 급료를 받고 활동했다. 부부 선교사들은 1,100~1,200달러를 받았다. 자녀 수당도 주어져서 아이가 있는 부부 선교사는 2,000달러를 받는 사람도 드물지 않았다. 1909~1911년도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656~671달러이고, 미국 내 성직자들의 보수가 663달러(1906년 기준)인 점을 염두에 두면 보수가 괜찮았음을 알 수 있다. 1886년 제중원의 여성 의료 선교사로 부임했던 애니 엘러스는 1,800달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모든 비용은 교회마다 헌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큰돈을 지원하는 후원자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Dae Young Ryu, "Understanfing Earl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1994~1990)", 2001, p.7] 4장에서는 19세기 말에 본격화되는 조선 선교에서 거액을 내놓았거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섯 사람의 삶을 집중 탐구해볼 것이다.

## 프레더릭 마퀸드

1799~1882



이 기금은 기독교 교육을 위해 국내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프레더릭 마퀸드 기금은 미국 북장로교의 교육 사업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다. 유산 관리자였던 맥윌리엄스는 조선 선교를 위해 5,000달러를 기부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한 부인이 2,000달러를 내놓았고, 뉴저지의 한 목사가 200달러를 기증함으로써 조선 선교가 결정된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에 자연스럽게 기금을 제공한 프레더릭 마퀸드(Frederick Marquand)가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프레더릭 마퀸드는 뉴욕에서 이작 마퀸드와 마벨 페리 마퀸드

(Issac and Mabel Perry Marquand) 사이에서 태어난 11명의 자식 가운데 장남이다. 아버지는 19세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금 및 은제 식기 및 장식구를 만드는 마퀀드사 창업자였다. 다만 이 회사에서 부자(父子)는 동업 관계였다. 지금도 마퀀드사가 만든 각종 식기와 장식구 등은 고가의 경매품으로 거래될 정도로 예술성이 뛰어나다. 당시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일하는 것이 전통인 시대였다. 프레더릭 마퀀드는 아버지를 도와서 금은세공업자로 경력을 시작한다. 그는 최고의 금은 수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덕분에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1882년 그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스》는 부고 기사에서 “뉴욕 시에서 가장 탁월한 금세공업자였다”고 평가했다. 프레더릭 마퀀드가 사업가로서 탁월한 점은 아버지가 사망하는 1838년을 기점으로 업종을 바꿔버린 데서 찾아볼 수 있다. 1886년에 나온 한 문건에는 “1839년이 되면 가업인 세공업에서 손을 떼고 거대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린다”는 내용이 나온다.

1839년 회사를 매각하고 확보한 돈으로 뉴욕의 부동산을 매입함과 아울러 금융 및 벤처 사업에 뛰어들다. 그러니까 40세 무렵 제조업에서 금융업자 및 부동산업자로 탈바꿈한 셈이다. 그를 도와서 20여 년 동안 힘을 보탠 사람이 바로 아래 동생인 헨리 거돈 마퀀드(Henry Gurdon Marquand, 1819~1902)다. 프레더릭 마퀀드는 1839년에 은퇴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갑부가 되어 있었다. 그가 창업한 금융 회사 가운데 하나가 ‘사우스포트 세이빙 뱅크’(1854)다. 그가 주력한 사업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 및 관리업이었으며, 동생은 은행과

철도와 각종 대기업에 투자하는 월가의 저명한 투자가로 활동했다.

그때부터 프레더릭 마퀸드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한다.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부를 했지만 이 가운데 1870년에 건축된 예일대학 신학대학원의 ‘마퀸드 채플’은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예일대학을 대표하는 건물로 1886년에 지어진 ‘드와이트홀’ 역시 그의 유지를 받아서 조카 부부가 기증한 건물이다. 드와이트홀 입구에는 2개의 명판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하나는 8대 예일대학 총장을 지냈던 디모테 드와이트 4세를 기념하는 명판이다. 다른 하나는 프레더릭 마퀸드를 기념하는 명판이다. 특히 프레더릭 마퀸드는 예일대학은 물론이고 유니온신학대학에도 기부를 많이 했다. 그가 드와이트홀 건립을 지원한 것은 디모테 드와이트 총장 재임 시에 크리스천 교육에 관심이 깊었기 때문이다.

그는 건물도 남겼지만 예일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조직 신학을 담당하는 ‘프레더릭 마퀸드 석좌 교수’와 프린스턴대학 등 여러 대학에 비슷한 기부를 했다. 프레더릭 마퀸드를 도와서 사업을 일으켰던 동생 헨리 거돈 마퀸드도 형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자선 활동을 했다. 특히 예일대학과 뉴욕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기부를 많이 한 인물이다.

마퀸드가 언제 미국 북장로회에 기금을 기부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자식이 없어서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여동생, 조카, 친인척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 밖에 많은 단체에 돈을 기부하는데 대부분 기독교 단체들이다. 로버트 버킹햄 모헤브의 《예일 언더 그드》(2012)에 프레더릭 마퀸드 기부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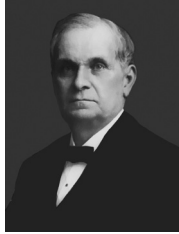
미국성경학회, 미국해외선교회, 미국주일학교연맹, 미국국내선교회, 그가 다니던 사우스포트 회중교회에 각각 5,000달러를 기부한다. 사우스포트 회중교회의 주일학교와 교회 도서관에 각각 500달러를 기부한다. 뉴욕성경학회와 뉴욕YMCA에 각각 3,000달러를 기부한다. 다른 교회들에는 1,000달러에서 300달러를 기부한다.

마킨드의 기부에는 ‘교육과 기독교, 선교’라는 세 단어가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프레더릭 마킨드 기금’은 조선의 선교와 교육을 위해 귀하게 사용된다.

기금이 마련되자 미국 북장로교는 1884년 4월 24일, 청년 의사인 헤론(헤론蕙論, John William Heron, 1856~1890)을 의료 선교사로, 7월에는 언더우드를 전도 선교사로 임명하고 훈련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땅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은 알렌이었다. 미국 북장로회는 알렌이 1883년 10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상하이와 난징 등지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로 있자 그를 우선적으로 조선 선교에 나서도록 주선한다. 알렌이 조선 땅에 맨 처음 선교 목적으로 발을 딛게 된 사연이다.

## 다니엘 윌킨 맥윌리엄스

1837~1919



조선 선교가 가능하다면, 돈을 배정하겠습니다.

평신도이지만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위원을 담당하고 있던 다니엘 맥윌리엄스(Daniel Wilkin McWilliams)의 이 같은 결정이 미국 북장로회가 조선 선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그의 결정에는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수정이 기고한 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또한 맥윌리엄스는 조선 선교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감리교의 선교 활동이나 미국을 방문한 한국 보빙사(報聘使)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조선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1882년 5월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직후 고종은 7월 26일에 답례사절단(전



권대사 민영익, 부사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수행원 유길준 등)을 파견했다. 이들이 9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 미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맥윌리엄스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선교부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아서 브라운(Arthur Judson Brown, 1903~1929) 박사는 한국 선교 기회를 포착한 맥윌리엄스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린다.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사업은 1882년 5월 22일의 조약으로 한국이 외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문이 조금 열릴 때까지 시작되지 않았다. 그때 미국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고려하고, 아주 명백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1884년 2월,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맥윌리엄스 씨가 프레더릭 마퀸드 씨의 유산에서 받은 금액 가운데 5,000달러를 이 목적을 위해 선교부에 기부했다.

오래된 사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때, 새 사역을 개설하는 데 통상적인 반대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셨고, 기부금을 받았으며, 단 한 단어 'Korea'가 찍힌 전보가 상하이에 급히 전해졌다. 이미 언급한 북쪽 국경 지역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이 하던 노력을 제외하면, 이 전보는 아주 오래된 한국의 이교도를 괴롭히기 위해 개신교 기독교계가 보낸 최초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그 나라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반향을 일으킬 운명이었다. ... 그 전보 메시지는 상하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의사와 아내, 곧 알렌 의사

부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써 한국에 즉시 가라는 뜻이었다.

어느 날 맥윌리엄스는 북장로교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필드 엘린우드(Frank Field Ellinwood, 1826~1908)에게 “조선 선교를 지금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한국 선교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엘린우드는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는다.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듣자 맥윌리엄스는 선교사들에게 2년 동안 생활비로 5,000달러를 내놓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여기서 조선 선교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맥윌리엄스와 엘린우드의 합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맥윌리엄스의 질문에 확신에 찬 답변을 한 엘린우드가, 장로교가 조선 선교의 스타트를 끊도록 주선했다.

맥윌리엄스가 미국 북장로회에 보낸 서신에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묻는 그의 겸손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참고로 당시 맥윌리엄스는 평신도였다.

친애하는 목사님, 만일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의 판단에 따라 한국에 이 시점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법적이라면 두 선교사의 2년 동안 비용을 선교부에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반년에 한 번씩 선급하는데 합계는 5,000달러가 될 것입니다. 자금 지불은 프레더릭 마퀀드 유산 중에서 될 터인데, 유지는 ‘교육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는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선한 사업을 격려하고 돕는 일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한국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클리블랜드의 한 부인이 보낸 선교 현금 2,000달러를 보태서 선교 사역이 본격화된다.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기금이 있고 현금이 답지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리더 임무를 맡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맥윌리엄스는 세브란스 장로와 함께 평신도 운동에 뛰어든 2대 인물로 평가받는데, 마퀸드의 처남이다. 그는 처남이 남긴 유언에 따라 마퀸드 기금을 조선의 교육 선교에 쓰기로 한다. 마퀸드가 1882년에 사망하자 맥윌리엄스는 프레더릭 마퀸드 기금의 관리인이 되어 한국 선교를 위해 최초로 5,000달러(오늘날 기준 약 50만 달러)를 뉴욕선교본부에 맡기고 한국 선교를 재촉하게 된다.

맥윌리엄스는 라파예트 애브뉴 장로교회 초기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철도 분야의 사업가이자 은행가, 사회 복지 사업가로 활동했다. 영민한 사람이기도 했다. 18세부터 뉴욕 과엘리철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1856년까지 일했다. 이후 5년 동안 경력을 바꾸어서 뉴욕주 엘미라에 위치한 체문운하뱅크에서 일하며 뛰어난 성과를 올린다. 1861년에는 토레도, 페오리아 바르샤바 철도 회사의 재무 담당 임원으로 5년 반을 근무하는데, 이때 헨리 마퀸드 눈에 띄어 마퀸드의 은행 부문을 위해 일하면서 훗날 파트너가 된다. 마퀸드가 맥윌리엄스에게 제시한 자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리(a confidential position)였을 정도로 그를 신뢰했다.

또한 다니엘 맥윌리엄스는 브루클린YMCA 설립자 겸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아내가 브루클린YWCA를 설립했는데 이는 상당한 재력을 갖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부부가 재산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맥윌리엄스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사람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1910~1920년 사이에 철강왕이자 자선 사업가인 앤드류 카네기가 브루클린에 160만 달러를 투입해 20개의 도서관을 지을 때 일이다. 어디에 지을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카네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때 전 브루클린 시장인 데이비드 A. 부디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을 선정한다. 다니엘 맥윌리엄스, 존 W. 더보이, R. 로스 애플톤이 바로 그들이다. 《브루클린 이글(Brooklyn Eagle)》은 입지 선정 작업이 아주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건축을 유치하는 데 주민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문제를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브루클린에 사는 대표 인사들을 선정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인 존 언더우드(John Underwood) 장로와 함께 브루클린 소재의 라파예트 애브뉴 장로교회에 헌신해왔다. 맥윌리엄스의 부음을 알린 1919년 1월 8일 자, 《브루클린 이글》지는 이런 기사를 실었다.

맥윌리엄스는 1862년부터 유명한 무디 부흥사와 만난 이후에 평생 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으며, 무디가 세운 노스필드세미너리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했다.

프레더릭 마퀀드의 유지를 받들어 마퀀드 기금을 이용해서 노스필드세미너리의 대표 건물에 속하는 ‘마퀀드홀’을 건립했다.

1837년 뉴욕주 햄턴버그 출신인 맥윌리엄스는 23세가 되던 1860년에 결혼해 슬하에 3남 2녀(프레더릭 M., 클라렌스, 하워드, 헬렌, 수잔)를 두었다. 결혼하고 난 다음 6년째가 되던 1866년에 브루클린으로 이사해 무려 44년 동안(1916년까지) 거주했다(206 Clinton Avenue, Brooklyn, NY 11205).

그가 평생 거주했던 집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라파예트 애브뉴 장로교회가 있었다. 그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음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늘날까지 당시의 장로교회 좌석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정중앙인 93번이 맥윌리엄스 가족 좌석이었고 훨씬 뒤쪽인 40번이 존 언더우드 가족 좌석이었다. 지금도 라파예트 애브뉴 장로교회의 목사 집무실에 가면 맥윌리엄스가 교회에 헌신한 것을 엿볼 수 있는 큼직한 사진이 걸려 있다.

‘맥윌리엄스가 프레더릭 마퀀드의 처남’이라는 주장을 잠시 살펴보자. 아내의 부친 이름이 조셉 마퀀드(Joseph Penfield Marquand, 1809~1879)라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한국에 선교 자금을 제공한 프레더릭 마퀀드의 아버지는 이작 마퀀드(Issac Marquand, 1766~1838)다. 마퀀드 가문은 헨리 마퀀드(1797~1818), 고든 S. 마퀀드(1801~1805), 코메리우스 P. 마퀀드, 조셉 P. 마퀀드(1809~1879), 사라 E. 마퀀드(1811~1881), 줄리아 P. 마퀀드(1816~1882), 헨리 G. 마퀀드로 구성된다. 따라서 맥윌리엄스 아내에게 마퀀드 기금의 주인공은 사촌오빠로 큰아버지의 둘

째 아들이지만 큰아들이 21세에 죽어서 실질적인 의미의 큰아들이다. 따라서 마퀸드 기금의 주인공에게 맥윌리엄스는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므로 먼 의미에서 처남이라 할 수 있다.

프레더릭 마퀸드가 탁월한 사업가였음을 상기해보면, 맥윌리엄스에게 사후 유산 관리 책임을 맡긴 것으로 봐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을 것이다. 프레더릭 마퀸드는 사후에도 상당 규모의 부동산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프레더릭 마퀸드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째가 되던 1886년 5월, 그의 유산에서 상당 부분을 상속한 조카 마크 홉킨스 박사와 남편 앨버트 B. 먼로가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붉은 벽돌의 로마네스크 스타일의 ‘마퀸드 기념 교회’를 대학에 기부한 기사를 베로니카 A. 데이비스의 『햄튼대학』에서 찾을 수 있었다. 46미터 높이의 타워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도 버지니아주 햄튼시에 있는 햄튼대학의 중심 건물로 당당히 서 있다. 당시 앨버트 B. 먼로는 대학 이사장으로 있었다. 1885년에는 햄튼대학에 ‘마퀸드 체육관’을 기증하기도 했다. 예일대학에 기부한 ‘드와이트홀’ 역시 그의 사후에 유산에서 기증한 것이다. ‘마퀸드 부동산이 준 선물(the gift of Marquand estate)’이란 기록이 있다. 마퀸드의 유언에 따라 마퀸드 기금의 운영을 맡은 사람으로는 마크 홉킨스 박사, 앨버트 B. 먼로, 데이비드 윌리엄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훗날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뉴욕 라파예트 애브뉴 장로 교회에서 영결 예배가 거행되었다. 1857년에 설립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 맥윌리엄스가 한국에서 장로교가 자리 잡는 데 직접 기여했다”면서 조선 선교를 매우

### 프레더릭 마킨드 기금으로 조선에 입국한 초기 선교사 5인

입국 날짜	이름	직책	기타
1884년 9월 20일	호레이스 N. 알렌	의료 선교사	최초 선교사
	프란시스 M. 알렌(아내)		
1885년 4월 5일	호레이스 G.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 창립자
1885년 6월 21일	존 W. 헤론	의료 선교사	순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해티 김슨(아내)		
1886년 7월 4일	애니 엘리스 번커	선교사	정신여학교 설립
1888년 3월 27일	릴리어스 스틸링 호턴	의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

출처: 김은혜, 「축복의 통로를 찾아서, back to Northfield,」, 《기독일보》(2007. 10. 5) 참조 후 재작성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수시로 엘린우드와 서면으로 연락하면서 지시를 받기도 하고 협의를 하기도 했다.

맥윌리엄스에게 조선 선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던 엘린우드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한국 담당 초대 총무를 지낸 사람이다. 조선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도 컸다. 엘린우드는 20년(1884~1903) 동안 봉직했으며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는 않았다. 이후 아서 브라운, 클레랜드 맥아피(Cleland Boyd McAfee, 1866~1944) 등이 한국 선교를 담당했다. 예를 들어 초기 선교사들이 보낸 선교 보고 편지를 보면 “1891년 2월에 사택 두 채를 신축할 계획을 했는데 지붕과 건축 자재를 희사한 맥윌리엄스 회사의 헌금을 받았다” 등과 같은 기록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마킨드 기금의 도움을 받았던 초기 선교사 5인은 위와 같다.

지금도 뉴욕 라파예트 장로교회의 벽면에는 다니엘 맥윌리엄스를 기념하는 짙은 갈색 명판이 있다.

다니엘 윌킨 맥윌리엄스(1837~1919), 47년 동안 장로로 임직했으며 28년 동안 주일학교 총감독으로 일했다. 교회 초기의 성장 과정에서 초대 목사 퀴리(Theodore Ledyard Cuyler, 1822~1909)를 도왔으며, 무디 부흥사의 절친한 친구였다. 해외 선교회 회원으로 마퀸드 기금을 사용해 한국 선교사 파송을 시작했다. 또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헌신했다.



## 존 토머스 언더우드

1857~1937



존 토머스 언더우드(John Thomas Underwood)와 동생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해외 선교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6남매로 시작된 언더우드 가문에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버지 존의 외조부인 알렉산더 워(Alexander Waugh) 박사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에든버러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의 웰즈 스트리트 회중교회(영어로 Congregationalist로 표기하는데 지역 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강조하는 교회 형태) 목사였다. 특히 런던선교회가 창설될 때부터 선교사 파송과 정책에 깊이 관여했으며 28년 동안 선교회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이처럼 언더우드 가문의 구성원들은 해외 선교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아버지 존 언더우드는 저명한 화학자였던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1867) 제자로 영국에서 잉크 제조업을 했지만, 동업자의 배반으로 큰 실패를 맛보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이민 길에 올랐다. 미국 뉴저지 뉴더햄에 정착한 아버지는 잉크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다행히 사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 언더우드 가문이 1874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타자기 리본과 카본 페이퍼를 생산하는 일이었다. 1816년에 세워져 1873년에 최초로 상업용 타자기를 만든 레밍턴앤선즈에 리본과 페이퍼를 공급하는 많은 협력 업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리본까지 직접 생산하기로 한다. 그것은 직접 타자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변신하는 결정이었다. 존 언더우드가 인생에서 내린 결정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다.

존 언더우드는 아버지를 도와 잉크 사업을 하던 중에 타자기 특허권을 인수하는 기회를 잡는 데 성공한다. 원래 이 기술은 독일계 이민자인 프란츠 와그너(Franz Xavier Wagner)라는 엔지니어가 개발한 것이다. 와그너가 이 기술을 보여주자 존 언더우드가 구매했다. 따라서 1896년과 1900년 사이에 등장하는 ‘언더우드 1’과 ‘언더우드 2’ 제품 뒷면에는 ‘와그너타자기회사’라는 상호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는 특허권에 기반을 두고 1895년 맨해튼에 ‘언더우드타자기회사’를 창업했다. 그가 인수한 특허 기술은 획기적이었다. 기존 타자기가 서류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타자를 치는 것이라면 존 언더우드 사장이 인수한 특허권은 오늘날처럼 서류를 보면서 타자를 칠 수 있는 신기술이었다. 그가 사업가로서 거둔 큰 성취를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896년까지 다양한 부품과 조합, 디자인을 검비한 타자기들이 시장에 등장해 경쟁해왔지만 최종 승자가 출현하고 있었다. 마침내 언더우드 타자가 등장했다. 이 타자는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최초의 타자기다.

1897년 언더우드 타자기의 사용자가 남긴 후기가 인상적이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언더우드 타자는 기계가 마땅히 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제품이다.” 1939년까지 약 500만 대를 판매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고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이었다. 언더우드의 타자는 성능이 우수해 빈에 있는 합스부르크 가의 제국 법정에서도 사용될 정도였다. 오스트리아 제국 및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로부터 제국 및 왕실 법정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도 했다. 사업가로서 만들어낸 성과는 1911년 6월, 《뉴욕 트리뷴》에 실린 대규모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11년 6월 1일부터 언더우드타자기회사는 뉴욕의 베리셋 30가에 신축한 언더우드빌딩으로 이전합니다.

‘가장 큰 타자기 오피스 빌딩과 하트포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타자기 공장.’

그가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은 물론이다. 참고로 언더우드 타자기는 1959년 올리베티(Olivetti)에 합병되어 ‘올리베티-언더우드 타자기’로 시장에 선보이다가 1980년대부터 언더우드라는 이름이 사라졌

다. 존 토머스 언더우드는 타자기로 한 세대를 품어줬던 사업가였다. 당시의 부호들은 라파예트 애브뉴 장로교회에서 멀지 않은 브루클린의 클린턴에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 언더우드 사장의 저택뿐 아니라 맥윌리엄스의 저택도 있었다. 언더우드 사장이 작고하자, 유족들은 저택과 함께 약 1,000에이커(4,046,856㎡)의 부지를 뉴욕시에 기증함으로써 오늘날 언더우드 공원이 생기게 되었다.

형과 동생은 친밀한 사이였다. 떠나면 한국 땅을 떠나는 동생을 배웅하려고 형은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갈 정도였다. 신앙이 독실하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존 토머스 언더우드가 오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공식적으로 북장로회로부터 받는 도움은 제한적이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형에게 ‘SOS’를 쳤을 것이다. 존 토머스 언더우드가 지원했던 모든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조선 땅에 사람으로, 건물로, 의료로, 교육으로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는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호돈好敦, Lillias Horton Underwood, 1851~1921)다. 언더우드 사장은 서울에 진료소를 차리고 조선 사람들을 돕는 제수의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독립문 근처에 ‘프레더릭 언더우드 휴양소(The Frederic Underwood Shelter)’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진료소는 젊은 날 죽은 형 프레더릭 언더우드를 기념하기 위한 진료소였다. 이 진료소 역시 언더우드 사장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1891년 11월 20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편지에는 형의 도움이 언급되어 있다.

한국에 파송할 6명의 선교사 가운데 제 형이 의사 한 명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오후 귀하께서 문의하신 데 대해 형에게 물어보았고 형은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1892년 남장로교 선교본부가 2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는 일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언더우드 사장은 이 2명의 비용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북장로교 선교본부가 6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자 이 또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자원하기도 했다.

언더우드 사장이 남긴 가장 큰 치적 가운데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5만 3,000달러를 기증해 연세대학 신촌캠퍼스의 부지가 되는 땅 19만 평을 구입하도록 조치한 일이다. 그래서 이 땅 위에 1915년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진다. 오늘날 연세대학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조력과 지원이 있었지만, 당시 언더우드 사장의 열정에 감동한 나머지 대학 설립 자금으로 2만 5,000달러라는 거액을 내놓은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의 찰스 스티imson(Charles S. M. Stimson)이다. 그를 기념해 연세대학에 세운 최초의 석조 건물이 스티imson관이다.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나자 18년 동안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올리버 에비슨(어비신魚宗信, Oliver R. Avison, 1860~1956) 박사에게 자동차를 보내준다. 오전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오후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수행해야 하는 에비슨에게 18년 동안 발이 되어준 차는 바로 언더우드 사장이

기증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기증한 10만 달러는 오늘날 연세대학의 중심 건물인 언더우드관으로 빛나고 있다. 그전에는 5만 달러를 보내서 목조 건물인 치원관(致遠館)을 지어주기도 했다.

때로는 사적인 일로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함으로써 박영효, 서광범(1859~1897?), 김옥균, 서재필이 일본으로 망명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 입국을 대기하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동갑내기인 서광범에게 한글을 배웠다. 한글을 배우는 동안 서광범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언더우드는 서광범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민다. 형에게 연락을 취했고 언더우드 사장은 서광범이 뉴저지주 랫커스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해서 1885년 5월 서광범은 박영효와 함께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서광범은 비밀리에 언더우드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서광범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끝으로 필자가 브루클린에 있는 라파예트 애브뉴 장로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소감을 전한다. 아직도 목사실 정중앙에는 유화로 그린 초상화가 걸려 있다. 존 토머스 언더우드가 저세상으로 간 지 100여년이 흘렀건만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교회에서 중심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좌석은 정중앙에서 벗어난, 왼쪽의 후미진 40번에 있었다. 그의 인간됨됨이를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 존 프랭클린 가우처

1845~1922



장로교에 마퀸드와 맥윌리엄스가 있었다면 감리교에는 가우처(John Franklin Goucher) 목사가 있다.

북장로교보다 일찍 조선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가우처 목사는, 1833년 11월 6일 결혼한 선교사에게 한국 선교 사업을 맡긴다며 시작을 돕기 위해 2,000달러를 제공하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이를 두고 조지 헤버 존스는 『한국 교회 형성사(The Rise of the Church in Korea)』(홍성사, 2013)에서 “그는 예언적 비전을 통해 한국 선교 기회를 보았고, 즉시 북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평가한다. 만일 그의 제안대로 북감리교 해외 선교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한국은 장로교 대신 감리교의 교세가 압도적인 나라로 바

꺼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뤄진 끝에 1884년 11월이 되어 서야 일반선교위원회 회의 때 최종 결정을 하고자 거론되었다. 그때 가우처 박사는 서신을 한 번 더 보내면서 조선 선교를 재촉한다.

우리 교회는 그 선교지에 전도·교육·의료기관들과 함께 가되 그 기관들을 운영할 유능한 선교사들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제안한 2,000달러 현금에 3,000달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혼자로서 유능하고 안수받은 경험 있는 선교사 한 명과 기혼인 의료 선교사 한 명을 올해 안에 그 선교지에 배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추가 금액은 서울에서 우리 선교회 운영에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가우처 박사의 5,000달러 기부 약속은 일반선교위원회를 한껏 고무시켰다. 이에 호응해 조선 선교를 위해 8,100달러가 추가로 배정되었다. 감리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선 선교에 대한 열의와 신속한 조치는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Christian Advocate)》 편집장인 제임스 버클리 박사의 정보망에 잡힌다. 그는 1883년 1월에 한국 사정을 인용하면서 선교회 개설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한 적이 있었다. 그해만 하더라도 미국 최대 기독교 주간지 《크리스천 어드보케이트》는 한국 관련 기사만 무려 15편을 실었다. 기사를 읽고 조선 선교를 격려하는 다양한 반응이 미국 전역에서 답지했다. 언론의 호의적 반응은 가우처 박사의 초기 기부액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주 슬로컴 씨가 1,000달러를, 익명의 기부자가 1,000달러를



보내는데 그 돈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9세 소녀의 9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헌금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감리회는 조선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예비 단계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가우처 박사가 주도해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과 긴밀히 나누는 서신들과 준비 작업들이 북감리회 해외 선교부의 결정과 수고를 들어주었다. 마침내 북감리회 해외 선교부는 1884년 2월 19일 회의에서 “일본 선교회는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 맥클레이 박사 부부를 일본인 전도자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 사정을 조사하게 한다”고 결정한다.

해외 선교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일본 선교회 감독 맥클레이는 부인과 함께 1884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한다. 맥클레이 부부는 미국공사관에서 루시우스 푸트(복덕福德, Lucius Harwood Foote, 1826~1913) 미국공사 부부의 환영을 받았다. 그 후 기독교 선교사들의 희망과 목적을 담은 정중한 편지가 고종에게 전달되는데 고종의 답신은 예상외로 호의적이었다. 서울에 선교회가 설치되면 기쁘겠고, 의료와 교육 사업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맥클레이 박사는 즉시 뉴욕 해외 선교부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고한다. 그가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저는 한국 정부 고관으로부터 개인 면담 요청을 받았고, 면담 중에 서신이 왕에게 전해졌으며 왕이 흔쾌히 윤허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결정을 전하면서 그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에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형태의 기독교는 반대가 강했지만, 정부는 개신교에 대해 반대가 없으며 개신교 선교사에게는 어떤 방해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감리회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들에게 기독교 사역을 할 수 있는 허가와 권한을 얻어 얼마나 기쁘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는 한국 정부가 시작 한 개혁 진보 과업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첫 조력자입니다.

일본 선교사들은 맥클레이의 답사 결과에 고무되어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글을 선교 잡지인 《복음 세계(The Gospel in All Lands)》에 투고한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 헌금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우처 박사는 어떻게 한국의 선교 상황에 대해 앞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1883년 7월 26일 서울을 떠나 방미한국사절단이 9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열차에 가우처 박사가 타고 있었다. 사전에 한국의 방미사절단을 만나려고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대륙횡단열차가 멈춘 대륙의 어느 정거장에서 가우처 목사는 좌석을 구할 수 없어서 한국 사절단이 여행하는 특별 차량의 2층 칸에 뒀다. 아침이 되었을 때 박사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고, 커튼을 열어젖히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모양의 머리에다 갖과 치렁치렁 늘어지는 옷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을 보았다. 가우처 박사와 방미사절단 일행의 조우였는데 그들은 3일 동안 함께 열차를 탄다.

책임자인 민영익(1860~1914)과 가우처 박사는 통역을 두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두 나라 사이에 근본적인 교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에 민영익은 “근본적인 교류가 교역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인들끼리 오가는 것을 말합니까?”라고 되물었다. 가우처는 신중하게 “병원을 짓고 학교 세우는 일을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민영익의 관심에 가우처는 “사명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답한다. 바로 이 만남에서 가우처 박사는 한국 선교 가능성을 확신한다. 의도하지 않은 이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이성 관점으로 보면 정말 뜻밖의 만남이다.

조지 헤버 존스 선교사는 『한국 교회 형성사』에서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했지만 훗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전능자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모든 것이 합해 결국 선을 낳는다. 1884년 말, 목사이며 의사인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시란돈 施蘭敦, 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과 모친 메리 플래처 스크랜턴(Mary Fletcher Scranton, 1832~1909) 여사,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아편설라亞扁薛羅,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 선교사가 한국의 첫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내한한다. 이로써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가 본격화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존 프랭클린 가우처 박사가 어떤 분이었는가라는 점이다. 침례교 목사, 칼리지 학장, 선교사 리더, 자선가 등의 직함이 그를 따른다. 그는 디킨슨칼리지에서 학사, 석사, 신학 박사과 법학 박사를 받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의 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이 활동에 깊이 관여한 매우 활동적인 선교사였다.

그래서 가우처 박사 사후에 이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와 오간 편지 등을 ‘존 프랭클린 가우처 페이퍼들’이란 제목으로 컬럼비아대학교 유니온신학대 버크도서관에 남겼다.

존 가우처는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1877년 메리 세실리아 피셔(Mary Cecilia Fisher, 1845~1902)와 결혼하는데, 기부할 때마다 자주 “부부가 함께 기부했다”는 문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아내가 부모에게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의 ‘두이드 리지 묘지’ 기록을 들여다보자.

남편인 존 가우처 박사와 함께 메리 가우처는 가우처칼리지를 공동 설립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학교 설립 자금은 메리로부터 나왔다. 메리는 큰 부자로 태어났다.

묘비 설명에서 “큰 부자로 태어났다”는 표현은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데, 가우처 박사의 부인이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자선 사업가들 가운데는 부모의 유산을 기반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우처 박사가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가우처 박사의 아버지는 아일랜드 출신인 존 가우처(John Goucher, 1814~1892) 박사로서 살아생전 활동은 확인할 수 없다.

가우처 박사와 아내 메리 세실리아 피셔 가우처는 1885년에 창립된 볼티모어여자대학의 부지를 공동 기부했다. 여러 문건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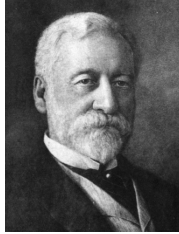
동 기부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가우처 박사는 이 학교의 총장 (1891~1910)을 수행하는데, 이후 이사회는 이 대학의 명칭을 가우처칼 리지로 바꾸었다. 가우처 박사는 일본의 기독교계 학교인 아오야마학 원 설립을 도왔으며, 중국 푸저우에도 기독교계 학교 건립을 하는 데 도왔다. 가우처 박사는 한국과 중국 서부 선교사 파견에도 첫 기금을 제공했으며,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모건칼리지를 설립하는 데도 기부했다. 가우처 부부는 인도에 수많은 사립학교를 건립하는 데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가우처 박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외 선교사와 감리교 계통의 교육기관을 돕는 데 헌신적이었다. 딸인 엘리너의 도움으로 가우처 박사의 마지막 여행은 중국의 교육기관을 둘러보기 위한 방문길이었다. 모녀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1920년 3월 5일 요코하마까지 코리아호 라는 선박으로 돌아왔고, 3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2년 후 인 1922년에 가우처 박사는 사망한다.

가우처 박사는 한국을 6번이나 방문했다. 배재학당을 설립하는 데 대지 구입비로 3,000달러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이화학당과 연세대학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1915년 개교)에도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17년 배재학당 창립자인 아펜젤러기념관 기공식에 미국 감리교 감독 일행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을 사랑해 목숨까지 주고 간 아펜젤러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게 평가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1838~1913



오늘날의 세브란스병원은 뛰어난 사업가이자 관대한 자선 사업가였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Louis Henry Severance)의 기부로 시작되었다. 1900년 봄, 뉴욕 카네기홀에서 5,000여 명이 모인 만국선교대회(Ecumenical Conference of Missions)가 열렸다. 조선에서 의료 선교에 종사하고 있던 올리버 에비슨이 ‘의료 선교 의무의 우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렇게 호소한다.

조선에도 서양의 의료기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분의 기부가 절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비슨은 “현재 서울에 있는 각 교파에서 파견된 7명의 의료 선교사가 협동해 한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면 7개의 작은 병원에서 하는 일의 몇 배를 더 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다른 지방에 가서 의료 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면서 연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루이스 세브란스는 에비슨을 따로 만나 의사 7명이 각각 진료소를 갖고 있다면 새로 병원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에비슨은 “서울에는 시설을 제대로 갖춘 병원이 한 군데도 없고 간호사도 없이 의사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국 사정을 소개하면서, “만약 3~4명의 의사가 잘 설비된 하나의 병원에서 같이 진료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내친김에 에비슨은 5월 말 북장로회 총회에서 병원 설립 홍보를 했다.

강연을 경청했던 루이스 세브란스는 1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에비슨의 말에 루이스 세브란스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큼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기부 약속이 이뤄지자 선교본부가 1만 달러를 더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2만 달러가 확보된다. 이 기금을 기초로 1904년 11월, 서울역 맞은편 지금의 연세빌딩 자리에 기증자의 이름을 딴 ‘세브란스병원’이 설립된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1만 달러 기부에 그치지 않고 곧 남대문 밖 북송아골(현 세브란스빌딩 소재지 부근)의 대지 구입비로 5,000달러를 더 내놓는다.

이런 거액의 기부를 받는 일이 즉석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에

비슨은 1899년 안식년에 뉴욕선교본부에서 세브란스의 아들을 만났다. 이후에도 루이스 세브란스의 도움은 계속되는데 그 시작점이 1900년의 1만 달러였다. 기부가 이뤄지기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병원 건립 계획을 세워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었다. 1899년 12월 5일, 뉴욕선교본부의 총무 엘린우드는 서울선교본부에 병원 건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낸다. 이에 대해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0년 1월에 답장을 보내는데, 당시 1만 달러가 얼마나 큰돈이었는가를 짐작게 해주는 대목이 등장한다.

서울선교지부는 귀하께서 서신으로 문의한 12월 5일 자 병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나를 임명했습니다. 귀하는 가장 저렴한 병원 공사 가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곳 선교회의 의견은 이 점에서 선교본부의 의견과 일치하는 듯한데, 병원은 한 번에 지어서는 안 되며 두세 병동을 지은 다음 서서히 지어야 합니다. 선교회위원회 위원들 서너명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엇인가 일이 되려면 최소한 1만 혹은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일 미국에 가 있는 에비슨 의사가 적절히 노력하면 이 액수의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액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편지는 선교대회가 열리기 3개월 전에 보낸 편지다. 에비슨이 뉴욕에서 엘린우드를 만났을 때 “1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요”라고 해서 놀랐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엘린우드 총무에게 편지를



보내 “1만 달러를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가라는 점이 궁금했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이 문제를 형에게 편지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은 형에게 듣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도 첨부했다.

언더우드 사장과 세브란스 사장(존 세브란스)은 관계가 밀접했다. 두 사람 모두 뉴욕선교본부 이사로 역임했다. 또한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들 존 세브란스는 뉴욕 5가 150 거리에 있는 감리교 선교본부에 설립한 ‘조선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력 이사회’ 이사였다. 언더우드 사장이 회장이고 존 세브란스가 재무위원장이었다. 두 사람은 한국의 의료 시설 확충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루이스 세브란스가 1만 달러를 쾌척하는 일의 배경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루이스 세브란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기부 건은 언더우드 사장과 세브란스 가문의 상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연희전문학교 부지 비용으로 언더우드 사장이 20만 평 구입을 위한 5만 3,000달러를 기부하는 시기와 맞물려 존 세브란스가 연희전문학교 부지 바로 옆에 미래의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한 10만 평 부지 구입비를 보냈다.

그렇다면 루이스 세브란스는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루이스 세브란스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으로 석유 채굴 및 유통 사업으로 돈을 번 사업가다. 그가 태어나던 1838년 클리블랜드 최초의 외과 의사인 아버지가 사망한 까닭에 형 솔로몬 세브란스(Solomon Severance)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한

다.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에 힘입어 루이스 세브란스는 장로교 미션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 반노예 정책에 대한 신조를 지키면서 살았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던 해부터 커머셜 내셔널 뱅크에서 일하다가 19세(1857)에 패니 베네딕트(Fanny Benedict, 1839~1874)와 결혼해 외아들과 두 딸을 둔다. 그는 26세(1864)에 펜실베이니아의 오일 붐 타운인 티추빌에서 석유 채굴 및 정제 사업을 시작한다.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석유회사의 오하이오회사 재무담당관으로 활동하는데 그가 스탠더드오일석유회사의 지분을 유지하는 기간은 1876~1884년이다.

또한 독점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유향 사업을 일으켜서 상당한 돈을 벌어들인다. 그가 유향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루이스 세브란스는 석유 사업으로 800만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유향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를 더 추가했다”고 평가한다.

30년 동안 사업 세계에 몸담으면서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 더욱이 1894년에는 스탠더드오일석유회사의 주요 주주의 딸로 자신만큼 부유한 플로렌스 세브란스(1867~1895)와 재혼하지만 그녀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사망하고 만다. 그녀의 재산이 고스란히 루이스 세브란스 재산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데 성공했지만 루이스 세브란스의 개인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37세가 되던 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들 셋은 모두 형이 맡아서 키웠다. 20년 만에 재혼을 하지만 재혼한 아내마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막내딸도

28세에 세브란스의 곁을 떠났다.

1876년, 루이스 세브란스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1913년부터 자선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 사후의 재산은 2명의 자녀가 물려받게 된다. 존 롱 세브란스(John Long Severance, 1863~1936)와 엘리자베스 세브란스(Elizabeth Severance, 1865~1944)다. 두 자식 모두 슬하에 아이가 없다. 루이스 세브란스 유언에 따라 존과 엘리자베스가 추가 기금을 더함으로써 지금도 세브란스병원에 기부되고 있다. 이제까지 세브란스병원이 받은 기부금 총액은 11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세브란스체육관, 세브란스도서관, 세브란스 케미컬실험실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자선 활동을 했는데, 압권은 1904년에 서울의 세브란스병원을 위해 기부한 일이다. 그의 아들과 딸도 활발한 기부 활동을 펼쳤다. 루이스와 엘리자베스가 150만 달러를 투입해 건축하고 1931년에 선을 보인 클리블랜드오케스트라의 세브란스홀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콘서트홀로 손꼽히기도 한다. 특히 루이스 세브란스는 사업가로서도 괄목한 성과를 올렸지만, 자선 사업가로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사후에 약 300만 달러 가치의 소장품들을 클리블랜드아트박물관에 기증했다.

## 히람 캠프

1811~1893



SVM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한국이다. 부흥사 무디가 지핀 이 운동으로 SVM 출신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이 한국이고, 그곳에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해냈다. SVM 운동은 무디가 1879년 여학교인 노스필드세미너리를 세운 다음 개최하기 시작한 노스필드사경회에 힘은 바가 크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무디 부흥사는 2년 후인 1881년 남학생을 위한 마운트허먼고교(현 NMH)를 세운다. 이 학교는 SVM의 산실이 될 뿐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 선호하는 학교였다. 이런 면에서 NMH 설립에 기여한 기부물야끼지 않았던 한 인물을 언급하겠다.

1879년 9월 무렵, 노스필드세미너리에서 가까운 코네티컷강 언덕

에 115에이커(465,388㎡)나 되는 농장이 경매에 나왔다. 에즈라 사과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미망인 존 퍼플 부인은 무디를 찾아와 자신의 땅이 경매에 부쳐지게 되었다면서, 그것을 아무에게나 넘기기보다는 학교 부지나 종교 부지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1880년 여름,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히람 캠프(Hiram Camp)가 무디 부흥사를 방문했다. 그는 뉴헤이븐시계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42세에 회사를 창업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히람 캠프는 부흥사 무디의 신실한 믿음도 존경하지만 사업가적 예리함도 존경하고 있었다. 무디를 만난 자리에서 히람 캠프는 주저하지 않고 사업 계획과 의지를 털어놓았다. 그때마다 무디가 해주는 조언은 명료하고 직접적이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대로 하세요.” “누군가에게 주는 기쁨을 맛보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던 끝에 히람 캠프는 남학교를 만들려는 무디의 구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러자 무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넉넉하지 못한 남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까닭입니다. ‘일과 공부’ 2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은 매일 일정량 이상을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도 성장하지만, 일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그 점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학교에 적용할 것입니다.

순간 히람 캠프는 무디 부흥사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

하게 털어놓았다.

전 69세입니다. 젊은 날부터 시계 제조와 무역을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경험에 미뤄보면 인간의 지력과 창조력은 근면과 헌신을 통해 개발되고 예리해지게 된답니다. 무디 부흥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와 손과 가슴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저는 부흥사님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대화가 오간 다음 히람 캠프는 일터로 돌아갔다. 1880년 9월 중순, 노스필드세미너리에서 열린 사경회를 마무리하며 무디는 청중에게 반짝이는 눈으로 이런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털어놓았다.

나는 남학생을 위한 학교 건립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에 동의하는 한 신사 분이 10여 일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2만 5,000달러라는 거액을 내놓았습니다.

토지 매입을 마친 1880년 9월 20일, 4명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히람 캠프, 뉴헤이븐의 존 콜린스(John Collins), 조지 스테빈스(George Stebbins), 오순절교회 목사가 참가했다. 그날은 땅을 구입하고 난 바로 다음날이다. 무디는 함께 기도하자고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는 남자 학교로 바치겠습니다. 새 조직을 받아주시고 축복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881년 5월 4일, NMH가 출범한다. 개교한 이후 무디 부흥사는 히람 캠프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편지를 보낸다.

노스필드 매사추세츠, 1881년 7월 21일

내 사랑하는 친구여, 진정으로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은 물론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 우리는 당신의 관대한 선물을 받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드와이트 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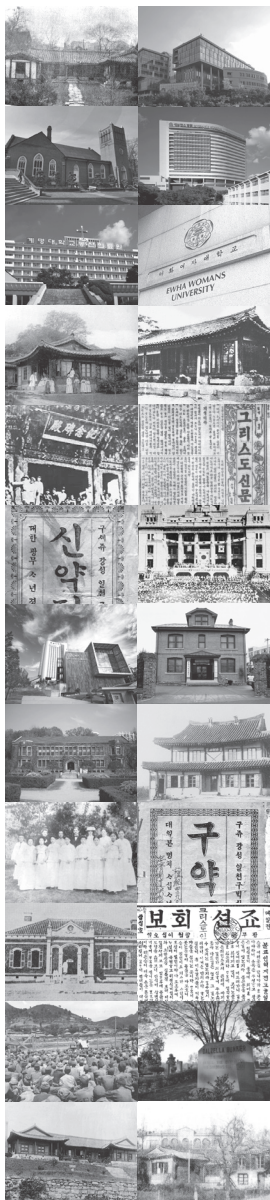
히람 캠프는 여생 동안 무디의 절친한 친구로 남아 있었으며, 그가 기부한 학교 활동에 봉사하면서 지냈다.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첫 작업은 무디의 부탁을 받은 학교 이름을 짓는 일이었다. 라일 W. 도셋(Lyle W. Dorsett)은 『영혼을 향한 열정: 무디의 생애(A Passion for Souls: The Life D. L. Moody)』(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3)에서 “히람 캠프가 내린 선택은 ‘혈몬(허먼)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편 133:3)에서 따온 ‘마운트허먼 남자 학교’였다”고 말한다.

히람 캠프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뉴헤이븐시계회사는 1853년 2월에 시계 제조공인 히람 캠프와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다. 초기 사업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제조 회사였던 제롬제조회사에 시계 진자를 공급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3년 후에 제롬사가 부

도 위기에 빠지자 1856년 4월 히람 캠프 사장은 2만 달러를 들여 제롬사를 매입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NMH를 위해 내놓은 2만 5,000달러가 당시 기준으로 얼마나 큰돈이었는가라는 점이다. 1860년 무렵, 뉴헤이븐시계회사는 33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1년에 17만 개의 시계를 제조하고 있었다. 1880년에는 성인 512명과 어린이 88명이 이 회사에 일하면서 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1890년 회사가 재정 위기를 맞자 사장을 맡아오던 히람 캠프가 물러나고 후임자가 등장한다. 1894년에는 도산 위기까지 내몰리다가 1897년 구조 조정을 통해 매각을 위한 정지 작업이 끝나게 된다. 1902년에 경영권이 넘어가지만 1956년 파산을 맞고 1960년에 시계 생산이 중단된다. 그해 3월 22일 설비들을 공매했다. 뉴헤이븐시계회사의 시계는 여전히 앤티크 시계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히람 캠프 사장은 엘비라 스킨너 캠프(Elvira R. Skinner Camp, 1807~1845)와 결혼해 슬하에 메리 안 캠프(1836~1916)와 사라 제인 캠프(1838~1909) 두 딸을 두었다. 80세가 되던 1893년에 세상을 떠났고 묘소는 뉴헤이븐의 에버그린 묘지에 있다.





# 5장 초기 미국 선교사들

**개신교는 성서 전달, 성서 번역,  
복음주의 신앙 운동이 주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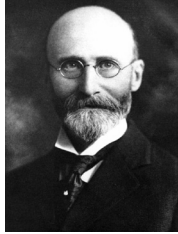
**미국 선교사들은 어려움에 처한  
조선 사람들에게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 등을 병행함으로써  
빠르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100년 동안 2,956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해 활동했다.”  
김승진과 박혜진이 엮은 『내한 선교사 총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이 1884년부터 1983년까지 내한한 선교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초기(1884~해방 전) 내한 선교사는 1,529명이고, 후기(해방 후~1984) 내한 선교사는 1,427명이다. 두 기간에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으며 전기가 조금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미국은 1,059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나머지 영국 199명, 캐나다 98명, 오스트레일리아 85명 순이다. 놀라운 사실은 전기 내한 선교사 1,529명 가운데 여성 선교사가 1,114명(72%)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초기 의료(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선교사는 280명으로 서양 의료인 311명 가운데 90%를 차지했다. 미국 의료 선교사는 193명으로 69%를 차지했다. 교단별로 보면 미국 북장로교회(71명), 미국 남장로교회(38명), 미국 북감리교회(27명), 미국 남감리교회(32명) 순이다.(황상익·기창덕,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 동안 내한한 서양 선교 의료인의 활동 분석”, 「1994년도 대한의사학회 춘계학술대회», 1994년 5월 6일) 이 땅을 밟았던 모든 선교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귀하지만,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20명과 그 밖의 순교 선교사를 선별해 입국 순서에 따라 그들의 삶과 활동, 기여를 정리해볼 것이다.

## 호레이스 뉴턴 알렌

1858~1932



나는 조선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선교장(mission work)이 되도록 도왔다.

1884년 9월 20일, 제물포를 통해 입국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호레이스 뉴턴 알렌(안연安連, Horace Newton Allen)이 남긴 기록 가운데 한 대목이다.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그는 1858년 4월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출생해 그 도시 소재의 오하이오 웨슬리언칼리지(현 신시내티대학교 의과대학)를 1883년에 졸업했다. 대학 동기인 부인 프란시스 앤 메신저(Francis Ann Messenger, 1859~1948)와 결혼한 후 중국에서 잠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조선 선교를 위해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알렌이 조선에 입국한 시기는 2년 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지만 외국 종교의 포교를 엄격히 금하는 상황이었다. 신분을 감춘 알렌은 미국공사 루시우스 푸트의 촉탁으로 일하기로 한 후 둘째 아들을 임신한 부인과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게 된다. 알렌의 가장 큰 공적은 고종은 물론이고 조선 조정의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선교사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공적은 알렌을 대신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기여지만, 이로 인해 선교사들로부터 비난과 모함을 받기도 한다.

알렌이 고종의 신임을 얻었을 수 있었던 계기는 입국하고 나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때다. 알렌은 일곱 군데의 깊고 심한 상처를 입은 수구파 지도자이자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의 목숨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다. 이 변란을 통해 알렌은 민영익은 물론이고 고종과 민비의 두터운 신임과 호의를 얻었고, 이런 절친한 관계가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1905년 3월까지 무려 20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알렌은 언제나 궁궐을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고종으로부터 참판직과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으며, 수시로 고종과 민비가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왕실 고문 역할까지 했다. 고종과 알렌은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경하던 사이였다. 알렌은 기울어가는 조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고종을 도와 조선이 독립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1885년 1월 22일, 고종에게 조선 왕립 병원의 설립 청원서를 미국 대리공사를 통해 제출했는데 이 청원이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에서 피살된 우정국총관 홍영식의 훼손된 저택(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을 보수하고 찢자국이 낡아한 마루와 벽을 청소한 다음 1885년 2월 29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왕립 병원이 문을 연다. 이 병원은 광혜원(光惠院, House of Extended Grace)이라 했다가 2주 후에 제중원(濟衆院,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늘날 세브란스 의대와 서울대 의대의 전신이다.

조선인을 위하고 싶다는 알렌의 진심이 고종에게 올린 병원 설립 청원서에 담겨 오늘까지 전해진다.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힘을 다해 조선인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조선 정부가 몇 개의 시설을 제공해주면 서양 의학을 이용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며, 젊은이들에게 서양 의학과 위생학을 가르쳐 응분의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 우리 생활비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둥과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들을 돕는 미국 내 자선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1887년 미국에 주미조선공사관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한다. 고종은 중국과의 군신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공사관을 세움으로써 자주국을 선포할 의도가 있었다. 국제 관계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고종은 알렌에게 도움을 청하고 조선공사관 외무서기관(참찬관) 직책을 수여하는데 알렌은 이 직책을 수행(1888-1890)한다.

청나라가 제물포항을 떠나는 외교 사절을 물리적으로 막아 미국

행을 저지하자 결국 미국이 11월 13일 해군 군함 오시피호를 파견한다. 청나라는 무려 6척의 군함을 파견해 미국 군함의 진로를 막고 포를 쏘며 위협하는데 미 군함은 아슬아슬하게 포위망을 뚫고 미국으로 향한다. 1888년 1월에 한국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부터 알렌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맡아 조선이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일을 성공시킨다. 결국 1888년 1월 17일 백악관에서 클리블랜드(Stephen Grover Cleveland, 1837~1908) 미국 대통령에게 박정양 공사가 신임장을 제출하는 데 성공한다. 주유럽공사로 파견된 조신회는 홍콩에서 중국의 방해로 2년 동안이나 발이 묶여 공관을 개설하는 데 실패했다.

알렌이 조선이란 나라의 관직이 탐나서 이런 일을 맡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에 선교사 일을 제쳐두고 조선을 돕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시 선교사들 내부에 조선 선교의 방향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알렌이 떠난 한 가지 이유였다. 일부 선교사들은 선교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병원부터 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순수 복음 전파에만 몰입하는 선교사들로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선교사들의 시각이 좁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년 6개월의 조선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알렌은 제중원으로 귀환을 희망했지만 여의치 않자 부산에서 의료 선교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았다. 1890년 7월 9일, 조선 주재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선교사를 그만둔다. 14년 8개월 동안 알렌은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시작해 공사, 특권전권대사로 승진하면서 미

국 시민들과 선교사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미국 정부의 권리와 이익 및 미국 상업 단체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외교관으로서 한 활동 가운데 철도 부설권(1890), 전기·수도 부설권(1898), 시내 전차(1899)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다. 특히 운산금광권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미 국무성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명 났다.

미국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알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종과 조선을 도우려는 선의를 갖고 임했다. “고종은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항상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알렌을 신뢰한 나머지 고종은 알렌의 제물포 별장 곁에 궁궐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그만큼 곁에 두고 도움을 받으며 의지하고 싶어 했다.

1895년 10월 8일, 민비시해사건이 터졌다.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대피하는 아관파천이란 난리 속에서도 알렌은 시종일관 고종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명성황후시해사건이 터졌을 때 밤을 지새운 고종은 “밖에 선교사들이 없느냐”고 외쳤다고 한다. 슬픈 일이긴 했지만 왕이 기댈 곳이 선교사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알렌, 언더우드, 헐버트 등 선교사 셋과 윤치호의 아버지가 달려갔을 뿐이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임금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선교사들이었다. 이것이 기울어져가던 조선의 모습이다.

알렌은 오늘의 세브란스병원이 있게 한 제일가는 은인이다. 1902년 11월 27일, 남대문 밖 북숭아골에서는 미국공사 알렌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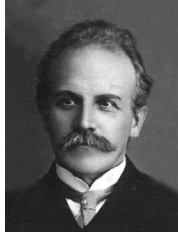
국 사신들, 정부 고위 관리들, 선교사들,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이 열렸다. 알렌은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중원 원장인 에비슨 박사를 적극 도왔음은 물론이다. 개관식은 1904년 11월 16일에 열리는데, 당시로서는 일본의 현대식 병원보다 나은 수준이었다. 알렌은 조선을 떠나기 전인 1905년 3월 세브란스병원 경영에 대한 보조를 정부에 간청하는데, 이 또한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받아들여진다.

알렌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친일 정책을 대통령 면전에서 비판함으로써 미움을 받을 정도로 조선을 위했다. 알렌은 의료 선교사와 궁중어의(1885~1887), 조선공사관 외무서기관(1888~1890), 주조선 미국 외교관(1890~1905)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한 인물이었다.

미국에서 국권상실의 소문을 듣고 “조선이 쓰러지면서 나 또한 넘어졌다”는 그의 고백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알렌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7개월 전인 1905년 3월 29일, 미국 정부에 의해 해임되었으며 6월에 미국으로 떠남으로써 20년 6개월의 파란만장했던 조선과의 인연도 끝나고 만다. 고종은 떠나는 알렌을 위해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태극대훈장을 수여했다. 집필과 강연으로 여생을 보내다가 당뇨병으로 다리를 잃은 2년 후인 1932년 12월 11일, 74세로 오하이오주 텔리도에서 영면했다. 텔리도의 우드론 묘지에 묘소가 있다.

##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1859~1916



이 대학의 완전한 발전이 그(언더우드)에 대한 가장 큰 기념이 되고, 그의 풍성한 삶에 영광스런 면류관으로 증명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16년 10월 16일, 언더우드 추모식에서 그와 뜻을 같이했던 세브란스와 연희전문학교 교장 예비슨의 말이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복음 선교사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조선에 도착한 시점은 1885년 4월로 26세 때다.

언더우드가 도착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없었던 시절이라서 약제사로 일하며 처음 2년 동안은 주로 한글을 공부하고 조심스럽게 활동했다. 이때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해둔 것이 요긴하게 쓰였으며, 공식 직함은 ‘제중원 교사’였다. 알렌을 도와 일하던 초기 시절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 북장로교 총무로 있던 엘런우드에게 보낸 첫 보고 편지에 남아 있다.

제중원에는 새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렌 박사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매일 아침 병원에 나가 하루 4~6명씩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의사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오후에 병원에 나가 돕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70명씩 새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와중에 1886년 3월 29일, 의학교가 열려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친다. 한국어로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한국어 공부에 깊은 열의가 있던 덕분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체류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만큼 자신의 일을 오래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언더우드는 30년의 긴 세월 동안 한국 사회에 많은 긍정의 유산을 남겼다. 복음 전도자, 성경 번역가, 교회와 학교 설립자, 신문과 잡지를 창설한 언론인, 열정과 냉정을 겸비한 사회 운동가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업적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교육 사업이다. 내한 초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교육하는 일에 남다른 열의가 있었으며, 언젠가는 한국에 대학과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1886년 5월 11일부터 서울 정동 집에 붙여 있는 건물을 이용해 교육 과정을 담은 학교를 고아원으로 개원하는데, 이 학교가 오늘날 혜화동에 자리 잡은 경신학교(현 경신중고교의 전신)다. 고아원 설립 1년

후에 언더우드가 보낸 선교 보고 편지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약 1년 전 고아원을 개원했습니다. 1886년 5월 11일, 한 아이를 데리고 시작했는데, 당시 한 명만 입학 허가를 받아낸 상태고 다른 3명은 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가르쳐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택과 바로 붙어 있는 꽤 넓은 한옥 한 채를 사서 약간 수리했는데 집값은 아주 적당했고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500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고아원 출신의 대표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가인 김규식이다. 어머니를 잃고 버려진 채 병들고 굶주린 5세 아이였던 김규식을 키우고 영어를 가르쳐 재목으로 만들었다. 이후 김규식은 그리스도인 교역자로서 YMCA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언더우드의 비서로 일하기도 한다. 훗날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NMH를 거쳐 로노크대학 학사, 프린스턴대학 석사를 마치고 한국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다.

교육 사업에 대한 언더우드의 열의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가 학교를 설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0년대만 하더라도 장로교가 설립한 학교가 37개교에 이르렀다. 언더우드의 꿈이 결실을 맺는 씨앗이 뿌려진 것은 연세대학의 모태가 된 조선기독교대학(1917년 4월 7일 연희전문학교로 개칭)이 1915년 3월 5일에 개교한 일이다. 이 학교는 모든 교과를 초월해 만

들었다. 초대 교장과 부교장은 각각 언더우드와 에비슨이 맡았다. 당시 평양 대신 서울에 굳이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재한 선교사들이 많았다. 언더우드의 신념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서울에 대학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꿈꾸던 기독교대학은 결국 1957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다.

한편 언더우드는 문서를 통한 복음 전파, 즉 문서 사역에 관심이 깊었고 이를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1890년 6월, 조선성교서회(현 대한기독교서회)를 조직하고 문서 운동을 본격화한다. 한국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한글 성경을 편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런 판단과 추진은 언더우드의 큰 공로다. 언더우드는 자신의 조선훈어 교사인 송덕조의 도움을 받아 1890년 요코하마에서 『한영사전』, 『영한사전』, 『한글 문법서』 등을 발간했다. 성서 번역과 관련해서는 조선성교서회를 조직해 서기를 맡고 동료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력자들의 힘을 빌려 『신약성서』(1900)와 『구약성서』(1910)를 발간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

1888년 8월,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에 번역과 출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휴가 동안에 거의 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언어와 관련된 어려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서 등을 꾸준히 번역하는 중입니다. 요리 문답서를 출판해야 하고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 또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신도들을 위해 작은

찬송가를 준비해 인쇄되기를 바랍니다.

YMCA는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03년 10월 28일에 설립된 황성YMCA가 전신이다. 언더우드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개화를 돕고 이들을 훈련시킬 단체 설립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아펜젤러와 힘을 합쳐 이를 추진한다. 이에 YMCA 국제위원회는 의화단사건을 피해 잠시 한국에 와 있던 중국YMCA 창설자 라이언(David Wilard Lyon)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라이언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협의하고 나서 이런 답변을 보낸다.

한국의 개화 청년들이 YMCA 창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설되면 교회 안의 청년들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선교를 목표로 한다. 언더우드는 선교에서 의료와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신했기에 이 활동들에 열정적이었다. 의료나 교육이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고 복음을 알리는 일이라고 믿었다. 초기 선교 활동에서 알렌은 정부와의 충돌을 고려해 보수적 입장이었지만, 언더우드는 공세적 방법을 선호했다.

알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두 전도에 나선 것은 1886년 7월 18일부터다. 조선 땅에 1898년부터 선교 자유가 공식 인정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가두 전도는 무척 위험한 일이었다. 그날 노춘경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는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부터 최초로 세례식

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후 1887년 1월부터 9월 26일까지 12명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를 토대로 9월 27일에는 14명의 수제자를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정규 조직 교회인 정동장로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출범시킨다.

이날 모임을 위해 만주에서 초대 받아온 사람이 있었다. 만주 일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선교 활동을 해오던 스코틀랜드장로회 소속 존 로스 선교사다. 언더우드는 서울뿐 아니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 설립을 주도한다. 대표적으로 1895년 새문안교회에 영신학당(현 협성대학)을 세우고, 1896년에 행주교회와 토당리교회(현 능곡교회)를 설립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권』(1928)은 “1894년 선교사 언더우드는 전도의 방침을 확장해 서상륜, 김흥경, 이춘경 등으로 경성 지방에 전도케 하고 신화순, 도정희 등으로 고양·김포 등지에 전도케 하니 4개의 교회가 신설되고…”라고 증언하고 있다.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한 언론과 출판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지식인들을 상대로 1897년 4월 1일에 《그리스도신문》을 창간한 일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신문은 ‘조선 백성을 위해 지식을 널리 퍼려 함’이란 창간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로 창간된 기독교 주간 신문이다. 여기서 지식은 ‘천지만물의 이치와 형상과 법을 아는 것, 타국 정치상을 아는 것, 타국 백성의 풍속을 아는 것, 물건 만드는 법을 아는 것’으로 정의했다. 신앙과 실용을 병행한 신문으로 일제 강점기 동안 복음을 구현하는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선 선교의 동참을 호소했고 모임들을 통해 유능한 선교사들

로 하여금 조선 선교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1891년 9월, 토론토에서 열린 장로교회연맹 총공회에서 연설했을 때 이 연설을 듣고 조선 선교에 지원한 사람이 에비슨 박사다. 에비슨 박사는 1893년 한국에 들어와 제중원 원장, 세브란스병원 건축,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언더우드와 뜻을 같이한 유능한 동역자였다.

언더우드는 격무가 누적되어 1916년 4월에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뒤인 10월 12일, 57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뉴욕 그로브교회 묘지에 안장됐다. 언더우드가 그토록 염원했던 연희전문학교 정식 인가(1917년 4월 17일)를 보지 못한 채 말이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가족들은 3,000원이나 드는 비용을 새문안교회 내 영신학교에 기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1990년 연세대의 배려로 83년 만에 유해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이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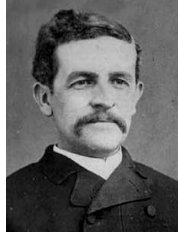
동료 선교사 게일(기일奇一, James Scarth Gale, 1863~1937)은 언더우드의 일생을 이렇게 칭송했다.

장재(壯哉)라 위재(偉哉)라 원 목사요. 번역에 최선 착수함도 원 목사요. 전도에 열심함도 원 목사요. 학교와 신문을 실시(設施)함도 원 목사요. 거대한 재정을 모집함도 원 목사요. 다수 선교사를 파견케 함도 원 목사요. 연(然)이나 여성경학원을 창설치 못함도 유감이오. 장로 감리를 합일케 못함도 대유감이오. 조선서 별세치 아니하고 뉴욕에서 별세함도 동(同) 목사와 오(吾) 조선인의 일반 유감이라 하노라.



##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1858~1902



크고자 하거든 마땅히 남을 섬기라(欲爲大者 當爲人役).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의 교훈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가 살고자 했던 삶을 고스란히 담은 문장이다.

1858년 2월 6일 펜실베이니아주 수더턴 출신인 아펜젤러는, 고조부는 스위스 이민자 출신이고 어머니는 독일계여서 독일어와 프랑스어에 능숙했다. 1882년, 뉴저지주 드루신학교에 입학해 공부했다. 한국 선교사로 가는 것이 확정될 무렵인 1884년 12월 17일에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에서 엘라 닷지(Ella Jane Dodge, 1854~1916)와 결혼했다. 당시 미국을 떠나 조선으로 오는 길은 멀고 험했다. 1885년 1월 14일,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한 아펜젤러 부부가 부산에 도착한 날은 4월 2일이었고,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은 부활절인 4월 5일이였다. 조선 땅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부인이었는데, 선교본부에 보낸 첫 보고 편지 끝자락에 이렇게 표현했다.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엮매어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주옵소서.

— 이만열, 「한국 도착 보고: 1885년 연례 보고서」,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아펜젤러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갑신정변)이 좋지 않아 일본으로 갔다가 6월 20일에 재입국한다. 그의 기여 가운데 으뜸은 배재학당(培載學堂) 설립이다. 이 학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치·경제 체제의 초석을 형성하는 데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아펜젤러의 선구자적인 혜안과 판단에 빛을 지고 있다. 아펜젤러는 도착하자마자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1885년 8월에 땅을 매입하고 배재학당의 전신인 영어 학당을 시작한다. 영어 학당인 배재학당이 개강하는 시점은 1886년 8월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벼슬을 얻는 수단일 뿐 아니라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배재학당의 출범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통했기에 고종으로부터 쉽게 학교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887년 2월 21일, 고종

으로부터 ‘배재학당’이란 이름을 하사받는데 이에 대해 아펜젤러는 선교본부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오늘 우리 선교부의 학교 이름을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았는데, 배재학당 혹은 ‘Hall for Rearing Useful Man’입니다.

아펜젤러는 이 학교를 기능공이나 기술자를 배출하려 의도하지 않았고, 자조 정신을 갖춘 근대 시민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선각자적인 혜안은 1897년 연례 보고서에 “우리는 감리교가 마땅히, 반드시 이 나라 720만의 사람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교양 및 대학 과정, 신학 과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펜젤러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가 바란 것은 학생들이 사회 개혁과 애국 계몽 운동에 기둥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었다.

아펜젤러가 아끼는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승만이였다. 1895년 4월 2일에 입학해 1896년 11월 30일까지 배재학당을 다니는 동안 이승만이 배운 것은 영어만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민권 의식, 근대 시민 국가의 토대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1896년 11월 30일에 조직한 계몽 운동 단체인 협성회다. 하지만 재학 중에 이승만은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다. 이승만은 1899년(24세) 고종 폐위 사건과 관련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5년 7개월간 한성감옥에 갇힌다. 이 기간 동안 선교사 에디(Sherwood Eddy, 1871~1963)에게서 성경을 받고 회심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승만이 한성감옥에 있

는 동안 게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 번커 부부 등의 선교사들은 성경과 전도 문서를 비롯한 150여 권의 기독교 서적과 신문 잡지들을 반입했다. 특히 아펜젤러는 제자를 구해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1899년 12월 28일, 이승만이 아펜젤러에게 보낸 편지는 이랬다.

제 부친께서 편지로 선생님의 크신 도움에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이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황량한 겨울이어서 어둡고 축축한 감방은 요즈음 너무나 춥습니다.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의복과 음식, 모든 것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의 자비로 지금 옷이 충분하며, 그래서 추위가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아펜젤러는 전도와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최초의’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여럿 가지고 있다. 1887년 10월 9일, 선교사와 한국인 신자들이 함께 ‘최초의’ 종교 집회를 갖는다. 이것이 오늘날 정동제일교회 첫 예배인 동시에 한국 감리교회의 첫 예배다.

우리는 사방 8자가 되는 방에 한국식으로 모여 앉았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시작했으며,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읽었다. 그다음 장 형제가 마치는 기도를 인도했다. 모임은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으로 가득 찬 것이었으며, 나는 하나님께 이 모임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중심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 아펜젤러 일기, 1887년 10월 11일

1887년 12월, 아펜젤러는 근대적 출판 시설인 삼문출판사를 설립하고, 문서 사역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아펜젤러는 푸저우에서 16년 동안(1870~1886) 선교를 해왔던 프랭클린 올링거(Franklin Ohlinger, 1845~1919) 선교사를 초빙해 한국의 문서 선교를 맡긴다. 이 출판사는 정부가 운용하던 박문국, 민간이 운영하던 광인사 인쇄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독 출판물은 물론 일반 서적과 교과서, 잡지를 발행해 한국의 출판 분야에 기여했다. 삼문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독교 출판물은 범교파적 성정이었고, 《협성회회보》, 《대한매일신보》, 《그리스도신문》, 『천로역정』 등을 출간했다.

1897년 2월 아펜젤러가 창간한 최초의 기독교 주간 신문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1897년 4월 언더우드가 창간한 두 번째 기독교 주간 신문 《그리스도신문》은 서로 협조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알리고 민중의 안목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아펜젤러의 성서 번역에 대한 열의는 조선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된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성서 번역 과정은 범교파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날권 번역은 1890년부터 시작된다. 1895년이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가 날권으로 출판된다. 본격적인 시작으로부터 10년이 되자, 기존의 날권들을 모아서 한 권의 『신약성서』를 완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정동제일교회에서 1900년 9월 9일에 열린다. 그러나 이 작업들은 선교사 개인이 주도한 것이기에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책임이 아펜젤러, 레이놀즈, 게일에게 맡겨진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신약전서 수정과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다

른 선박과 충돌해 유명을 달리했다. 이때가 그의 나이 45세가 되던 1902년 6월 11일이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가모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있으며, 부인 엘라 제인 닷지 아펜젤러 묘지는 코네티컷주 페이필드 센터버린 침례교 묘지에 있다. 장남 헨리 닷지 아펜젤러(Henry Dodge Appenzeller, 1889~1953)는 프린스턴대학과 드루신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선교사로 내한해 배재학당 4대(1920~1940) 교장으로 일했다. 1948년부터 기독교세계구제회 한국 책임자로 일했으며, 1952년에는 배재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지냈다. 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Alice Rebecca Appenzeller, 1885~1950)는 웨슬리대학을 졸업하고 이화학당 교사(1915), 6대 이화학당장(1921), 하와이 선교 사업(1943~1946)에 종사했으며 1946년 12월 이화여대 명예 총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지금 연세대 아펜젤러관은 1921년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 교인들이 아펜젤러 기념 헌금으로 지은 석조 건물이다. 아펜젤러가 가고 11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예배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을 때, 그를 파송한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켄트 크롤러(Kent Kroehler) 목사는 일화를 하나 소개했다. 아펜젤러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갔을 때 그의 건강을 염려한 신학대학 동기가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때, 아펜젤러가 들려준 이야기다.

나는 내 생명을 한국에 바쳤어. 더 머물고 덜 머물고는 문제가 아니야. 본국보다는 한국이 나를 필요로 해. 어찌면 은둔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 메리 플레처 스크랜턴

1832~1909



(알렌 의료 선교사가 운영하는 광혜원이) 순수한 복음 전도 사업이 아니기에 고 집을 굽히지 않고 완고했다.

1885년 6월 28일 자 알렌 일기에 남긴,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모자(母子)에 관한 알렌의 단상이다. 정부 병원인 광혜원과 달리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스크랜턴 모자가 알렌 선교사에게는 조금은 섭섭했을 수도 있다. 초기 선교 과정부터 장로교에 비해 감리교가 사회사업에 더욱더 열성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885년 8월 16일, 알렌이 북장로교 해외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감리교도들은 처음에 우리보다 아주 조그만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지금까지 사방으로 대지를 구입해 초가집으로 이뤄진 마을을 사들였습니다. 이 마을들은 도시 성벽에 붙은 언덕 위 가장 좋은 택지에 있습니다. 심지어 집도 인수했습니다. 곧 현재 시야를 가리는 집을 허물고 그 길을 막아 외국인 학교와 기숙사, 제가 알기로는 병원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감리교도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84년 6월 30일, 메리 스크랜턴은 아들보다 조금 늦게 며느리와 함께 정동에 도착한다. 8월에는 미공사관 근처에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충분히 큰 한옥 한 채를 구입한 다음 교단의 도움만 기다리지 않았다. 건물과 대지 구입비를 확보하려고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직접 띄워 재정 지원을 호소했다. 메리 스크랜턴의 적극적인 태도는 일생 지속되면서 여러 차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10월에는 정동 일대에 19채의 한옥과 6,200평의 대지를 확보했다. 메리 스크랜턴은 그곳에 교회, 학교, 여성 병원, 선교부 등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1832년 매사추세츠주 벨처타운에서 출생한 메리 스크랜턴은 1855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인 윌리엄 탈코트 스크랜턴(William Talcott Scranton, 1829~1872)과 결혼해 외동아들(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을 낳았지만, 남편과 1872년(41세)에 사별하게 된다. 메리 스크랜턴은 외동아들 부부와 함께 1884년(52세)에 한국 땅을 밟는다. 모자가



함께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첫 사례이기도 하고, 아주 드문 사례다. 당시의 50대는 오늘날과 달리 고령임을 뜻하는데, 52세에 선교사로 지원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메리 스트래튼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 하자’는 취지로 1869년에 만들어진 미국 북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WFMS,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오면서 생각을 굳혔다. WFMS는 선교를 위해 모인 여성들의 교회 모임이다. 그녀가 한국에 파송된 전후 이야기는 주목할 만하다.

1884년, 오하이오주 리베나라는 작은 도시의 WFMS 모임이 있었다. 나이가 든 볼드윈(Lucinda B. Baldwin)이란 WFMS 회원이 “어둠 속에 있는 한국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과 복음 전파에 써달라”면서 소액을 지정 헌금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는 일본과 인도였고, 외교 관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북감리교 WFMS 공회는 당시 오하이오주 WFMS 임원으로 있던 메리 스크랜턴을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선발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으로 가는 아들 내외와 함께 파송을 결정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메리 스크랜턴이 개업의로 미국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을 적극 설득한 데 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초기부터 교육을 통한 전도 사업에 관심이 특별했다. 1886년 5월 31일 한 명으로 시작한 이화학당은 오늘날 이화여자대학으로 발전했다. 초기 이화학당은 4~10세까지 교육을 받는 곳이어서 마치 고아원과 같았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성인 교육

과는 거리가 멀었다. 1891년 1월, 이화학당 교내에 한국 최초의 주일 학교가 개설되었다. 오늘날 같은 대학 모습은 1910년이 되어서야 틀을 잡게 된다. 정동에서 신촌으로 이화여대가 이전한 것은 1935년의 일이다. 당시 여성 차별이 심했던 조선에서 서구식 교육은 여성들에게 신세계를 펼쳐주는 것과 같았다.

한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와 아들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의 기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의료 선교다. 더욱이 그 시대에는 남녀 구분이 엄격했기에 남자 의사에게 신체를 보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여성 전용 병원 설립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화여대 사학과 이방원 교수는 「보구여관의 설립과 활동」(《의사학》, 2008년 6월)에서 보구여관이 시작된 계기를 이렇게 말한다.

의료 활동을 펼치던 스크랜턴 의사는 ‘남녀 구별’이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여성만을 위한 전문 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에게 의견을 말했다.

아들의 제안을 들은 메리 스크랜턴은 정동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여성 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WFMS 본부에 “그곳에 학교와 진료소를 열 계획”이라고 보고한 뒤에 즉시 실행에 옮긴다. 1886년, WFMS 연차 보고서에는 메리 스크랜턴이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8월 19일 자)가 수록되어 있다.

임의로 쓸 수 있는 병원용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스크랜

턴 의사의 병원과 인접해 있으며 그는 여의사가 올 때까지 여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았습니다. … 여의사 파견은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지구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의사, 교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곳에 지원해줄 것이라는 응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은 이화학당 안에 ‘여성들을 위한 여성 병원’을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1887년에 여의사 메타 하워드(Meta Howard, 1862~1930)를 파견한다. 그녀가 귀국한 후에는 후임으로 로제타 셔우드(허을許乙, Rosetta Sherwood, 1865~1951)를 파견한다.

1888년 11월, 이화학당 안에 독립된 병원을 개원했는데, 후에 고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보구여관(保救女館, Caring for and Saving Woman's Hospital)’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보구여관의 여의사들은 ‘여성들을 위한 의료 사업은 여성의 힘으로’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부인 환자들을 돌보았다. 보구여관은 환자 치료와 함께 매일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제공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치료보다는 기독교를 접하기 위해 오는 여자 환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보구여관은 치료기관으로 출발하지만, 점점 의학 교육기관이자 전도기관, 선교 교육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보구여관은 훗날 동대문의 구 이화여대병원으로 발전한다.

미국 북감리교 WFMS가 한국 선교 50년을 기념해 발간한 『복음의 50년(50 Years of Light)』(중앙감리교청년회인쇄부, 1938) 서문을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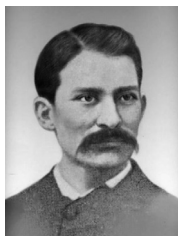
3명의 선각자들인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 아펜젤러 목사, WFMS 최초 파송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었다. ... 병원은 항상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 간호사들이 필요했고, 여의사들이 절실했다. 곧 미국의 WFMS가 이 요구에 대답해주었다. 작은 교회와 병원을 위해 하워드 박사가 왔으며, 간호사와 다른 교육 선교사들이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펜젤러 선교사 이름 앞에 놓인 윌리엄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를 주목해야 한다. 그가 선교 사업에 큰 기여를 했음을 인정하는 의미다.

스크랜턴은 1890년에 이화학당과 관련된 모든 직위를 후임자인 로드와일러(Louisa C. Rothweiler, 1853~1921)에게 맡기고 물러난다. 이후 1892년부터 남대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방의 여자 선교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동교회 설립자로서 메리 스크랜턴의 공적을 기릴 필요가 있지만, 아들 편에서 다룰 것이다. 메리 스크랜턴은 1909년 10월 8일, 서울에서 저세상으로 떠났으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잠들어 있다.

##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1856~1922



주님, 제 병(장티푸스)을 치유해주시면 나머지 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안정된 젊은 개업의가 오지를 찾아가는 선교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료에 따르면,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처음 한국 선교를 권유한 사람은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해리스(Merriman Colbert Harris, 1846~1921) 목사였다. 물론 다른 설도 있다. 한국 선교의 중요한 인물인 클리블랜드 집을 방문해 직접 이야기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어린 딸아이를 둔 젊은 의사가 안락함을 포기하고 해외 선교를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스크랜턴은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초여름의 장티푸스가 삶의 행로를 바꾸어놓고 말았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1856년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출생해 예일대학(1878)과 뉴욕 의과대학(1882)을 거친 재원이다. 루이 암즈(Loulie Wyeth Arms)와 결혼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업 의사(1882~1884)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한국 선교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1884년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로 임명되어 목사 안수를 받고, 5월 3일 스크랜턴 의사 부부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2살짜리 딸아이가 조선으로 향했다.

스크랜턴의 삶을 탐구하다 보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주관이 분명했던 사람이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다. 다른 하나는 선교 방법이 창의적이고 특별했다. ‘창발적인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중원에서 2개월 정도 알렌 의사와 함께 일하기도 했다. 이후 독자적인 의료 선교의 길을 개척한다. 최초의 민간 병원이자 두 번째 서양식 의료기관인 ‘정동병원’을 설립한다.

정동병원은 지금의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 자리에 있었다. 제중원 설립 5개월 후인 1885년 9월 10일에 세워지는 정동병원은 별도의 병원 건물이 있지는 않았다. 자신의 집을 개조해 외래 진료소를 열었고, 1886년 6월 15일 입원실을 갖춘 민간 병원으로 개원하면서 고종이 내린 ‘시병원(施病院)’이란 간판을 달았다. 여기서 ‘시(施)’는 ‘배

폴다'라는 뜻이다. 시병원 입구 한쪽에는 '미국인 의사 시약소'라 적은 명판을 걸고 다른 한쪽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병이든 아침 10시에 오시오. 올 때는 빈 약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라는 알림판을 달았다. 이런 아이디어는 병원 간판이 없던 시절 그의 어학 선생에게서 나왔다.

진료비를 받지 않자 시병원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1년 동안 무려 1,937명을 진료했다. 그다음 해에는 4,930명이 시병원을 찾았다. 특별한 소명 의식이 없다면 격무를 견뎌낼 수 없었을 텐데 스크랜턴 선교사의 사랑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1886년 북감리교 연례 보고서에는 윌리엄 스크랜턴이 보낸 선교 보고가 고스란히 실려 있다. 풍토병에 걸려 서대문 성벽 아래 버려졌던 여인이 이 병원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어느 날 오후, 도성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버려진 한 엄마와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모녀는 가마니 한 장을 깔고 또 다른 가마니 한 장으로 몸을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을 구걸에 의지했습니다. 남편은 모녀를 버려두고 시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 그날 밤 아주 큰 추위가 몰아쳤을 때, 막노동꾼을 불러 그 여자를 찾아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 3주 정도 흐른 후 그 여자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만큼이나 밝고 행복해졌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회복되어가는 것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보람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앓고 있던 질병은 이 계절에 한국에서는 대

단히 자주 일어나는 회귀열이란 병으로 아주 무서운 질병 중 하나로 판명되었습니다.

— 윌리엄 스크랜턴 연례 보고서, 1886, 275~276쪽

스크랜턴 의사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어 온다. 시병원에는 주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여기서 스크랜턴 선교사의 아주 특별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의 면모는 리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정동을 떠나서 환자들이 있는 곳에 진료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 운명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한 불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 같은 사람들이 회생 불가능한 병이 들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짚으로 만든 움막 같은 곳에서 혼자 살도록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환자들을 돌볼 만한 자선기관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 생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울 성문 밖 어느 곳을 가든 이처럼 버려진 환자들이 수백 명씩 눈에 띕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전염병이 창궐한 특별 지역에 집 한 채를 마련한 다음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미고 환자들에게 치료와 함께 필요한 빨감과 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윌리엄 스크랜턴이 리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 1887



찾아가는 병원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창발적인 발상이지만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신념을 갖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교본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나에게는 참된 의료 선교 사역 극치에 놓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친절할 심금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명령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보아서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잃는 것입니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시작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윌리엄 스크랜턴이 리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 1887년 8월 13일

선교본부의 승인이 떨어지자 애오개 시약소(1888년 12월), 남대문 시약소(1890), 동대문 시약소(1892) 등을 연다. 신촌과 마포가 갈리는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아현감리교회는 애오개 시약소에서 출발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지은 예배당은 '스크랜턴 기념예배당'으로 명명되었다. 애오개는 작은 고개라는 뜻으로 죽은 아이를 내다 버리는 곳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사활인서'가 있던 곳이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이곳에 애오개 시약소를 설치했다.

남대문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300m 가다 보면 상동교회가 있다. 이곳에도 상동 시약소를 세웠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시약소 설치

를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시약소를 설치할 때 시약소가 곧 교회로 발전할 것임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의료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시약소마다 예배당으로 사용할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시약소를 많이 세우는 목적이 이 시약소가 삼림 속에 들어가 벌채하는 역할을 해서 미래의 목적에 쓰이도록 땅을 개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10년 안에 이 부지를 예배당 용도로 넘겨주고 우리 의사들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 보고서, 1889년 9월 3일

스크랜턴은 시약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위해 전도 책자를 구비해놓았을 뿐 아니라 전도인까지 상주시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활용한다. 결국 1893년 정동 시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옮겨 1895년 상동에서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부지 안에 한옥을 한 채 빌려서 예배실로 꾸미고 주일 집회도 연다. 상동에서 주일 집회를 더는 개최하기 힘들자 상동교회를 건립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몇 해 전 상동교회를 내부 수리하다가 주춧돌에서 나온 1900년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 교회를 건축할 때 누가 큰 힘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는 미국 등지로 다니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모으는 능력을 발휘한다. 메리 스크랜턴이 미국에 가서 미

드 부인으로부터 2번에 걸쳐 4,500달러를 기부받는 이야기를, 윌리엄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가 1900년 7월 옛 교회 머릿돌에 교회 설립 역사처럼 기록한 편지가 나왔다.

시란돈 대부인이 새 교회를 설립하려고 여러 번 미국에 갔다. 미드 부인이 새 교회 설립을 위해 4,000달러를 보내었고, 그 후에 미드 부인 일가가 회당 안의 제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500달러를 보내었으며, 그 외에는 시란돈 대부인이 회당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얻은 돈이 500달러이니라.

아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어머니가 대신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지다. 따라서 상동교회 건립은 모자의 합동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901년 5월에 미드 메모리얼 회당(Mead Memorial Chapel)을 건립한다. 여기서 미드(Miss Mead)는 코네티컷주 스탠퍼드에 사는 유지로 어머니를 기념해 거금을 내놓은 사람이다.

하지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장로교와 감리교 통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선교회를 떠나고 만다. 선교사 사회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므로 알력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항상 옳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기여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된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였다.

1907년 6월, 서울에서 열린 감리회선교연회에서 선교사를 사임하고 독자적인 의료 활동을 하는 데 힘을 썼다. 선교사를 그만둔 후에 운산금광(동양연합광업회사) 소속 의사로, 1916년에는 충남 직산에 있는

금광부속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1917년에 다롄으로 건너갔다. 1919년부터 일본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2년 3월,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 기사에 따르면, 윌리엄 스크랜턴은 미국영사관 고문 의사와 외국인 전용 병원 자문으로 일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고베에서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는 부인과 둘째 딸만 참석했다고 한다.

감리교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는 「2002년 여름, 도쿄와 고베 답사기」에서 유족들을 소개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네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모두 외교관 부인이 되었다. 첫째는 중국 평토티의 영국영사 포터(Porter) 부인, 둘째는 일본 나가사키의 미국영사 커티스(Curtis) 부인, 셋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영국영사 패튼(Paton) 부인, 넷째는 타이완 타이베이 지역의 영국영사 버틀러(Burter) 부인이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삶을 탐구하면서 공적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인물이 윌리엄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아펜젤러에 뒤지지 않을 기여를 한 인물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다. 이런 아쉬움은 이덕주 교수의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공옥출판사, 2014)라는 두툼한 평전 성격의 책이 다소 해소시켜주었다. 윌리엄 스크랜턴의 삶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그에게 진 복음의 빛과 의료의 빛 가운데 일부를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

---

**애니 엘러스 번커**

1860~1938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지식이나 문화 면에서 남자들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최고 위치에 도달할 수 없거나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여성들이 더욱 높이 비상하라고 외치고 싶다! 조선을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성취하게 되는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사람은 조선 여인이다!

훗날 정신여학교의 설립자가 되는 애니 엘러스 번커(Annie J. Ellers Bunker)는 북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다. 미시건주 블러오크에서 장로교회 목사의 딸로 출생했다. 일리노이주 록퍼드신학교를 졸업(1881)하고, 보스턴 시티병원 간호학교를

졸업(1884)한다. 페르시아 선교사로 파송될 예정으로 보스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제중원 의사 알렌의 요청을 받고, 1886년 7월 4일(27세)에 조선 땅을 밟게 된다. 이때 조선에 같이 온 사람들이 험버트, 길모어(길모吉毛, George William Gilmore, 1858~1933), 번커(방거房巨, Dalzell A. Bunker, 1853~1932)다. 알렌이 급히 내한하라고 요구한 데는 제중원을 열고 난 다음 여의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진료하는 일이 여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알렌은 처음에는 기녀들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시급하게 여의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둘러 파송된 의료 선교사가 애니 엘러스이며, 도착하자마자 제중원 부녀과에 배치되어 일한다.

애니 엘러스는 왕비의 몸에 직접 손을 댄 인물로 유명하다. 한국에 도착하고 두 달 남짓 지났을 때 애니 엘러스는 궁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당시 왕비를 진찰하려면 손목에 실을 감아 병풍 뒤로 연결해 진맥했다. 약을 처방할 때도 증세를 들어보고 대충 준비해서 보냈다. 왕비의 몸에 손을 대고 진맥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애니 엘러스가 명성황후의 가슴을 헤치고 청진기를 들이던 날이 1886년 9월 14일이다. 진찰 과정에 대해 애니 엘러스는 한국학연구지에 「왕비를 뵈는 첫 방문(My First Visit to Her Majesty, the Queen)」(1895)이라는 글로 자세히 남겼다. 1888년 1월, 명성황후를 치료한 공을 인정받아 고종으로부터 애니 엘러스는 정2품 정경부인에 제수 받았다. 남편인 번커 선교사는 1892년 3월, 정3품인 통정대부호조참을 제수 받았다.

한국에 도착한 후로 알렌을 도와 제중원 부녀과에서 일하면서 애

니 엘러스는 여관(女官) 직책을 맡아 황후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이 여의사가 남긴 「민비와 서양 의사」라는 글을 보면, “1888년 3월부터 여관의 직임을 띠고 본직인 황후의 옥체를 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애니 엘러스 의료 선교사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정신여학교(구 정동여학교)를 설립한 일이다. 지금은 송파구에 있는 이 여학교의 처음 시 작은 5세 되는 여자아이 한 명이었다. 앞에서 언더우드의 경신학교가 고아원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고춘섭 편저, 『경신사 1885~1991』(경신중고등학교, 1991)에 의하면, 1887년 언더우드학당에 고아 몇 명이 들어오게 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언더우드는 아이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여자아이임이 밝혀진다. 놀란 언더우드가 이웃집에 살던 제중원 여의사 애니 엘러스에게 이 아이를 보낸다. 여기서 정신여학교의 역사가 시작된다. 박광현 편저, 『정신 백년사』(정신100주년기념사업회, 1989)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887년 6월, 엘러스 선교사는 정동 소재의 제중원 사택에서 한 명의 고아(5살, 정례)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얼마 안 가서 그해 겨울에는 3명으로 늘었다. 이것이 정동여학교의 시초이고 이 자리가 바로 정동 1번지이다.

따라서 정신여학교의 출발지는 제중원 사택에서 비롯된 정동여학당이다. 개교 당시 5세 여자아이 한 명이 학생이었고 가르치는 과목

또한 성경과 산술 2가지였다. 애니 엘리스는 정신여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초대 교장으로 1888년 9월까지 봉직했다.

애니 엘리스는 YWCA를 창립하는 데도 관심이 깊어 창립 과정에서 기금 5,000엔을 헌금하기도 했다. 배재학당 출신의 이승만에게 영어 개인 교수를 했고, 이승만이 사형을 언도받고 5년 7개월 동안 한성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영어 성경과 솜옷을 들여보내기도 한다. 그와 결혼한 번커 선교사는 가마솥을 가져가 감옥 마당에서 소고기국을 끓여 정치범에게 대접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애니 엘리스는 내한한 지 1년 만에 조선으로 가는 증기선에서 만난 육영공원(1886~1894) 교사로 근무하는 달젤 번커와 결혼해 남편의 감리교로 이적하게 되었다. 육영공원은 미국의 근대식 교육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세운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1886년 7월 4일, 번커 선교사는 미국 정부의 추천과 고종 황제의 초청을 받고 입국했다. 번커 선교사는 육영공원이 폐쇄된 후 감리교단의 요구로 배재학당에서 근무했다. 1895년 2월부터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정부가 추천한 학생 200명을 받아 책임지고 가르친다. 배재학당 3대 학당장(1906~1911)을 지냈으며 독립협회사건(1902~1904) 때 투옥되었던 이승만, 이상재(1850~1927), 이원궁, 김유성, 안국선 등 12명을 회심시키는 데 기여했다. 배재학당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배재학당 학생들은 독립협회의 서재필(1864~1951), 윤치호(1865~1945)의 강연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 제도에 눈을 뜨게 되었다.

번커는 관계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해 마침내 옥중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다. 매주 한 번씩 감옥을 방문해 성서와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고, 옥중 전도를 하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한성감옥 수감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1902년 12월 25일, 성탄절 기념 예배가 옥중에서 열렸다. 한성감옥에는 무료 도서관 시설이 있었는데 이곳에 성경을 비롯한 각종 신앙 서적을 공급했다. 어떤 책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책을 빌려서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곳에서 훗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번커 선교사 부부는 이 땅에 40년을 헌신한 다음 은퇴(1926)해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다가 1932년 번커 선교사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1933년 4월 8일, 번커 선교사의 유언에 따라 정동제일교회에서 고별 예배를 한 다음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다.

1937년에 다시 내한한 애니 엘리스 선교사는 소래에 머물다가 1938년 10월 정동 그레이하우스에서 별세한다. 10월 12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남편과 합장되었다. 묘비에는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는 정신학교의 교육 이념이 새겨져 있다. 슬하에 자녀는 없고 양녀가 있다.

## 존 윌리엄 헤론

1856~1890



미남형 얼굴에 높은 이마, 긴 눈썹에 감수성이 강한 낮빛, 매서우면서도 순진한 눈매, 수북한 콧수염, 농담할 때 떨리는 윗입술, 전체 인상은 위엄과 품위가 있고 깔끔하고 성실한 모습이었다.

뜻을 한껏 펼치지 못하고 내한 5년 만에 저세상으로 떠난 의료 선교사 헤론에 대한 동료 선교사의 추억담이다. 원래 미국 북장로교가 한국에 파송하려 했던 첫 의료 선교사는 헤론이었다. 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의 최재건은 「제중원 시기의 알렌과 언더우드의 활동」이란 논문에서 “(헤론에 대해) 이미 의술이 뛰어나고 헌신적인 정신을 소유한 청년이 조선 선교사로 나갈 것으로 지원하고 있었다”고 말

한다. 1884년 4월 24일,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될 임명을 받은 상태였다. 뒤에 임명받은 알렌이 1884년 9월 20일 입국하고, 이어서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뒤를 이어서 헤론이 6월 20일에 입국한다. 결과적으로 미국 북장로교가 조선에 파송한 두 번째 의료 선교사였다. 무엇이든 처음이 오래 기억되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선교사 역사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를 놓친 셈이다.

참고로 박형우 교수의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21세기 북스, 2010)에 의하면, 1885년에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비 총액은 75만 7,625달러고 이 가운데 한국에 책정된 선교 예산은 6,319달러에 불과했다. 0.83%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는 초기의 한국 선교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헤론은 메리빌대학과 테네시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제중원에서 알렌을 도우며 1885년 6월 26일, 첫 편지를 선교본부 총무인 엘린우드에게 보낸다.

드디어 1년 이상 늘 생각하며 가기를 희망하던 그 집에서 귀하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더는 '은둔의 나라'가 아닙니다. 수도 중심부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양 의학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알렌 의사와 제가 정부 병원(제중원)에서 한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인 약

제사 한 명을 훈련해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알렌 의사가 온 시점, 그 얼마 후 사건(갑신정변)의 발생, 중상자(민영익)의 성공적 치료 등은 모두 이 땅에 선교의 문을 열고 확고한 선교의 기초를 위한 특별한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의 신분(선교사)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누룩(누룩이란 표현보다 복음이 더 정확하다)은 천천히 퍼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곳 본토어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헤론이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이 땅에서 활동한 시기라고 해야 5년 남짓한 기간에 불과하다. 시간을 길이로 보면, 의료 선교 사역을 펼쳤던 시간은 무척 짧다. 의술이란 면에서 헤론은 알렌보다 더 나은 의사였다. UCLA 옥성득 교수는 “의사로는 최고 수준의 명의였다”는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 옥성득 교수는 「헤론의 사망과 그의 유산」(《국민일보》, 2015년 11월 2일)이란 글에서 헤론을 높이 평가한다.

헤론은 한국의 첫 근대 병원인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구리개(을지로의 옛 지명) 제중원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백내장 수술, 4.5kg 혹 제거 수술 등 외과 수술을 도입했고, 콜레라 예방 조치와 천연두 예방 접종 등 위생 사업을 실시했다. 여자 간호사와 여의사를 두어 부인과를 운영했고, 한국인의 질병을 근대적 질병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명명했다. 의학교를 개설해 한국인 의생을 교육했다. 그의 이런 노력이 3대 원장 빈턴에 의해 잠시 위기를 맞았으나, 4대 원장에게 계승되면서 1904년 남대문 밖 제중원(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했다.

오늘의 한국인들은 19세기 말 이 땅의 의료나 위생 수준이 어떠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나이가 든 세대들은 어렵듯이 어려웠던 20세기 중엽 한국 땅의 의료 시설이 열악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헤론은 1890년 7월 26일, 순회 진료의 후유증이 겹치면서 이질로 사망하고 만다.

19세기 말 하수도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서울의 위생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1888년 3월, 내한한 가드너 선교사 부부(William Gardner, Sarah Gardner)가 서울의 위생 상태에 경악한 나머지 사임한 것은 열악한 실상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헤론은 가드너 부부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두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가드너가 우려했던 일은 곧바로 헤론 집의 문제로 닥치게 된다. 헤론 부인이 두 딸을 낳은 후에 6개월 이상을 병상에서 사경을 헤맨다. 게다가 번커 부인도 폐병으로 고생을 한다. 감리교의 이화학당 교사인 로드와일러와 보구여관의 여의사 하워드도 질병으로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1888~1891년 4년 동안만 하더라도 질병으로 4명이 사임하고, 2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병가를 냈다. 이렇듯 초기 선교사들은 언제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각양각색의 병과 싸워야 했다. 안락하기 그지없는 조국을 떠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이 땅을 찾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다.

그러나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상적인 인간에 가까울 수는 없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이나 신앙관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초기 선교사들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제중원 초기에 전도열이 강하고 도덕적이고 엄격한 신앙관을 가졌던 헤론과 정세 판단이 빠르고 합리적인 알렌은 선교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티격태격했다. 제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헤론은 호레이스 뉴턴 알렌과 선교 방법을 두고서도 이견이 있었다. 알렌이 제중원장(1885년 4월~1887년 7월)을 거친 다음 헤론이 맡았다(1887년 8월~1889년 6월). 알렌은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의 선교를 선호했는데, 선교본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선교사들은 병원이 선교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병원을 운영하려 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선진화된 서양 문명의 첫 단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선교 일도 이 나라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기관을 선교사로 알려진 사람의 손에 넘겼고, 이와 같은 다른 봉사도 수락할 것입니다. 어느 선교 단체든 의사를 공급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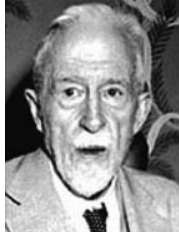
— 알렌이 엘런우드에게 보낸 편지, 1885년 6월 2일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알렌은 헤론이 죽음을 맞았을 때, 조선 조정을 설득해 현재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였다. 34세에 세상을 떠난 헤론에게는 32세의 아내 헤티 김슨 헤론(Hattie Gibson Heron, 1860~1908)과 사라 안 헤론(Sarah Ann Heron), 제시(Jessie)란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은 2년 정도 모펏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 민비의 후원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1892년 헤티 김슨 헤론은 다정다감하고 문학적 취향이 강했던 3살 아래인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의 청혼을 받고 원산으로 가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헤티 김슨 헤론은 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 결국 1900년에 두 딸과 함께 스위스에서 생활한다. 게일 선교사의 사랑은 지극해서 시베리아철도를 타고 가족들을 방문한 다음 1년 동안 워싱턴에서 보내기도 했다. 헤티 김슨 헤론은 서울로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 결핵으로 사망하고, 지금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잠들어 있다. 큰 딸 사라 안 헤론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조선에 파송된 첫 번째 2세 선교사지만, 어머니를 이 땅에 묻고 외교관과 결혼해 중국으로 떠났다.

## 호머 베자릴 헐버트

1863~1949



나는 웨스트민스터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평소에 호머 베자릴 헐버트 박사가 즐겨 했던 말은 한국인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교사였음을 말해준다. “한국이 살아갈 방도는 교육뿐이며, 한국을 정복한 민족과 대등하게 될 때까지 교육에 전념해야 하며, 순수한 인간성을 무기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헐버트는 1863년 1월, 미국 버몬트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미들벨리대학 총장을 지냈고 어머니는 대학 창립자의 증손녀였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 출생이다. ‘인격이 승리보다 중요하다’는 인간됨의 중요성과 도덕, 사랑, 겸손이라는 덕목을 강조하는 집안



분위기는 생애 내내 영향을 끼친다. 헐버트는 ‘원칙이 승리보다 중요하다’는 생의 좌표에 충실하게 항상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

1884년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신학교 재학 중인 1886년 7월 4일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육영공원의 교사로 내한한다. 육영공원은 외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곳이다. 헐버트는 이 기관에서 교사로 일하며 한국인의 가능성과 한글의 우수성,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

내한한 지 불과 3년 만인 1889년에 집필한 『사민필지(士民必知)』는 한국 최초의 교과서로 ‘선비와 인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즉 세계 지리, 각국 정부의 형태와 풍습, 산업,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쉬운 한글을 보급함과 아울러 사람들을 깨우치는 세상 지식을 공급해 한국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그의 바람이 교과서 집필을 낳았다. 헐버트가 역사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오늘의 우리보다 앞섰다.

자기 나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와 다름없으며, 외국과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설령 참여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교육입국’에 대한 헐버트의 생각은 확고했다. 1897년 5월에는 한성사범학교 교장으로 정부와 고용 계약을 맺은 다음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의 토대를 건설하게 만들기 위한 장문의 ‘학교 개량 건의서’를 당시 미국공사 알렌을 통해 조선 조정에 제출했다. 1900년

관립중학교(현 경기고등학교) 교관으로 일하면서 교과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1906~1908년 사이 15권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데 1만 5,000달러를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정도의 거액이라면 험버트를 파송한 감리교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을 것이다. 자비는 물론이고 미국의 지인 및 친척 등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십시일반으로 부지런히 현금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교과서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일제 강점기에 워싱턴의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에서 험버트와 활동했던 윤치영(초대 내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험버트는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가재를 팔고 친구의 주머니를 털었다. 한국의 비극을 손님으로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비극에 동화되어 한국과 더불어 고행을 자청한 역사의 양심이었다. 나는 마땅히 험버트 박사의 기념비를 세워 우리 민족의 지표로 삼고 싶다.

—「윤치영 박사, 나의 교우록」, 《대한일보》, 1972년 12월 19일

험버트가 다른 선교사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한국의 독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으로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1905년 10월, 한국의 외교권과 제정권이 박탈되고 일본에 의한 합병이 구체화되자 고종 황제의 밀사로 워싱턴에 파견되어 ‘한미상호수호조약’에 따라 도움을 구하는 친서를 미 국무장관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 지

배를 묵인하는 가쓰라-태프트밀약이 합의된 상태였으므로 그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1907년,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인물이 험버트다. 실제로 1906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을 위한 고종의 특사로 임명받았다. 그해 7월 회의가 열리기 전 헤이그에 도착해 한국대표단의 호소문을 현지 언론에 신기도 하고, 헤이그에 도착한 한국인 특사들인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의 회의장 입장을 허가하도록 촉구했다. 이 일로 일본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선교사의 정치 관여를 금하는 루스벨트 미국 정부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험버트는 한국 입국이 거부되자 헤이그에서 곧장 미국으로 향한다. 1907년,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한 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조선 독립을 역설했을 뿐 아니라 3·1운동 직후 미국 상원외교관계위원회에 일본 잔학상을 고발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험버트를 교육자이자 선교사로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던 유력한 한국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는 연구자들도 많다. 김승우 박사는 「구한말 선교사 호머 험버트의 한국 시가 인식」(한국시가학회 59차 정기학술발표회, 2011)에서 “한국 문학은 영문학을 비롯한 서구 문학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서구의 것에 필적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험버트는 1896년 그때까지 구전으로 전해오던 아리랑을 서양 음계로 담아낸 다음 전 세계에 소개한 공적이 있다. 선교사들이 발간한 영문 월간지 《한국회보(The Korean Repository)》에 처음 소개한

「문경 아리랑」이 대표적이다. 2013년, 문경새재 옛길박물관이 세워질 때 ‘문경새재 험버트아리랑기념비’에 험버트가 남긴 유산을 화강암에 새겨넣었다.

문경 아리랑은 험버트가 최초 채보한 아리랑이다. 험버트는 1896년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쓰며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 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쌀이 한국인의 육신을 지켜줬듯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애환을 버텨왔다는 뜻이다.

험버트는 아펜젤러가 세워서 한국의 문서 사역과 출판문화에 기여했던 삼문출판사를 1893년부터 이끌며 문서 선교에 힘을 보탰다. 동시에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승만을 비롯한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1901년 영문 월간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를 창간하고 편집장 겸 주필로 활동했다. 이 잡지는 정치·경제·역사·문화·풍습·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특독한 기여를 했다. 재한 외국인 지식인들의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계몽을 위해 발간한 『대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1906)에서 한국인의 기질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다.

한국인은 합리주의적 기질과 감정이 가장 알맞게 조화되어 있으며, 냉정과 정열이 함께 갖춰져 있다. 평온 속에서 냉정을 잃지 않을 줄 알고, 격노할 줄도 안다.

헐버트는 유능한 한국 청년들에게 근대적인 시민 의식과 사회 개혁 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교육과 계몽, 복음화를 추진한 인물이다.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1903년 한국YMCA 창설을 추진했다. 유능한 인재들의 외국 유학을 주선해서 한국 근대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표 인물이 훗날 덕성여대를 설립하는 차미리사(1880~1955)가 1905년 상하이 중서여숙에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호머 헐버트는 23년(1886~1909)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독특함,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15권의 단행본, 3권의 자서전, 200여 편의 논문과 신문 기고문 등을 남겼다.

1950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이 추서되었다. 2014년, 한글날에는 한글 연구와 사랑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금관훈장이 추서되기도 했다. 1888년 결혼한 메리 한나(Mary B. Hanna, ?~1948)와의 사이에 6남매를 두었다. 헐버트는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국빈 초청으로 이 땅을 다시 밟지만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세상을 뜨고 만다. 외국인으로서 최초 사회장이 거행되었으며 8월 11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되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는 헐버트 아들의 묘지도 있다. 셰던 헐버트(Sheldon Hurbelt, 1896년 2월~1897년 3월)는 불과 1년 남짓을 살고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혔다.

## 릴리어스 스티링 호턴

1851~1921



시카고를 떠나 1888년 의료 선교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갈 당시 그녀는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가냘프면서도 자태가 우아한 명랑한 성격의 처녀였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흑백 카메라에 잡힌 릴리어스 스티링 호턴(Lillias Sterling Horton)의 모습은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족하다. 초기 북장로교 파송 미국 선교사를 선발해서 파송한 책무를 맡았던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우드 회고담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엘린우드는 훗날 ‘언더우드 가’의 시원(始原)이 된 한 여인의 처녀 시절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녀의 외모 어디에도 외진 선교사에게서 느껴지는 강인한 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밝은 가운을 입고 병실을 드나드는 평범함 모습이었다. 그 일에 만족하며 자신의 일생을 바칠 만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다.

릴리어스 호턴은 1851년 뉴욕주 알바니에서 출생했다. 1863년 6월, 알바니여자학교를 졸업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나고 난 1881년 (30세)에 시카고 여자의과대학(현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일부)에 입학한다. 입학 이유는 우연히 들었던 인도 선교 경험담에서 선교사로 자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호턴은 미국 백인 중산층 여성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겸비한 여성이었다.

내한한 여성 의료 선교사 가운데 두 번째 인물인데, 주목할 만한 일은 당시 백인 중산층의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다. 호턴의 어머니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기에 딸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호턴의 여동생은 훗날 “어머니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언니를 선교사로 바쳤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대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 여의사는 미국에서도 극소수였으므로 얼마든지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한마디로 선교에 대한 소명 의식이 없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여성연합선교회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 1900년만 하더라도 약 6,000명의 파송 선교사 가운데 여성이 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16년이면 그 비중은 62%까지 증가한

다. 비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열악한 여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다. 따라서 여성 선교의 방향은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다.

호턴은 시카고아동병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내한한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인 애니 엘리스가 1년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제중원을 그만둔 시점이었다. 적임자를 물색하던 엘린우드가 릴리어스 호턴에게 제안해 한국행이 결정된다. 1888년 3월 27일, 미국 북장로교 파송 의료 선교사로 내한했다. 도착하자마자 호턴은 애니 엘리스 후임으로 6개 침상을 갖춘 제중원 부녀과를 맡지만, 1890년에 그만둔다. 도착했을 때부터 호턴은 민비의 시의가 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위안스카이의 가정의도 겸했다.

1891년, 외병으로 잠시 미국에 귀환했다가 헤론이 죽은 후 빈턴이 부임할 때까지 공백기를 메우기도 했다. 한때 외국인이 아이들을 유괴해서 약으로 쓴다는 ‘영아 소동’으로 외국인의 출입이 위협시 될 때도 있었다. 그때 호턴은 당시 미혼이던 언더우드의 호위를 받아 제중원에 출근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편으로 정동 집에서 진료소(시약소)를 운용하는데, 가까운 곳에 감리교가 운영하는 시병원인 있는 까닭에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릴리어스 호턴이 제중원에서 손을 떼는 시점은 1890년 무렵이다. 중요한 이유는 전도와 평생 집이 되었던 관절염 탓이다.

1893년 1월, 뉴욕의 휴 오닐 2세가 아들을 기념해서 기부한 돈으로 ‘휴 오닐 2세 기념 진료소(The Hue O’Neil, Jr. Memorial Dispensary)’를



세워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는 정동 구내에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차린 진료소다. 또한 시형인 존 언더우드 사장의 도움을 받는다. 존 언더우드가 기부한 돈은 먼저 세상을 떠난 프레더릭 언더우드의 이름을 따서 ‘프레더릭 언더우드 휴양소’로 여는 데 쓰였다. 호턴이 제중원 업무를 하면서 진료소를 운영한 이유는 제중원에서는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료 활동에 주력했지만 점점 전도 활동으로 초점을 옮긴다. 즉 진료도 하고 약도 나눠주면서 여성 성경반, 기도회, 주일 예배 등으로 전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1895년, 콜레라가 덮쳤을 때는 진료소와 휴양소 모두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유연하게 바꾸었다.

그해 여름, 콜레라가 극성을 부려 5,000명이나 사망할 때 호턴은 제중원 원장 에비슨을 도와서 검역과 치료를 하는 데 힘썼다. 1898년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독립관(구 모화관)에서 일주일에 5일간 진료하며 전도 활동을 겸해 수십 명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1901년에는 진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500명 정도를 치료했다. 이렇게 진료 시간을 줄인 이유도 전도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호턴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다. 호턴이 한국에 왔을 때 먼저 선교사로 도착해 제중원 약제사로 일하고 있던 8살 연하의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지는데 1888년 초가을에 약혼하고, 1889년 3월 14일에 결혼한다. 그때 언더우드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었지만 약혼녀가 선교 활동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당시로서는 8살 연하와 결혼하는 일도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언더우드 부인이 된 호턴은 언더우드의 첫 약혼자와 자신의

차이에 대해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 of Korea)』(기독교문서, 1990)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약혼자는) 선교에 관심이 없었고, 약혼자에 대한 존경심도 없으며, 가장 넓은 관심사에 대한 위대하고 가슴 뛰는 삶의 비전도 없었다. … 나는 언더우드를 보기 전에 선교에 뛰어든 몸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데도 희생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언더우드 부부가 선택한 신혼여행은 사람들의 상식을 깼다. 한국 정부의 허가증을 얻은 다음 서북 지역으로 순회 선교 여행을 떠난다. 그때까지 선교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내한 선교사들 사이에도 파격적인 여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미국공사 측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공사 휴 딘스모어(Hugh Anderson Dinsmore, 1850~1930)는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말고, 전도나 세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릴리어스 호턴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한 한 얼마나 적극적이고 용감한 사람인가라는 점이다.

북한 지역 선교 여행에서 릴리어스 호턴이 보인 특별한 점에 주목해보자. 그것은 여자도 남자처럼 자신의 몫을 단단하게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는 관점이다. 릴리어스 호턴이 선교본부 총무 엘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그계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 즉, “여성도 한국 내륙 지방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600여 명을 치료했다.

언더우드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여성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데 주목한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결혼 후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자신이 힘을 더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관련 글이 《세계 선교 평론》(1905년 7월)에 남아 있다.

이 세계(조선)에서 한국의 어린 소녀 색시에게는 꿈도, 미래도, 동물보다 더 나은 삶이나 아무런 희망도 없다. 동물들도 수컷, 따뜻함, 음식, 새끼, 보호받는 처소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들의 세계는 욕설이 심하고 짐과 부담도 엄청나게 크다.

릴리어스 호턴은 한국 사회의 조혼제, 처첩제, 열악하고 과도한 가사 노동, 남아 선호 사상 등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소녀 교육, 전도 부인 양성, 사경회를 통한 계몽 교육에 집중했다. 특히 사경회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적 삶을 나누는 집회인데, 1890년 언더우드 집에서 최초 모임을 시작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사경회는 전도 활동에 큰 몫을 담당했는데, 언더우드는 남자 중심의 사경회를 이끌고 언더우드 부인은 여성 중심의 사경회를 이끌었다.

언더우드 부인은 이화여대 창립자인 메리 스크랜턴이나 정신여학교의 설립자인 엘리스처럼 소녀 교육이나 교육 사업에서 손을 꼽을 만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 분야인 진료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사경회에 최선을 다했다. 서대문구 안에 있던 오닐 진료소와 프레더릭 언더우드 휴양소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의료 진료를 통

한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아 점점 의료 사업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와 집필 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릴리어스 호턴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언더우드 가는 4대째 한국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2세 원한경(1890~1951), 3세 원일한(1917~2004), 4세 원한광(1943~ )이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가슴 아픈 점은 남한 내에 남조선노동당(일명 남로당) 계열의 좌익 운동이 극성을 부리던 1949년 3월 17일,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불만을 품은 남로당 민주학생동맹 책임자 김석준 외 8인이 사택(현 언더우드가기념관)을 침입해 원한경의 부인인 에텔 반 와그너(Ethel Van Wagner Underwood, 1888~1949)를 살해하고 말았다. 그들 가운데 3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건이 터졌을 때 각 신문 사설에서 애도를 표할 정도였다.

에텔 반 와그너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들을 위한 선교 활동에 평생을 바쳤다. 남편(원한경)과 함께 금주·금연 운동, 공창 반대 운동, 축첩·조혼 폐지 운동, 종교·교육 출판물 간행, 생활 개선 운동, 물산 장려 운동 등을 펼쳤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백낙청(전 연세대 총장) 부인 최이권 여사는 일본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돌아온 에텔 반 와그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945년 연합국의 승리로 한국이 해방되자 원 부인은 다시 인연 깊은 이 땅을 찾아오셔서 연희대학 교수로 절제회, 기타 교회와 사회사업

등을 위해 심혈을 다했으며, 특별히 전재민(戰災民)을 위해 구제 사업에 힘을 바쳤습니다. 그의 구제를 받은 사람의 수가 6만에 달하게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그 공덕이 큼을 알겠습니다만, 특별히 의지할 데 없는 소녀들을 구제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고아원 사업인 소녀관을 설립하고 기초를 닦으며 사업을 추진시킨 것은 자기의 옛 경험에서 느낀 바도 있었을 터이지만, 더욱이 우리 겨레를 사랑함에서 나온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 손인수, 『원한경의 삶과 교육 사상』,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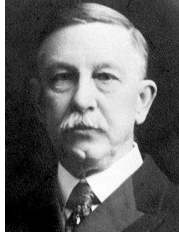
또한 에델 반 와그너가 해방과 함께 돌아왔을 때 집은 미국에서도 착한 다량의 구제품 분배 센터로 탈바꿈하게 된다. 에델의 쌍둥이 아들 중 원요한(John Thomas Underwood)이 구제품 분배 담당을 맡았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의류를 분류하고 교회나 학교, 사회단체, 개인에게 보내는 일이 이어졌다. 어떤 해는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6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과의 인연은 언더우드 4세인 원한광과 낸시(원은혜, 1944~)가 2004년 연세대 정년과 함께 대학을 떠나면서 마무리된다. 한국을 떠날 때 원한광 박사는 이런 주문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4대에 걸쳐 일생을 한국에 헌신한 언더우드 여성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 새뮤얼 오스틴 모펫

1864~1939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십자가의 도(道)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한국 교회 120인 설교집』(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6)에 실린 마포삼열(馬布三悅) 선교사의 순수 복음을 전하고 말겠다는 당찬 결심이다. 평양은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개신교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특히 장로교회가 강했던 곳으로 10개 교회가운데 장로교가 8개, 감리교가 2개 정도 있었다. 장로교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주력하고, 감리교는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데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 당시 평양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마다 예배당이 있었다고 말한다.

마포삼열은 흔히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 혹은 설계자’ ‘한국 장로교회의 산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적 신앙의 기초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인디애나주 매디슨 출생으로 하노빌대학을 졸업(1884)하고 매코믹신학교를 졸업(1889)했다. 하노버대학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대학원에서는 화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889년 4월 15일,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890년 1월 제물포를 거쳐 마포강변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모팻 목사의 업적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일궈냈고 평안도 지역에 복음, 특히 장로교가 널리 자리 잡게 한 점이다. 3년 남짓 서울에 머물렀고, 나머지 전 생애를 평양을 선교 근거지로 삼아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한국에 도착한 모팻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자신만의 꾀대를 높이 세우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6개월 동안의 어학 공부 끝났을 무렵인 1890년 8월, 1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평양, 의주, 솔내를 거쳐 돌아왔다. 언더우드로부터 예수교학당(현 경신학교)을 인수해 교육 사업을 하다가 1891년 2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개성, 평양, 만주, 함흥, 원산 등지를 둘러보았다. 1893년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녔다. 이 결과를 종합해 평양에 선교부를 설치(1893)하고,

본격적인 전도 활동에 들어간다. 생애 내내 전도 활동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도 일원에 걸쳐 1,000여 개에 달하는 교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은 저마다 생각이 달랐다. 예를 들어 모팻 목사는 의료 선교사 제도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의료 선교사들은 의료 기자재 구입을 위해 선교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속 선교본부에 요청하지만, 실제로 선교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모팻은 평양에서 활발하게 거리 전도를 한다. 파격적인 길거리 전도는 효과가 컸다. 교인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자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경회를 적극 추진한다.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 모팻은 탁월한 전도자였다. 거리 전도와 사경회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 한국 장로교회가 성장하는 기틀을 만든다. 1907년, 남긴 글에서 전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거대한 교역국이나 군사 국가가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위대한 영적 강대국, 아마도 극동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거리 전도는 참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평양신학교를 졸업(1907)하고 제주도 선교사와 광주제일교회, 고흥교회, 벌교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신사 참배 거부로 순교한 이기풍 목사와의 일화다. 이기풍이 원산 시내에서 스왈튼 선교사에게 전도 받아 예수를 믿은 다음 평양 거리에서



돌멩이를 던져 부상을 입혔던 모팻 목사를 찾아가 눈물로 회개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이기풍은 모팻을 도와 함경도 지방을 순회하는 데 앞장섰다. 1901년에 개교한 평양장로회신학교(평양신학교)에 입학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졸업한 한 사람이자 한국 교회 최초 7인 목사(한석진·길선주·송인서·방기창·서경조·양전백)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모팻 목사가 남긴 또 다른 업적은 교육이다. 건강한 기독교인을 위한 교육은 물론이고 장로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평양장로회신학교와 숭실대학, 숭의학교 설립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학장으로 재임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1901년, 평양장로회신학교(현 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에 취임해 근대 교육에 힘을 쏟았다. 1918~1929년 숭실중학교, 숭실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평안도에 많은 학교와 교회를 설립했다.

모팻은 교육은 신앙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서구 문명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설립에 주력하는 선교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1926년, 중국에서 열렸던 선교사 회의에 참석한 다음 스피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교육관과 신앙관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중국의 교육자들은 교회 발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지적 계급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이념을 퍼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종교적·도덕적

이념을 명목적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깨우치는 것이 교육 사업의 목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1926년 12월 8일 평양에서 마포삼열이 스피어 박사에게 보낸 편지」,  
『마포삼열 자료집 7권(1921~1927)』

1910년 일제의 국권피탈이 있는 다음부터 일본 교육 당국은 사립 학교를 깊이 간섭한다. 조선총독부가 학업 내용은 물론이고 임의로 학교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들이 실시되는 10년 동안 사립학교 수는 약 3분의 1로 감소된다.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 일제의 끊임없는 간섭에 대항해 모팻은 숭실대학 학장으로 학교를 이끌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19년 3월, 독립 만세 운동이 터지고 난 다음 22일에 조선총독부 교육부 관계자들은 선교사들을 조선폰호텔에 초청해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모팻은 일본 교육 당국자들의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나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자로서 한국인들의 친구이자 그들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육은 영적인 것을 고양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에 아주 만족해왔으며, 한국인들은 정의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정의롭게 대하면 이를 소중히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도덕적·영적 측면들을 발전시킨 한국인들의 문명은 중국을 통

해 들어온 것이며, 그들이 인간으로 대우받는다면 감사해할 것이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인간적이고 영적인 호소가 그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 김선옥, 「평양숭실대학교와 마포삼열」, 《한국기독교문화연구》 9집, 163쪽

이런 일 외에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일제 강점기 내내 총독부의 종교 교육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데, 이 과정의 중심에 모팻 목사가 있었다. 그런데 모팻 목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는 신사 참배다. 일제는 1925년에 조선 신사를 완공하고 1935년부터 신사 참배를 강요한다.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신사 참배에 대항하는 모팻의 활동은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에 남아 있다. 1936년 1월 12일,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가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처벌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어떤 처벌이 오더라도 우리는 1계명(수직계명)과 2계명(수평계명)을 굳건히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은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부딪혀온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적대적 행동을 다스리시며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 김선옥, 「평양숭실대학교와 마포삼열」, 《한국기독교문화연구》 9집, 176~177쪽

모팻은 46년 동안 한국 땅에서 활동했다. 첫 아내인 메리 앨리스 피시(Mary Alice Fish, 1870~1912)와의 사이에 두 아들 제임스와 찰스가 있으며, 두 번째 아내 루시아 피시(Lucia Fish, 1891~1962) 사이에는 아들 셋이 있고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 아들들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여럿 나온다.

셋째 새뮤얼 휴 모팻(마삼락馬三樂, Samuel Hugh Moffett, 1916~2015)은 선교사, 목회자, 교육자, 설교자, 행정가, 저술가, 연설가, 민간 외교관, 종교 기자, 특파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마삼락은 평양에서 태어나 18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교육 선교사로서 26년 동안 안동과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의료 선교사 하워드 모팻(마포화열馬布和悅, Howard F. Moffett, 1917~2013)은 넷째 아들로 오늘의 대구 동산의료원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영적 유산은 한 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 평양에 살 때 모팻 목사는 마삼락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늘 물었다고 한다. 자식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던 말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놀랍게도 모팻의 아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5살이던 마삼락에게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곧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모팻 목사는 요양 차 귀국(1936)했다가 1939년 10월 24일 캘리포니아 몬로비아에서 별세했다. “나를 조신 땅에 묻어주소”라는 유언에 따라 한국 땅을 떠난 지 70년이 되던 해인 장로회신학대학 개교 105주년 기념일에 이장되어 장신대 교정에 잠들어 있다.

모팻 목사가 세상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는 1927년 9월 15일 자 뉴욕 국제선교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 문장들에는 정통 장로교인들과 함께하는 복음주의적 신앙관이 짙게 녹아 있다. 이렇듯 한국이 초기 선교사들에게 변질되지 않은 건강한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은 아주 큰 축복이다.

교육이나 개혁, 사회적 개선, 문명의 진보에 따른 산업과 과학의 발전 등이 아무리 크게 장려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세상의 복음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 인간에게 호소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형성된 교회가 초자연적인 메시지로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말입니다.

수많은 장로교 내한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와 모팻은 거목이라 불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두 사람은 이 땅에 장로교가 자리 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모팻의 성공적인 전도 활동에는 첫 부인이자 의료 선교사인 메리 피시의 역할이 밑바탕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이분처럼 의료 선교사로서 더 이상적인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1897년 11월, 제증원에 부임해 일하다가 북방 선교 사역을 준비하던 모팻 선교사와 1899년 6월 1일 결혼했다. 결혼 후 남편이 조선 북서부에서 펼치는 눈부신 교회 개척에 힘을 보탰다. 평양신학교 개설과 한국 교회를 개척해갈 유명한 목사 배

출, 승의여학교 창설, 숭실대학 공동 창설 등의 이면에는 메리 피시의 헌신이 있었다. 모팻 부부의 한옥 가정은 선교 일과 사교 모임이 열리는 장소였고, 외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 또한 일반 교육계, 언론계, 정계 지도자들이 수시로 회합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1년 만에 통달한 조선어 실력, 남을 도우려는 강한 의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 뛰어난 의술, 고귀한 인품은 조선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후대 사람들이 전하는 메리 피시 의료 선교사에 대한 평이다. 모팻 선교사의 생을 떠올릴 때면, 결혼 13년 만에 모팻과 사랑하는 두 어린아이를 두고 떠난 42세의 메리 피시를 기억하자.

## 로제타 셔우드 홀

1865~1951



로제타는 조선 말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 『닥터 로제타 홀』(다산초당, 2015)을 집필한 작가 박정희는 이런 말을 더한다.

로제타는 수많은 여성의 생명을 구했고 조선인이 조선인들을 치료하는 날을 꿈꾸며 더 많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떠나면 이 땅을 방문해서 의료 선

교사로 44년 동안 한국인들을 위해 헌신했다. 오늘날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자리를 잡는 데도 기여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초 설립자이기도 하다. 여성들을 위한 의학 교육을 시작해 여성 간호사와 의사 배출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또한 한국어 점자를 개발했을 뿐 아니라 농아를 위한 특수 교육을 시작한 인물이다.

19세기 이 땅을 찾았던 선교사들의 삶에는 말과 글로 좀처럼 표현하기 힘든 사연들이 있지만, 로제타 셔우드 홀의 삶에는 특별함이란 단어만으로는 부족한 사연이 있다. 1865년 9월 뉴욕 리버티에서 출생해, 교육을 받은 후 1년 동안 체스넛릿지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인생에서 기념비적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1885년 봄날, 인도 의료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찬들러(K. Chandler) 부인에게서 듣는다. 인도 여성들은 몸이 아파도 남성 의사들에게 몸을 보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결심을 재촉하게 된다. 로제타는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는 교육 과정을 밟고 맨해튼에서 가까운 스테이튼섬 아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쳤다.

1889년 11월 어느 날, 해외 선교 훈련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뉴욕 메디슨 가 빈민촌 의료 선교 병원을 방문하는 길에 훗날의 남편이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과 운명적으로 만난다. 원장실로 들어선 로제타에게 자리를 권한 윌리엄은 추천서를 갖춘 서류를 뒤적이면서 “펜실베이니아 의대를 나오셨군요”라는 말을 건넨다. 의료 선교사로 가기 전 윌리엄 홀은 두 차례에 걸쳐 로제타에게 청혼을 하지만 “닥터 홀, 저는 해외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5년 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격 있는 다른 여성을 만나십시오”라며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화학당 구내에 여성들을 위해 운영하던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근무하던 메타 하워드가 1889년에 갑자기 병으로 귀국하자, 미국 감리교 여성선교본부는 로제타를 파견하기로 한다. 1890년 10월, 조선에 도착한다.

조선으로 떠난 로제타를 잊지 못한 윌리엄 홀은 마침 미국에 안식년으로 나와 있던 메리 스크랜턴 여사를 찾아서 도움을 청한다. 스크랜턴은 당시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여성 감독'이라 불릴 정도의 중요한 역할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스크랜턴이 로제타에게 보낸 편지를 들여다보자.

닥터 윌리엄 홀이 급여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조선으로 파견해달라고 간절히 원한다더군요. 당신은 그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방해가 될 거라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더도 덜도 말고 날 두 번째 어머니로 생각해줘요. 언젠가 그와 정말로 결혼할 예정이라면 그가 조선에 가도록 도와서 당신이 조선을 떠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결국 로제타가 조선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난 1891년 12월 16일, 윌리엄은 꿈에도 그리던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1892년 6월 27일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다. 닥터 홀은 감리교 평양 선교기지 개척 담당자로 임명되었고 로제타는 서울에서 근무해야 했으므로 닥터 홀이 서울에 머무는 기간이라고 해야 고작 2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시기는 1894년 5월부터였다. 그러나 함께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난 1894년 11월 24일 윌리엄이

34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 곁을 떠나고 만다. 청일전쟁으로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된 발진티푸스 탓이다. 남편은 돌이 갓 지난 셔우드 홀이란 남자아이와 태중에 딸아이를 아내에게 남겼다. 로제타가 남긴 1894년 12월 10일 육아 일기에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불쌍한 우리 셔우드! 지난달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어려서 지금은 그 상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될 거야. 비록 내가 아픈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 11월 24일 토요일 해질 무렵, 아빠는 마지막 숨을 쉬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둘째 에디스 마거릿(Edith Margret, 1895~1898)을 낳았다. 아버지가 없는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을 밟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 여의사가 아주 드문 시절이었기에 얼마든지 두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며 편안함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박사는 조선에 가기로 한다. 1897년 5월 10일 육아 일기에는 다시 조선으로 가기로 한 전후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했다. 이 사역은 엄마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바라던 것이다. WFMS에서 엄마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말이다. 현재 WFMS에서는 엄마를 한국에 다시 보내기를 원하고, 한국 선교본부에서도 엄마가 돌아오기를 몹시 바

라고 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생각한다.

1897년 11월, 로제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제물포항에 내리지만 짐을 풀기도 전에 세 사람 모두 이질에 걸리고 만다. 자신과 아들은 살아남았지만, 딸은 엄마 품을 떠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힌다.

로제타 선교사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여성들이 더 많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들을 확장했다. 남편의 사망 위로금으로 평양에 기흥병원(紀忽病院)이란 이름의 진료소를 열고, 1898년 6월 18일에는 평양 광혜의원 문을 연다. 두 진료소는 1922년에 통합되어 현대식 종합병원인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발전한다. 이 병원에 일찍 떠난 딸 에디스를 기념하는 어린이 병동을 추가로 건립하고, 이곳에서 맹아를 위한 교육을 시작한다.

그러나 삶은 만만치 않았다. 딸이 떠난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등지자 로제타는 신경쇠약에 시달린 나머지 다시 요양 차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몸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감리교에서 파견한 첫 정식 간호사인 마거릿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 선교사를 만난다. 두 사람은 배 안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간호사 양성 학교 건립 계획을 세운다.

로제타 선교사는 여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여성 의료인 양성을 위한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를 창립했다. 1903년 말부터 마거릿 에드먼즈는 보구여관간호학교를 개교해서 간호사 교육을 실시한 다음 간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이 일을 추진

하는 데 로제타 선교사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여의사를 만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존의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번번이 벽에 막히고 있었다. 이에 로제타는 여자의학전문학교를 만들기로 하고 한국인 의사들을 설득한다. 이렇게 해서 당시 동대문부인병원에 근무하던 산부인과 의사 길정희(吉貞姬)와 함께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창립(1928)했다. 이 학교는 훗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거쳐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1933년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로제타 선교사는 강습소 운영 및 소유 주체를 김탁원과 길정희 부부에게 넘긴다. 이후 김탁원의 항일 독립운동 전력을 문제 삼은 일제 당국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인가 과정에서 김탁원·길정희 부부를 배제시킨다. 또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조선총독부는 ‘조선’이란 이름 대신 ‘경성’이란 이름을 쓰라고 요구했다. 결국 1933년 7월 1일, 경성여자 의학강습소로 개명한다.

한편 로제타는 1917년 서울로 돌아와 보구여관의 후신인 동대문부인병원에서 일하는데, 이 병원이 훗날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으로 발전한다. 한마디로 여성 의료 전문 인력 육성 계획은 로제타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하던 189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녀가 남긴 ‘한국 여자 의학교의 역사’라는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여성을 위한 실제적인 의학 교육은 1890년 로제타 셔우드 홀이 보구여관에서 이화학당의 4명의 조선인 소녀들과 한 명의 일본인 소녀에게 임상 실습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일본이나

중국도 여성을 위한 의학교가 생기기 전이었다.

훗날 로제타는 한국인 최초의 의사이자 여의사인 박에스터(김점동, 1876~1910)를 제외한 다른 3명(진명여고 설립의 주역 여메레, 선교 사역 동반자 노수진 등)이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양성하지 못한 것을 두고 두고 유감으로 여겼다. 박에스터가 의사 교육을 마친 다음 한참 활동하던 1910년(34세)에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은 그녀에게 큰 아픔이었다. 로제타 홀은 한국에서 농아 교육과 점자 교육을 처음 실시한 인물로 평양맹학교 설립자다.

로제타 선교사는 선교사를 사임(1930)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은퇴(1943)한 다음 뉴저지 양호원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51년 4월 5일(85세)에 별세한다. 유언에 따라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과 딸 에디스 마거릿 홀이 잠들어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혔다. 외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은 한국 사회에 부모 못지않게 또 다른 기여를 한다. 로제타 박사들의 가족들은 짧고 못다 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그리고 저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전기인 『윌리엄 제임스 홀, M. D의 생애』(1897), 『뉴욕 빈민촌 의료 선교』, 『평양 개척 선교사』 등을 집필했으며 20여 편의 논문도 썼다.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은 미국 선교사 2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윌리엄 마르티네 베어드

1862~1931



베어드 박사는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학자,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사람, 무엇보다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새뮤얼 모펫 선교사의 평가다. 1891년 1월 29일, 부산항으로 입국한 북장로교 파견 선교사 베어드 박사는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학식이 높았다. 초기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에서 신학적 경륜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에 한국 교계에 끼친 영향이 크다. 인디애나주 찰스턴에서 태어났고, 매코믹신학교를 졸업(1888)한 후 철학박사(1903)와 신학박사(1913) 학위를 받았다. 또한 1925년까지 시카고대학, 히브리대학,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한

국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는 콜로라도주 델노르트에 있는 델노르트대학 학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한 초기에 부산의 선교지부 개척을 맡는데, 독특한 전도 방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원에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베어드가 주목한 것은 사랑방 전도였다. 한국 생활을 통해 남성들의 대화와 교제 공간이 사랑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한다. 이 공간에서 기도 모임은 물론이고 기독교 문서를 번역해 방문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부산과 인근 지역 기독교 운동의 토대를 마련한다. 사랑방 모임이 교회로 발전하게 된 첫 사례가 오늘날 초량교회로 1892년부터 시작된다. 1894년 4월부터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12월에는 부산 지역에 사경회가 최초로 열린다. 이런 베어드를 두고 ‘부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베어드 선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한다. 이 전도 여행 중에 경상남북도도 물론이고 서울까지 현지답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륙에 선교지부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해서 1896년 1월, 대구에 선교기지를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한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기 마련인데 베어드 선교사는 교육 전도 능력이 뛰어났다. 연례회의에서 선교부는 베어드 선교사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교육 자문으로 임명(1896)한다. 대구 선교지부를 처남인 제임스 애덤스(안의와安義窩, James Edward Adams)에게 인계하고 베어드는 서울로 올라온다. 교육자로서 크게 기여한 것은 1897년 숭실대학 전신인 평양학당(숭실학당 교장 재임 1897~1916)을 설립해 한국의 근대 대학 교육을 개척한 점이다.

1897년 8월, 베어드는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그동안의 전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자립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선교지 교회 육성과 지도자 양육을 목표로 한 성경 중심의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네비우스 방법의 핵심은 자전(self-propagation), 자치(self-government), 자립(self-supporting)이며 전도를 우선으로 하고 직접 복음 전도 외의 활동인 고아원, 학교, 병원 설립은 복음 전도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베어드가 제안한 교육 정책은 선교 학교를 통해 훈련받은 기독교인을 배출하고 그들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법은 교회가 확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선교사들이 재원과 시간을 고아원이나 학교 등과 같은 부수기관에 사용 되는 것을 반대한다.

연례회의에서 입안한 교육 정책대로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 베어드는 평양으로 전임을 자청했다. 선교부 승인이 난 후 10월부터 평양 선교지부 소속으로 사역했다. 하지만 선교부는 새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없었다. 미룰 수 없었던 베어드는 집 사랑방에서 교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 교육 과정의 학당을 열었다. 이 학당은 처음에는 평양학당으로, 1901년부터는 숭실학당으로 불렸다. 1905년부터 대학부를 설치해 수준 높은 교육을 했고, 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해 1906년부터 감리교 선교부와 연합해 학교를 운영했다. 연합한 후부터 숭실대학은 교육 정책을 따라 성경 중심의, 성경과 연계된 교육을 해 교회를 위한 일꾼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다.

그러나 1912년 감리교가 서울에 한국의 유일한 대학을 설립하기



로 했다. 이로 인해 3년 동안 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교계 내에 논쟁이 벌어진다. 결국 1914년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가 17년 전에 승인했던 ‘우리의 교육 정책’을 집고 평양 숭실대학을 초급 대학으로 강등한 다음 서울의 연희전문학교를 한국의 유일한 대학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베어드는 숭실대학 학장을 사임(1916년 3월)하고 만다. 해외 선교부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참고로 1910년대 선교사들과 미국의 장로교 및 감리교 선교본부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논쟁의 쟁점은 한국 유일의 기독교 대학을 평양에 둘 것인가였다. 한국 내 선교사들은 압도적으로 평양의 숭실대학을 원했지만, 미국의 감리교 선교회가 서울에 대학 제안이 거부될 경우 교육평의회를 탈퇴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결과적으로 평양 숭실대학은 전문대학으로 강등되고, 훗날 연희전문학교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이 생겨난다.

한국 교회 성장사에서 숭실대학이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연희전문학교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국 개혁주의 신학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박형룡(1897~1978)과 박윤선(1905~1988) 모두 숭실대학 출신이다. 두 사람은 해방 후에 올바른 신학 정립을 위해 총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의 토대를 닦았다. 이런 노력들은 한국 교회가 자유 신학의 약진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상처를 덜 입게 했다. 베어드의 꿈과 인생이 담긴 숭실대학은 1938년 3월 4일 졸업식을 끝으로 자진 폐교하고, 16년 후인 1954년 4월 15일 서울에서 재건되었다.

숭실대학에서 물러난 베어드에게 선교부는 문서 사역과 성경 공부, 순회 전도 사역을 맡겼다. 자신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많은 책자와 글을 남겼다. 또한

1926년 성경 개역 사업에 참여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직접 연구하면서 구약성경의 약 3분의 2를 번역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따금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을 두고 ‘극단적, 엄격한, 고집 센’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건강한, 반듯한, 순수한, 변질되지 않은’ 등과 같은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런 베어드 신학은 활동에 반영되었으며 이것이 한국의 신학이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 건물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베어드 선교사의 건강한 신학이 두고두고 한국의 개신교 발전에 끼친 영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은 없다.

1931년 11월 28일, 베어드는 장티푸스로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했다. 평양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6,000여 명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석해 죽음을 애도했다. 1890년, 애니 애덤스(안애리安愛理, Annie Laurie Adams, 1864~1916)와 결혼해 두 아들 윌리엄 마르티네 2세(William Martyne Baird Jr., 1897~1987)와 리처드 해밀턴 베어드(Richard Hamilton Baird, 1898~1995)를 두었다. 이들 모두 한국 선교사로 각각 1923~1940년, 1923~1960년 동안 활동했다.

1917년, 시카고에서 로즈 메이 피트롤프(Rose May Fetterolf, 1881~1946)와 재혼해 딸 메리 안나 베어드(Mary Anna Baird)를 두었다. 지금도 미국 장로교역사연구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를 방문하면 내한 선교사 부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연구들과 베어드 가문의 활동들에 관한 사진 및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 새뮤얼 포어먼 무어

1860~1906



무어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복음화 시역에 엄청난 손실임에 틀림없지만 그의 전 생애와 영향력은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

미국 북장로교 『1906년 연례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새뮤얼 무어(모삼울牟三粟, Samuel Foreman Moore)는 전도 실적이 매우 우수한 선교사였다. 1906년, 북장로교 선교회 본부가 집계한 선교 실적에 따르면 무어 선교사가 세운 집회 장소는 총 집회 장소의 17%, 세례를 준 교인 수는 총 세례 교인의 13% 이상, 교인 수는 총 교인 수의 10% 이상, 헌금 총액도 거의 10%에 육박했다.

무어 선교사는 1893년 3월 19일 승동(곤당골)교회를 시작으로 마

포의 동막교회(1904), 서대문구의 대현교회(1906) 등 25개 교회를 설립해 성인 교인의 총수가 850명에 달하기도 했다. 어느 해에는 100명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다. 서울 인근에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보고(1899)에 따르면 황해도 백천군, 평산군, 경기 북부 등까지 전도 여행에 힘을 쏟았다. 특히 ‘기쁜 소식’이란 나룻배를 타고 3년 동안 한강을 오르내리면서 전도에 매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무어 선교사 이미지는 ‘백정 해방 운동’을 전개한 선교사로 새겨져 있다. 1898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백정은 수원 지방만 하더라도 132명이었다. 1900년 40만이던 백정 수가 1920년에는 3만으로 줄어들었다. 백정들은 신분을 향상시키고자 자녀 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는 무어 선교사의 노력과 그가 구한 백정 출신 장로인 박성춘(1862~1933)의 계몽 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예를 들어 1920년 일반인의 자식은 5%만이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지만, 백정 자식들은 40%가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다. 선교사 마샤 헌틀리(Martha Huntley, 1941~)는 “무어 선교사의 백정 해방 운동은 링컨의 노예 해방과 맞먹는 세계를 뒤집어놓은 사건이었습니다”라고 평가한다.

새뮤얼 무어는 1860년 9월 일리노이주 그랜드 리지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몬태나대학, 매코믹신학교를 거쳐 1892년에 졸업한다.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언더우드, ISMA, SVM의 영향을 받은 까닭이다. 부인 로즈 엘리 무어(Rose Ely Moore)와 함께 1892년 9월 21일(32세) 내한한다.

모ffet 선교사가 주도하는 성경 공부반을 도우면서 한글을 익히는

데, 1893년 3월 무렵에는 예배 순서에서 한글 기도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었으며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다. 1892년 9월 24일, 북장로교 총무인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문장, 즉 “우리는 현장에서 사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척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기쁩니다”에서 그의 뉘그러움을 가늠할 수 있다.

무어의 개척자 정신은 3가지 사례가 말해준다. 첫째, 독자적으로 운영한 소학교인 예수교학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당골 교회를 시작한다. 예수교학당은 노방 전도로 사람을 모아서 시작한 학교다. 이 노방 전도에서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 예수교학당 학생이 된다. 둘째, 정해진 틀이나 주저함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를 전했다. 어떻게 예수를 생생하게 전했다는지 1893년 12월 28일 자 서신을 들여다보자.

저는 책을 잔뜩 읽어지고 다닙니다. 제가 한글을 큰소리로 읽어대면 한국인들은 즉시 무슨 소리인가 하고선 신기해하며 물려옵니다. 그때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이 믿는 종교는 우상이고 마귀 숭배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목구비가 다르게 생긴 서양인이 변화한 길거리에서서 한글로 뭐라고 외치면 물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셋째, 고종을 전도하기 위해 알현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알렌 같은 신중한 선교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심지어 ‘참 신을 예배하고

거짓 우상을 버릴 것'을 담은 소책자와 편지를 고종 앞으로 보냈다.

미국 시민인 저 모삼울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대신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저를 불러주기를 겸손히 소망하나이다.

모삼울 배상

당황한 알렌 선교사가 급히 수습해 1900년 이후 선교사 사역은 철저하게 정교 분리 정책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국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전도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파격적이고 대단한가!

새뮤얼 무어 선교사가 백정 해방 운동, 즉 조선의 신분 타파 운동에 기여한 바는 의미가 중요하다. 무어가 시작한 예수교학당(현 롯데호텔 자리)에 박서양(봉주리, 봉출, 1885~1940)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백정 박성춘이다. 백정은 조선 최하층으로 광대, 기생, 고리장, 무당, 포졸, 갓바치 등과 더불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던 계층이다. 박성춘이 심하게 앓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세브란스병원 의사이자 고종 주치의인 에비슨 박사를 데려가 완치시켜주는 과정에서 박성춘이 기독교인이 된다.

그 두(무어 선교사, 에비슨 의사) 사람은 박 씨가 완쾌될 때까지 계속 그 집을 왕진한다. 그 환자는 왕의 주치의인 에비슨 의사가 자기 같은 천민을 치료하러 누추한 집까지 와주는 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박사의 치료와 무어 목사의 설교 덕분에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 『에비슨 전기: 한국 근대 의학의 개척자』, 연세대학교출판부, 1979

이렇게 해서 박성춘이 백정 출신의 최초 세례자(1895)가 된다. 그러나 백정이 교회에 출석하자 양반 교인들 사이에 “백정과 같은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무어 선교사에게 심하게 항의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딱한 일이 일어난다. 무어 선교사가 윌리엄드 총무에게 보낸 서신에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양반들의 항의에 대해) 양반들의 신앙만 특히 뛰어나 하늘나라에 높은 자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주사는 답이 궁해지자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마구 지껄였고 나는 그 말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몰려 나가고 두세 사람은 남아 계속 자기네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예수 사랑하심음」(563장)이란 찬송을 부르자 거의 가버렸습니다. 양반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내 어학 선생에게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

결국 양반을 위한 흥문수골교회와 기존의 곤당골교회로 나뉘져 운영하다가 1899년에 다시 곤당골교회로 합친다. 무어 목사는 1대 담임목사(1893년 3월~1901년 11월)를 맡았다. 곤당골교회 2대 담임목사인 레이놀즈(이눌서李訥瑞, William D. Reynolds) 선교사에게 물려줄 때까지 말이다. 한편 박성춘은 승동교회 장로(1911)가 되고, 왕손인 이재형도

장로(1914)가 된다. 이후 박성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빌립보서 4:13)라는 말씀으로 힘을 실어주는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백정의 신분 개혁을 위한 계몽 운동을 전개한다. 곤당골 예수교학당 교사로 있던 한학자 최 선생의 도움으로 1895년 4월 고종 황제와 내무대신 앞으로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조정이 보내준 답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여러분의 소원을 인정한다. 갓과 망건을 쓰고 다른 이들처럼 도포도 입으라. 혹시 관가의 아전들이 심한 학대를 하거든 항거하지 말고 이 법령을 보여라.

이 법령을 본 무어 선교사는 감격을 노래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던 흑인들의 기쁨도 갓을 쓰라는 말을 들은 조선 백정들의 기쁨만은 못했을 것이다.

무어 선교사는 신분 해방을 알리는 포고문을 360여 장이나 인쇄해 전국에 배포했다. 박성춘은 포고문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 역사를 알리고 다녔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나라 백정들을 해방한 역사는 추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백정들의 해방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고로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김희영, 김필순 등 6명과 함께 1회로 졸업(1908)해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다. 박서양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재직(1913~1918)했다. 그 시절에 백정 출신의 자식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무어 선교사의 공이 컸다.

1906년(46세) 12월 22일, 무어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걸려 이 세상을 떠나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혔다. 묘비에는 ‘長老會 宣教師 毛三栗 記念碑 ‘朝鮮人士’를 사랑했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나니라. 저의 수고를 그치매 그 행한 일이 또한 따르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매코믹신학교 출신인 부인 로즈 엘리 무어는 1907년 11월 18일 선교사를 사임하고 귀국해 1923년 5월 29일 소천했다. 아들 셋과 유복자인 딸 하나가 있었다.

## 그레이엄 리

1861~1916



수백 명이 그를 영적 아버지라고 부른다.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을 힘차게 돕고 있다. ... 한국 평양의 그레이엄 리가 신었던 신발보다 더 닳아빠진 신발을 신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1907년 한국을 방문해서 평양 대부흥의 현장과 선교지를 둘러본 미국 《아웃룩》 기자 윌리스의 기록이다. 그레이엄 리(이길함李吉咸, Graham Lee)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담임하고 있던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양 사경회’ 때 설교와 기도회를 인도함으로써 한국 교회사에서 빛나는 시기이자 업적 가운데 하나인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로 손꼽힌다.

그레이엄 리 선교사는 일리노이주 록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학과 매코믹신학교를 마치고 1892년 10월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한다. 그때 함께 내한했던 선교사들이 무어 목사 부부, 밀러 목사 부부, 스왈튼 목사 부부 등 7명이었다. 그레이엄 리의 평양 선교는 1895년부터 한석진 조사를 대동하고 본격 추진된다. 1901년부터 모펫 목사와 함께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1912년까지 주로 관서 지방, 특히 평양 주변에서 활동했다.

그레이엄 리가 평양과 인근 지역에서 뛰어난 전도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 1898년, 평양선교회는 해외 선교부에 “평양에서의 선교 기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놀랍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역사는 실질적인 결과에서 이전의 어떤 해를 능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03년 그레이엄 리는 해외 선교부에 놀라운 보고를 한다.

어제 우리는 평양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다. ... 교회당은 사람들로 꽂찼다. 1,500명이 참석한 것 같다. 이 가운데 580명이 입교인이다.

장대현교회는 모펫 선교사가 1893년에 개척한 교회로 그레이엄 리와 모펫이 담임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눈에 띄게 성장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 교회를 평양중앙교회라고 불렀으며, 이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로는 남문밖교회(1903), 창동교회(1905), 산정현교회(1909) 등이 있다.

평안도 지역의 대표 선교사였던 조지 매쿰(윤산온 尹山溫, George Shannon McCune, 1873~1941)은 한국에 온 지 3년 차 되는 선교사로 장

대현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매쿤은 《코리아 미션 필드(The Korea Mission Field)》(1907년 1월호)에 평안도 사경회 전개 과정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집회 등록 책임을 진 사람은 스왈른 목사였는데, 등록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1월 엄동설한에 300리(118km)나 360리(141km) 거리를 걸어서 사경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사경회 경비도 만만치 않았을 뿐 아니라 교통 시설이 변변치 못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성경 공부 집회에 참석하려는 평안도 교인들의 열의가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어려웠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했고 매달릴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다.

각지에서 평양에 몰려든 교인들은 저녁 등불을 든 몇몇을 따라서 중앙교회로 몰려가고 있었다. 당시 여자들은 북쪽교회, 동문교회, 남문교회로 나뉘서 집회를 했으며, 남자들은 서문밖 사랑에서 모임을 했다. 아이들은 숭실대학교와 숭실중학 채플에서 모임을 진행했지만, 가장 큰 모임은 장대현교회에서 2,000여 명이 모인 집회다. 1907년, 이 집회에서 평양 대부흥회의 횃불이 활활 타오른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유독 다르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만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특징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시대에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정통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즉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일은 예배를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일어난다. 성령 체험 혹은 성령 충만은 인간적인 죄성이 계속 제거되도록 해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구원은 성령 세례와 같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기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특정 집회에서 일어나곤 한다.

성경에 최초의 성령 강림으로 신자들이 집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건은 흔히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경을 잠시 들여다보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  
 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  
 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사도행전 2:1~4

평안도 사경회 집회는 1월 1일부터 2주 동안 이어진다. 놀라운 사건은 윌리엄 헌트(한위립韓韋廉, William Blair Hunt, 1869~1939) 목사의 설교

가 끝난 다음 그레이엄 리 목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시작한다. 그곳에 모인 남자들의 우렁찬 기도 소리가 이어졌고 일부는 기도 중에 울부짖기도 하고, 일부는 죄를 고백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레이엄 목사는 이 역사를 1월 14일 자에 기록으로 남겼다.

어젯밤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거꾸러져서 울었습니다. 제 요리사도 저를 속인 것을 고백했고, 고통 속에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성령 충만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그치지 않고, 평양 전역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요원의 불꽃처럼 번져 나간다. 집단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일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세상에는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혼의 세계가 있고 영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말씀을 통해 성도(교회)에 역사하시는 사건을 말한다. 부흥은 많은 사람이 거의 동시에 성화되거나 구원 받는 것을 뜻한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죄성을 씻어내고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 속에 있던 미움, 시기심, 질투심 등과 같은 쓴 뿌리와 옛 습관, 나쁜 습관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쓴 뿌리들을 태우고 씻어내면서 성화된다. 믿지 않았던 사람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즉 크리스천이 된다. 성령의 불꽃을 직접 체험한 노블(노보올루프乙, William Arthur Noble, 1866~1945) 선교사는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했다. SVM 주창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존 모트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목격하고 돌아가면서 한 고백이다.

만약 교회가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회를 선용한다면 한국은 근대에 기독교화된 첫 민족이 될 것이다.

1월 15일, 매쿰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총무인 브라운 박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레이엄 리는 모팻과 함께 평양 선교를 개설하고 장대현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했으며 평양 전역에 많은 교회를 분립했고 평양 선교의 기적을 창출한 인물이다.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사경회 때 평양 대부흥을 견인한 사람은 바로 그레이엄 리였다.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는 “과장인지 몰라도 그가 없었다면 평양 선교의 기적과 평양 대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을지 모른다”며 그레이엄 리를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역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레이엄 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평양 대부흥에 중요하게 쓰여졌을 뿐이다.

### 개신교 교인 증가 추세(1900~1909)

연도	교인 수	교인 증가 수	증가율
1900	18,226명	.	.
1901	18,649명	423명	2.1%
1902	21,454명	2,805명	15.0%
1903	23,700명	2,246명	10.5%
1904	28,496명	4,796명	20.2%
1905	42,406명	13,910명	48.8%
1906	66,323명	23,917명	56.4%
1907	78,697명	12,374명	18.6%
1908	91,912명	13,215명	16.8%
1909	197,717명	105,805명	17.2%

출처: Alfred W.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34, p.166*

평양에서 시작한 대부흥은 1904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된다. 길선주(1869~1935), 헌트, 윌리엄 블레어(방위량邦緯良, William Newton Blair, 1876~1970), 이길함, 스왈른, 번하이슬(편하설片夏薛, Charles Francis Bernheisel, 1874~1958) 등은 전국으로 퍼져 한반도 전역에 부흥의 불을 지핀다. 길선주는 가장 먼저 서울로 달려가 승동교회, 연동교회, 수문교회, 상동교회 등의 부흥회 집회를 이끈다. 헌트는 대구로 달려가서 집회를 이끌었다. 서울, 대구, 대전, 공주, 신의주, 선천 등 전역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 그 결과 2만 8,000여 명(1904)이던 교인 수는 7만 8,000여 명(1907)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원산 대부흥 운동(1903년 8월 24일~8월 30일) 그다음 해에 개신교인 수가 20.2% 증가했



고, 평양 대부흥 운동(1904년 1월 14일~1월 15일) 이후인 1905년에 48.8%, 1906년에 56.4%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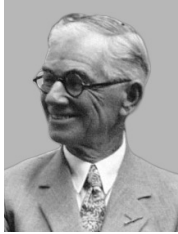
1912년 귀국한 그레이엄 리는 1916년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해 12월,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는 담담하게 부고를 전했다.

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레이엄 리가 1916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길로이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언급해야 할 것 같다. … 그가 1892년 한국에 도착했을 때 평양과 황해도에는 각각 교회 하나만 있었을 뿐이다. 이후 그는 이 두 지방에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

그레이엄 리의 묘소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카운티 길로이에 위치한 가빌란 힐스 기념 공원에 있다. 아내 블라케 웹 리(Blanche Webb Lee, 1867~1945)와의 사이에 미로 웹 리(Mylo Webb Lee, 1895~1982), 마거릿 리 맨스필드(Margret Lee Mansfield, 1899~1987), 헨리 리(Henry M. Lee, 1906~1960)를 남겼다.

## 윌리엄 리엔더 스왈른

1859~1954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유난히도 고생스러웠던 세월을 헤쳐 나온 우리 선조들이 눈물을 흘  
리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493장)이다. 지금도 이  
찬송을 들을 때면 험한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 선대들과 그들 속의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며 숙연해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

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기리로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  
왔던 이 찬송가에 한글 가사를 붙인 사람은 스왈른 선교사다. 지금  
도 즐겨 불리는 이 찬송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일종의 신앙고백이다. 험난한 근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  
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송가다.

스왈른은 1859년 3월 24일, 오하이오주 칼톤에서 가난했지만 경  
건했던 스위스 출신 농부의 9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오면서 주경야독했던 그에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민  
족의 고난과 애환이 가슴에 와닿았을 것이다. 스왈른 부부는 한국  
에 도착했을 때 신혼부부였다. 신부 샬리 윌슨(Sallie Wilson Swallen,  
1863~1945)이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을 졸업하던 날, 총장 배쉬포드  
공관에서 결혼한 부부는 그해 가을 한국으로 파송되었다. 스왈른 선  
교사는 우스터대학을 졸업(1889)하고 결혼하던 해(1892)에 매코믹신  
학교를 졸업했다. 매코믹신학교 출신 중 20여 명이 한국으로 건너왔  
는데, 함께 졸업한 그레이엄 리, 새뮤얼 무어, 루이스 테이트(최의덕崔義  
德, Lewis Boyd Tate) 등이 끼어 있었다. 한국행을 결정하는 데는 1891년  
9월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머물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학교를 방문해  
한국 선교에 대한 강연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점도 주효했다.

그들은 함께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고난에도 굴  
하지 않고 낙천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었던

‘점잖은 목회자(Gentle Pastor)’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라는 성경 말씀처럼 젊은 날의 고난이 평생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에서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했다.

1년 반 정도 서울에서 한글 공부를 하다가 스왈른은 1893년 1월 새뮤얼 모팻, 그레이엄 리와 함께 평양 및 서북 지방 개척 선교사로 평양 선교부에 자리를 옮긴다. 당시 조선의 각 선교부는 개항장인 원산항을 북음화하는 데 관심이 높았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는 스왈른 선교사 부부를 이미 활동하고 있던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과 동역하도록 파송을 결정한다. 스왈른은 약 5년(1894~1899)간 원산에 선교기지를 두고, 함흥 지방 일대에 두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난다. 1896년 12월과 1897년 4월에 걸친 전도 여행 중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결실을 거둔다. 헌신적인 전도 활동으로 북청, 흥원, 함흥, 단천 외에도 함경도 내에 북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스왈른은 원산에서 한국인과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면서 온 힘을 다해 전도 활동을 하는데, 특히 축첩이나 제사 문제를 선교 보고서에 남겨놓았다.

원산이 캐나다 장로회 소속의 선교 지역으로 결정되자 1899년 평양 선교부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송실학당 관리 책임자를 맡는다. 그와 송실대학의 인연은 1950년대 반공 포로 석방과 송실대학 재건에 힘을 더했던 둘째 사위 해럴드 발렌틴 뵐켈(옥호열玉鎬烈, Harold Valentine Voelkel, 1898~1984)로 이어진다. 송실학당 교육관 건축을 위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1,800달러를 기부(1900)했다. 부인(거트루드 엘리자베스)도 송실학당 교사로 일했다. 1901년에 스왈른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초대 회장에 피선되었고, 1903년 1월에는 모팻, 베어드, 그

레이엄 리 등과 함께 평양신학교를 발족해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신학 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평양남문교회를 설립했고, 첫 목회자로 봉사하기도 한다. 오지석 교수는 「평양송실과 소안론 선교사」(《한국기독교화연구》8집)에서 그의 공적 가운데 하나를 강조한다.

소안론의 평양 선교 생활은 한국 기독교사에 길이 남는 두 목사의 회심과 관련 있다. 그 첫 회심의 주인공은 평양신학교 최초의 졸업생 7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제주도에 첫 기독교 선교사로 파견된 이기풍(1865~1942) 목사며, 또 한 사람은 ‘한국 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불리는 김익두(1874~1950) 목사였다.

스왈른은 안악 지역과 재령 지역 선교 사역에서 전도자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선교 25주년을 기념하는 1917년 재령 지부의 현황을 들여다보자. 평양 지부의 3분 1에 달하는 교인과 60개 이상의 교회, 교인이 6,000명 이상인 교회의 담임목사 12명과 조사 10명이 있었다. 선교 활동 초부터 자립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전도해 성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순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와 성경 통신 과정을 개설하는 등 창의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스왈른은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전도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우스터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했기에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기도 했다.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올 때는 사과나무 등과 같은 과수를 가져와 황해도와 대구 등에 보급해 특산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문학적 재능은 주옥같은

찬송가에 한글 가사를 붙여서 한국인들에게 널리 불리도록 했다.

평양 선교부를 은퇴(1932)할 때까지 관서 지방 평양장로교 교회 63개소, 한국 목사 25명, 기독교인 1만 3,000여 명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했다. 1934년부터 신사 참배와 교회 탄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극소수의 선교사 가운데 스왈른이 있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과 적대 국가가 되자 1940년 11월 48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5년 뒤 부인과 사별했다. 그토록 사랑했고 온 생애를 바쳤던 한국 땅이 전쟁의 참화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1954년 5월 8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소천했으며, 메모리얼파크 묘지에 묻혔다.

스왈른에게 한국은 전부였던 것 같다. 이름, 생몰 연도(1859년 3월 24일~1954년 5월 8일)와 함께 묘지석 상단에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48년’이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점잖은 목회자’라고 쓰여 있다. 아내 묘지 상단에도 ‘한국에서 선교 사역-48년’이 새겨져 있다. 스왈른은 1남 4녀를 두었다. 맏딸 올리베트 스왈른(소안엽蘇安擘, Olivette R. Swallen, 1863~1975)은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1915)해 승의여학교 3대 교장(1931)을 지냈으며 38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했다. 신사 참배 반대로 승의여학교가 폐교(1938)되자 귀국했다가 1954년에 돌아와 승의여학교 생활 영어를 담당하다 1959년에 귀국했다. 올리베트 묘지석에도 ‘한국에서 선교 사역-38년’이 새겨져 있다.

둘째 딸 거트루드 엘리자베스 스왈른 빌켈(Gertrude Elizabeth Swallen Voelkel, 1897~1981) 묘지석에도 ‘한국에서 선교 사역 1897~1981’이 새겨져 있다. 남편 옥호열은 북장로교 선교사로 부인과 내한(1929)했다

가 일제의 의해 강제 철수(1941)를 당한다. 옥호열은 1945년 9월 다시 대한해 교회 복구 사업에 참여했으며, 1950년 9월에는 미군 군목 신분으로 인천에 상륙해 전쟁 포로 전도를 도왔다. 한국전쟁 반공 포로의 아버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성자로 불렸고 숭실대학을 재건하는 데 힘썼다. 묘지석에도 어김없이 ‘한국에서 선교사역 1898~1984’가 새겨져 있다. 그 밖에 장남 제임스 윌버 스왈른(James Wilbur Swallen, 1895~1943), 셋째 딸 이스터 루실 스왈른 피치(Ester Lucile Swallen Fitch, 1902~1970), 막내딸 메리 엘라 스왈른(Mary Ella Swallen, 1902~2002)이 있다. 스왈른의 풍속화(기산 김준근 화백 작품)를 보관하던 막내딸은 다음과 같은 당부와 함께 숭실대학기독교박물관에 기증했다.

보내드리는 그림은 부모님이 수집한 것으로 1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연세대학이나 숭실대학에 있는 미술관에 소장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으로 48년을 한국에서 지낸 부모님에 대한 기억으로 이 그림을 건넵니다.

메리 스왈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팜쇼어 앙로원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스왈른 부부는 알지도 못했던 오지나 다름없는 이 나라에 와서 젊음과 모든 것을 이 땅에 주고 떠났다. 그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땅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다.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난날을 기억하고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소명을 생각해보게 하는 편지다.

## 제임스 에드워드 애덤스

1867~1929



안익와 선교사는 대구 및 경북 지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인디애나주 맥코이 출신인 제임스 애덤스 선교사는 위쉬번대학과 존 홉킨스대학을 거쳐 매코믹신학교를 졸업(1894)했다.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YWCA에서 활동하고 있던 넬리 딕(Nellie Dick, 1866~1909)과 결혼한 다음 매형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던 부산 땅에 1895년 5월 29일에 발을 내딛는다. 훗날 몇 대에 걸친 제임스 가문이 맺는 한국과의 인연은 애덤스 선교사 누나인 애니 로리 애덤스가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는 윌리엄 베어드와 결혼하면서 시작된다.

부산 선교부에서 2년 동안 한국어 및 지방 풍습을 공부하고 매



형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막 개척한 대구 선교기지를 인계받는다. 윌리엄 베어드가 대구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893년 4월 22일이었다. 애덤스가 대구에 도착한 날은 1897년 11월 1일이며, 다음 달에는 의료 선교사인 우드브리지 존슨(장인차張仁車, Woodbridge Odlin Johnson, 1869~1951)이 이 땅을 밟는다. 마지막으로 1899년 9월 헨리 브루엔(부해리傅海利, Henry Munro Bruen, 1874~1959) 선교사가 도착하면서 대구 선교기지가 출범(10월 26일)했다. 최소 3명 이상의 선교사가 있어야 독립된 선교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독립 예산 편성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구 선교기지의 출범은 대구 및 경북 지역에 개신교 역사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대구 선교 역사는 안의와 선교사의 교회 개척사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자전거를 타고 전도를 다녔는데, 당시 사람들은 자전거 바퀴가 마치 안경알처럼 생겼다고 해 ‘안경 말’이라 부르기도 했다. 자전거 행렬이 나타나면 하던 농사일을 제쳐두고 한참 바라보곤 했다. 1897년 말에 대구 개신교 교회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남문안교회(현 대구제일교회)가 가족을 비롯한 7명의 교인으로 시작한다. 이 교회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1895년에 217달러로 구입한 땅에서 시작된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힘입어 대구제일교회의 교인 수가 800명까지 증가하면서 사월교회(1898년 4월 5일), 반여월교회, 범어교회 등이 뒤이어 설립되었다.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선교 결과를 보고하는 안의와 선교사의 편지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그의 계획과 포부가 담겨 있다.

동쪽의 모든 지역, 즉 시골 마을과 산골짜기까지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최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지역에 요약된 복음지 꾸러미를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 한국에는 복음 전도하기에 적합한 소책자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 더 천천히 세심하게 순회 설교를 하며, 중심지에는 더 오래 머물고 설교에 비중을 두려 합니다. … 첫 여정은 2~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여정은 선교지부의 통상적인 복음 순회 설교 사역으로 발전해갈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은 이런 아이디어에 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 광범위한 동부 지역의 복음 전도 씨뿌리기를 위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시 제임스 애덤스는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다. 대구 선교기지가 최초로 설립한 서양식 병원은 대구제중원으로 1898년 10월의 일이다. 제중원이 자리 잡는 데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 대구제중원은 오늘날 계명대학 부설 동산의료원으로 발전했으며 대구 지역의 의료 발전과 개신교 선교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대구제중원에서 시작한 병원 건립은 나환자 보호소 설립(1909)으로 이어진다. 병원 근처의 작은 초가집에 문을 연 나환자 보호소는 오늘날 대구애락보건병원 모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1908~1909년 사이에는 제중원 청년 중 7명을 선발해 현대 의학을 가르친다.

제임스 애덤스 선교사의 대구 사랑은 제일교회 내 대남 남자소학교 설립(1902)을 시작으로 한강 이남에서 최초의 미션 스쿨인 계성

중학교 설립(1906)으로 이어진다. 선교 과정에서 1909년 10월 31일에 아내 넬리 덕을 산후 후유증으로 잃고 만다. 그녀는 동산의료원 앞뜰 은혜의 정원에 묻혀 있으며, 묘비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SHE IS NOT DEAD BUT SLEEPETH)’라고 기록되어 있다. 1922년 전 재산을 털어 ‘애덤스 복음 전도 기금’이란 이름으로 선교 기금을 만들고 대구 선교부를 은퇴(1923)해 귀국길에 오른다. 1929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레이에서 하늘나라로 떠났다.

3남 1녀를 남겼으며 장남인 에드워드 애덤스(안두화安斗華, Edwards Adams, 1895~1965) 목사는 1921년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954년 2월 계명기독교대학(현 계명대학)이 창립될 때 북장로교 선교사 대표로 참여했다. 또한 계명기독교대학 초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2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들 조지 애덤스(George J. Adams) 선교사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1932~1959)해 안동 선교부 및 대구 선교부에서 활동했다.

## 조세핀 이튼 필 캠벨

1853~1920



나는 조선에 몸을 바쳤으니 죽어도 조선에 가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남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가 조선에 최초로 파송한 여선교사가 조세핀 캠벨(강모인姜慕仁, Josephine Eaton Peel Campbell)이다. 한국 땅을 밟은 것은 44세가 되던 1897년 10월 9일이다. 52세에 내한해 이화학당을 설립한 북감리교 파송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턴 여사와 배화학당을 설립한 남감리교 파송 선교사인 조세핀 캠벨은 서로 대비되기도 한다. 두 선교사는 20대가 아니라 인생의 정점이 지날 무렵에 선교사를 자임한 것이 특별한 점이다.

조세핀 캠벨은 1853년 4월 1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출생했다.

21세(1874)에 조셉 캠벨(Joseph Campbell) 목사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견고하게 보이는 삶도 그 토대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할 수 있다. 27세(1880)에 남편이 죽고 아이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녀가 느꼈을 감정은 지상에 쌓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다. 시련 속에서 찾은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깨달음이다. 시카고간호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을 마친 다음 34세(1886)에 남감리교 선교사로 상하이와 쑤저우로 파송되어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펼친다.

1897년 10월 9일, 남감리교가 파송한 내한 첫 여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는다. 그때 동행한 사람은 중국인 양녀 여도라(Dora Yui, 1873~1931)였다. 양녀는 캠벨 선교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약 5년이다. 기록에 따르면, 여도라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배웅 나온 사람은 중국에서 감리교 신자가 된 윤치호였다. 당시 남감리교 선교부가 남대문 근처의 남송현(南松峴) 선교부에 있었는데 1896년 5월 남감리교가 최초로 파견한 클라렌스 프레더릭 리드(이덕李德, Clarence Frederick Reid, 1849~1915)와 부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리드 선교사는 1897년 6월 21일 사택에서 윤치호와 함께 예배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의 광희문교회다. 하지만 조세핀 캠벨 선교사는 기존 선교 사업부에 자리 잡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1898년 8월 1일, 고가나무길 이항복 집터로 선교지를 옮겨서 본격적인 전도 활동과 간호 활동을 한다. 고가나무길은 지금의 종로구 내자동으로 내시들이 주로 살던 곳이다. 내시들을 꺼림칙하게 여겼

던 선교사들조차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선교 활동의 터를 잡는 것은 캠벨 선교사다운 발상이고 태도다. 남아 있는 흑백 사진 속 캠벨 선교사는 담대하고 적극적이며 뜻심이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모두 겪어낸 사람 특유의 분위기를 풍긴다. 조세핀 캠벨이 윤치호에게 한글을 배우면 밤새워 공부한 끝에 1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통역 없이 대화할 정도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조세핀 캠벨은 선교 활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눈길을 두게 된다. 어느 날, 더럽고 무지한 소녀를 보고 놀란 나머지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9월 초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교육 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선교와 간호 활동을 하면서 조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압받는 조선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을 한다.

조세핀 캠벨은 배화학당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다. 1898년 10월 2일에 설립된 배화학당은 미국 남장로교의 대표 교육 시설이다. 처음 교명은 '캐롤라이나 학당(Carolina Institute)'이라 불렀는데 주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받은 선교 헌금들이 학당을 건립하는 데 종잣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첫 시작은 캠벨 선교사를 제외한 교사 3명과 학생 6명이었다.

이 학교는 1903년 12월 배화학당(현 배화여고 및 배화여자대학)이 되었으며, 이후 배화여학교로 인가(1909)를 얻어 졸업생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 학교에서 캠벨 선교사는 초대 교장(1898~1912)으로 일했

다. 배화학당은 기도실에서 정기 예배를 드렸다. 미국의 루이스 워커(Lousie Walker)의 선교 헌금으로 배화학당 내에 예배당을 신축했는데, 이를 ‘루이스 워커 기념 예배당’이라고 불렀다. 루이스 워커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아마도 부유한 사람으로 감리교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돈을 기부한 인물로 추정된다. 캠벨 선교사는 교단 차원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부자나 교회를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선교 헌금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배화학당을 성장시켰다.

1918년(65세) 안식년을 얻어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병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 낙농업을 배워 한국에 보급하기 위한 준비를 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디프테리아를 앓는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무리하게 귀국을 강행해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내한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1920년 11월 12일 서울에서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묘지석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요한계시록 14:13)가 새겨져 있다.

##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1880~1934



그분은 전남 선교의 어머니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Elisabeth Johanna Shepping)의 선행과 헌신을 기억하는 호남인들은 아직도 많다. 쉐핑은 가진 모든 것 그 이상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났다.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서서핑’은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서서히 해야겠다는 ‘서서(徐徐)’에다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하겠다는 ‘핑(平)’을 더해 스스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독일 출생이며 미국으로 이민해 뉴욕 세인트마카병원 간호학교를 졸업(1901)했다. 이 학교는 당시 뉴욕시립병원으로 구제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던 곳이었다. 이후 뉴욕시 유대인결핵요양소와 이탈리아이민



자수용소에서 일하면서 8년 동안 성서교사훈련학교를 다녔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국의 병원에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1912년 3월 20일, 간호 선교사로 광주 선교부에 소속되어 광주제중병원, 군산구암예수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활동했다. 서서평의 삶은 군산구암예수병원을 거쳐 서울세브란스간호학교 교사로 일한 1919년까지의 시기와 광주로 내려와 광주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에 자리 잡고 선교 활동과 사회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 1920년 이후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17년부터 세브란스에 근무하면서 세브란스간호사훈련학교에서 부족한 간호 인력을 키우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때 육성한 이효경과 이금전은 한국 간호계의 지도자로 성장한다. 서서평은 도착한 직후인 1915년부터 간호 인력을 키우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다. 남장로교 연례 보고서(1915)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군산 지역에 간호사 양성 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이 들어 있었다. 선교본부는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간호사 양성을 위해 한 반을 운영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었다.

1926년, 국제간호협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 입회 청원을 문의했다.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한 지 6년 만에 ICN 준회원으로 입회시켰으며 정회원 가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1929년, 조선간호부회는 ICN 회원 가입을 신청했고 이때 키운 인재들이 제 몫을 톡톡히 담당해주었다. 그러나 회원국 가입은 일본의 방해로 실패

하고 마는데, 회원국 가입은 1946년에 이뤄진다. 서서평은 간호학 관련 책을 여러 권 집필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할 수 있는 『간호 교과서』, 『실용 간호학』, 『간호 요강』, 『간이 위생법』 등 4권과 『간호 사업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번역서를 남겼다.

3·1운동이 터지자 일제가 쉐핑 선교사에게 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오갈미를 씌워 서울에 거주할 수 없게 하자 광주제중원에서 활동을 개시한다. 광주에서 공중위생 사역(무의탁자 돌봄 간호, 극빈자와 병자 및 노인 돌봄, 모자 보건 간호, 긴급 구조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게다가 금주, 금연, 윤락 여성 선도 사업을 전개하는데 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 활동 외에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특히 나환자의 치료에 바친 노력은 지극 정성 그 자체였다.

한일장신대학교 윤매옥 교수는 「한국인을 위한 간호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의 교육과 전인적 간호」(2016)란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광주제중원에 간호사로 부임했던 쉐핑은 먼 산골짜기 봉선리 마을 나병원까지 오가며 정성껏 그들을 보살폈다. 나병원에 입원하면 배고픔과 추위 걱정도 잊고 병을 치료할 수 있어서 나환자들은 애양원을 천국이라 말했고, 애양원 문을 천국 문이라 했다. 그만큼 광주제중원은 나환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그 중심에는 간호사인 쉐핑이 있었다. 손발이 짓무른 상처로 퉁퉁 부어 있고, 걸친 누더기 옷은 피와 고름으로 엉켜 웅크리고 있는 나환자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위한 구라 사업(나환자를 위한 거주지(광주나병원) 건축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그녀는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많은 나환자를 정성을 다해 간호

했다. 길에서 여자 나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 자기 옷을 나눠 입혔다.

쉐핑을 방문한 부모는 딸의 고생을 보다 못해서 귀국할 것을 간청하지만 뿌리친 것이 부모와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만다. 그녀에게 소외받는 나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이었다. 마침내 1939년 11월 소록도에 나환자 갱생원이 설립되었다.

1926년, 친구 로이스 닐(Ms. Lois Neel)이 기금을 후원해주었다. 덕분에 붉은 벽돌로 3층 교사를 짓고 건물을 세운 다음 그의 이름을 따서 '이일(李一)학교'라 불렀다. 여성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목적으로 한 이 학교는 정부가 공식 인정한 3년제 사립학교였다.

쉐핑 선교사는 가난한 여학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명주, 모시, 삼베, 무명베 등의 천에 자수를 놓아 책상보, 손수건 등의 수예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도 하고, 미국 교회들에 전해 바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대금은 이일학교 여학생들의 학비로 쓰였는데 지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는 보기 드문 사례였다. 이 밖에도 양잠과 직조 기술을 보급해 학생들이 자립하는 것을 도왔다.

간호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서서평은 다른 선교사와 달리 한복 차림에 남자 고무신을 신고 한국 고아를 둘러업은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국 여성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정체성,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었던 선각자였다.

한일장신대학교 윤매옥 교수는 쉐핑을 이렇게 평가한다.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화된 자로서 간호 교육자, 행정가, 독립운동가, 금주 금연 운동가, 절제 운동가, 고아의 어머니, 나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마거릿 프리차드(변마지, Margaret F. Pritchard, 1900~1988) 간호 선교사의 말을 통해 쉐핑의 참된 면모를 알 수 있다.

쉐핑은 생필품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조리 주었고, 집에는 옥수수 두 홉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덮고 잘 이불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게다가 시신까지 의료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떠났다. 1934년 7월 7일, 서서핑이 저세상으로 떠났을 때 장례는 광주시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다. 13명의 양딸과 수백 명의 걸인과 나환자들이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울부짖는 통곡 소리에 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휘트먼 티로슨 리드**

1883~1954

**클라렌스 프레더릭 리드**

1849~1915



미국 민간단체, 100년 된 개성아동병원 재건축을 위해 20만 달러를 내놓는다.

2007년 12월, AOV(미국의 방송)에서 다룬 기사다. 병원의 보수 사업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Christian Friends of Korea)’이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한다. 기사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딱한 사정도 다뤘다.

1907년에 설립된 개성아동병원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직원들이 우물물을 직접 퍼 올려 사용합니다. 전력도 하루 2시간만 공급돼 의료 장비를 작동하는 건 무리고 병원 건물 자체도 100년씩이나 돼 대대적인 보수가 절실합니다. … 개성아동병원은 북한 개성 지역에서 매년 3만 5,000명의 18살 미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CFK 소식지에는 개성도립소아병원 관련 기사가 실렸다.

6개월 동안 저희는 소아병원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편지에선 우리 도움에 극진한 감사를 표하면서, 또 다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완곡히 전해왔습니다. 병원 지붕 구조물들은 50년이 넘어 곳곳에서 물이 샐니다.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 소모품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에 보내주시는 후원으로 말미암아 개성 지역에서만 4만 명의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 ‘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기에 100년 전에 현금으로 지어진 병원이 또다시 손을 벌리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건물의 주인공은 조선과 대를 이어 인연을 맺은 남감리회 파송 의료 선교사인 휘트먼 리드(Wightman T. Reid) 박사다. 1883년 쑤저우에서 태어나 반더빌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1903)하고 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한국 땅에서 활동했던 아버지처럼 1907년 경기도 개성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한다.(Journal of Medicine and Surgery, Jan. 1904, p.179) 오래전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 덕분에 휘트

면 리드는 개성에서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었다.

1907년 버지니아주 아이비(C. W. Ivy)의 현금 5,000달러로 개성에 짓기 시작해 준공(1910)한 아이비기념병원은 50병상으로 출발했다. 이 병원은 지금의 개성도립아동병원 전신에 해당한다. 리드는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간호사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돈을 기부한 아이비 부부는 박애주의 정신이 강했던 토지 소유자였으며, 그가 만든 펀드에서 기부금이 나왔다고 한다. 개성에 있었던 남감리교의 선교사 기지에는 호수돈학교뿐 아니라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자아이들에게 직조 기술을 가르쳐 생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리드 박사는 의료 선교사이면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리드 박사는 아내 시드니 메리 윌리엄 리드(Sidney Mary Williams Reid)와의 사이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맏딸 엘로이스(Eloise Reid Frary)는 한국 경험을 『엘러비: 1920년대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로 성장하기 (Elevy: Growing Up as a Missionary's Child in Korea During the 1920's)』라는 귀한 책에 남겼다. 이 책은 북한을 돕고 있는 CFK가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발간한 것이다.

1907년 개성의 분위기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힘을 입어 기독교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미국 등지의 기독교계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나서서 모금을 주도했다. 마침 책을 쓰는 동안 휘트먼 리드 박사의 외손녀 시드니 존슨(Sidney Johnson)과 연락이 닿았고 여러 정보와 휘트먼 박사의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는 중국 선교사를 하다 한국 선교사가 된 아버지 조언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서 한국 땅에 헌신한 셈이다. 1954년 2월 11일, 하늘나라로 떠난 휘트먼 박사는 오하이오주 마운튼 헬시 알링턴 기념 가든에 묻혀 있다. 짙은 갈색 묘비석 중간에는 ‘한국 선교사(1907~1928)-신시내티(1929~1954)’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다.

한편 클라렌스 프레더릭 리드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광희문교회를 설립한 선교사다. 1897년 6월 21일, 남송현(현 소공동)의 리드 선교사 자택에서 첫 예배를 올린 것이 광희문교회의 시작이다. 첫 예배에서 설교한 사람은 구한말 계몽 지식인이던 윤치호다. 김진형 목사(예산 지방 죽림교회)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리드 선교사가 한국어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이후 거의 1년 반 동안 으레 윤치호가 맡았다. 윤치호는 비록 평신도였으나 일찍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였다. 이 예배에는 첫 교회인 교양 교회에서 이주한 두 가정이 함께 참여했다. … 이 교회는 차차 발전해 지금의 광희문교회가 되었다. … 남감리교가 1년도 안 되어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윤치호라는 한국인 평신도가 있기에 가능했다.

광희문교회 1대 담임목사로 재직(1897년 6월~1899년 4월)한 리드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로 상하이에서 17년 동안 활동하다가 남감리교가 최초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한 인물이다. 한국 선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남감리교 감독 헨드릭스(E. R. Hendrix)가 한국을 방문하던 1895년 10월에 동행했으며, 이때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중국을



떠나기로 했다. 1896년 5월에 내한했으며 가족들은 8월 14일에 입국했다. 남감리회는 중국 선교의 연장으로 조선 선교처를 인정했으며, 관리자(장로사, 현재 명칭은 감리사)로 리드를 임명했다.

이때 입국한 어린 아들이 아이비기념병원을 지은 휘트먼 리드다. 아버지 클라렌스 리드 선교사는 1897년 5월 2일에 고양읍에 남감리회 최초 교회인 고양교회를 개척했고, 6월 21일에는 지금의 광희문교회를 개척했다. 2017년, 광희문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해외 선교사들이 잠시 묵을 수 있는 'C. F.(클라렌스 프레더릭) 리드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여기서 잠시 남감리교 선교와 윤치호, 클라렌스 리드 선교사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자. 2002년 5월 10일 자 《기독교타임즈(The Christian Times)》에 김진형 목사가 「1897년, 남감리교회의 개성, 강원도 선교」라는 귀중한 정보를 담은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다.

1897년 1월 27일,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한 윤치호가 10개월 만에 귀국하는 배에 남감리교회의 내한 두 번째 선교사인 찰스 콜리어(고영복高永福, Charles T. Collyer)가 승선하고 있었다. 개화파 지도자였던 윤치호는 망명 중이던 1887년 4월 상하이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었다. 윤치호는 영국성서공회 선교사로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리드 선교사와 오랜 친분을 갖고 있었으며, 콜리어 선교사는 미국 남감리교 스미디(L. Smithy) 선교사와 결혼해 남감리교로 이적한다. 6개월 전에 한국에 도착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던 리드 선교사에게 두 사람의 친분 관계는 물론이고 감리교인이던 윤치호가 크게 도움이 된다. 윤치호의 적극적인 협조가 남감리교

선교에 힘을 더해준다는 말이다.

개성은 모든 선교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존심이 강한 개성 사람들이 좀처럼 해외 선교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누구도 개신교 해외 선교사들에게 선교기지 부지를 팔려 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이모부 이건혁(李建赫)이 개성에 살고 있어 그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1897년에 선교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1897년 11월 15일, 콜리어는 개성 선교기지를 책임지기 위해 떠나고 리드는 서울에서 계속 사역에 집중한다. 이렇게 개성에서 터를 닦아놓은 곳에 훗날 아들이 의료 선교사로 부임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은 입국한 지 6년 만인 1901년 부인의 병환으로 귀국하고, 그해 5월 17일에 부인은 저세상으로 떠났다. 리드 선교사는 1915년 10월 7일 캔터키주에서 66세로 소천했다.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다.

## 셔우드 홀

1893~1991



한국 결핵 퇴치 운동의 선구자. 초기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의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는 1982년 대한결핵협회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해 결핵 퇴치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그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혀 있는 아버지 윌리엄 홀과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의 묘, 못다 핀 채 세상을 떠난 여동생 엘리자베스와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 프랭크의 묘지를 방문했다.

일정을 마치고 셔우드 홀은 1894년 4월 6일 아버지 윌리엄 홀의 의료 선교사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 예배 시간에 참석해 눈물을 글썽

이면서 이런 당부를 남겼다.

I am still love Korea. ...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미국인이고, 아버지는 캐나다인이었는데 셔우드 홀이 노년에 밴쿠버에 머물렀던 것으로 봐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셔우드 홀은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윌리엄 홀이 첫눈에 반한 사람을 따라서 서울에 의료 선교사로 입국한 날이 1891년 12월이고, 이듬해 6월 결혼해서 나온 아들이 셔우드 홀이다. 아버지가 청일전쟁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저세상으로 떠난 시점이 1894년 11월 24일이다. 딱 1년 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살아왔다. 셔우드 홀의 인생은 조선이란 나라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셔우드 홀이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기로 결심한 데는 어머니가 친자식처럼 키워서 미국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한국 최초의 의사이자 여의사였던 박에스터가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어머니가 진정 아꼈던 제자이기도 하지만 자신과는 피붙이 이모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평양 외국인학교를 다녔고(1900~1908), 토론토의과대학을 졸업(1923)했다.

1926년 4월 19일, 미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아내 마리언 보텀리 홀

(Marian Bottomly Hall, 1896~1991)과 내한해 7월부터 해주구세병원(일명 노튼기념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한다. 이 병원은 의료 선교사 아서 노튼(Arthur Holmes Norton)이 어머니를 기념해 지은 시약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셔우드 홀은 미션 스쿨인 의창(懿昌)학교 교장과 운산금광 담당 의사로도 활동을 했다.

1920년대 한국에서는 폐결핵이 급속히 늘어났다. 결핵에 걸리면 치유가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이었다. 셔우드 홀이 결핵 퇴치 사업에 심혈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결핵은 다른 나라에서는 20명에 한 사람 꼴인데, 한국에서는 5명 중 한 사람 비율로 희생자가 난다. 일단 병균이 침투하면 한국인은 병을 피할 수 없는 희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결핵은 불치의 병으로 ‘부끄러운 병’이며, 악귀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운명적으로 받는 벌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요양원은 치료뿐 아니라 계몽과 교육 목적에서도 꼭 필요하다.

1928년 10월 27일, 셔우드 홀은 해주 교외 왕신리에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해주구세요양원을 건립하고 결핵위생학교를 설립한다. 개원하던 날 “나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 이는 조선의 고통받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 새 시대의 막이 열리는 극적인 순간이다”라고 감격을 표했다. 이 요양원은 결핵 치료,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계몽 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53년 11월 6일, 순수 민간단체인 대한결핵협회가

창설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병원 건립에는 미국 감리회의 도움과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다. 1933년에는 어머니를 기념해 해주구세요양원 안에 로제타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한다. 1951년에 사망한 로제타 셔우드는 분신과 다름없는 아들이 의사가 되어 사랑했던 남편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했을까! 1930년대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에는 안경을 낀 인자한 모습의 중년 셔우드 홀 의사, 며느리, 손자 둘,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이 함께한 장면이 담겨 있다.

셔우드 홀이 고민했던 한국의 결핵 문제는 오늘날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00년 전과 다름없이 오늘날도 결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FK 2008년도 10월 방문 팀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면서 “현지인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환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결핵 환자 한 명은 평균적으로 10~15명의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데 2009년 한 해만 하더라도 “최소 3만에서 5만 정도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되거나 죽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셔우드 홀은 결핵 요양소가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모금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그 아이디어는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면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구입하던 크리스마스실이다. 결핵 요양소를 위한 운영비 마련과 결핵 계몽을 위해 발행되는, 남대문을 그린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실은 1932년 12월 3일에 발행되었다. 셔우드 홀은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를 고민한 끝에 첫 크리스마스실에 거북선을 넣

고자 했지만, 일제가 거부하는 바람에 남대문으로 변경되었다. 남대문을 크리스마스실에 넣는 과정에서 당국과 알력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실은 9회 발행(1932~1940)되었다.

셔우드 홀의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일제는 1940년 8월 범 죄자란 누명을 씌운 다음 10월에 열린 재판에서 3년 징역형과 벌금 5,000엔을 선고한다. 독립군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누명을 쓰고 이 땅을 떠나야 했다. 1941년 11월 한국을 떠나 인도에 부임해서 결핵 퇴치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은퇴(1963) 후 캐나다에서 자선 의사로 봉사하다가 1991년 4월 5일 밴쿠버에서 98세의 일기로 사망했으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잠들어 있다. 아내 마리언 보텀리 홀 또한 같은 해 9월 19일에 타개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잠들어 있다. 묘비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로마서 14:8)

셔우드 홀 슬하에 프랭크 셔우드 홀(Frank Sherwood Hall)과 필리스 홀 킹(Phyllis Hall King) 등 자녀 4명이 있다.

---

## 초기 순교자들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물질에서 나오는 병균, 끊임없이 암반 위 토양층 아래로 스며드는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병균과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1891년, 의료 선교사로 부임했던 찰스 캐드왈러드 빈턴(빈돈賓頓, Charles Cadwallader Vinton, 1856~1936)이 북장로교의 선교본부 총무 엘린 우드에게 보낸 선교 보고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19세기 말 조선의 위생 상황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는지를 상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조선에는 전염병이 매우 흔한 현상이었다. 매년 1,000~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동산의료원 전신인 대구제중원을 설립한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에 의하면 제중원 개원 당시 대구 일원 인구의 90%가 절대 빈곤층이었으며,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귀신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에 선교사로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일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일은 자신의 선택이기에 그렇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자마자 조선의 위생 상태를 보고 경악한 나머지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1888년 3월 서울에 도착한 북장로교 파송 의료 선교사 부부인 윌리엄 가드너와 사라 가드너는 헤론 의료 선교사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급히 돌아가 버렸다. 서울의 위생 상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탓이다. 1888~1891년 3년 동안만 하더라도 질병으로 4명의 선교사가 사임하고 2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2명은 병가를 기록할 정도로 초기 선교사들은 전염병과 싸워야 했다. 1890년 4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장로회의 헨리 데이비스(Henry J. Davies, 1858~1890) 선교사가 부산으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천연두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다. 1887년 내한해 메리 스크랜턴을 도와 이화학당 설립에 기여한 로드와일러는 이화학당 2대 학장을 역임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귀국(1899)하고 만다.

1887년 10월 내한해 활발하게 보구여관을 운영하던 여성 의료 선

교사 메타 하워드 박사 역시 질병으로 사임(1889)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훗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75~100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기후, 지나친 업무 등이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회고한다. 제중원 원장 헤론의 아내는 산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6개월간 사경을 헤매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헤론은 이질로 사망(1890)하고 만다. 언더우드 부인은 심한 관절염 때문에 부부가 안식년(1891)을 맞아 떠나야만 했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도 과로와 함께 닥친 이질로 사망(1894)하고 만다.

## 빈턴의 가족들

1891년 4월, 부인과 함께 내한한 빈턴은 헤론에 이어 3대 제중원 원장(1891년 10월~1893년 6월)을 맡았다. 제중원 원장을 사직한 다음에는 개인 진료소에서 진료를 보며 평양, 의주, 원주, 만주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전개하기도 했다. 제중원 원장을 그만두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중첩되었다. 병원 내에 예배실 개설과 전도 활동이 불가하다는 점, 빈턴의 고자세와 개인 진료소 운영 등이었다. 빈턴의 사직으로 제중원이 위기에 처해 지금도 그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육체를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제중원을 사임하고 1893년 11월 자택에서 진료소를 연 다음 복음 전도에 힘을 쏟는다.

1897년 4월 1일부터 최초의 기독교 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The Christian News)》 편집인 겸 실제 책임자로 일했다. 이 신문 2부가 왕실에 전달되고 나서 정부가 460여 부를 구입해 서양 문명을 계몽

하기 위한 용도로 관청들에 보급했다. 전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재  
봉들을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성서공회 건물을 이용해 벽지 수입상  
을 하기도 했다. 1904년에는 부산 나환자 실태 조사 위원으로 활동  
했으며 부산 나병원 설립에도 기여했다. 1901년부터 《코리안 필드  
(Korean Field)》라는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1905년부터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월간 정기 간행물이 된다.

빈턴은 조선 땅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4살짜리 아들 캐뒤  
(Cadwy)와 1살인 월터(Walter), 막 태어난 토미(Tommy)를 잃으면서 아내  
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된다. 마침내 1903년 12월 4일에는 부인 레  
티샤 빈턴(Letitia Coulter Vinton, 1873~1903)까지 잃는다. 불행은 여기서 끝  
나지 않았다. 1908년에는 딸 메리 빈턴(Mary Blanchard Vinton)도 잃고  
만다. 지금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가면 아무런 설명 없이 큼  
직하게 ‘CADWY, WALTER, TOMMY’라는 글자가 새겨진 아이들  
의 묘비를 만날 수 있다.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다. 다른 것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데 선교사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  
다. 아버지가 선교사 직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 생명들을 안  
락한 미국 땅에서 얼마나 꽃피울 수 있었을까! 결국 빈턴은 선교사  
를 사임(1908)하고 귀국한다. 그 삶이 어떠했을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아마도 살아도 살았을 것 같지 않다. 빈턴은 뉴욕에서 1936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빈턴 의사의 선교 편지 1891~1899』(쿰란출판사, 2015)을 펴낸 김인수  
교수(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총장)는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빈턴의 편지를 번역해서 출판한 이유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그가 치른 값비싼 희생에 대해 한국 교회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괄목할 만한 업적을 못 남겼다 해도, 가족 네 명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한국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한국 교회가 잇는다면 이 일은 배은(背恩)이다.

## 안나 야콥센(1868~1897)

많은 사람이 이곳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야콥센의 묘와 추모비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그녀는 제중원에 봉직하기 위해 한국에 온 최초의 정규 간호사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질에 걸렸으며 뒤따라 간농양을 앓고 수술을 받았으나 별세했습니다. 한국에 봉직한 기간은 짧았으나 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926년 6월 1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한 예비슨 제중원 원장이 함께 일했던 야콥센을 추모하는 말이다.

야콥센은 한국에 내한한 최초의 정규 간호사로, 북장로교의 파송으로 1895년 4월 6일에 내한했다가 1897년 1월 20일(29세) 세상을 떠났다. 안나 페트리아 야콥센(아각선雅各善, Anna Peterea Jacobson)은 노르웨이 출신으로 루터교회를 다니다가 장로교회로 전입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해외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은 14세 무렵이었다.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해 기도하고 도우면서 해외 선교를 결심

한다. 부모에게 의사를 밝히자마자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는데 부모는 야콥센의 뜻을 꺾으려고 결혼을 서둘게 된다. 결국 22살(1890)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만다. 가정부와 요리사 같은 허드렛일을 하면서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메인주 포틀랜드 소재 메인제 너털병원 간호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밟으면서 1894년 5월 13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해외 선교사 파견을 간곡히 요청한다.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간호사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마지막 한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야콥센에게 기회가 주어진 배경에는 1894년 9월 말, 에비슨 제중원 원장이 미국 선교본부에 한국인 간호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가 2명을 시급히 파송시켜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 야콥센에게 기회가 돌아간 것은 에비슨의 내한과 관련이 깊다.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1893년 4월에 캐나다를 떠나 11월에 제중원 원장이 된 에비슨 선교사는 2대 원장인 헤론의 죽음과 3대 원장인 빈턴의 사직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된 제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제중원의 기틀을 바로잡고 조선 정부에 의한 국립병원 체제를 선교부 주도 체제로 바꿔놓게 된다. 또한 의학 교육 정상화, 병원 체제 정비, 병원 이전 및 신축 등을 추진한다. 간호 교육도 시작하는데 제중원을 중흥시키고 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시킨 주역으로 꼽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에비슨이 요청한 두 전문가로 파견된 사람이 간호사 야콥센과 여 의사 조지아나 휘팅(Georgiana Whiting, 1867~1952)이다. 북장로교가 두 사람을 파견한 중요한 목표는 의료 업무 지원은 물론이지만 더 큰 목표는 간호사 양성이었다.

야콥센은 재동(현 헌법재판소 자리)에서 1886년 구리개(현 을지로와 명동길 사이의 5,036평)로 이전한 구리개제중원에서 에비슨 병원장을 도왔다. 강인한 의지와 헌신적 봉사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에비슨 원장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일한 야콥센에 대해 각별한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청일전쟁으로 부상자들이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1895년 여름에는 서울에 콜레라가 만연해 1만여 명이 사망한다. 1896년에 콜레라로 서울 인구 15만 명 중 6,152명이 사망한 까닭에 조선 조정은 크게 놀랐다. 조선 조정은 “살고 싶으면 서양 선교사들의 기독교병원을 찾아갈 것이며, 그들의 지침에 따르라”는 방을 시내 곳곳에 붙일 정도였다.

이때 야콥센이 ‘호열자 방역 총책임’을 맡은 에비슨과 휘팅 의사를 도와서 전력을 기울였다. 격무에 따른 과로와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겹치면서 이질에 걸린 야콥센은 그 후유증으로 결국 죽음을 맞는다.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치러진 장례식을 앞두고 《독립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미국 장로교회 병원에 병인 간검하던 안나 P. 제이콥슨이 본래 나위국(那威國) 여인인데 어려서 미국으로 와서 병원에 들어가 병인 간검(病人看檢)하는 학문을 배워 선교부에 가서 외국에 병원도 없고 병인 간

검할 줄도 모르는 인민에게 보내주면 자기 평생 목숨과 배운 학문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허비하겠노라고 청한즉, 선교부에서 이 여인  
 을 조선 제중원 병원으로 보내어 거기서 3년 동안을 조선 백성을 위  
 해 주야로 고생하고, 병든 사람의 행실을 옳게 가르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선에 빛나도록 일을 하다가, 더러운 것과 부정  
 한 음식과 깨끗지 못한 물을 어쩔 수 없이 조선서 먹고 지내더니, 작  
 년 여름에 이질로 죽게 되었더니 다행히 살아났으나 그 여독이 좋지  
 낫지 못해, 간경에 중기가 생겨 학문 있는 의원들이 힘껏 구완하려 하  
 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인즉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라. 한 달 동안을 앓다가, 이달 20일 오전 12시 30분에 세상을 버리  
 고 맑고 높고 지천한 영혼이 천상으로 갔으니, 이 여인은 조선에 있는  
 이보다는 매우 극락이나, 조선 인민에게는 크게 손해라. 부인의 장사  
 예절을 내일(22일) 오전에 원두우(元杜尤) 교사 집에서 거행할 터인즉,  
 누구든지 평일에 이 여인을 알던 이는 원 교사(언더우드) 집으로 와서  
 장사 예절을 참례하고, 마지막 한 번 조선 백성 사랑하든 이 얼굴을  
 보고, 산소는 양화진 외국 매장지(양화진 1묘역 아-1)라 거기까지 참례하  
 고 싶은 이는 다 가시오.

야콥센이 사망한 후에 간호사 양성 사업은 1897년 10월 내한하  
 는 에스더 루카스 실즈(Esther Lucas Shields, 1868~1941)에게 승계된다. 실  
 즈는 야콥센의 뒤를 이어 간호사 교육에 역점을 두고 간호사 제도가  
 발전하는 데 공헌한다. 세브란스의대 간호학교 초대 학교장(1906~1923)  
 을 역임했으며, 1936년까지 188명의 간호사를 배출했다.

## 루비 레이첼 켄드릭(1883~1908)

루비 켄드릭(Ruby Rachel Kendrick)은 1883년 텍사스 콜린카운티 플라노 출생으로 존 켄드릭과 케이트 엠마 바넷의 2남 2녀 중 셋째 딸이다. 캔사스여성성경학교를 졸업(1905)하고, 해외 선교사로 자원했다. 2년 동안의 훈련을 마친 다음 북텍사스엠프워스청년회(North Texas Conference Epworth League)가 후원하는 남감리교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이 조직은 1889년에 조직된 감리교의 청년 조직으로 18~35세가 가입할 수 있다.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난 루비 켄드릭은 서울에 9월에 도착했고 11월에 송도(개성)에 간다. 평양 대부흥의 불꽃이 전국을 휩쓸고 간 다음이라서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었고 부흥 운동의 중심지 가운데 한곳인 개성은 전도열과 교육열이 무척 높았다. 개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며, 아침 예배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쳤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루비 켄드릭의 헌신과 업무에 대한 열의 덕분에 많은 한국인은 젊고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 선교사를 신뢰했다. 그러나 1908년 6월 9일 급성맹장염이 발병하자 서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지만 8월 15일 사망하고 만다. 불과 25세의 나이로 저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병에 걸리기 얼마 전 친구들에게 보낸 한 편지에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라고 썼는데 이 문장이 묘비명이 되었다. 사망 전에 쓴 편지는 태평양을 건



너 1908년 여름 북텍사스앰위스청년회 연회 모임 때 전달되어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자리에 ‘켄드릭 사망’이란 전보가 서울에서 날아들었다. 회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루비 켄드릭의 모범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은 회원 20여 명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기로 맹세했고, 이 중 3~4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루비 켄드릭의 죽음은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를 기념해 만들어진 루비 켄드릭 선교 장학금은 지금도 퍼킨스 신학교에서 수여하고 있다.

---

## 못다한 이야기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는 약 170기가 있다. 저마다의 사연은 한편의 책으로 담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이곳에 묻히지 못하고 평양 등지에 묻힌 분들도 꽤 많다.

미주리 출신으로 오번신학교를 졸업(1901)하고 미주리주 워싱턴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파송된 월터 존슨(Walter Virgil Johnson, 1873~1903) 선교사가 있다. 항해 도중에 컷병에 걸린 부인 에밀리 존슨(Emily Hartman Johnson, 1876~1903)은 고베에서 귀 수술을 받고 그곳에서 사망했다. 홀로 내한한 월터 존슨 목사는 전도 활동을 준비하다가 천연두에 걸려 서울에서 죽음을 맞고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혔다. 30세 때 일이다. 묘비에는 '죽도록 충성을 다했느니라

(Faithful unto death)'가 기록되어 있다.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1888)한 다니엘 기포드(기보슈普, Daniel Lyman Gifford, 1861~1900)는 전도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방면에서도 뛰어난 전도자였다. 『한국에서의 일상(Every-Day Life in Korea)』(프레밍 H. 레벨사, 1898)을 출판했다. 서구인들에게 한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역사, 생활, 결혼, 조상 숭배, 유명한 산행, 선교 역사, 선교사 생활, 서울에서의 교육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사진과 함께 책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 사랑이 각별했다. 언더우드학당, 육영공원에서 교사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새문안교회에서 목회 활동(1888)도 했다. 1890년에는 정신여학교 2대 학장인 메리 하이든(Mary E. Hayden, 1857~1900)과 단란한 가정을 꾸린다. 1900년 4월 10일, 다니엘 기포드는 남부 지방을 순회 전도 여행하다 이질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39세 때 일이다. 부인 하이든도 충격으로 그해 5월 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따라가고 말았다.

안나 밀러(Anna Miller Reinecke Miller, 1865~1903)는 1892년 11월 15일 북장로교 선교사인 남편 프레더릭 밀러(민로아閔老雅, Frederick Scheiblin Miller, 1866~1937)와 함께 내한했다. 남편 프레더릭 밀러는 정신학교를 책임지기도 하고 연동교회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며, 충북 청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44년 동안 활동한 전도자다. 1905년 찬송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588장)를 비롯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96장), 「친애하는 이 죽으니」(21세기찬송가, 294장), 「주의 말씀 듣고서」(204장), 「맘가난한 사람」(427장) 등을 작사 작곡했다. 안나 밀러는 1903년 6월 17일 38세로 사망했다. 첫째 아들 프레드 밀러(Fred S. Miller, 1898~1899)

와 둘째 아들 프랭크 밀리(Frank Miller, 1902~1902)도 사망했다. 즉 큰아들은 8개월, 둘째는 출생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양화진 1묘역사-16, 17, 18).

베타 핀리 헌트(Bertha Finley Hunt)는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내한한 윌리엄 헌트 부인으로 남편보다 한 해 뒤인 1898년 10월에 내한한다. 남편 헌트는 황해도 일원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재령 선교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녀는 1905년 평양에서 하늘나라로 떠났다.

윌리엄 맥클리 전킨(전위렴全緯廉, William McCleary Junckin, 1868~1908)은 1892년 남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 내한한 인물이다. 군산에 선교기지를 마련하고 전라남도에 전도 활동과 교회 설립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선교사다. 부인인 메리 레이번 전킨(전마리아全馬利亞, Mary Leyburn Junckin, 1865~1952)은 1904년 9월 1일 선교사 초대 교장을 지냈다. 전주기전여학교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윌리엄 맥클리 선교사는 1908년 1월 2일 폐렴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으며, 군산(이후 전주 선교사역 묘역으로 이장)에 묻혔다. 부인은 1935년 4월까지 한국에서 활동했으며 묘소는 버지니아주 렉싱턴시의 스톤월 잭슨 기념 묘지에 있다. 슬하에 8남매가 있었다. 거의 모든 가족이 스톤월 잭슨 기념 묘지에 묻혔다. 세월의 흔적이 완전한 부인의 묘비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다. ‘메리 레이번 전킨 1865~1952, 윌리엄 맥클리 전킨 1868~1908. 한국에서 선교 사역. 전킨 목사는 한국 군산에 묻혀 있다.’

또 한 가지 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것은 전주에 있는 전킨의 묘비 앞쪽 바닥에 직사각형 돌이 3개 있는데, 비바람에 글씨가 거의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8남매 중에서 일찍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 3명이다. 큰아들 조지(George, 1893~1894), 둘째 시드니(Sidney, 1899~1899) 그리고 셋째 프란시스(Francis, 1903~1903)의 이름을 새긴 묘석이다.

한편 남감리회가 최초로 파송한 클라렌스 프레더릭 리드 부인은 1896년 8월 14일 상하이에서의 17년 선교 사역을 접고 한국 땅을 밟는다. 그러나 리드 선교사의 아내인 메리 리드는 병환 때문에 1899년 4월 20일에 귀국하고, 1901년 5월 17일에 미국에서 사망한다. 외동아들 휘트먼 리드는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내한(1907)해 개성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친다. 아버지 클라렌스 리드 목사의 적극적인 현금 운동에 힘입어 버지니아주 아이비에게서 5,0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이 돈을 기반으로 휘트먼 리드는 개성에 아이비기념 병원(현 개성도립아동병원)을 설립했다. 그는 1928년에 귀국한다. 2007년에 지은 지 100년이 되는 개성아동병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주기 위한 모금 운동이 미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미국 내 민간 구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적이 있다.

그 시절 선교사 아이들과 아내들의 희생이 컸다. 이 땅에서 삶이란 것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지만 먼 이국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1894년의 여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난히도 불안하고 더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 폭염까지 한반도를 달구었던 시점이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베이징 궁궐까지 난입하고, 한반도는 혼비백산해 백성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미 해

병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자국민들에게 꼼짝 말고 집 안에 머물도록 명령했다. 당시 상황을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부인은 이렇게 증언한다.

전쟁 동안에는 모두 서울에 남아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몹시도 무더운 여름날 울안에만 갇혀 지내던 선교사들이 병에 걸렸다. 전킨 목사 부부도 우리 집에서 여름을 보냈지만, 아이 하나가 죽고 말았다. 이는 몇 주 동안의 더위에 희생된 사례다. 언더우드와 우리 아들도 여름내 앓았다. 에비슨 거의 2~3명, 알렌 거의 2명, 아펜젤러 거의 2명도 마찬가지였다. 스크랜턴 거의 아이들은 열에 지쳐서 쇠약해졌다. 홀 의사는 열병에 걸려 죽었다. 빈턴 부부의 아기(CADWY, WALTER, TOMMY)도 그해 여름에 죽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에는 “일군과 청군이 맞붙어 서로 싸워 서울에서 의주까지 병기가 통과하는 곳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 등은 서울로 피신하고, 동학군은 산골로 도피하니”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 6장 후기 미국 선교사들

**해방 이후에도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재건과 부속기관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크게 더했다.  
선교사들은 미군정에 협조하고  
적임자를 추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범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재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미국 선교사 수는 점점 줄어든다. 일본과의 전운이 고조되는 1940년을 전후해 일제가 교회 탄압을 더욱 강화하면서, 주한 미국총영사 마치(G. March)는 자국민에게 조기 철수하라고 권고한다. 이에 따라 1940년 11월 16일 미국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마리포사호(SS Mariposa)를 타고 미국 선교사와 자녀 219명이 한국을 떠났다. 1940년 말이 되면 90%의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난다. 해방이 되자 미군정은 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풍습에 익숙한 선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미군정의 하지(John Reed Hodge, 1893~1963) 중장은 1945년 11월 미국 정부에 선교사들의 귀환을 요청한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선교 단체들로 구성된 '해외선교대회 한국위원회'가 1945년 10월 15일 회합을 열고 한국 선교를 재개하기로 한다. 이후 각 교단이 속속 한국에 선교부를 세우고 교회를 재건하고 부속기관들을 재조직하는 데 힘을 더한다. 특히 미군정을 도왔던 선교사 2세들이 추천한 인물은 대한민국의 출범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이작 포스터

1925~2010



그분은 56년 동안 한국인을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사시다 가셨습니다.

‘표수다’라는 한국 이름이 더 어울리는 아이작 포스터(Issac Foster) 선교사는 캔터키주 앰포리아 출신이다. 1941년 무렵 고향 마을에 열린 부흥회에 유명한 부흥사인 아트 윌슨(Art Wilson)이 방문하는데, 그 부흥회에서 회심하게 된다. 17세 때 일이었다.

캔터키주의 넓은 평야에서 농부로 살고 싶었던 포스터에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삶은 불현듯 다가왔다. 농사일을 하는 재미를 술술 느낄 무렵, 커다란 쟁기를 끄는 말을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자 놀란 말이 이리저리 뛰쳐나가는 경험을 한다. 어찌할 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뱉고 말았다.

주님, 살려만 주신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말들은 운운해진다. 말들을 마구간에 집어넣은 포스터는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자로 나서게 된다.

농사일을 접고 텍사스침례신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하다가 제인 딜 모어를 만나 결혼한다. 1948년 5월(24세), 포스터 부부는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파송 교회는 텍사스주 캐슬베리 침례교회였다. 그 해 8월, 이후에 합류한 로저 선교사와 선교 활동을 열심히 펼친다. 1950년에는 2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던 차에 미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선교 현금 300달러와 들어 있던 편지에는 “한국 땅에서 성서침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성서침례교회는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회에 뿌리를 둔 곳이다. 자유 신학의 영향력을 배제한,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으로 1950년에 출범했다. 미국에만 4,000개 교회가 속해 있으며, 한국에는 200개 교회가 속해 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 10월(28세)에 한국 땅을 밟았는데, 가난과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을 목격하는 순간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장소’임을 확신한다. 포스터는 미국의 국제성서침례교회(BBFI)가 파견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며,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책

배스킨(Jack Baskin)과 온시 휘커(Onsy Whicker) 등과 힘을 합쳐 한국에서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한다.

1955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미군을 포함한 6명이 모여서 말씀 중심의 성서침례교회를 조직한다. 그해 9월, 행당동에 722평을 구입해 선교사 다락방에서 예배를 시작한다. 이곳이 첫 교회인 행당성서침례교회다. 미군들이 사용하던 임시 막사용 나무로 한국에서 첫 성서침례교를 세웠고, 이 건물을 증축해 지금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암성서침례교회(1957)와 검암성서침례교회(1958)를 세운다. 성서침례신학교(1967)를 공동으로 세운 다음에도 아낀 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예배당을 지을 때는 승용차를 팔았고, 교인들이 사다준 TV나 선풍기는 포장을 뜯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검소하고 헌신적으로 살았다.

어려웠던 시절에 포스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김희옥(부산성서교회) 목사는 이렇게 회고한다.

중고교 시절 포스터 선교사님이 학비를 대주신 덕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62년 무렵,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때 저희 가족을 교회에 머무르게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른이었고 그분을 보고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아들 폴 포스터(Paul Foster) 목사는 발인 예배에서 “검소했던 아버지는 옷은 옷일 뿐이라면서 한번 사면 50년 동안 입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어렸다. 아내 제인은 2006년 8월에, 포스터 선교사는 2010년 6월 4일에 처음 예배당을 세웠던 사택에서 하늘나라로 떠났다. 두 사람은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예천에 묻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는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이 말씀처럼 초기 선교사로 파송된 그의 헌신이 오늘날 200여 개의 성서침례교단 교회가 생겨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 어니스트 와이스

1908~1984



오늘날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완성을 위해 총책임자로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며 근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출신인 재미 의사 허정의 『알렌과 제중원 의사들』(2012)에서 볼 수 있는 어니스트 월터 와이스(Ernest Walter Weiss) 박사를 위한 헌사다. 1904년부터 1957년까지 남대문 맞은편에 있었던 세브란스병원은 수많은 사람의 기부가 모인 작품이다. 세브란스기념병원(루이스 세브란스 기증, 1904), 흉곽병원(아들 존 세브란스 기증, 1912), 간호학교와 기숙사(1912), 병실과 학교 사무실 건물(딸 엘리자베스 세브란스 기증, 1928), 치과진료소(미국치과의사협회, 1931), 기초 과학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증가하는 환자 수와 노후화된 시설 탓에 신촌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첫 도움을 손길을 내민 곳은 미8군이었다. 미8군은 계약 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거액에 해당하는 건축 재료 40만 달러 이상의 의료 장비, 기금 7만 달러를 제공할 정도로 신촌캠퍼스 건립에 이바지했다. 이때 미8군 맥스웰 테일러(Maxwell Taylor, 1901~1987, 한국 재직 1953~1955) 참모장의 판단이 세브란스에 큰 힘이 되었다. 미 전몰장병 추모탑처럼 요란스런 기념비 대신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탐색하다가, 결핵 퇴치를 위한 기념 병원 건립을 결정한 것이다.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세브란스 구내 건축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남대문에서 신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 미8군기념홍곽병원에다 대형 병원, 학교 건물, 간호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건물 신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이 대역사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어니스트 와이스다.

어니스트 와이스는 1908년 텍사스의 가난한 농부의 일곱 아이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감리교 목사였으며, 친척들도 목사가 많다. 와이스 박사는 신시내티 의과대학을 졸업(1937)하는데, 힐다 세이터 와이스(Hilda Weiss, 1915~2013) 역시 같은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다. 두 사람은 결혼(1938)한 다음 감리교 파견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서 일한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와이스 박사는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1954년 4월부터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로 부임한다. 물론 감리교 파송 의료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머문 것이다. 와이스 박사가 세브

란스병원에 근무한 기간은 1954년부터 1975년까지다. 부인과 아이들(베아트리체, 베티)은 1955년에 입국한다. 힐다 와이스의 자서전인 『힐다의 책: 끝까지 믿음으로, 20세기 중엽 중국과 한국에서의 의료 선교사』(Faithful to the End: American Medical Missionary to China and Korea in the mid-21 century)』(2008)에서는 거의 절반을 한국에 할애하고 있다. 전쟁 이후의 한국이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엿볼 수 있다.

와이스 박사는 부임과 함께 진료와 교육, 재한 외국인 치료를 담당했다. 1954년 9월부터 그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일은 미8군과의 교섭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건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간호부에 근무하던 부인은 수많은 방문객을 치러야 했던 일을 두고 “우리 집은 기차가 없고 침대만 있는 기차역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두 사람은 건축 모금을 위해 타자기로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기관들에 모금을 호소하는 편지를 써야 했다. 그 양이 무려 1,500통이었다고 한다. 손가락이 부르트는 일은 다반사고 과로와 고혈압으로 코피를 쏟을 때도 많았다. 결국 과로가 겹친 나머지 1975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돌아가 요양하다가 1984년(76세)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뚝 선 초현대식 세브란스병원이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힐다 와이스는 자서전에서 경비 조달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환을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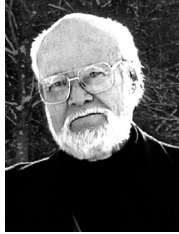
공식 환율(저환율 정책)이 문제였습니다. 암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달러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건축을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친구들이 희생해서 보내준 돈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식 환율로는 1달러에 고작 50센트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환율 때문에 고민을 너무 한 나머지 와이즈 박사는 위궤양으로 출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여의사는 며칠 동안 와이즈 박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환율 문제로 3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미 의사 허정은 “1982년 6월 5일에 신촌캠퍼스 개원이 가능했던 것은 미8군과 수많은 해외 종교 단체의 지원, 국내외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관심 있는 동창들 외에 이름 없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기독 박애 정신의 산물로 건축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힐다 여사의 자서전 122쪽에는 개원식 날 미8군 멜로이(Meloy) 장군의 환영 인사 원고, 즉 ‘세브란스-미8군기념흉곽병원(Eighth U.S. Memorial Chest Hospital)’이란 연설 주제가 연설문의 상단에 있다. 그만큼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신축하는 데 미8군의 기여분이 중요한 몫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존 로손 시블리**

1926~2012



그 어려웠던 시절, 그분은 거제도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었습니다.

1960년만 하더라도 지방 도시에는 변변한 의료 시설이 드물었다. 당  
시 필자의 고향인 통영의 의료 시설을 염두에 두면, 인근에 있는 거  
제도의 상황은 더 나빴을 것이다. 그곳은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섬이  
었다. 그 엄혹한 시절을 살아낸 나이 든 거제 사람들은 지금도 흰칠  
한 키에 늘 웃는 얼굴이던 ‘닥터 시블리’를 기억하고 있다.

시블리(손요한, John Rawson Sibley)는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을 졸업  
(1952)하고, 1960년(34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내한했다. 시블리

박사의 한국 체류 기간은 20년이었는데, 크게 경북선교부의 대구동산의료원에서 일하던 전기(1960~1969)와 경남 거제도에 활동하던 후기(1970~1976)로 나눌 수 있다. 대구동산의료원에 재직할 때는 외과 의사로 진료 활동을 했다. 나환자를 위한 재활 마을 설립을 도왔고, 미국 나환자선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 나환자병원인 애락원에 내외과 병원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에 기독교병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구동산의료원의 하워드 모팻 선교사와 힘을 합쳐 미국의 교회와 독지가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수많은 편지를 보내는 일에 동참해 오늘날 동산의료원을 재정적으로 크게 도와주었다.

시블리는 누구보다도 한국의 의료 체제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특히 낙도와 오지의 의료 소외 지역에 관심을 갖고 1969년부터 거제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시블리를 거제도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시블리는 지역 사회 의학 사업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최초 인물이다. 지역 사회 의학 사업은 대도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로는 국민 보건을 관리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의학의 한 종류다. 시블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1년 동안 함께 일한 유승흠 박사(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그를 이렇게 평가한다.

닥터 시블리는 낙후된 농촌 지역의 험벗고 굶주리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챙기는 지역 사회 의학을 국내 최초로 시범 운영한 분입니다.

시블리는 1969년에 세계기독교협의회(WCC) 도움을 받아 ‘거제 지역 사회 보건 시범 사업(Kojedo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Pilot Project)’을 실행에 옮긴다. 무의촌 낙도 지역이던 거제도 하청 실전마을에 터를 잡고 흠집이 된 ‘실전병원(거제건강원)’을 1970년 말에 개원한다. 1차 진료는 물론이고 예방 접종, 피임법 계몽, 학교 방문 보건 교육, 민간 장학 사업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뛰어넘는 지역 사회 계몽 사업을 펼쳤다. 거제도 북쪽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등 50여 개 부락을 중심으로 예방, 진료, 재활 등 전 영역에 걸쳐 1차 보건 의료를 포함한 총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유승흠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 선구자』(한국의학원, 2011)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시 부산에서 충무(현 통영)행 배를 타고 2시간 반쯤 가 칠천도에 내려서 다시 나룻배를 타고 거제도 본섬으로 건너가야 했다. 전기도 없는 낙도에다 흠벽돌로 병원을 짓고 환자를 보았으며, X선 촬영은 발동기를 켜서 했고, 혈액 검사를 위한 원심 분리기는 손으로 돌렸으며, 프로판 가스로 돌리는 냉장고를 사용했다.

진료와 함께 보건 사업을 하려는데 담당할 예방 의학 박사가 없으니 1년만 현지에 와서 일해주기를 바라기에 필자는 결혼 직후 신혼 생활을 거제에서 했다. 초창기에는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 장기려 원장이 격주로 주말에 이틀씩 와서 진료를 지원했다.

이 시범 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지역 사회 의학의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서 전국의 의과대학에 지역 사회 의학 강좌가 개설되고, 의과대 학

생과 간호대 학생 실습의 거점이 되었으며 보건 진료원의 개념도 자리를 잡았다.

또한 시블리는 국내 최초의 농촌형 의료 보험인 ‘거제청십자의료 보험조합’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용했다. 1973년에는 해외 단체의 지원을 받아 고흔(상동)에 보건 지소 같은 병원을 지어 운영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거제백병원의 효시가 되었다. 시블리가 떠나고 난 다음 해인 1977년 6월 10일 하청면민들이 세운 ‘존 시블리 박사 기념비’가 칠천대교 입구 공원에 세워져 있다.

두 분께서 이곳에 머무른 지 8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대로 실천한 공이 크신지라 그 사람과 고마움을 길이 빛내기 위해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웠습니다.

부인 진 리 버틀러(손진희, Jena Lee Butler) 또한 하청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다. 염소를 길러 판 돈으로 ‘진희장학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공부를 지원해 혜택을 본 사람들이 수십 명을 넘었다.

시블리 박사는 한국을 떠난 후에도 태국과 네팔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한 후 1980년 태국 피난민 캠프 봉사, 1983년부터 네팔 의료 선교사를 거쳐 1986년 농장이 있는 뉴햄프셔주 에트나로 돌아와 다트머스-히치콕 클리닉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 은퇴했다. 1977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며, 2012년에 영면했다.

슬하에 2남 2녀(Don, Annie, Taz, Meg)가 있다. 장남인 도널드 시블리(손동만, Donald B. Sibley)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애니 시블리(손애희, Anne Sibley O'brien)는 『홍길동의 전설: 한국의 로빈후드(The Legend of Hong Kil Dong: The Robin Hood of Korea)』(2007, 아태문학상 수상),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Princess and Begger)』(1993) 등과 같은 작품으로 한국을 미국에 소개했다(<http://annesibleyobrien.com>). 손애희는 7살 때 한국으로 와서 서울, 대구, 거제도 등에서 13년을 살았던 경험이 한국을 비롯한 다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작가로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블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함께하게 된 한국계 세 사람(Hyun Hee, Young Chul Shin, Ben Han)이 있다.

## 호레이스 호턴 언더우드

1890~1951



150만 명의 시민이 사는 이 도시에 현재 물도 전기도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한국에 대해 좋은 말만 해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이 수복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던 1950년 10월 9일, 호레이스 호턴 언더우드가 미국의 친인척들과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간절한 바람이다. 언더우드 2세는 연희전문학교 창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장남으로 원한경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부인 에텔 여사는 1949년 3월 17일 남로당 계열의 학생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원한경은 뉴욕대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북장로교 선교

사로 내한(1921)했으므로 전기 미국 선교사에 속한다. 협성신학교 교장(1915~1935), 3대 연희전문학교 교장(1934)을 거쳐 1942년 5월 일본에 의해 강제 귀국하는 등의 경력으로 보면, 언더우드는 전기 미국 선교사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의 강제 출국에 대해 마지막까지 버텼던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아내와 함께 헌병대에 체포된 후 거의 마지막 선교사로 강제 출국당한다. 그렇지만 해방 후에 최초로 국내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다.

1945년 10월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까지 다른 선교사들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후기 선교사에 포함시킨다. 미군정기 3년(1945년 9월 8일~1948년 8월 15일)은 짧았어도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시기였다. 해방 후 일부 선교사들은 미군정의 정책에 따라 관료가 되거나 고문으로 일했다. 미군정 담당자들은 한국어에 능하고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선교사들의 중요성과 가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 준비 없이 한반도에 서둘러 진주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으로서는 마치 미리 결정적인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두기라도 하듯 한국을 잘 아는 선교사라는 인재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기막힌 사건들을 만나다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서 언더우드 2세의 역할이 중요했다. 원한경은 1945년 10월 미 육군성 통역 겸 하지 장군의 고문으로 돌아왔다. 연희대학에 복귀하는 시점은 1947년 10월이다. 이 기간에 그가 한 역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군정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세운 고등 교육기관



과 미국 유학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라는 초석 위에 우뚝 서는데 선교사들의 기여는 단순히 중요한 기여가 아니라 한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여였다.

태평양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언더우드 2세는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일하면서 조선 관련 임시 책임자로 활동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정보기관과 면담을 해서 한국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이때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미 육군부에 ‘한국의 주요 인물(Who’s Who in Korea)’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다. 해방이 되고, 언더우드 2세는 1945년 10월 26일 입국한다. 약 30명의 선교사가 1946년 말까지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장로교 계통이었다. 다수가 군정청에서 자문 및 통역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했다. 예를 들어 언더우드 2세가 속한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반공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언더우드 2세는 미군정에서 미소공동위원회 대표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1889~1973) 비서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데, 그는 해외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서 소련의 입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언더우드 2세는 해방 직후부터 반소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가 보기에 소련의 목표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굶어 죽게 한 잔인성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과 착취’하는 것이었다.

—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학위 논문, 2008년 8월, 256쪽

언더우드 2세의 관점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상당수 원로 선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언더우드는 1945년 11월부터 한국인을 미군정 관리로 채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정청 ‘인사조정 위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중요한 자리에는 자신과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을 추천한다. 언더우드 2세는 인재풀에서 능력과 신뢰도를 보고 추천했을 것이다.

최현중(서울신학대)은 「사회 자본으로서의 종교: 미군정기 관료 채용을 중심으로」(한국교회사학회 정기학술대회, 2017)라는 논문에서 “정일형(인사행정처장), 하경덕(과도입법의원), 오천석(문교부장관), 유억겸(문교부장), 최순주(조선은행장) 등 연희전문학교 관련 기독교계 인사들의 등용에 언더우드 2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미군정 경무부장을 거쳐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조병옥(1894~1960)의 천거도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후의 한국 사회가 자유 진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인재들이 내한 선교사들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천거나 추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생 국가의 앞날은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영어가 가능하고, 보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대거 미군정에 등용된 사례는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향후 방향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뜻한다.

## 로버트 윌러드 피어스

1914~1978



그분은 한국 고아의 아버지, 세계적인 대부흥사, 온 세계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을 지닌 선교 전략가, 가장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의 한 사람, 한국 어린이와 교회의 영원한 빛으로 그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은섭(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박사는 「밥 피어스와 한국 선교」라는 글에서 밥 피어스 선교사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밥 피어스(Bob Pierce)는 로버트 윌러드 피어스(Robert Willard Pierce)의 애칭이다. 어느 교단이나 기관을 통해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으며, 독립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 드문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지역도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고통받는 곳이 모두 선교 현장이었다. 일리노이주 포트 다지 출신(1914)으로, 파사테나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1942)를 받은 후에 목회 활동을 한다.

그의 해외 선교는 1947년 중국 쿤밍에서 시작되고, 인생은 쿤밍에서 일어난 두 사건으로 크게 바뀐다. 하나는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에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베스 알버트(Beth Albert) 여사가 선교회 도움이 끊긴 상태에서 120여 명의 나환자들의 자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독일 수녀 4명이 히틀러의 해외 송금 금지 조치에 따라 외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맹아 52명을 보살피고 있었다. 낮에 본 두 사건을 두고 애통해하던 중에 '사진을 찍어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록 필름 촬영을 이용한 선교를 시작한다.

또 다른 큼직한 사건이 피어스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 티나 홀케보어(Tena Hoelkeboer)는 4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미션스쿨을 방문해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은 어린 소녀가 집에 돌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자마자, 흠뻑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만다. 노년의 여자 선교사는 피어스 선교사에게 사연을 전하면서 그 여자아이를 안겨주었다. 마침 지갑에는 5달러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홀케보어는 "매달 5달러만 보내주면, 이 아이를 맡아 키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었다. 5달러를 내놓음과 동시에 원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바로 월드비전의 출범이다.

피어스는 행동하는 복음 전도자로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 특히

한국전쟁이 낳은 참화에 신음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 선교사다. 한국과의 인연은 1949년 9월부터 시작한다. 처음 내한한 이유는 남대문교회에서 주최한 부흥 전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50년 3월에는 대구, 부산, 서울, 광주 등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 정식으로 월드비전 국제기구를 출범한 것은 1950년 9월 22일 미국 포틀랜드다. 세계기독교선명회(WORLD VISION)를 설립하자마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와 함께 한국의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부터 시작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기로 한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죽게 되었구나. 한국에 다시 가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잡지의 종군 기자로 10월에 다시 돌아온 한국은 비참함과 고통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전쟁 영화를 제작하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한 운동을 한다.

1953년 5월, 한국 지부를 설립해 사회사업을 시작한다. 첫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은 전쟁미망인을 돕는 일이었다. 이때 동역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다. 한경직은 전쟁미망인과 유자녀를 돕기 위한 사업과 고아 구호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데 김은섭 박사는 “전쟁 중의 전쟁고아 사업은 밥 피어스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1956년 2월 28일)는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지는 혼혈아 고아원 개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수용되어왔던 혼혈 고아들을 위한 '선명회보육원'이 생기게 되었다. 상도동에 건평 60평에 3동으로 50여 명의 고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 개소식에는 주한 종교 대표들과 지난 25일 내한한 기독교 전도사 빌리 그레함 씨도 참석했는데, 이 보육원은 미국 오리건주의 독지가 홀트(농업) 씨에게서 기증받은 9,000달러로 건물을 마련하고 세계기독교선명회에서 운영할 것이라 한다.

피어스의 선행에 깊이 감동받은 손창환 보건복지부장관은 1958년 11월 3일에 “박사님의 끊임없는 노력은 한국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피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에서 시작된 불우 아동과의 결연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인이 한 달에 기금 8달러로 한 명의 전쟁고아와 결연하는 형태인데, 기존의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지원하는 사람과 지원받는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피어스는 한국의 나병을 치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1953년 8월 27일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남한 내에 한센병(나병) 환자는 6만 명으로 추정되며, 3만 명이 격리되어 국립병원 및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 번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유준 교수가 밥 피어스를 만나서 나병 치유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는데, 논의 장소에서 피어스 목사는 1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유준 교수가 놀란 나머지 “목사님은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라고 묻자 돌아온 답이 명답이었다. “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선택

곳에 사용하려는 것을 아시면 보내주실 겁니다.” 훗날 유준 교수는 “내 생애에 밥 피어스 목사처럼 위대한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한국이 나병 유행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적인 나병 모범 퇴치 국가가 되는 데 월드비전이 기여한 바가 크다.

피어스는 불우한 사람을 도우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특히 전쟁포로에게 전도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거제 포로수용소에서는 5개월 코스로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12개나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거제포로수용소에는 16만 4,000여 명이 있었는데, 인민군 가운데 6,000여 명이 회심했으며 130여 명이 엄선되어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었다.

밥 피어스는 한국인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부흥의 불길을 땀과 인물이기도 손꼽힌다. 또한 전쟁의 상흔에 힘들어하는 한국인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55년 9월, 2만 5,000달러라는 거액을 투입해 대대적인 전국 규모의 부흥회를 인도했다. 1956년 2월, 추운 겨울날인데도 이승만 대통령, 함태영 부통령, 각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 8만여 명이 모인 동대문운동장에서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1918~2018) 목사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 1957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에서도 역사적인 전도 집회가 있었다. 밥 피어스와 동행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전도 집회에서 많은 수의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오자 감격해했다.

내 생전에 사도 시대를 목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력히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 교회의 급성장은 피어스의 부흥 집회에 크게 빛을 지고 있다. 건물을 지으면 세월이 흐르고 나서 건물로 남는다. 하지만 사람의 가난한 심령을 채우는 일은 좀처럼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일을 밥 피어스 선교사가 해냈고 그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 피어스는 1967년(57세)부터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저세상으로 떠났다. 로스앤젤레스 그렌데일의 포리스트 기념 공원에 묻혔다. 묘비에는 삶이 그랬듯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을 그에게 주었다(ALL HE HAD CAME FROM GOD AND HE GAVE IT OUT OF HIS HAND)’라고 쓰여 있다. 부인 루스 피어스(Ruth Lorraine Pierce, 1917~2011)와의 사이에 세 자녀가 있다.



## 에버렛 스완슨

1913~1965



1952년 어느 겨울 새벽에 제가 서울 거리에서 본 것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밤새 얼어 죽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스완슨(Everett Swanson)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털어놓는다. 선교 여행을 위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전쟁 소식을 접한다. 한국에 파송됐다가 일본으로 피신한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에 갈 수 있었고, 외국인 선교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국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갈망했다”고 말한다. 어떤 때는 군인 2,800명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한 달에 4,000명 이상을 예수를 믿도록 도왔다고 한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 시내에서 미군 병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다. 인부들이 치우는 쓰레기 더미라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아이들의 사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시카고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절박한 마음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 중간 기착지인 시애틀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난다. 50달러가 든 봉투였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는 메모와 함께 1,000달러짜리 수표가 들어 있는 우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완슨 목사는 50달러와 1,000달러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건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한다. 아내와 친구들, 친인척들이 적극 도와주고 격려해주었다.

특히 동역자인 의사 구스타브 험월(Gustav Anders Hemwall, 1908~1998)과 부인 헬렌 험월(Helen M. Moore Hemwall, 1911~2012)은 의료품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60년 동안 가정의로 개업 의사였던 거스 험월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의 부고에는 “크리스천 의사, 박애주의자, 최상의 가정적인 남자였다”라는 기록이 실렸다.

1954년부터는 개인과 가족, 교회가 한국의 고아를 위해 소액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일대일로 결연하는 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마련한 기부금은 한국의 고아들에게 음식, 의류,

쉽터, 의약품, 성경 공부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처럼 작게 시작한 운동이 1956년에는 아내 미리암(Miriam Edwards Westerberg, 1915~1994)과 함께 비영리 단체인 ‘에버렛스완슨복음주의재단’으로 발전한 뒤 1963년부터 ‘컴패션(Compassion, Inc.)’으로 개명한다. 회장은 스완슨 목사, 부회장은 미리암 스완슨, 총무 겸 재정 담당은 구스타브 험월 박사였다.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의 어원은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compassion]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한국은 컴패션에게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첫 프로젝트는 겨울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내복, 신발, 양말 등을 제대로 입히기 위한 ‘롱 언더웨어 프로젝트’였다. 6,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컴패션은 1993년 한국이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 철수할 때까지 보육원 1,200개를 후원하고 한국 어린이 10만 명을 키워냈다.

컴패션이 후원하던 영도의 서울애린원에서 성장한 하명근(부산 새소망장애인교회)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저는 1951년 9월 전쟁 중에 태어났고, 온전한 집 안에서 성장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린원의 드림통에 든 분말 우유는 저에게겐 성찬

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아동자선병원에서 오른쪽 안구에 생겼던 1cm 크기의 반점을 빼는 수술도 했습니다. 제때 수술 받지 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 미국 신문은 ‘کمپە션’이란 용어 대신 “한국 고아 프로그램의 창립자, 여기에 잠들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렇듯 한국전쟁이 کمپە션이 출발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스완슨 목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생(1913)으로 신학 과정을 마치고 7년(1944~1950) 동안 센트럴 애브뉴 침례교회에서 사역한 후 1950년 7월 22일 선교사로 떠난다. 5명의 어린 자녀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아프리카에서 일본까지 3만 7,000마일(5만 9,546km)의 모험 길에 오른다. 선교 여행 중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내했다. 1961년에는 108개 보육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

2012년, کمپە션 창립 60주년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کمپە션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르완다, 케냐 등 26개국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2003년부터 지원국으로 재출발하면서 한국کمپە션(Compassion Korea)으로 출범했다. 그날 행사에서 많은 사람의 가슴에 남긴 메시지는 스완슨 목사가 평소 즐겨 강조하던 이야기다.

한 어린이의 손을 잡은 제게 한 고아원을 세우게 하시고, 한 고아원을

세운 저에게 한 나라가 다시 서는 것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컴패션 홈페이지에는 조직의 발전 연혁을 아주 꼼꼼하게 소개해놓았다. 특히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시는 이야기들과 사진들로 가득 차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상기시켜주는 사진들에는 가난했던 지난날 우리 모습을 배경으로 올망졸망한 한국 아이들과 함께 있는 선한 목자 같은 젊은 날의 스완슨 목사를 볼 수 있다. 스완슨 목사는 1965년 시카고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어빙 공원묘지에 묻혔다. 아내 미리암도 곁에 있다.

**칼 웨슬리 주디**

1918~2008



주디선교기념장학사업회는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본 사업회는 연세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디 선교사의 위업을 기념하고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장학회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공지한 장학생 선발 공고의 시작 부분이다. 많은 선교사의 삶이 한 알의 밀알 같아서 썩은 다음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맺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 어느 선교사의 삶을 기념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주디(Carl

Wesley Judy) 선교사의 삶은 특별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미국 연합감리회 지원으로 칼 웨슬리 주디 의료 선교사와 캐나다 선교연합회 플로렌스 제시 머레이(모레리, Florence Jessie Murray, 1894~1975) 선교사가 힘을 합쳐 만들어진 원주연합기독병원으로 시작됐다. 두 선교사는 설립 공동 대표라 부를 수 있다. 모레리 의료 선교사는 1923년에 내한하고 일제에 의해 추방(1942)당했다가 다시 내한(1947)한 인물로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장(1949), 세브란스병원 부원장(1952)을 거쳐 원주기독병원 산과 역과나병원 개설(1958)을 담당했다가 귀국(1961)했다. 모레리 선교사와 함께 일했던 문창모(1907~2002)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환자들의 공동체 경천원 경영은 캐나다 여선교사 모레리 박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70에 가까운 나이에 매일 환자들을 손으로 만져주고 물로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수술해주는 등 헌신적으로 치료한 모레리 박사의 아름다운 사랑은 나는 물론 나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 「문창모 박사 간증 8」, 《기독신문》, 1998년 12월 23일

1959년 11월 7일이 개원일인데, 이 병원이 강원도 원주에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두 선교사의 노력이 숨어 있다. 주디 선교사를 파송한 연합감리회 측은 처음에 병원을 대전에 건립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디 목사가 의료 낙후 지역인 강원도에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

력하게 주장해서 원주연합기독병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원주기독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6년 1월 26일에 연세대학에 합병되었다. 연세대학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주디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 현재는 연세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통한다.

어떤 단체나 기관도 설립이 되고 나면 설립 이념이 변질되기 쉽고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므로 조직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디 선교사가 세운 조직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 위상을 또렷이 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생전에 행한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후대에 이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로 보나 교단으로 보나 한국 사회로 보나 모두에게 좋은 결과다. 50병상으로 출발한 병원은 200병상(1972)을 거쳐 1994년부터 1,000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거듭났다.

연세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창립자들을 기념하는 방식도 인상적이다. 2008년 2월에는 모례리화당을 열었고, 2014년 2월에는 주디모례리센터를 개소했다. 2015년에는 주디선교사기념장학생 제도와 모례리의료선교상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념회 추모 예배를 진행해오고 있다. 세월이 가면서 많은 것이 잊히고 마는데 이런 면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열린 1회 선교사 합동 추모 예배와 2회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석한 주디 목사의 장남인 칼 웨슬리 주디(Karl Wesley Judy)는 “선친의 희생과 헌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감격해했다. 그는 주디 목사가 파송되던 1956년



(5살)에 원주 생활을 시작했다.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주디 선교사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 출생으로 모리스하비대학, 듀크대학 신학원을 거쳐 미국에서 목회(1943~1948) 생활을 했다. 미국 연합감리회 선교사로 내한(1948)해 천안, 대전, 전북,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선교를 하다가 한국전쟁 시 귀국했다. 예일대학 어학훈련원에서 한국어를 집중 공부(1950~1953)한 다음 1953년에 다시 내한해 충주, 원주, 김천, 춘천 등에서 순회 선교 활동을 하며 지방 교회 육성과 미자립 농촌 교회에 대한 재정 보조를 추진했다. 내한한 아들 칼 주디 목사는 원주에 살던 기억을 되짚어 춘천제일감리교회와 신성감리교회를 방문했다. 신성교회의 연혁을 추적하다 보면 “1972년 주디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회 부채를 탕감했다. 1983년 주디 선교사 한국 선교 35년 퇴임 송별 예배를 드리다. 1983년 성전 증축 봉헌 예배를 드리다”라는 내용을 만나게 된다. 이 외에도 주디 선교사는 영월, 춘천, 제천 지역에 3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을 계속하도록 도왔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춘천에서 사역했다.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들의 재정 기반이 무척 취약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교회들의 선교회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주디 선교사의 지방 교회 육성과 미자립 농촌 교회 재정 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70~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취약한 재정 기반의 많은 부분을 미국 선교회가 메웠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역사가 오래된 춘천중앙교회의 연혁을 들여다보자. 이 교회는 1898년 4월 미국 감리회 선교부의 강원도 선교 결정으로 첫 예배를 시작했다. 1908년 서울 주재 무스(무야콥, Jacob Robert Moose, 1864~1928) 선교사가 춘천으로 내려와 48칸 양옥을 매입해 교회를 이전했다. 1925년 선교사 마미 마이어(Mamie D. Myers, 1875~1934) 목사의 주선으로 마련한 일화 2만 원과 성도들의 헌금 125원으로 선교관을 신축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교회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1955년 미 선교부의 복구 보조비 480만 원과 헌금 120만 원으로 남선교부의 병원 건물을 인수해 교회 재건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68년에는 대지를 확장하고 건축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는 기록을 미뤄보면 춘천중앙교회의 경우 1950년대까지 미 선교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로 추정되는 원주제일교회의 연혁을 살펴보다도 미국 선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의 재정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05년에 감리회 로버트 무스 선교사와 몇몇 교인이 풀밭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1916년이 되어서야 교회 건축을 시작한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70평의 연와조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부지 1,200평은 김신애 성도가 기증하고 건축비는 미국 스웨덴교회로부터 원조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주디 선교사는 교회 육성과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1965년에는 문창모 교수(원주기독병원 초대 원장)와 함께 원주 지역의 나환자 집단 자활촌인 경천원 설립을 주도했다. 춘천에 유치원 건립 같은 사회

사업에도 힘을 더했다. 부인 마거릿 브란난(주진주, Margret Brannan Judy, 1916~2008)은 개편 찬송가 음악 위원으로 교회 음악 발전에 기여했으며, 춘천과 원주 등의 지방 교회에서 음악 지도를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인물은 마거릿 브란난의 부모다. 아버지 리먼 브란난(Lyman Coy Brannan, 1880~1971)은 1909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해 원산, 개성 등의 산간벽지까지 40여 년 동안 순회 전도사로 활동했다. 어머니 미틀 바커 브란난(Myrtle Barker Brannan, 1884~1971) 역시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1911)해 원산 루씨여학교, 춘천 정명여학교 성경 교사, 개성 호수돈여학교 성경 교사와 춘천여자관 관장으로 여성 교육과 계몽 사업에 전념했다. 두 사람은 1914년에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지만 1920년과 1922년에 연거푸 두 아들을 폐렴으로 잃었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 주디 선교사의 부인인 마거릿이다.

한편 주디 선교사는 1983년 귀국했으며 여생을 보내다가 2008년 1월 3일 소천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살렘에 있는 중앙연합감리교회납골당에 묻혔다. 주디 선교사는 마거릿과 슬하에 1남 3녀(Karl, Wess, Joss, Esther)를 두었다.

## 케네스 엘머 보이어

1930~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한국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왔다. 또한 한반도 전역에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정부가 세워져 한국이 진정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기도해왔다.

케네스 엘머 보이어(보계선, Kenneth Elmer Boyer)의 신앙과 사역은 아버지 엘머 티모시 보이어(보이엘, Elmer Timothy Boyer, 1893~1976)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 이야기는 1921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이 땅을 밟은 후 1966년 귀국할 때까지 45년을 활동한 엘머 보이어 선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농촌 사역에 전념한 선교사였는데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렇다.

아버지는 농촌 순회 전도로 6주에 한 번 집에 오시면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를 섬기러 다녔습니다. 65개의 교회를 섬기느라 발톱이 모두 빠졌을 때도 개의치 않고 사역을 다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수 나환자 자활촌인 애양원 운영, 순천성경학교 재건 동참은 물론이고 전주, 무주, 완주, 진안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구례, 곡성 등의 농촌 교회를 순회했던 선교사다.

전라도 오지 곳곳에 남긴 선교 흔적은 보이열, 『한국 오지에 내 삶을 불태우며』(개혁주의신행협회, 이미준 옮김, 2006)에 남아 있다.

44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멋진 삶을 살았고 믿음과 복종이라는 모험 아닌 모험을 결코 후회해본 적이 없다.

엘머 보이어 선교사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길가마다 시신이 넘쳐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책에서 생생히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다. …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나는 언제든 이 땅을 떠나 나의 나라로 떠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갈 곳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의 평생의 임무 수행을 위해 기도해주시오.

아들인 케네스 보이어는 전주 출생이다. 콜롬비아 신학대를 졸업하고 남장로교 선교사로 내한(1956)해 대전에서 전도 선교사 활동을 시작한다. 1956년 파송된 간호사 실비아(Sylvia Boyer, 1935~) 선교사를 만나서 1961년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다. 아버지가 걸었던 것처럼 부부 선교사 활동은 주로 목포와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섬 지역을 다니면서 임시 병원을 열고 기생충 퇴치와 소아마비 예방 접종, 복음 전도를 병행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섬까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시절이어서 부부 선교사는 하루에 200여 명의 환자를 대해야 했다. 부부 선교사에게 전기 선교 활동이 목포 지방 일원의 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 선교였다면 후기 선교는 제주도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 없었다. 선교사들은 광주에 집을 두고 오가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 했다.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 생각이 강한 지역이라서 부부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다. 마침내 1972년 9월 1일 서울, 목포, 광주 등지에서 일하던 홍은섭 장로(여의도제일교회 은퇴)가 제주로 파견되면서 비영리 의료기관인 제주기독교의원의 설립 허가를 받는다. 실비아 선교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한다.

제주 지역은 유난히 바람과 햇볕이 강해 안질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해녀들은 코나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가 이비인후과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 2명을 파견했습니다. 다른 과목 의사들은 전처럼 제주를 왕래하며 환자들을 돌봤고요. 그 중엔 조선대 의과대학 치의학과를 만든 뉴스마 박사(유수만, Dick H.

Nieusma, Jr.)도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군의관으로 참여했던 뉴스마 박사는 일본 오키나와 공군병원에서 쓰던 의료 장비의 일부를 제주로 가져와 치료 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보계선 선교사와 홍 장로 등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드디어 제주에도 반듯한 모양새를 갖춘 병원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배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닫힌 그들의 마음을 열어 나갔습니다. ... 당시 육지에는 기생충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구충약을 보급했죠. 그런데 제주는 육지보다 환자들이 적었어요. 돼지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며 깨끗이 해줬기 때문이죠. ... 간호사로서 즐거웠던 기억도 있지만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진 환자들, 특히 소아마비에 걸린 어린이들을 지켜보면 가슴 아팠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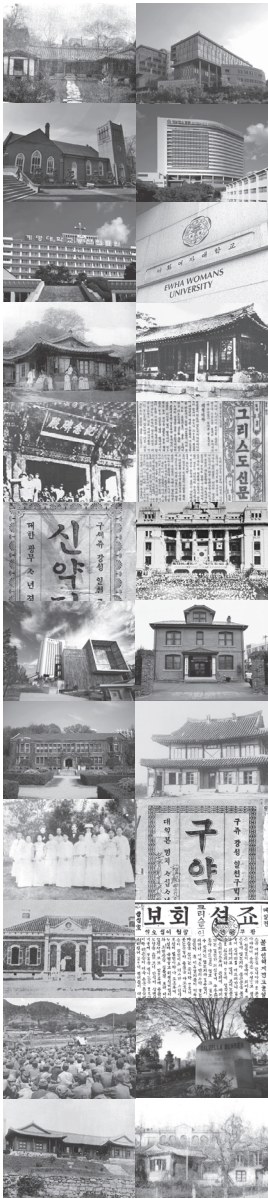
— 정보미, 「3대에 걸친 보이어 가문의 한국 사랑」,  
《한국기독교공보》, 2008년 1월 17일

1978년까지 18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제주기독교센터, 도서관, 제주기독교의원 건립에 큰 기여를 했다. 부부 선교사가 헌신했던 제주기독교의원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제주 선교를 위해 1972년에 건축했고, 1977년까지 무료 진료를 했다. 1981년 한국선교회가 철수하면서 이 건물은 예장통합 제주노회에 건물과 재산을 무상 양도했다.

은퇴한 선교사들의 생활이 넉넉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도 생활비의 일부를 떼 내어 보이어 선교사는 매년 5,000달러 상당을 처음 사역했던 호남 지역의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써달라고 보냈

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000달러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법 큰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5,000달러는 은퇴 선교사에게 아주 큰돈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토록 이들은 평생을 함께했던 곳을 떠나고 나서도 마음은 떠날 수가 없었나 보다. 몇 해 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소재했던 가정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내 기도 제목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신실함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다.





# 7장 유산과 교훈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이나 의료 부문의 근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개신교는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어놓기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점검할 수 있을 때  
개신교의 유산과 교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의례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개신교는 이를 받아들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개신교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이고 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 밖에 세계관, 직업관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는다. 특히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과 신 사이에 미들맨(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개신교의 교리와 성서 해석은 세상과 신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 그것은 육적(물질)인 측면뿐 아니라 혼적(이성)인 측면과 이를 넘어 영적(영성)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낳는다. 대개 우리는 한국에 개신교가 전해지면서 근대적 의미의 학교가 세워지고 서양 의술이 도입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에만 주목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개신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한국의 개신교는 현대의 한국인들이 디디고 서 있는 정치·경제·문화 체제의 하부 구조를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7장에서는 개신교가 한국과 한국인에 남긴 15가지 유산과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 영적인 선물

**선교사들은 귀신이나 악령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벗어나도록 도왔다.**

조선조와 구한말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귀신 손아귀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당해왔다. 이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관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양민부터 조정 대신이나 왕실까지 귀신을 쫓기 위한 온갖 종류의 무속이 유행하는 사회였다.

귀신에 대한 공포는 사회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내한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았을 때 길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지 의아하게 여겼다. 귀신이 쉽게 쫓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는 내한하고 나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 해석은 선교사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시골집에서 제사 음식의 일부를 대문 바깥에 두는 일이라든지 전염병이 도는 시절이 되면 귀신들 먹고 가라고 콩이나 좁쌀 등을 길거리 곳곳에 뿌려놓은 것을 발견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조상 묘를 잘못 써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부터 씬 없이 돌아오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데 산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귀신은 조선 땅 곳곳에 있었다. 마을 어귀에도 있고, 공동묘지에도 있고, 장독대에도 있고, 큰 바위나 나무에도 있었다. 귀신이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시달렸다. 그렇다고 죽고 나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게 아니었다.

성결교회의 초대 감독인 존 토머스(John Thomas, 선교 기간 1910~1920) 선교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내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종의 어머니 엄 씨 장례식을 구경할 때 장례식에 관이 2개라는 사실이 신기했다. 이유는 악령이 죽은 시체를 훔쳐 갈 수 있어 악령을 속이기 위한 가짜 관을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과 구한말은 미신과 악령과 우상 숭배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였다.

개신교는 이 세상에 악령과 귀신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악령과 귀신조차 개신교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큰 자유는 귀신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다. 칙칙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예수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곧

바로 악령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악령이 예수교 신자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교 신자에게 허락된 힘과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을 뜻한다. 개신교가 이 땅에 전래되고 개화나 계몽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만 진보를 뜻하는 게 아니다. 물질의 진보와 비교할 수 없는 진보이자 발전은 귀신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곳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개신교는 수천 년 동안 미신과 귀신과 우상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던 한국인들에게 영적인 세계관을 변화시킨 대사건이며, 영적인 힘을 부여한 대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런 힘과 권위와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는 성경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영적인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개신교가 준 첫 유산이자 선물이다. 그 선물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선교사들이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다.

---

## 가난과 질곡으로부터 안식

**선교사들은 숙명 같은 절대 가난이란 암흑한 현실로부터 자유롭도록 도왔다.**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은 역사 이래로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선 말기와 구한말의 나라 형편은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다. 벗어날 수 없는 숙명 같은 가난이 이 나라를 지배했고 1960년대까지 이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여전히 한반도의 절반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개인적 자유로부터 거리가 먼 곳으로 남아 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

들에게 가난은 극심하였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는 백성들을 절망적인 상태로 내몰았다. 숨어서 예수교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암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 그 자체였다.

인간은 가난의 질곡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인간은 암울함이란 단어로 담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세상관에서 근원적 혁명을 일으킨다. 세상 사람은 대부분 '이 세상(this world)'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야 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이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2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친다. '이 세상(this world)'도 있지만 '저세상(that world)'도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저세상에는 하늘의 면류관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인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은 짧고 저세상에서 삶은 이 세상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다. 그러니 이 세상 삶이 고달프더라도 연연하지 말고 저세상에 대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 오늘날 성경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자는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소리쳐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구한말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은 번영 신학이라 불리는 번질 된 복음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순수 복음이었다. 지금도 초기 선교사들이 작사 작곡했던 찬송가를 들을 때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내용들을 담은 찬송들이 초기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채웠을 것이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버텨내고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제공하는 확고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큰 역할을 했다.

임동설한에 120리나 130리 눈길을 헤쳐가면서 평양 부흥회에 참석하는 평양 인근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접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웠던 시대를 헤쳐간 힘은 하늘나라에 대한 끝없는 소망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수한 믿음이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 아니기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우리들의 선조가 험로 같은 인생살이를 헤쳐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데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개신교는 가난의 질곡 속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힘든 현실을 힘껏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다.

선교사들은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었고,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선교사들의 기록을 확인하다 보면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 1889년 2월 ‘종교 활동 금지령’이 내려서 북감리회 정동 선교부 안에서 열리는 예배에 일반인 참여가 불가능한 적이 있다. 그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한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

아와서 호소했다.

제가 매 주일 와도 되겠는지요? 허락해주세요. 우리 집엔 쌀도 떨어졌고 땀감도 없으며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라치면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제발 매 주일 오도록 허락해주세요.

그 여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힘든 세상살이에서 휴식을 얻는 것이었다. 어디 이 여인뿐이겠는가! 가난하고 어두웠던 시절을 살았던 우리 선대들 가운데 이렇게 위안을 얻고 삶의 행보를 계속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

## 자각하는 개인

**선교사들은 자존하는 개인, 자립하는 개인, 협동하는 개인을 깨우치게 했다.**

“그분은 제가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남대문교회에서 순교자가 되는 전덕기(전 상동교회 목사, 독립운동가, 1875~1914) 목사가 훗날 자신을 거두어준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목사에 대한 회고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전에 전덕기 목사는 자신이 사람이란 자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신교는 자각하는 개인, 자존하는 개인, 자립하는 개인, 책임지는 개인 등과 같이 건

강한 개인주의의 기초 덕목과 윤리를 가르친다. 개신교는 혁명적인 인간관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었다는 인간관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가 누구든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천부인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처럼 신자가 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변한다.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어느 누구를 거치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은 모든 종교 가운데서 놀라운 관점에 해당한다.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신의 바람이나 소망이나 기도를 대신해줘야 할 중간인이 개신교에서는 들어설 공간이 없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각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는다. 성경적 인간관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의 탄생을 촉진한다. 개신교는 초창기부터 금연이나 금주, 성결 등과 같은 운동을 자주 벌였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라는 성경 말씀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람마다 талан트를 주신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재주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글 쓰는 재주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재주를 준다. 또 하나의 분명한 언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талан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개신교는 인간

의 창조 목적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가치관이나 직업관 등도 큰 변화를 겪는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만큼 세속적인 성공에 도움되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고개를 뺏뺏이 들라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죄인임을 깊이 자복하는 한 거만해질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 는 나의 목자시니”(시편 23:1)라는 고백을 자주 하게 된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겸손에 대해 특별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자존과 겸손과 자유와 책임 등은 근대 시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건강한 개인주의 정신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은 성경의 지혜이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전하려 했던 인간관의 주춧돌에 해당한다. 이런 가치의 토대 위에서 개신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강국이 되었다.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치의 토대는 개인에 대한 자각을 제공한 선교사들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은 것이다.

## 04

---

# 신분제 계급의 해체

**선교사들은 신분에 따른 계급 제도를 해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양반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평민을 특별히 더 사랑하지도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자라고 가르친다. 한국의 교회사에서 초기 한국 교회는 양반과 상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곤 했다. 수백 년 동안 반상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일이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혁명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갈등은 봉합되고 백정 출신도 장로

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의료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들은 병원이야말로 평등이 확실히 보장되는 장소였다고 증언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양반 줄이 따로 있지 않고 양민 줄이 따로 있지 않았다. 오로지 도착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 줄이 있을 뿐이었다. 차례차례 진찰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생활 속 평등을 가르친 것이다. 그 어떤 이념적 평등보다 평등의 실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조선 시대는 유독 여자들을 하대하고 억압하는 사회였다. 처첩 제도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집 안 내부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이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회였고 중혼과 축첩 제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졌다. 여성들이 이름을 갖는 일은 드물었다. 어린 시절 큰아이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아버지가 드물지 않았다.

개신교는 만민평등 면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다. 신분, 남녀노소와 관련해서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선교사들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설의 설립 과정을 보더라도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 사이에 우열을 가리지 않았다. 내한 선교사 비율조차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고, 여자 선교사들 눈에는 조선 여인들이 억압받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아마도 여성 선교사들의 왕성한 활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의 남녀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반상과 축첩 제도를 공식 철폐하는 사건은 갑오경

장(1894)이었다. 이 사건은 공식 선언이자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뜻한다. 실제로 생활에서 신분이 타파되려면 어느 사회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과 토지 개혁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반상 제도가 무너진다. 이런 혁명적 제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과 태도 속에 신분과 계급이 무너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시간을 특별히 단축하는 데 개신교가 큰 역할을 했고 신분과 계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미국 사회의 선교사가 크게 기여했다. 그렇지만 미국도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받으려면 1920년대까지 기다려야 했다. 해외 선교사로 나올 정도의 여성들이라면 신분 제도에 대해 시각이 뚜렷했을 것이다. 더욱이 성경으로 무장한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신분과 계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뤄내는 것에 대해 소명 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서울 승동교회의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가 되는 일이나 아들 박서양이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 되어 모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개신교는 인간에 대한 시각, 평등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다. 지금은 모두가 당연히 여기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개신교의 몫이며,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다.



---

## 민족의식의 고양

**선교사들은 일제에 의한 부당한 지배를 극복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일제가 한국 침략의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한국인이 열등하고 고유 전통이 부재한다고 강변할지라도 선교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선교사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어서 일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이 근대화에 뒤처지기는 했지만 고유한 문화·전통·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선교사가 한국인이 활달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며 독창적이라고 봤다. 다만 게으름과 가난은 한국인의 특성이라기보다 무능한 정치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인에 대해 깊은 애착과 미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근대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민족적 자각과 자유와 독립 정신을 고취했다. 사학자 이만열은 기독교인들의 항일 민족 운동의 뿌리를 성경을 통한 애국 교육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일제의 침략적 만행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서술했던 맥켄지(F. A. Makenzie)는 『자유를 향한 한국인의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Yonsei University Press, 1969)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전에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입교했다. … 미션계 학교에서는 잔다르크, 햄프턴 및 조지 워싱턴 같은 자유의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근대사를 가르쳤다.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선동적인 서적인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쳤다. 성경에 찢어든 한민족이 학정에 접하게 될 때는 그 민족이 절멸되든가, 아니면 학정이 그치던가 하는 2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게 된다.

한편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정의와 부정의, 평등과 불평등을 구분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정의라고 가르친다. 자연스럽게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조선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더더욱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개신교는 일제 치하에 들어가는 초부터 식민 당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기독교계의 민족의식 고취를 금하려고 사립학교법을 개정(1915)해 성경 교육과 종교 의식 금지, 미션 스쿨 설립을 방지한다. 그만큼 기독교계의 민족의식 고취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선교사들을 추방한다. 선교사들이 남긴 유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인들의 민족적 각성을 도운 일이다.

1911년에 터진 '105인 사건'은 비밀 독립 조직으로 창건된 신민회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었지만,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과 서북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3·1운동은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발했다.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계 인사였다.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는 데 기독교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국 인구 중 1.3%에 불과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3·1운동부터 6월 20일까지 투옥자의 22%, 복역자의 17%를 차지한다. 임시정부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독립 자금도 교회를 통해 각출했다.

성경을 읽는 일이나 배우는 일만으로도 민족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구약 자체가 이민족에게서 끊임없이 박해받는 유대 민족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

## 건국의 초석과 정체성

**선교사들은 신앙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처럼 자유 체제에만 가능함을 가르쳐주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유난히 굴곡이 많았다. 특히 해방 이후 한반도에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체제 대결은 첨예하게 전개되었고 지금도 그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30여 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서 시작된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와의 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물질, 재산권, 인권 등을 당연히 여기지만 해방 이후에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에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지 않았다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드물지 않지만,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다. 미군이 한반도 절반이라도 서둘러 진주하지 않았다면 거의 완벽하게 한국은 공산화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자유나 말할 수 있는 자유, 구금되지 않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유, 헐벗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1946년 북한 땅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사불란하게 북한을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냈다. 전 주민을 현대판 노예 제도로 만든 북한식 토지 개혁은 1946년 3월 5일에 시작해 3주 만에 토지 몰수와 재분배로 완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토지 개인 소유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954~1958년까지 농업 협동화의 실현과 함께 종결되었으며, 농업 협동화는 모든 농민이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신분 혹은 농노가 되었음을 뜻한다. 임시로 나눠준 토지 소유로 말미암아 공산당원 수는 1945년 12월 4,530명에서 토지 개혁 이후 35만 6,000명으로 증가한다. 비슷한 시기에 남로당 당원 수가 46만 명이 되었다. 체제를 신속하게 정비한 북한은 남한을 뒤집기 위해 폭동, 테러, 요인 암살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

해방 정국의 엄혹한 시절을 살았던 선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낭만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좌익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통계가 증언해주고 있다.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 구조

와 한국 사회』(선인, 1949)에 따르면 1945~1948년까지 총 256번의 경찰서 습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좌익에 의한 시위는 60번 일어났다. 반면 우익에 의한 시위는 23번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살상된 인명은 10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미군정은 태평양의 안전과 한반도가 연관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한반도에 대해 구체적인 점령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이 일찍 종전을 맞으면서 미군정은 서둘러 남한에 들어왔다. 미군정은 공산주의에 맞서 한반도 절반에 자유주의 체제 구축을 목표로 두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자유주의 체제는 우리 손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준 선물이다. 미군정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다. 한국 땅에서 활동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2세들이 미군정의 통역이나 고문 등의 자격으로 참여한 덕분에 미군정이 한반도 절반에서 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양현혜는 『근대 한·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9)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미군정 당국자들에게는 지난날 한국에서 생활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과 그들의 2세가 한국 통치에서 신뢰할 만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 가운데 미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 1940년 추방당한 윌리엄스(우리암禹利岩, Franklin Earl Cranston

Williams, 1883~1962) 목사와 아들 조지 윌리엄스(우광복禹光福, George Zur Williams, 1907~1994) 소령, 역시 추방당한 워스(Clarence Norwood Weems, 1875~1952) 목사의 아들 클라렌스 워스(Clarence N. Weems Jr., 1907~1996),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사령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윈한경과 피셔(J. E. Fisher) 선교사, 감리교 노블 목사의 아들인 해럴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 등이 미군정의 통역 혹은 고문으로 내한했다. 이들이 행한 주요한 기여 가운데 하나는 미국 유학과 출신 개신교 인사들을 적극 추천한 점이다. 조병옥, 윤복선, 장덕수, 김도연, 임영신, 박인덕, 이묘목 등을 미군정에 참여하게 해 미군정이 한국 상황을 인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했다. 1946년 12월부터 1947년 8월까지 미군정청에 임명된 13명 중 7명이 개신교 신자였다.

미군정은 내한 선교사라는 풍부한 인력풀이 있던 덕분에 한국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 가운데 어떤 인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선교사들이나 미군정 당국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생 독립 국가의 틀은 미국과 서방 선진국이었다. 이에 맞춰 대한민국이 5·10선거를 통해 자유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 국가로 출범할 수 있었다. 5·10선거(1948)를 막기 위해 북한이 방해 공작을 했음은 물론이다.

선교사들은 유물론에 사로잡힌 채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인 스스로 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할 만한 기반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외부의 긍정적인 도움과 개입이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전체주의 체제나 준전체주의 체제를 채택했을 것이다.

---

##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 육성

**선교사들은 건국 초기에 큰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건물, 도로, 항만은 눈에 띄므로 편익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인재의 기여는 다르다.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닦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제 치하를 통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은 한국 지식인들을 낳는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개신교는 일제 치하에서 한국 전체 중등 교육의 20~40%를 담당해왔다. 교회가 운영하는 4개의 전문대학(연희전문, 이화여전, 숭실전문, 배재학당)에서 4,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



출했다. 따라서 당시 개신교 신자들을 사회 계층 면에서 보면 교인 규모에 비해 지식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기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허명섭 박사는 「대한민국 건국과 종교 세력의 건국 운동을 중심으로」(19회 영익기념강좌, 2015)라는 논문에서 개신교 출신 인사들의 건국 초기 기여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말한다.

미군정 행정 고문 11명 중 6명(55%), 군정의 초대 한국인 국장 13명 중 7명(54%)이 기독교 신자였다. 입법 의원 90명 중 21명, 초대 제헌 의원 190명 중 38명이 개신교 신자였다. 입법 의원 90명 중 21명, 초대 제헌 의원 190명 중 38명이 개신교 신자였다. 당시 남한 개신교인 숫자는 한국인의 0.52%(약 1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학교에서 중고교를 다녔거나 전문학교를 다녔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유학했다. 예를 들어 1947년 2월부터 1948년 8월 15일 건국 시점까지 미군정 장관을 지냈던 안재홍(1891~1965)은 진위의 사립 진흥의숙, 수원의 기독교계 학교, 서울 경성YMCA 중학교를 다녔다. 중학교에서 이상재, 남궁억, 윤치호 등의 기독교계 인사들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승만과 이상재의 권유로 중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한다. 이처럼 젊은 날 받았던 교육의 중심에는 기독교계 학교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북감리교의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이란 미션 스쿨을 다녔다. 이후 만 5년 7개월 동안 갇혔던 한성감옥에서 만났던 성경과 선교사들이 그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승만의 정치적 성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감옥을 자주 찾았던 선교사들 가운데는 아펜젤러, 번커, 제중원의 올리버 에비슨, 호레이스 언더우드, 제임스 게일 등이 있었다. 이들이 이승만을 아꼈던 이유에 대해 이한우는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해냄, 2008)에서 이렇게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승만이 영어와 기독교에 열심이고 능력도 뛰어나 대중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장차 ‘현지의 전도사’로 적극이라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자신들의 선교 활동이 성공했음을 입증해주는 인물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선교사들의 젊고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에 대한 박애주의 정신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에 처한 젊은이를 도와야겠다는 순수한 생각이 더 강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1차적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 반듯한 세계관을 가진 인재들을 한국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기여한 바가 크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

## 미국과의 긴밀한 연결 고리

**선교사들은 교육·인재·교역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통이나 역사적 경험이 없는 나라가 현실 세계에서 자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체제에 옮기는 일은 어렵다. 1945년 이후 동유럽이 손쉽게 스탈린의 지배 체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통과 경험의 부재가 큰 역할을 했다. 레마르크연구소 소장인 토니 주트(Tony Robert Judt, 1948~2010)는 『포스트워 1945~2005』(플래닛, 2008)에서 “돌이켜보면 1945년 이후 민주주의적 동유럽을 기대하는 일은 언제나 절망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부유럽과 동유

럽에는 토착 민주주의 전통이나 자유주의 전통이 부재했다”고 말한다. 이 추론은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척박한 자유주의 경험과 문화를 가진 한반도에서 자유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머리에 그리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이뤄지기 힘들었다. 극도의 혼란스런 상황을 경험한 끝에 대부분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 체제의 나라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정치 사조와 유행은 국가, 즉 권력 엘리트가 주도하는 계획에 대한 열망이었다. 개인 안전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은 한쪽에는 공산주의의 약진을 낳고, 또 한쪽에서는 복지주의의 유행을 낳았다. 당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대다수는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국가주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즉 정부가 더 많은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고 모두에게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책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오늘날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서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복지주의의 폐해를 20세기 동안 목격했음에도 이 같은 신념의 그림자가 한국에 드리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계획을 향한 신념은 얼마나 강렬했을까? 지금처럼 한국이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유 체제를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선교사들의 도움이 컸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진다. 하나는 계획에 대한 신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국가들이다. 다른 하나는 계획이 갖

고 있는 그림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능한 정부 개입을 억제하는 국가들이다. 전자는 소련과 중공 계열의 나라들과, 복지 국가와 국가 대표 산업 육성책을 밀어붙인 영국과 프랑스 계열의 나라들이다. 반대쪽에 위치를 공고히 했던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추구했던 라인에서 있었던 나라들이 무역과 수출을 중시해서 일어섰던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미국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과 병행하는 교육, 의료 사업을 통해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일제 치하에서 직간접으로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은 유능한 인재들에게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했고, 미군정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협조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북쪽은 계획을 추종하는 소련 쪽에 서고, 남쪽은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 쪽에 섰다. 한쪽은 대륙 세력에, 다른 한쪽은 해양 세력 쪽에 섰다. 세월이 갈수록 선택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말았다. 전후에 많은 한국인이 개신교를 믿고, 미국 유학을 떠나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형성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하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다수는 미국과의 연결 고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만,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양 진영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의 연결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문명국 대열에 설 수 있고, 교역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형성하는 데 여러 요소가 있지만 내한 미국 선교사들의 기여가 컸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 근대 시민 국가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확산

**선교사들은 성경 교육을 통해서 근대 시민 사회의 핵심 가치가 퍼져 나가도록 도왔다.**

개신교가 이 땅에 전래되었을 때 한국인의 과제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조선 말엽이나 구한말을 미화하는 지식인들도 있지만 《독립신문》(1899년 8월 16일)에 실린 고언 이야말로 당시 시대 상황과 민족의 과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수탈, 가렴주구, 가난, 질병 등이 어우러진 그 시대 상황 말이다.

혁과하라신 잡세를 여전히 무는 것은 관장들의 탐학하는 까닭이요,

돈 많은 부자들을 무단히 불효부제(不孝不悻, 부모에게 효성이 부족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지 못함)한다고 잡아 가두는 것은 그 부자가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모은 것이 죄가 됨이요. 한 동리 사람은 아무가 불효부제인 줄 모르되 먼 데 있는 관찰사와 군수들이 먼저 아는 것은 그 관원들이 다른 타당한 문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사야탁(晝思夜度,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헤아림)이 다만 돈 먹을 생각뿐인 고로 동 녹슬 밝은 눈이 먼 데 있는 돈구멍을 능히 밝게 봄이다.

한말의 개신교는 선교사보다 성경을 먼저 보급했다. 이런 한국 개신교를 두고 ‘성경 기독교’라 부를 정도다. 선교사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등 얇은 교리서를 번역 출판했다. 그리고 1890년대부터 1900년까지 60여 종의 전도 문서들을 간행해 널리 유포했다. 기독교 문서들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신문, 기독교론, 성령론은 물론이고 제사 문제와 남존여비 등 사회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 같은 한국 기독교의 성경 중심과 문서 중심의 사역에 대해 역사학자 이만열은 “한국 사회의 봉건적 관행과 사회적 모순에 대해 정면 도전하면서 정면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에서 근대의 시작은 1876년 개항을 전후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중심으로 봐야 하며, 본격적인 근대 시작은 일제 지배부터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이를 위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것을 한국 근대의 시작으로 보면, 18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는 개신교의 선교 활동은 근대 시민

사회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대 시민 사회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마지막으로 민족 중심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민족의식과 애국심이다. 선교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은 봉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근대 시민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바로 개인에 대한 자격,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에 대한 자각,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에 대한 자각을 심어준다.

구약의 유대인 고난사는 누가 읽더라도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설령 미국 선교사들이 교육기관을 설립해 근대 시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 봉건적 인간은 소멸되고 근대 시민 사회를 뒷받침하는 근대 시민의 양성을 도울 수 있다.

역사가 오래된 종교들의 경전을 읽거나 도덕과 윤리 교재를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근대 시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식을 갖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전해지고 읽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개화 즉, 의식의 개화를 뜻한다.



---

## 근대적 교육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

**선교사들은 글지의 고등 교육기관과 사립 중고교를 설립해 한국에 남겼다.**

“장로교 계통의 학교만 하더라도 1905년에 소학교 139개, 1906년에 238개, 1907년에 405개, 1908년 542개로 늘어났다.” 장로교의 ‘장로공의회 통계 보고표’(1907)를 바탕으로 한 자료다. 평양이든 서울이든 선교사의 활동 무대인 선교기지가 있었던 곳에는 어김없이 미국의 선교 단체가 후원하는 교육기관이 세워졌다.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 배경에는 실과 바늘처럼 토지 매입이나 건축비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현금을 내놓는 미국인 기부자들이 빠지지 않았다. 일제

가 조선을 점령하고 공립학교를 만들기 전에는 한국 내에 서구식 학교의 거의 대부분을 선교사들이 만들었다. 선교사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아동 몇 명을 데려다가 고아원 겸 학교를 운영하다가 중등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중등학교를 만들고, 중등학교가 발전하면서 대학을 세워 고등 교육을 했다.

옛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가슴 벅차 오르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땅에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기 위해 미국의 선교본부를 설득하는 선교사들의 편지를 만날 때다. 때로는 간청을, 때로는 읍소를 담은 선교사들의 보고 편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곳 사람들에게 이 기관이 꼭 필요한데,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읽을 때 100년을 넘어 손수 편지를 썼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전해져온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기의 학교들 가운데 하나가 이화학당(1886)이다. 첫 학생은 한 명이었지만 1887년 말이 되면 18명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은 버려진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의 후원자는 북감리교의 뉴잉글랜드 지부, 뉴욕 지부, 노스웨스턴 지부, 볼티모어 지부, 신시내티 지부 등 5개 지부로 나뉘져 있었다. 미국 북감리교 WFMS 17차 총회(1886년 10월 27일)에서는 스크랜턴 부인이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그는 감사에 넘쳐 진척된 사업 상황을 보고하면서 참으로 한국에도 의로운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을 보고

예수도(道) 하는 사람들이라 부른답니다. 스크랜턴 부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했듯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한국을 위해 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부탁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밖에 배재학당(1886)도 한 명으로 시작했다. 경신학교(1886)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다음해 세워진 정신여학교(1887)도 한 명으로 시작했다. 광성학교(1894)는 13명으로, 배화학당(1898)은 여자 3명과 남자 3명으로 시작했다. 숭실학당(1897)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몇 개나 되었을까? 장로교를 기준으로 1908년도 현황을 임희국은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 130년』(장로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13)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 장로교 계통 학교는 소학교 542개, 남자중학교 11개, 여자중학교 5개, 대학 2개다. 1905~1908년 사이에 장로교 교회 수는 해마다 100~200개가량 늘어나는데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학교 또한 해마다 비슷한 수로 늘어난다. 1905년에는 교회 3개당 평균 소학교 하나를 설립했고, 2년 뒤인 1907년에는 교회 2개당 소학교 하나 이상을 설립했다.

평안도가 학교를 설립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었으며, 이 자료만으로도 개신교가 얼마나 학교 교육에 열정적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선교사들이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기여한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

## 서양 의료기관 설립과 인재 육성

**선교사들은 서양 의학에 기초한 골지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이 땅에 남겼다.**

의료 선교는 교육과 복음에 앞서 길을 여는 것이라고 믿는 선교사들이 많았다.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선교 병원들은 선교 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선교기지를 세운 다음 맨 먼저 시작하는 사업이었다. 우선 전국 각지의 행정 및 정치 중심 지역에서 민간 가옥을 구입하고 개조한 다음 진료소를 연다. 그 진료소에 환자가 늘어나면 독립된 병원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우

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진료소를 확장하거나 독립 선교 병원을 만들 때 어김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는 미국 자선가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의료 선교사들과 해외 선교본부는 병원에 이 기부자들을 기념해 기부자의 이름을 붙인다. 미국 교단이 노력을 기울인 점도 있지만 기부자들이 보인 박애 정신이 한국의 근대 병원을 설립하는데 큰 몫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미국 북감리교의 파송 의료 선교사인 윌리엄 스크랜턴은 1885년 5월 3일 내한해 알렌의 제중원에 잠시 몸을 담지만 9월 10일부터는 정동 주택의 방 하나를 진료실로 개조한 다음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이 조직이 나중에 시병원과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이화여대병원의 전신이 되는 보구여관은 중간에 정동을 떠나서 동대문에 부지를 확보한 새 진료소를 건립하고 '볼드윈 진료소'라 부르다가 이화여대부속병원으로 발전한다. 볼드윈은 남감리교의 여성 해외 선교부에 속한, 한국 선교 개척 자금은 물론이고 선교 부지 매입 자금과 건축비를 후원해준 오하이오주에 사는 독지가다.

한편 1897년 대구 선교기지에 도착한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 역시 1899년 10월 제중원이란 이름을 내걸고 진료소를 열지만 1905년 종합병원으로 개편한다. 이 병원은 동산기독병원으로 개명(1911)되었다가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개편(1982)되었다. 동산의료원이 60병상에서 1,000병상을 구비한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과 독일의 수많은 기독교 후원자와 단체의 도움이 있었다.

7대 동산병원장을 맡았던 하워드 모팻 박사는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고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월드 비전의 로버트 피어스 박사의 기부금 5만 달러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과 주한미군사원조계획처(AFAK)의 무상 원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해서 1953년 10월 3층짜리 60병동을 갖춘 아동병원이 출범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부터 병원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모은 200만 달러를 바탕으로 1972년에 완성할 수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미국합동보험회사 창업자이자 자선 기부자인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William Clement Stone, 1902~2002)이 50만 달러를 내놓고, 모팻 원장이 1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은 결과다.

선교 단체들은 선교기지가 있는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 1876~1901년까지 27개 선교 병원을 세웠다. 현존하는 병원은 8개다. 서울세브란스병원(1885), 이화여대병원(1887), 대구동산의료원(1897), 전주 예수병원(1898), 광주기독병원(1905), 서울위생병원(1908), 안동성소병원(1909), 여수애양원(1909) 등이 있다. 그 밖에 현존하지 않지만 서울 시병원(남대문상동병원, 1885), 평양기흥병원(1892), 원산구세병원(1892), 부산 전킨기념병원(1893), 래드기념병원(1896), 목포양동병원(1899) 등 19개가 있었다. 병원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기독교 후원자와 단체가 보내준 크고 작은 기부금이 모여 이런 병원 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

## 소외된 자에 대한 박애 정신

**선교사들은 버려진 자들에 대한 박애 정신을 발휘해 인권을 배우도록 도왔다.**

개화, 문명, 근대에는 깨달음이 함께한다.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보다 먼저 개화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서 배우는 방법이 있다. 초기 선교사들이 정착하는 곳은 정동이었으며, 이곳은 궁궐이나 양반 저택, 외국 공사관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성문만 벗어나도 성안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전염병에 걸려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

이 없는 환자들은 아현 고가 도로가 있었던 애오개에 버려져 가마니를 덮은 채 죽을 날을 기다려야 했다. 애오개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가져다 버리는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 ‘서대문 시약소’ 혹은 ‘애오개 시약소’를 세워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처음 시작한 의사가 북감리교에서 과견한 윌리엄 스크랜턴이었다.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1897년 8월 13일)에는 “성문 밖 어느 곳을 가보든 언제나 버려진 환자들을 수백 명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목할 만한 일은 스크랜턴이 버려진 자를 거두어서 치료하자, 그곳에 환자를 버리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버리는 일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개화된 자가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몸소 보이면서 사람들을 깨우친 사례에 속한다. 비슷한 사례들이 콜레라가 서울을 강타했을 때(1895)도 있었다. 피붙이도 아닌데 피붙이 이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배웠을 것이다.

또한 나병은 치유하기 힘든 병이었다. 결핵도 사망자가 많은 무서운 병이었다. 진료소가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의료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결핵 병원과 나환자 치료 병원을 세우는 일을 서둘렀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자활을 위해 요양소 건립을 서둔 사람들도 의료 선교사였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신체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어느 곳에서나 반기지 않아 반발이 일곤 한다. 100여 년 전부터 서양의 박애 정신을 처음 한국인들에게 체험하도록 가르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다.



선교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성경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약과 구약 전체에 걸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알린다. 소외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신교에서는 고아, 과부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성경 메시지는 당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920년, 한국 최초의 나병학과와 결핵학과를 설치하고 의료 선교사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 1881~?)를 책임자로 임명한, 이른바 플레처 계획(Fletcher Plan)이 세브란스병원 원장 에비슨에 의해 실천에 옮겨진다. 나병 전문 병원 설립은 식민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세브란스병원 내에 결핵 병사 건립이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세브란스병원이 집계한 통계치(1920)에 따르면, 외래 환자 가운데 30%가 결핵 환자였으며 매년 5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누구도 눈길을 두지 않았던 결핵 환자와 나환자에 관심을 갖고 치료의 손길을 맨 먼저 내밀었던 사람들이 개신교 의료 선교사들이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는 자의 마음에 예수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듯 자신 또한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 선교사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 13

---

# 문맹화의 탈피

**선교사들은 한글 성경을 제작하고 배포해 성인 해독율을 끌어올렸다.**

한글의 부흥, 정리·보급에 막대한 공헌을 끼친 점에서 예수교 선교사가 기여한 바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성서가 조선 13도 방방곡곡에 퍼져 무수한 조선 민중이 문자적으로 … 빛을 보게 되었다.

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친 외솔 최현배 선생의 극찬에 가까운 평가다. 자칫 잊고 넘어갈 수 있는 선교사의 중요한 기여를 생각하게 한다.

조선 말엽만 하더라도 한글은 푸대접을 받았다. 한글의 가치는 경시되었고 여자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주로 사용했다. 포고

문이나 재판을 제외하면 공문서에 한글을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문을 쓰는 것이 유식함의 표상이었기에 값싼 소설류를 제외하면 철학·종교·윤리 등 고급 학문은 대부분 한문으로 썼다. 서당이나 향교는 한문을 가르쳤고 한글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조와 믿음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회보》(1896년 6월호)에는 학부대신 신기선의 상소문이 실려 있다. 고종이 갑오개혁에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선포한 일을 반대하는 상소문이다.

언문을 사용하는 것은 짐승과도 같은 행위며 화약을 안고 불에 뛰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종묘·사직의 파괴와, 공경할 만한 유가 고전의 파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저를 내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희망하나이다.

선교사들은 어려운 한문을 배우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그리고 한자가 가진 더 큰 폐해 즉, 유교식 사고방식과 관습을 전달해주는 도구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이 한자의 영향을 벗어나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꼭 나온다”는 주장에서 선교사들이 한글이야말로 선교에 결정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한 달 남짓으로 언문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는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탄한다. 조선에서 한글 읽기가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강점이 있음을 선교사들은 알

고 있었다. 배우기가 쉬워서 그렇다. 여기에는 “모든 신자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자립 전도의 선교 원칙에도 한글은 딱 들어맞는 훌륭한 언어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선교 정책은 누구든지 쉽게 성경이나 전도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나서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한글 성경과 전도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박연호·김근영(광주교육대학교)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1884~1905」란 논문에서 한글 성경과 전도지 제작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다.

서구 선교사들은 선교를 할 때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개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천주교가 세례를 통한 신과의 교통을 추구했다면, 개신교는 개개인이 직접 성경을 통해 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조선 땅에서 민중 지향적인 기독교와 문서 중심의 선교 활동의 접합점은 바로 한글이었다. 선교사들은 일반 백성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위해, 그들의 문자인 한글로 성경과 전도 문서를 번역해야 했고, 기타 출판물도 한글로 출간해야 했다.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은 이렇게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언문이란 별도 과목을 가르쳤다. 학교 밖, 즉 교회, 마을, 안방 등 전도 현장이라면 어디든 한글 교육을 했다. 한글 교육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전도지를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광범위하게 실시했

다. 인상적인 일은 조선 사회에서 푸대접받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선교사를 통해 자기 나라 말을 배웠고 그들이 또 나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심지어 계몽 지식인인 윤치호는 한글을 체계화하는 임무의 상당 부분을 선교사들이 맡아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은 고유의 문자가 날로 사용이 늘어난 데 대해 선교사들에게 빚지고 있다. … 나는 그들이 언문의 철자법 방식을 통일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개혁과 혁신을 도입하는 데 망설이지 않기를 바란다.

1898년 무렵이면 성경과 소책자, 찬송가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어 재고가 떨어질 정도로 많이 읽혔다. 이런 현상을 두고 박연호·김근영은 “한글 보급이라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의 한글 보급을 언급하지 않고 한글 사용이나 발전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사 서술에서 공백과 비약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30년의 전체 인구 가운데 22% 정도가 한글을 읽을 수 있었으며, 77.7%가 문맹자였다. 박연호·김근영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선교사들의 한글 보급에 대한 기여와 문맹률 하락을 평가한다. “대략 22%에 달하는 문자 해독율을 온통 선교사의 공로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리 큰 성과는 아니”라면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육 분야에 적극 사용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조선 땅에서 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수적으로 문맹률 하락과 지식의 대중화라는 선물을 한국인에게 안겨주었다.

---

## 공산화에 대한 방파제

**선교사들은 한국이 냉전에서 공산주의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도왔다.**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도움이 되지만 현실의 삶은 낭만과 거리가 멀다. 이익이 충돌하고 상대방의 적의나 음모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국가 간에는 개인 사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이익 충돌이 발생하게 될 때가 있다. 대표 시기가 냉전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던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베를린 장벽 붕괴(1990)까지다.

이따금 구소련 즉, 러시아라는 나라가 인류사에 공헌한 것이 무엇

이 있는지 헤아려볼 때가 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작품, 볼쇼이 발레, 그 밖의 위대한 예술품이 더러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는 것은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부정의한 활동들을 부추기거나 직접 개입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 소련이 한반도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친 한국전쟁 발발의 주연을 부추기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은 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동유럽에서는 빠른 속도로 소련의 지시나 도움을 받은 공산당이 선거 대신 공개 테러와 탄압으로 권력을 휘어잡았다. 전 세계의 지도는 붉은색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지고 말았다.

무산대중의 혁명을 유도하는 볼셰비키즘은 그 자체로만 보면 매력적일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아끼는 것은 본능이지만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은 관습·전통·문화·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전통이 일천한 나라이므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는 빠르게 전파할 수 있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여야 한다! 나라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구호는 지금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방 정국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1949년 6월, 북한에서 결성한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이 남로당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한 추정치에 의하면, 남로당의 당원 수는 50만 명이다.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간발의 차이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난 다음 군 내부의 좌익 세력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숙군(肅軍)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한국전쟁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었을지 알 수는 없

다. 그만큼 해방 정국부터 한국전쟁까지 한국 내 좌익의 뿌리는 아주 깊었다. 남로당은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테러, 파업, 봉기, 게릴라전으로 남한을 끊임없이 혼란시켰다. 경찰서 습격은 1945년 34건, 1946년 176건, 1947년 33건, 1948년 13건으로 총 256건에 달했다. 좌익 세력에 의한 시위는 1945년 12건, 1946년 28건, 1947년 19건, 1948년 1건으로 총 60건에 달했다. 그 시절을 마치 평화로운 시기처럼 분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전쟁 전까지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풍전등화 같은 신세였다.

누가 그 방과제를 담당할 수 있었겠는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이 자라 어느 정도의 과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일제 말엽의 한국 개신교 신자 수는 30여 만 명이었고, 평안도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 지역이 48%를 차지했다. 특히 장로교인 비율이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서북 출신의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와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처음부터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종교를 아편으로 몰아붙이는 공산주의자들과 개신교 신도들은 상면할 수 없는 사이다.

해방을 맞았을 때 북한에는 20여 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었다. 신의주, 의주, 선천, 정주, 영변, 평양, 신천, 재령 등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신교 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불신했다. 개신교 인사들을 구속하자 북한의 개신교 인사들은 탈출하기 시작한다. “악질적인 장로, 목사로서 땅이 없던 자는 거의 없고 이들은 이때까지 놀고먹기만 했기에 우리에게 불평이 있다”는 것이 김일성의 발언이고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의 개신교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해방 초기 약 1년, 한국전쟁 동안 남한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직접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들이므로 이념적으로나 행동으로 공산주의에 맞서는 역할을 자임했다. 북한을 탈출한 대표 인사인 한경직 목사의 발언에는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신념이 담겨 있다.

신생 국가는 개인의 인격 존중 사상, 개인의 자유사상, 만인 평등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좌익의 뿌리가 깊고, 만개할 수 있는 한국적 토양에서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냉전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 축이 되어왔다. 사상적으로 혼란스런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개신교 신자들이다.

---

## 선교 대국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또 하나의 큰 우군을 만들어 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선교사 파송 수는 170개국, 2만 7,435명이다. 1979년과 2000년에 각각 93명과 8,103명임을 염두에 두면 비약적인 증가다. 그러나 신규 파견 선교사 수는 2012년 1,411명을 최고치로 솟은 다음 계속 떨어지는 추세며, 2015년에는 528명까지 줄어들었다. 2012년은 한국이 불황에 들어가는 초년도다. 해외 유학생 숫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는 것과 겹쳐진다. 경제적인 여력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는 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미국 선교사 수가 13만 명을 차지한다.(2010년 기준)

인구나 경제력 등을 미뤄보면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수는 상당히 많다. 선교사가 되는 길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가치관이나 문화 등이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일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초기 선교사들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전염병 등으로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

왜 선교를 떠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준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황용현(아미교회 담임목사)은 『사복음서와 지상 사명』(2015)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이, 그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는 모든 사역이 이방인의 복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세계 선교, 즉 지상 사명이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것이며,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하늘에서 약속된 땅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들도 조선 땅의 이방인을 찾아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라는 말씀처럼 선교사들이 때

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한 복음으로 오늘날 한국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00만 명에 가깝다. 양적인 팽창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다.

오래전 이 땅을 찾았던 선교사들처럼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계 선교에 나서고 있고 교회마다 이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선교사들이 찾았던 나라들 가운데 한국은 뿌린 씨앗이 가장 많은 소출을 낸 나라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떠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우리나라와 무척 인연이 깊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쳐준 목사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다가 은퇴한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미국 내 한인들이 찾아가 감사 축하 기념 예배를 드리고 관련 행사를 진행한 다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

세계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러한 일은 내 생애 처음 보는 경사다.

블랙마운틴 행사에 참여한 한 은퇴 선교사는 한국에 갔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야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선교사의 직분으로 더한 오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 은혜의 강물이 흘렀다

세월이 가면 많은 것은 잊히고 만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만다. 삶의 기록이든 공동체의 역사든 모든 것은 망각의 깊은 늪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오늘날 70대나 80대 분들이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난의 질곡을 기억할까? 대다수 사람들 가운데 엄혹했던 시절을 개인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근래에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정도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불만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이만한 시대가 있을까 싶다. 근래에 우리 사회는 옛날을 많이 잊어버렸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살아오면서 3가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개인이

든 단체든 나라든 길이길이 번영되기를 원하거나 딱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3가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첫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함과 더불어서 교만이나 자만이나 오만이 생겨나고, 오만이 생겨나고, 잘못된 행동이 뒤따른다. 둘째, 뭐든 조금 잘나간다는 생각이 들 때 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경제 주체가 방심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개인에게는 실력일 수도 있고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축일 수 있고 공동체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환경에 맞설 수 있는 제도다. 셋째, 모든 것이 변하므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제든 경제 주체는 어려움을 크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의 시작은 필자의 『불안한 평화』(21세기북스, 2018)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책은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의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인연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의 기여에 주목했고 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헤쳐왔는가를 탐구하고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점검하다 보면 현재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

필자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나이가 든 세대에 비해 다소 넉넉하게 생활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향 탓인지 아니면 직업인으로서 과거 기록을 자주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웠던 시절

을 상기하고 그 시절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각별하다.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史實)을 탐구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미국 선교사들의 내한과 그 후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북한 핵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사회가 과거로부터 더 깊은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임을 말해준다. ‘어떤 게임이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날들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경솔히 믿지 않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잠언(16:18) 말씀처럼 우리 사회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기본을 중시하고, 좀 더 내실을 다지고,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유연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내 조국이 길이길이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이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 교훈과 위안과 해법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한 선교사들의 활동에서 깨우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비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듬뿍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근현대사에는 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시간이었다. ‘이때 어떻게 우리에게 이처럼 도움되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끔 만드는 글쓰기였다.

## 색인

---

- ㄱ
- 가드너, 사라(Sarah Gardner) 235, 319
- 가드너, 윌리엄(William Gardner) 235, 319
- 가우처, 존 프랭클린(John Franklin Goucher) 10, 173~179
- 감리교 90, 93~94, 98~99, 105, 143, 147, 158, 173~175, 177, 179, 183, 209, 213~215, 217, 221, 225, 230, 235, 240, 246, 252~253, 263, 265, 270~271, 298~299, 301, 309~311, 314, 326, 331, 341, 369, 397, 400, 408, 411, 414
- 개성도립소아병원 308
- 개신교 9~10, 39, 89~90, 93, 96~97, 100, 103, 105, 108, 111, 126~129, 132, 134, 138, 140~142, 144, 146~147, 159, 176, 194, 200, 204, 252, 272, 286, 295~296, 312, 352, 379~380, 382~383, 385~387, 389~390, 393, 397~399, 403~405, 409, 415, 418, 422~423
- 게일, 제임스 스카스(기일, James Scarth Gale) 113, 206, 210~211, 236~237, 290, 400, 417
- 경성여자의학강습소 266
- 경신학교 201, 229, 253, 329, 409
- 계명기독교대학(현 계명대학) 297
- 「고려문 방문기」 133
- 고흥교회 254
- 광주제일교회 254
- 광주제중병원(현 광주기독교병원) 303~304
- 교민(敎民) 57
- 교민조약(敎民條約) 57
- 구리개제중원 324
- 군산구암예수병원 303
- 굿 68~71
- 귀신 69~70, 72, 319, 378~380
- 귀츨라프, 칼(곽실렵, 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39
- 그레이엄, 빌리(Billy Graham) 357
- 근본주의 원칙 5가지 97
- 기포드, 다니엘(Daniel Lyman Gifford) 329
- 기포드, 메리 하이든(Mary E. Hayden)



Gifford) 329	315
기흥병원 265	녹스, 조지(George W. Knox) 141, 144
길모어, 조지 윌리엄(길모, George William Gilmore) 228	ㄷ
길선주 255, 286	대각성 운동(신앙 부흥 운동) 91, 94, 104~106
길정희 266	대구제일교회(남문안교회) 295
김규식 116, 202	대현교회 274
김옥균 119, 143, 146, 172	도정회 205
김홍경 205	동대문 시약소 223
ㄴ	동대문부인병원 266
남대문 시약소 223	동막교회 274
남문밖교회 281	동산의료원 258, 296~297, 319, 345, 411~412
네비우스 선교 방법 270	ㄹ
노스필드 대학생 사경회(노스필드사경회) 112~114, 116, 149, 186, 188	라이언, 데이비드 윌러드(David Willard Lyon) 204
노스필드마운트허먼교회(NMH) 109~110, 113~114, 116~120, 186, 189~190, 202	라파엘트 애브뉴 장로교회 161~164, 166, 170, 172
노스필드세미너리 109~110, 162~163, 186, 188	레이놀즈, 윌리엄(이눌서, William D. Reynolds) 131, 211, 277
노튼, 아서(Arthur Holmes Norton)	

로드 와

일리,

루이자(Louisa C. Rothweiler) 218, 235, 319

맥아피, 클레랜드(Cleland Boyd McAfee) 165

로스, 존(라약한, John Ross) 120, 131~140, 144, 205

맥윌리엄스, 다니엘 윌킨(Daniel Wilkin McWilliams) 10, 146, 154, 158~166, 170, 173

루미스, 헨리(Henry Loomis) 144, 146

맥클레이, 로버트 새뮤얼(맥리화, Robert Samuel Maclay) 143, 147, 175~176

루이스 워커 기념 예배당 301

리, 그레이엄(이길함, Graham Lee) 280~281, 284~285, 287, 289~291

맥킨타이어, 존(마근테, John Macintyre) 132~134, 136~139

리드, 메리 화이트맨(Mary Whitman Reid) 309, 331

모리슨, 로버트(Robert Morrison) 39

리드, 클라렌스 프레더릭(이덕, Clarence Frederick Reid) 222, 299, 307, 310~312, 331

모트, 존 롤리(목덕, John Raleigh Mott) 110, 114, 285

리드, 휘트먼 티로슨(Wightman T. Reid) 307~309, 311, 331

모펫, 루시아 피시(Lucia Fish Moffett) 258

□

모펫, 메리 앨리스 피시(Mary Alice Fish Moffett) 118, 260

마운트허먼 113~114, 149

모펫, 새뮤얼 오스틴(마포삼열, Samuel Austin Moffett) 111, 113, 118, 236, 252~260, 268, 274, 281, 285, 290

마퀀드, 프레더릭(Frederick Marquand) 10, 154~157, 159~161, 163~166, 173

모펫, 새뮤얼 휴(마삼락, Samuel Hugh Moffett) 118, 258, 412

마퀀드, 헨리 거돈(Henry Gurdon Marquand) 155, 161, 163

모펫, 하워드(마포화열, Howard F. Moffett) 258, 345

매쿰, 조지(윤산은, George S. McCune) 281~282, 285

무당 68~69, 71~72, 276

무디, 드와이트 리먼(Dwight Lyman

- Moody) 108~110, 112~114, 120, 149, 162, 166, 186~189
- 무디성경학교 110
- 무어, 새뮤얼 포어맨(모삼울, Samuel Foreman Moore) 273~279, 281, 289
- 문광서원 135
- 미8군기념홍광병원 340~341, 343
- 미국 남감리회 311
- 미국 남장로교 300, 373
- 미국 북감리회 146, 215, 217, 220, 408, 411
- 미국 북장로교 9, 139, 154, 156~158, 160, 165, 194, 203, 232~233, 244, 246, 253, 257, 273, 285, 287, 290, 323, 351
- 미드 메모리얼 회당 225
- 민영익 159, 176~177, 195, 234
- 믿음 91, 103, 128, 187, 257, 320, 342, 371, 382~383, 402, 417, 423
- 밀리, 안나(Anna Miller Reinecke Miller) 118, 281, 329
- 밀리, 프레더릭(민로아, Frederick Scheiblin Miller) 118, 281, 329
- 박서양(봉주리, 봉출) 276, 279
- 박성춘 274~278, 390
- 박에스더(김점동) 267, 314
- 박영효 140, 146, 172
- 반여월교회 295
- 배재학당 118, 179, 207~209, 230, 242, 398, 400, 409
- 배화학당 298, 300~301, 409
- 번커, 달젤(방겨, Dalzell A. Bunker) 210, 228, 230~231
- 번커, 애니 엘러스(Annie J. Ellers Bunker) 165, 210, 227~231, 235, 400
- 별교교회 254
- 범어교회 295
- 베어드,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Baird) 118, 272
- 베어드, 윌리엄 마르티네(배위량, William Martyne Baird) 113, 118, 268~272, 290, 294~295
- 베어드, 윌리엄 마르티네 2세(William Martyne Baird Jr.) 118, 272
- 보구여관 216~217, 235, 263, 266, 319, 411

보수 주

의 신

학 93, 97

보이어, 엘머 티모시(보이얼, Elmer Timothy Boyer) 370~371

보이어, 케네스 엘머(보계선, Kenneth Elmer Boyer) 370~371, 373

복음 11, 39, 92, 98~99, 101~103, 108~109, 111, 115, 120, 130, 134, 144~145, 148~149, 160, 166, 176, 197, 200~201, 203~205, 213, 215, 217, 224, 226, 234, 243, 246, 248~250, 252~255, 259, 269~270, 273, 275, 290, 293, 295~297, 299~300, 320, 323, 329~331, 337, 353, 355, 357, 359, 365, 372, 383, 392, 410, 415, 423~426

볼드윈, 루신다(Lucinda B. Baldwin) 215, 411

빌켈, 거트루드 엘리자베스 스왈른(Gertrude Elizabeth Swallen Voelkel) 292

빌켈, 해럴드 발렌틴(옥호열, Harold Valentine Voelkel) 290, 292~293

북텍사스엡워스청년회 326~327

브라운, 아서(Arthur Judson Brown) 159, 165, 285

브란난, 리먼(Lyamn Coy Brananan) 369

브란난, 미틀 바커(Myrtle Barker Brananan) 369

브루엔, 헨리(부해리, Henry Munro Bruen) 295

빈턴, 레티샤(Letitia Coulter Vinton) 321

빈턴, 메리(Mary Blanchard Vinton) 321

빈턴, 캐드왈러드(빈돈, Charles Cadwallader Vinton) 234, 246, 318, 320~323, 331

人

사경회 249, 254, 269, 280, 282~283, 285

사도 102, 357

사월교회 295

사회복음 98~99, 115

산정현교회 281

삼문출판사 211, 242

삼위일체론 94, 126

상동교회 218, 223~225, 286, 385

새문안교회(정동장로교회) 205~206, 329

- 서경조 137, 255
- 서광범 159, 172
- 서상륜 137~138, 205
- 서재필 172, 230
- 선교의 자유 56~57
- 선양 동관교회 134
- 성모마리아에 대한 신학 126
- 세계기독교선명회 355~356
- 세계 선교 107, 109~112, 114, 425~426
- 세계 선교·학생자원운동(SVM) 110~111, 113~116, 119~120, 147, 186, 274, 285
- 세브란스, 루이스 헨리(Louis Henry Severance) 10, 161, 180~185, 200
- 세브란스, 엘리자베스(Elizabeth Severance) 185, 340
- 세브란스, 존 롱(John Long Severance) 185
- 세브란스병원 180, 185, 198~199, 206, 234, 276, 303, 323, 326, 340~343, 364~365, 390, 412, 415
-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171, 203, 206, 279
- 송덕조 203
- 수문교회 286
- 숭실대학 255, 260, 269~271, 282, 290, 293
- 숭의여학교 260, 292
- 쉐핑, 엘리자베스 요한나(서서핑, Elisabeth Johanna Shepping) 302~306
- 스완슨, 미리암 361
- 스완슨, 에버렛(Everett Swanson) 359~363
- 스왈른, 샬리 윌슨(Sallie Wilson Swallen) 289
- 스왈른, 올리베트(소안엽, Olivette R. Swallen) 118, 292
- 스왈른, 윌리엄 리엔더(소안론, William Leander Swallen) 114, 118, 254, 281~282, 286, 288~293
- 스코틀랜드장로교회 39, 136, 205
- 스크랜턴, 메리 플레처(Mary Fletcher Scranton) 177, 213~218, 220, 225, 249, 263, 298, 319, 383, 408
- 스크랜턴, 윌리엄 벤턴(시란돈, William Benton Scranton) 177, 216~217, 219~226, 385, 411, 414

스 크 랜 턴, 윌 리엄 탈코트(William Talcott Scran- ton) 214~215	아펜젤러, 헨리 닷지(Henry Dodge Appenzeller) 212
스팀슨, 찰스(Charles S. M. Stimson) 171	아펜젤러기념관 179, 212 아현감리교회 223
스팀슨관 171	알렌, 호레이스 뉴턴(안연, Horace New- ton Allen) 9, 74, 119, 147, 157, 159, 165, 194~199, 201, 204, 213, 220, 228, 232~234, 236, 239, 275~276, 332, 340, 411
승동교회 277, 286, 390	
시병원 220~222, 224, 246, 411	
시블리, 존 로손(손요한, John Rawson Sibley) 344~348	알미니안주의 93~94
신화순 205	애덤스, 애니 로리(안애리, Annie Laurie Adams) 118, 272, 294
실전병원(거제건강원) 346	
쓰다 센(津田仙) 141	애덤스, 에드워드(안두화, Edwards Adams) 118, 297
○	애덤스, 제임스 에드워드(안의와, James Edwards Adams) 118, 120, 269, 294~297
아이비기념병원 309, 311	애덤스, 조지(George J. Adams) 118, 297
아펜젤러, 앨리스 레베카(Alice Rebecca Appenzeller) 212	애오개 시약소 223, 414
아펜젤러, 엘라 제인 닷지(Ella Jane Dodge Appenzeller) 212	야콥센, 안나 페트리아(아각선, Anna Peterea Jacobson) 322~325
아펜젤러, 헨리 거하드(아편설라, Henry Gerhard Appenzeller) 118, 120, 143, 147~148, 150, 177, 179, 204, 207~212, 218, 242, 400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 165, 206, 212, 231, 236~237, 243, 265, 267, 279, 301, 317, 321~322, 328

- 언더우드, 릴리어스 스티링 호턴(호돈, Lillias Sterling Horton Underwood) 165, 170, 244~251, 332
- 언더우드, 에텔 반 와그너(Ethel Van Wagner Underwood) 250~251, 349
- 언더우드, 존 토머스(John Thomas Underwood) 10, 69, 74, 120, 143, 147, 162~165, 167~172, 182~183, 198, 247
- 언더우드, 호레이스 그랜트(원두우, Horace Grant Underwood) 147, 165, 167, 170, 200~206, 247~251
- 언더우드, 호레이스 호턴(원한경, Horace Horton Underwood) 120, 250~251, 349~352, 397, 400
- 언더우드관 172, 250
- 에드먼즈, 마거릿(Margaret Jane Edmunds) 265
- 에디, 셔우드(Sherwood Eddy) 209
- 에비슨, 올리버(어비신, Oliver R. Avison) 113, 120, 171, 180~182, 199~200, 203, 206, 247, 276~277, 322~324, 332, 400, 415
- 엘러스, 애니(Annie J. Ellers) 165, 227~231, 246, 249
- 엘린우드, 프랭크 필드(Frank Field Ellinwood) 160, 165, 182, 201, 213,
- 244, 264, ,248, 275, 277
- 여성해외선교회(WFMS) 215~218, 264, 408
- 연동교회 286, 329
- 연희전문학교 120, 171, 183, 200, 202~203, 206, 271, 349~350, 352, 398
- 영신학당(현 협성대학) 205
- 영아 소동 246
- 올링거, 프랭클린(Franklin Ohlinger) 211
- 와이스, 어니스트(Ernest Walter Weiss) 340~343
- 와이스, 힐다 세이터(Hilda Weiss) 341~342
- 워커, 루이스(Lousie Walker) 301
- 원산 대부흥 운동 286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64~366
- 윌리엄슨, 알렉산더(위럼신, Alexander Williamson) 130, 132~133
- 유니테리언(자유주의자) 94~95
- 유승흠 345~346
- 윤치호 119, 198, 230, 299~300,

310~312, 399, 419

은혜의 정원 297

이기풍 254~255, 291

이상재 230, 399

이수정 140~147, 150, 158

이승만 56, 110, 116~117, 119, 209~210, 230~231, 242~243, 357, 399~400

이용찬 134, 137~138

이일학교 305

이춘경 205

**ㅈ**

자유주의 신학 95~97, 104, 115

장대현교회 280~282, 284~285

장로교 91, 93, 96, 99, 105~106, 111, 114, 160~164, 173, 184, 202, 213, 225, 252~255, 257, 259, 271, 292, 351, 407, 409, 422

전국신학교연맹(ISMA) 147~149, 274

전덕기 385

전도 100~103, 105, 108~109, 126, 131, 133, 137, 139, 143~144, 148,

157, 174, 181, 204, 206, 210, 213, 215, 217, 224, 231, 236, 246~250, 253~254, 259, 269~271, 273~276, 281, 290~291, 293, 295~297, 299, 319~321, 323, 326, 328~330, 353, 355~357, 369, 371~372, 400, 405, 418

전킨, 매리 레이번(전마리아, Mary Leyburn Junckin) 330

전킨, 윌리엄 맥클리(전위럼, William McCleary Junckin) 330

정동제일교회 210~212, 220, 231

제주기독교의원 372~373

제중원(광혜원) 196~197, 199, 201, 206, 220, 228~229, 232~234, 236, 246, 259, 320, 322~323, 325, 340, 400, 411

제중원 원장 206, 234, 236, 247, 320, 323

조선기독교대학 202, 271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 265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307~309, 316

존스, 조지 헤버(조원시, George Heber Jones) 69, 173, 177

존슨, 에밀리(Emily Hartman Johnson)



328	186-190
존슨, 우드브리지(장인차, Woodbridge Odlin Johnson) 295-296, 319, 411	캠벨, 조세핀 이튼 필(강모인, 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298-301
존슨, 월터(Walter Virgil Johnson) 328	컴패션 361-363
중앙성서침례교회 338	켄드릭, 루비 레이첼(Ruby Rachel Kendrick) 326-327
주디, 마거릿 브란난(Margret Brannan Judy) 369	콜리어, 찰스(고영복, Charles T. Collyer) 311-312
주디, 칼 웨슬리(Carl Wesley Judy) 364-369	
지상 사명 100-101, 425	
<b>ㄸ</b>	<b>ㅍ</b>
차미리사 243	토당리교회(능곡교회) 205
창동교회 281	토머스, 로버트 제레미안(Robert Jeremian Thomas) 129-131
천주교 38, 42-46, 48, 56, 67, 125-126, 130, 418	토머스, 존(Thomas John) 379
초량교회 269	<b>ㅊ</b>
침례교 90-91, 105, 149, 177, 212, 338	판수 68-69
<b>ㅋ</b>	평양 대부흥 운동 280, 285, 287, 295, 309, 326
칼뱅주의 93-97, 104	평양장로회신학교(한국장로회신학대학교) 255, 258, 281
캠프, 히람(Hiram Camp) 10, 109,	포스터, 아이작(표수다, Issac Foster) 336-339

푸 트 ,  
루 시

우스(복덕, Lucius Harwood Foote)  
175, 195

현토 성경 143

프레더릭 언더우드 휴양소 170, 247, 249

홀, 로제타 셔우드(허을, Rosetta Sher-  
wood Hall) 217, 261~267, 313

프린스턴신학교 96, 268

홀, 셔우드(Sherwood Hall) 264, 267,  
313~317

피어스, 로버트 윌러드(Robert Willard  
Pierce) 353~358, 412

홀, 윌리엄 제임스(하락, William James  
Hall) 114, 120, 262~263, 267,  
313~314, 320, 332

ㅎ

휴 오닐 2세 기념 진료소 246

하워드, 메타(Meta Howard) 163,  
217~218, 235, 263, 320

한국컴패션(Compassion Korea) 362

한글 성경 135, 138, 203, 416, 418

해주구세병원(노튼기념병원) 315~316

행당성서침례교회 338

행주교회 205

헨버트, 호머 베자릴(환보, Homer Beza-  
leel Hulbert) 69, 198, 228, 238~243,  
417

헤론, 사라 안(Sarah Ann Heron)  
236~237

헤론, 존 윌리엄(헤론, John William  
Heron) 157, 165, 232~237, 246,  
319~320, 323

## **The Contributions and Lessons of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83)**

**Byeong-Ho Gong**

(Director, Gong Institute)

This book takes a fresh look at the activities of Protestant missionaries, more specifically the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ir contributions to modern Korean history. Horace Newton Allen (1858~1932), an American doctor, first set foot on the Korean peninsula in 1884 as a missionary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It is estimated that over 3,000 foreign missionaries were sent to Korea within the century since his arrival. The numbers were especially high between 1884,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totaling 1,063 emissaries of the Christian gospel. Most missionaries left before 1940, when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forced its subjects to pay homage to the Emperor at Shinto shrines. During this time, over 80 percent of all missionaries were from America, while

the rest consisted of Canadians and Australians. The numbers dispatched to Korea were far less than those sent to India, China or Japan, but their influence was greater than in any country in the world.

Therefore, this book divides the history of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into two parts: the first looks into the early days starting from 1884 to the colonial era, while the later focuses on Korea after its independence and into the 1980s. The readers will learn how the American missionaries entered Korea, what they accomplished, and their legacy to modern Korea. The book contains seven chapters in total. Chapter One draws a vivid picture of Korea in the time the missionaries arrived. Chapter Two depicts America's political environment, economy, and the positions of different denominations in the late 19th century. Chapter Three explains how Protestantism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people. Chapter Four highlights major donors and contributors who backed the missions. Frederick Marquand, Daniel Wilkin McWilliams, John Thomas Underwood, John Franklin Goucher, Louis Henry Severance, and Hiram Camp, all mentioned in this chapter, are historic figures who have not previously received the attention they deserve. Chapter Five introduces twenty early missionaries and martyrs such as Horace Newton Allen, Horace Grant Underwood, and Henry Gerhard Appenzeller. Chapter Six focuses on the lives and trials of Isaac Foster, Ernest Walter Weiss, and six other notable American missionaries. Lastly, Chapter Seven enumerates fifteen positive influences the American missionaries have had on Korean society under the title Lessons and Legacy.

The Protestant church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Korean psyche, far beyond what meets the eyes. It is the bedrock of Korean economy, politics, and culture that defines the country to this day. In this book, 15 lessons and legacy bequeathed by the church are outlined.

### **First, A Spiritual Gift**

The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he Korean masses break free from superstition, fear, and uncertainty. Protestantism brought much needed change in the spiritual lives of people who had been bound up by shamanism and idol-worship.

### **Second, Escape from Poverty and Hardship**

The missionaries helped the Korean people overcome generations of absolute poverty. The Bible gave the new believers hope and the willpower to persevere in times of great difficulty. Missionaries offered an inner place of refuge, something that gave Korean people the motivation and aspiration to carry on through the grimmest reality.

### **Third, The Conscious Individual**

Missionaries introduced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to the Korean people. Protestant belief installed the new idea of healthy individualism that promoted self-reliance, independence, and control over ones' destiny.

## **Forth, The Deconstruction of Rigid Social Classes**

Protestant Christianity played a major role in dismantling Korea's deep-seated social class system. The fact that people from different social castes could worship together was revolutionary at the time. The new belief taught the people that equality permeated all facets of life, both private and public.

## **Fifth, Promoting Nationalism**

Missionaries taught believers to fight and overcome unjust Japanese rule. Whether it was intended or not, the schools the missionaries founded became the cradles for self-conscious, free, and independent young adults. Reading the Bible in itself promoted nationalism among the people.

## **Sixth, The Foundation of a Nation and its Identity**

The missionaries made it clear that freedom of religion was only possible in a free society: this was quite a feat considering how liberal democracy and the free market economy in Korea were only realized between 1946 and 1948, thanks to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hoosing certain policies. The second generation of American missionaries played an integral role in these decisions, as well as the Protestant personnel who recommended them.

## **Seventh, Grooming Future Leaders of the Nation**

Protestant missionaries played a massive role in grooming future leaders of early Korea. For instance, Rhee Syngman,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studied at Pai Chai Academy, founded by Henry Appenzeller. Many other historic figures from this era were educated at ‘mission schools.’ An amazing 20 to 40 percent of secondary level education was provided by missionary schools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Chosen Christian College, Ewha Womans University, and Soongsil University produced upwards of 4,000 of all highly educated individuals in Korea at that time. All four of these schools were founded and run by Christian churches.

## **Eighth, Intimate Political Ties with the USA**

The missionaries established close ties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erms of education, personnel, trade, and more. Political ideas and trends that caught the world by storm after the Second World War were largely driven by ambitious ruling elites. Korea was able to discern its own path in times of turmoil thanks to missionary religious leaders.

## **Ninth, Encouraging the Spread of Modern Civil Society**

Biblical teachings spread core values important to modern civil society. In fact, the Bible spread much faster than the influence of missionaries themselves; consequently, some call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Bible Christians.’ *The Lord’s Prayer* and the

*Apostle's Creed*, as well as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other short catechisms were translated soon after the missionaries first set foot on Korean soil. Over sixty evangelical tracts were widely circulated from 1890 to 1900. The subjects ranged from conventional Christian topics such as theology, Christology, and pneumatology, even deep-seated Korean conventions such as ancestor worship and male chauvinism. The new religion stood toe-to-toe against Korea's feudal customs and social contradictions through publications, spearheading a revolutionary movement that would go on to reshape Korean society.

### **Tenth, Building Schools for Higher Education**

Missionaries established facilities for higher education which later became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schools in the nation. Whether it was Pyongyang or Seoul, a school was erected wherever there was a base of missionary operations. These schools were almost always funded by wealthy Americans who happily donated large sums of money to purchase a site or construct school buildings. For instance, there were 139 primary schools found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alone in 1905, 238 in 1906, 405 in 1907, and 542 in 1908.

### **Eleventh, Introduction of Western Medicine**

Not only did the missionaries establish Western hospitals, many of which are major medical centers today, they groomed aspiring Koreans to become medical professionals as well. Medical



missionaries hailing from the United States always followed the same formula: they would purchase a private home at the center of administration and politics in a given region and renovate the building into a clinic. Once the clinic had enough patients, it was upgraded into an independent hospital. It is worth mentioning that philanthropists willing to donate large sums of money stepped forward each time a clinic required an upgrade. Many of these hospitals were named in honor of the benefactor. It is safe to say that modern Korean hospitals were not founded by the missionaries alone, but with the help of great patrons.

### **Twelfth, Embracing the Untouchables**

Missionaries did not leave out the poor and the mistreated. Their good works shed light on a modern concept still alien to Koreans of that era-human rights. For instance, some of the missionaries rushed to establish a treatment center for lepers as soon as clinics went into full swing. Medical missions were also the first to introduce a rehabilitation center for those recovering from leprosy.

### **Thirteen, Improving Literacy**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Bible written in Hangeul helped eradicate illiteracy. Missionaries played a pivotal role in reviving, refining, and distributing the Hangeul alphabet. The goal was to make the Bible and religious tracts readable to everyone. There was a consensus that the educated must lead the way in spreading the word of God. Such efforts increased the

use of Hangeul and improved overall literacy rates throughout the country.

### **Fourteenth, A Shield Against Communization**

When the Korean peninsula came under threat of communization during the Cold War there was a large number of people who supported such a process. This created a rift in the country's already volatile political scene. The Protestants formed a bulwark against ideological discord. The seeds sowed by the missionaries prevented South Korea from becoming a communist state.

### **Fifteenth, A Missionary Powerhouse**

The missionaries created a powerful ally in the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here are currently approximately 27,000 Korean missionaries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a number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This statistic is remarkable considering the size of Korea's population and economy. The American Presbyterian and Methodist churches expended fewer resources in Korea than they did in Japan, India, or China, but the mission was far more effective in Korea than anywhere else.

## Table of Contents

---

### **Preface: Preparing for the Future by Remembering the Past**

### **Chapter One: 19th Century Korea**

1. The Beginning of the Age of Imperialism
2. Conflict Between “Hermit Kingdom” and Modernization
3. The state of Korea

### **Chapter Two: The Protestant Church in 19th Century United States**

1.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2. The Protestant Church in the 19th Century
3. A New Era for American Protestantism

### **Chapter Three: History of Missionaries on the Korean Peninsula**

1. The Origins of Christianity
2. Protestant Roots and American Missionaries

### **Chapter Four: The Benefactors**

1. Frederick Marquand (1799~1822)
2. Daniel Wilkin McWilliams (1837~1919)
3. John Thomas Underwood (1857~1937)
4. John Franklin Goucher (1845~1922)
5. Louis Henry Severance (1838~1913)
6. Hiram Camp (1811~1893)

## **Chapter Five: Early American Missionaries:**

1. Horace Newton Allen (1858-1932)
2. 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3.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
4. Mary Fletcher Scranton (1832-1909)
5. 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
6. Annie J. Ellers (1860-1938)
7. John William Heron (1856-1890)
8. 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9. Lillias Sterling Horton (1851-1921)
10. 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11. 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
12. William Martyne Baird (1862-1931)
13. Samuel Foreman Moore (1860-1906)
14. Graham Lee (1861-1916)
15. William Leander Swallen (1859-1954)
16. James Edward Adams (1867-1929)
17. 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1853-1920)
18. 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
19. Wightman T. Reid (1883-1954)  
and Clarence Frederick Reid (1849-1915)
20. Sherwood Hall (1893-1991)
21. Early Martyrs
22. Untold Stories

## **Chapter Six: Later American Missionaries**

1. Isaac Foster (1925-2010)
2. Ernest Walter Weiss (1908-1984)

3. John Rawson Sibley (1926~2012)
4. 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
5. Robert Willard Pierce (1914~1978)
6. Everett Swanson (1913~1965)
7. Carl Wesley Judy (1918~2008)
8. Kenneth Elmer Boyer (1930~ )

## **Chapter Seven: Lessons and Legacy**

First, A Spiritual Gift

Second, Escape from Poverty and Hardship

Third, The Conscious Individual

Fourth, The Deconstruction of Rigid Social Classes

Fifth, Promoting Nationalism

Sixth, The Foundation of a Nation and its Identity

Seventh, Grooming Future Leaders of the Nation

Eighth, Intimate Political Ties with the USA

Ninth, Encouraging the Spread of Modern Civil Society

Tenth, Building Schools for Higher Education

Eleventh, Introduction of Western Medicine

Twelfth, Embracing the Untouchables

Thirteen, Improving Literacy

Fourteenth, A Shield Against Communization

Fifteenth, A Missionary Powerhouse

## **Epilogue: A God-sent Gift to Modern Korean History**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초판 1쇄 발행 2018년 10월 30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10월 30일

지은이 공병호

펴낸이 공병호

펴낸곳 공병호연구소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614-29

출판신고번호 제2018-000118호

신고연월일 2018년 7월 11일

전화 02-3664-3457 / 010-9004-0453

이메일 gong@gong.co.kr

홈페이지 www.gong.co.kr

ISBN 979-11-965092-0-0 03230

값 18,000원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8032860)

판매·공급 |

전화 | 031-927-9279

팩스 | 02-2179-8103

# 미국 선교사들이 기여한 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현재를 잘 살아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우리의 과거사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선교사들에게서 도움 받은 이야기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누군가의 희생이나 헌신 없는 오늘과 미래는 없다는 점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의무보다는 권리를, 책임보다는 혜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 가져야 하는 것을, 내일보다는 오늘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란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빛도 영광도 대가도 없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다. 오지나 다름없었던 이 땅에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까지 바쳤던 선교사들의 삶에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머리말’ 중에서

값 18,000원

ISBN 979-11-965092-0-0 03230



## | 공병호의 최근작 |



### 무기가 되는 독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 크리스천의 자기경영

성경대로 사는 것이 답이다



### 불안한 평화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한미 관계 전략



### 다시 쓰는 자기경영노트

나를 경영하는 9가지 지혜

## | 평전의 새로운 지평 |



### 김재철 평전 (동원그룹·한국금융지주 창업자)

파도를 헤쳐온 삶과 사업이야기 (양장)



### 이용만 평전 (전 재무부장관·전 신한은행장)

모진 시련을 딛고 일어난 인생이야기 (양장)